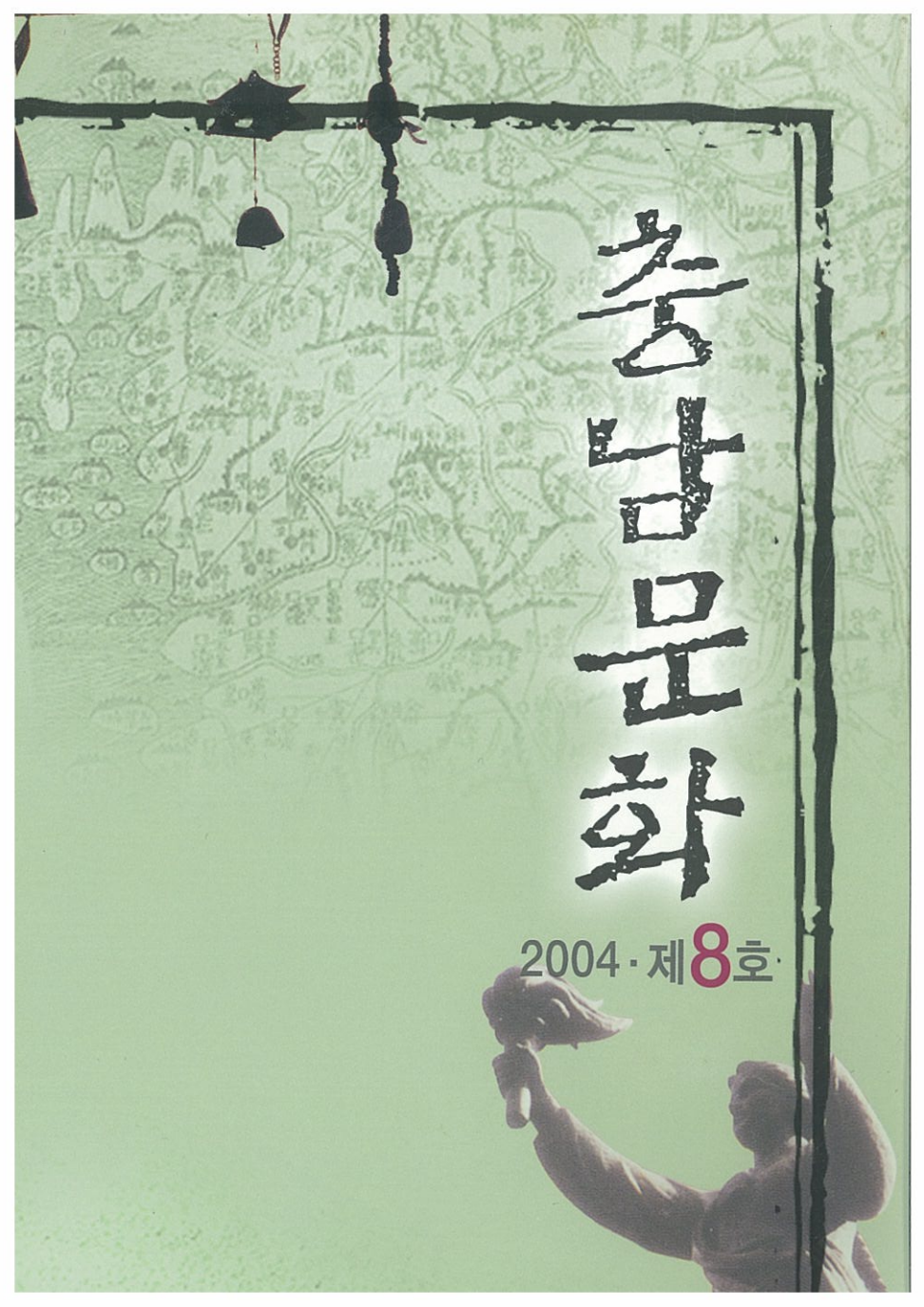


The background is a light green color with a subtle, repeating pattern of traditional Korean motifs, including stylized mountains, trees, and figures. At the top, there are dark, vertical decorative elements that look like traditional Korean tassels (norigae) hanging from a horizontal bar.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thick, dark vertical line that runs from the top to the bottom of the page.

충남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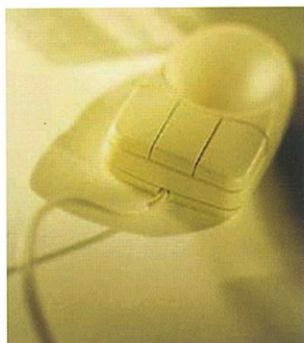
2004 · 제8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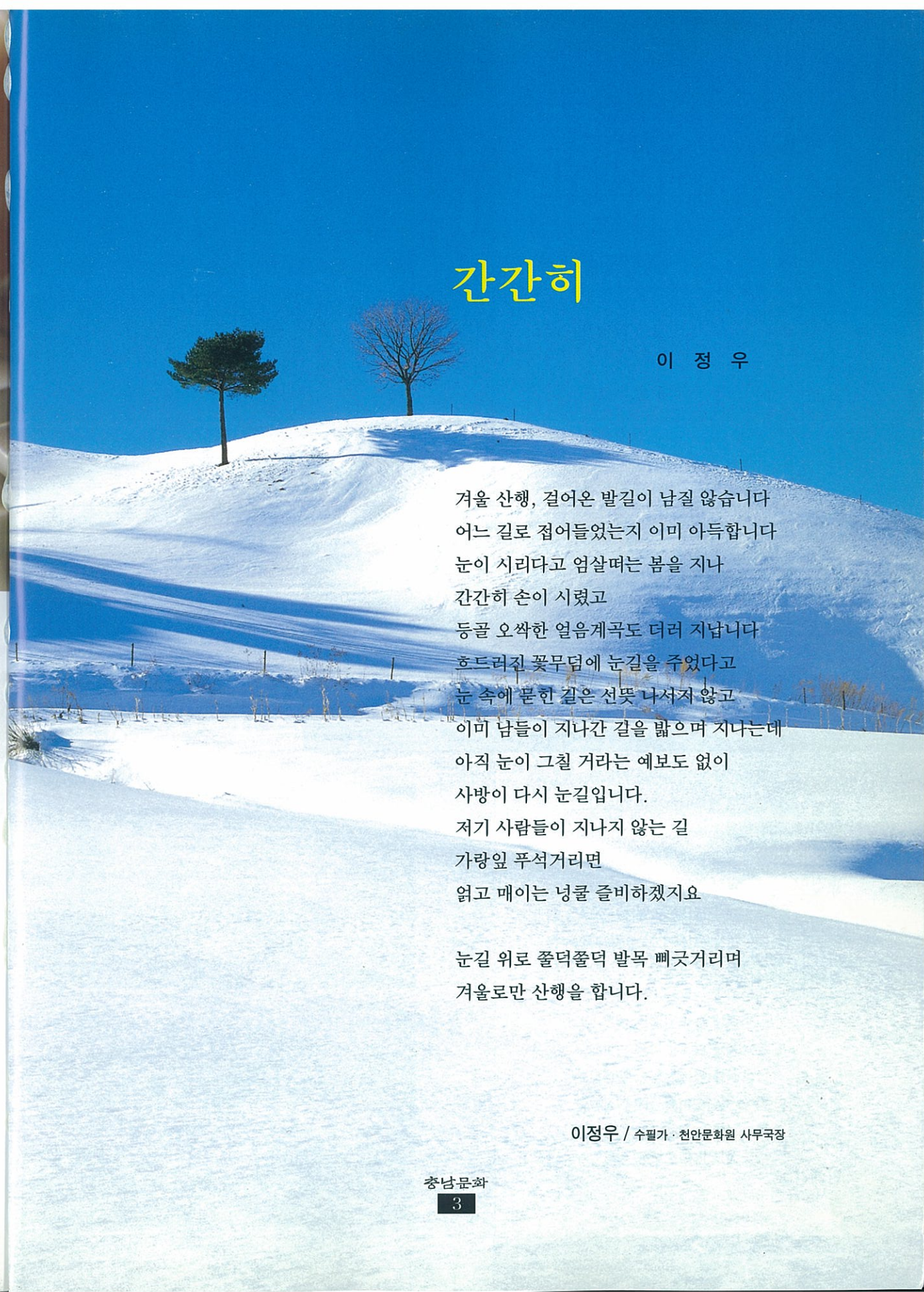


www.cult21.or.kr

충남도민들이 지역문화원에
보다 가깝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천안·성환·아우내·공주·서산·대천·온양·예산·홍성
서천·금산·논산·조치원·당진·부여·청양·태안문화원



간간히

이 정 우

겨울 산행, 걸어온 발길이 남질 않습니다
어느 길로 접어들었는지 이미 아득합니다
눈이 시리다고 엄살떠는 봄을 지나
간간히 손이 시렸고
등골 오작한 얼음계곡도 더러 지납니다
흐드러진 꽃무덤에 눈길을 주었다고
눈 속에 묻힌 길은 선뜻 나서지 않고
이미 남들이 지나간 길을 밟으며 지나는데
아직 눈이 그칠 거라는 예보도 없이
사방이 다시 눈길입니다.
저기 사람들이 지나지 않는 길
가랑잎 푸석거리면
엷고 매이는 넝쿨 준비하겠지요

눈길 위로 쫄덕쫄덕 발목 빼긋거리며
겨울로만 산행을 합니다.

이정우 / 수필가 · 천안문화원 사무국장

충남문화

3



충남문화 제8호

발행일자
2004년 12월 15일
발행인
민 병 달
편집인
이 정 우
편집위원
박노을 박응진 신상찬 신정교 윤병배 양수철
이진자 이하영 장 영 장영석 정우영 정재권
정재욱 정정희 조성민 송용삼

발행처
전국문화원연합회충남도지회
330-935
천안시 성정동 694-7 <041>575-3004 FAX 577-3004

인쇄처
도서출판 한국문화

Contents

NO. 2010-10

2004 · 제8호

10	담	차	개	우
년	당	월	일	월
1		18		
월		일		

태안문화원

- 006 권두언
문화 전쟁 시대 / 민병달
- 008 축간사
충남의 정체성을 만드는 문화의 전진기지로 / 심대평
문화의 주체성 확립으로 향토문화 발전을 / 박동운
- 012 기획특집
① 주5일 근무제, 생활문화의 새로운 창구 / 이홍재
② 공격적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절실하다 / 김규원
③ 주5일 근무와 내일의 여가문화 / 김창수
④ 여가문화 어디로 가야 하나 / 한준상
- 032 집중조명
① 축제문화 재편과 축제만들기 프로젝트 / 임정희
② '우리들의 축제' 시공간 전략 / 윤성진
③ 성공하는 문화관광 축제만들기 / 이각규
④ 놀이 문화와 축제, 그 신명의 원리 / 조성진
- 048 특별기고
21세기 청소년 문화운동의 새로운 지평 / 임광진
- 052 포커스
제33회 '문화의 달'을 맞이하며 / 박영대
- 058 충남 꼭 가봐야 할 15곳
- 072 해외문화탐방 / 중국 주요도시 순례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둘러보고 / 정정희
- 080 남도문화체험 / 순천, 강진, 해남, 진도, 목포순례
남도의 문화를 둘러보고 / 이정우
- 088 2004 충남의 향토 축제
140여전 백제의 숨결 깨어나다 등 충남도내 향토축제

- 129 충남의 인물
· 충신 변응정 · 김용중
- 133 충남의 전설
· 안국사지 배바위
- 135 충남의 문화재
불교문화유산의 보물창고, 용봉산
삼의사
서산마애삼존불상
- 147 충남의 향토축제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제8회 추사문화제
제6회 가족과 함께 하는 거리영화제
강정갯길축제
기지시 줄다리기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 168 충남의 향토사 연구
읍·면제도의 유래 / 정우영
서산시가지의 기능지역 분화에 관한 고찰 / 리명구
- 190 2004년 충남도지회 활동상황
2004년 천안문화원 활동상황
2004년 아우내문화원 활동상황
2004년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2004년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2004년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 215 2004년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2004년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2004년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2004년 부여문화원 활동상황
2004년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 230 2004년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2004년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2004년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2004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 243 2004년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민병달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장

문화전쟁 시대

21세기가 되면 문화전쟁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 말은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세계의 석학들이 내다본 말이었다.

이제 21세기는 다가왔고 문화전쟁시대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 그래서 21세기를 문화예술의 세기라고 말들을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보고 다짐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다.

첫째, 우리는 한국전쟁이라는 물리전쟁에서 당한 뼈아픈 상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통에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평생을 눈물 마를 날 없이 살아가는 할머니들이 즐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생사 소식조차 모르며 안타까이 늘어 가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우리는 너무나 흔히 보아 이제는 감정마저 무디어 간다. 얼마 전, 분단 50년 만에 어렵게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에 7,000만 민족이 설레는 가슴을 쓸어가며 밤잠을 설쳤었고,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 한반도에 집중되었던 것만 봐도 우리는 물리전쟁의 최대 희생국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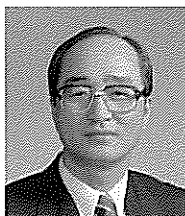
둘째로, 경제전쟁이다. 물리전쟁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1997년 11월 IMF 구제금융이라는 또 하나의 커다란 치욕적 상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이 수없이 넘어가고 아파트에 한 집 건너 한 집씩 가장이 직장을 잃어 기쁜 일이 있어도 옆집이 눈치 보여 큰 소리로 웃지도 못하면서 숨죽이며 살았던 때도 있었다. 사랑하는 처자식 보기 민망하여 차라리 가출해 버리는 눈물겨운 사연도 있었다.

셋째로, 이제 중요하게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접하고 있는 문화전쟁 시대다. '문화란 인간들이 살아가는 틈바구니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유·무형의 어떤 것' 이라고 프로이트는 말하고 있다. 요즘 우

리가 살아나가는 의식주 문화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 부분 미국이나 일본 문화에 깊이 젖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문화전쟁 시대에 들어와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 꽤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국제감각에 뒤떨어져도 상관없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흔히들 말하는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만의 것을 키우는 것 이상의 경쟁력은 없다.

우리 충남이 중부권의 핵심권으로서 신행정수도로 지목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각자의 고장이 모두가 꿈꾸는 문화복지의 선진 도시를 이룩하려면 우리 고유의 문화를 좀더 적극적으로 내세워야 한다. 도민과 행정기관 그리고 학계가 모두 힘을 모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고유문화를 좀더 찾아내어 발전시키려는 마음을 지금보다 더 크게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그렇게 하여 우리 충남만이 갖고 있는 특성화된 문화를 찾아 질 높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도록 할 때에 비로소 우리 충남은 대한민국에서, 또한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다고 본다.

지난 세월, 6·25 한국전쟁이라는 물리전쟁에서의 아픔과 IMF 구제금융이라는 경제전쟁에서의 치욕을 교훈 삼아 무한경쟁으로 치열해져 가는 문화전쟁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신중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본다.



심 대 평
충청남도지사

충남의 정체성을 만드는 문화의 전진기지로

지금은 정보화 사회이고, 삶의 질을 요구하는 사회이며,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문화현상과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능력배양과 자신이 필요로 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식의 고양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한 세대가 돈을 벌면 다음 세대는 권력을 추구하고 그 다음 세대는 예술에 몰두한다는 토마스 만의 말처럼, 우리의 20세기가 경제와 정치의 시대였다면, 이제 21세기는 그 터전 위에서 문화의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은 이념에 의해 전쟁을 치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만에 그들은 반도체나 자동차로 싸우고, 자본과 정보력으로 싸우는 등 결국 문화로 대결하는 양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걸친 여러 차원의 일관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화가 정신과 도덕에 연결되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문화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은 미래사회의 국가 경쟁력 신장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국가마다 초미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창작과 향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문화예술은 경제 정치 등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중앙집중화 폐해가 심각합니다. 중앙이 매체를 장악하고 유통구조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의존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지방문화는 중앙집중의 획일적인 경향을 벗어나 지역마다의 자생적인 풍토가 반영된 것이어야 합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란 괴테의 말을 인용할 것도 없이 모든 문화예술은 그 고장의 자연적, 사회·경제적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학을 내세우는 경상도에서 서도라고 부르는 것을 예항이라 일컫고 있는 전라도에서는 서예라고 부르는 것이 어찌 우연이라고 할 것입니까. 예술이 이런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르나. 이런 문화적 차이 혹은 문화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지방의 특성에 맞게 체계화하며, 발전할 수 있는 가장 보편타당한 문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발굴 개척해야만 합니다.

이제 충남은 세계를 향한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는 충남의 정체성을 뿌리내리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는 출발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소모적이고 시행착오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행정과 정책,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대한민국의 맨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로서, 과학 기술의 메카로서,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서, 그리고 선비사상의 뿌리를 이어가는 뛰어난 문화를 지닌 자랑스런 충청남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15개 시·군마다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진정 중앙집중의 획일화에서 벗어나, 모두가 골고루 문화의 혜택을 누리며, 21세기 문화국민으로서 긍지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남도의 문화 정보지인 '충남문화'를 알차고 유익하게 펴내신 민병달 지회장님과 도내 문화원장님, 문화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 동 윤
충청남도의회 의장

문화의 주체성 확립으로 향토문화 발전을

우리고장 지역문화 창달의 구심체 역할을 다해 오고 있는 전국문화원 연합회 충남도지회에서 「충남문화」 제8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지역 문화 부흥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민병달 문화원연합회도지회장님을 비롯한 시·군지역문화 원장님과 문화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들 21C를 문화의 세기로 일컫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성숙한 선진국들을 보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고른 발전을 하면서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택한 삶은 빵만으로 성취 될 수 없습니다. 문화는 곧 삶의 활력소이며 윤택유인 것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수도권과 과밀화의 폐단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정치·행정·교육 등이 중앙에 집중돼 있는 나라 도 드물며, 특히 그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문화적 측면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것도 문화적 혜택을 누리려는 욕구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 고유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의 확충도 기하는 한편 새로운 문화자원의 발굴 노력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문화는 홀로 피는 꽃이 아니라 정치·경제 등과 맞물려 복합적으로 피어나는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는 정신을 맑고 아름답게 하는 생활속의 꽃입니다.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의 꽃이 필때 그 지역주민은 더욱 여유롭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문화원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문화적 주체성을 살리고 향토 문화를 계승발전 시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의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갔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충남문화」 제8호가 충남도민들에게 알차고 유익한 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지 발간을 축하드리며,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도내 문화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주5일 근무제, 생활문화의 새로운 창구

이 흥 재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실장



☐ 문화관광에 일차적 영향, 새로운 패턴이 선보일 것

여가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지 개인의 주체적인 생활시간이 늘어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다. 개인에게는 주체적인 생활시간이 증가

되어 여유 있고 풍요로운 생활로 '삶의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음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데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문화단체들이 '활동의 장'을 마련해야 새로

지난 5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문화관광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주최한 이 토론회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주5일제 도입과도 연계돼 문화, 관광, 체육,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편집실은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이흥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실장의 발제 내용과 12명의 토론자가 벌인 토론 내용을 정리한다. 토론 정리는 김규원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이 맡아주었다.

- 편집자주

운 지역사회 만들기에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외식·전통문화산업 등 관련 문화산업이 발달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정규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매주 당 650만일의 새로운 자유여가시간이 증대하는 꼴이 되니 경제사회적 활력이 창출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이렇듯 전대미문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문화관광분야에서 우선 가

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매주 1일씩 정기적으로 놀아본 경험이 없는 우리로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우선 사회 풍토나 개인 여건의 변화가 예상된다. 노동이 선이고 여가가 악이던 여가관이 긍정적, 적극적으로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게에서 여가 오락에 사용하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여가생활에 소비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가게지출 중 교양오락비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담이 동반될 것이다. 또한 자유로운 이동이나 인터넷을 통한 여가정



주5일 근무제는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하므로 생산적 여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보 활용이 극대화됨에 따라 자연히 여가상품의 질적 수준이 높아져 경쟁력 있는 상품만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여가시간을 문화생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부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데 문화예술 감상 기회와 문화예술 창작 참여가 늘어나면서 관광도 자연관광 위주에서 문화관광으로 위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급 측면인 문화 서비스가 다양화·세분화될 것은 자명하다. 생활권 문화시설과 문화예술단체가 증가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생활에 접근' 하기 위한 기회가 많아지게 될 것으로 희망한다.

이렇게 되면서 여가생활에 새로운 패턴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민간 프로그램이 차별화되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울러 생활권 내 또는 원격 문화활동, 짧은 시간단위에서 2일단위 프로그램, 실내 및 야외 프로그램, 고가 및 저가 프로그램, 유료 및 무료 프로그램, 주간 및 야간 프로그램 등으로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문제는 없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을 소화해낼 만큼 우리의 여가문화시설이 충분하냐는 것이다. 여가 희망자가 급증하는 데 따라 생활

우리의 여가문화시설이 충분한가, 여가 희망자가 급증하는데 따라 생활권 인접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고,

비용절약용 테마형 관광시설 및 중저가 숙박시설도 턱없이 모자랄 것이다.

문화시설 추가근무 종사자와 문화활동을 지원할 문화 촉매요원 부족도 당장 걸림돌이 된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문화소비 소외층과 문화생활 격차 발생의 우려다.

나타나지 않을까. 비용 소모보다는 시간 소비적 여가 행태, 참가보다는 관람형, 독창적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프로그램 모방형 여가생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창조형, 프로그램 제작형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자연히 다양화·차별화되고 문화와 연계시킨 소비·외식·건강·미용·스포츠·문화관광·가족동반·대중문화 우선적인 여가 소비가 필연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그 와중에서 수요자층의 다양한

권 인접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할 것은 자명하고, 비용절약용 테마형 관광시설 및 중저가 숙박시설도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 관리 담당자의 문제도 큰데, 문화시설 추가근무 종사자와 문화활동을 지원할 문화 촉매요원 부족이 당장 걸림돌이 된다.

그 외에도 불안정한 여가생활이 우려되는데, 자발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경마나 카지노 등 시간 소비 및 사행성 오락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창의력을 키우는 데 여가시간이 활용



여가시간이 증대되면서 관광도 자연관광에서 문화관광 위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가상품도 질적 수준이 높은 경쟁력 있는 상품만 살아남을 것이다 (사진은 서산해미읍성 역사 체험 축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타깝기까지 하다.

이쯤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문화소비 소외층과 문화생활 격차 발생의 우려다. 대도시, 여유층, 정규 근로자, 남자, 미혼자들이 대량 활용하겠지만 그 반대층은 상대적 소외감을 가질 것이다. 시간 및 소득 여유 정도에 따라 생겨날 여가활동의 빈부 격차 현상을 외면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주5일 근무제는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인 만큼 소모적인 여가보다 생산적인 여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들은 무엇일까.

첫째, 기본 인식과 지향 목표를 긍정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전대미문의 경험이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의 취지, 각 생활단위(가정·학교·지역사회·문화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인식을 새롭게 계발하고 역할 분담을 통한 상호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 등은 여가수요에 필요한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은 여가시간이 낭비로 흐르지 않고, 지식정보사회의 창조적 문화 역량 축적 계기로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둘째, 사회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주5일 근무제의 의의·취지에 대한 이해, 적극 활용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문화시설·정보의 충분한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식이나 경험 없이도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여가생활을 도와줘야

한다. 한편으로는 여가시간의 낭비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 질서의 규제 강화도 준비해야 한다.

셋째, 시설 및 공간 관리의 문제다. 각종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의 경감을 위한 지원이나, 도서관 활성화 및 도서 구입, 문화시설 종사인력 교육 및 체계적 육성이 요망된다. 생활권 소문화공간의 확충과 기존 공공시설의 주말 문화공간, 체육공간화를 통해 공간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유원지 등 관광시설의 안전성·쾌적성 제고를 통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다. 관객지원제도인 '사랑의 티켓' '푸른 음악회' 등의 확대를 통해 참여 기회를 활짝 열어주어야 한다. 특히 소외계층인 장애인·빈곤층·노인·여성용 프로그램과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여행상품, 스포츠 상품 등의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질적 저하를 막아야 한다.

다섯째, 지역단체, 문화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 및 체육동호인 조직을 전문 클럽화하고, 자원봉사단체·아마추어 예술단체를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축매의원·문화지도자·해설사 등을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가족단위활동이 늘어날 것이므로 시설 이용 가격할인티켓 운영 제도를 적극 검토할 만하다.

여섯째, 이러한 막대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노력을 위해

조직이나 조례 마련이 시급하고, 이와 더불어 문화단체의 문화협동을 유도하는 교육이 요구된다. 유원지·위락공간·공영경기장 관리 등의 관리 규제법을 강화하면서 가능하면 체육시설 이용료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주5일 근무제 특수가 정착될 때까지의 지원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 프랑스 주40시간제와 일본 주휴2일제

선진국들이 여가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해서 다양한 문화정책을 펼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 중에서 모범사례로 소개할 만한 것은 역시 '생활문화대국'인 프랑스의 주40시간제 도입(1936년 당시)에 직접 관련된 정책들이다.

여기에서 문화대중화정책을 집중 실시하고, 문화운동 활성화의 시초를 여는 계기로 활용하며,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에 나선 것도 이 때부터다. 특히 정부의 공공도서관협회 지원, 박물관 야간개장 실시, 지역단체의 문화운동 지원의 적극 추진 등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

일본의 경우 1997년 주휴2일제 도입과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생활 속의 문화활동이 확산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1995년에 쌍휴일제 도입으로 체육시설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각종 체육 프로그램을 집중 개발한 사례가 있다.

기타, 문화 선진국들이 꼭 주40시간 근무제와 관련이 없더라도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참조할 만하다

공격적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절실하다

김 규 원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 전문가, 현장 종사자 한자리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토론회의 각 분야별 지정 토론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 청소년 분야의 관련 전문 연구원들, 현장의 관계자 그리고 관련 협회 대표 및 관련 인사들이 참가했다.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각 분야의 문제점,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 현실에 기반을 둔 토론과 발표를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었다.



여가시간 증대가 저절로 활성화된 문화의 생활화로 이끌지는 않다고 보고
오히려 이를 위하여 철저하면서도
세부적인 준비 및 정책 실행, 지원 등이 마련돼야 건전하면서도
발전적인 문화를 통한 여가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관광부 내에 전담 부서로서 생활문화관 신설이 필요하다.

진행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한자리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을 하기 위하여 세 번의 라운드로 나뉘어졌다. 첫째 라운드는 관련 연구기관의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정책을 연구한 연구원들의 의견, 두 번째는 현장에서의 각종 문제점 및 전망, 요구사항 등의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각 관련 협회의 현실성 있는 의견들이 어우러졌다.

첫 번째 라운드의 문화분야는 필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여가시간 증대가 저절로 활성화된 문화의 생활화로 이끌지는 않다고 보고 철저하면서도 세부적인 준비 및 정책 실행, 지원 등이 마련돼야 건전하면서도 발전적인 문화를 통한 여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문화정책이 기존의 기타 중장기 계획과는 다른 성격과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

첫째, 여가시간 확대에 관한 연구나 사업은 단기적인 부분을 중시해야 하고 두 번째 문

화환경 가꾸기와 연관된 사업들이 많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사이버 활동 등의 지원이 포함된 아마추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문화관광부 내에 전담 부서로서 생활문화관 신설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관광분야에서는 이강욱 한국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망을 내놓았다. 여가시간 증대로 여행 수요 증대가 예상되며 소극적인 여행에서 적극적인 여행 패턴으로 전환할 것이므로 중저가형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 전문인력 활성화, 관광과 환경 보존의 조화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을 요구하였다.

이한규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002년 3월 18일자로 문화관광부에 생활체육과가 신설, 생활체육의 확산 및 활성화를 전담할 부서가 마련됐다고 이를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이 생활체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됐지만, 생활체육 분야의 적극적인 홍보방

안 체육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기존 시설 백분 활용, 연령층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각 부서의 협력, 여가교육의 확대 등이 아직 더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이광호 복지정책실장은 청소년 분야가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게 된다고 이를 위해 더욱 적극적, 공격적 지원과 새로운 방향의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임을 밝혔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과 함께 청소년 시설 관련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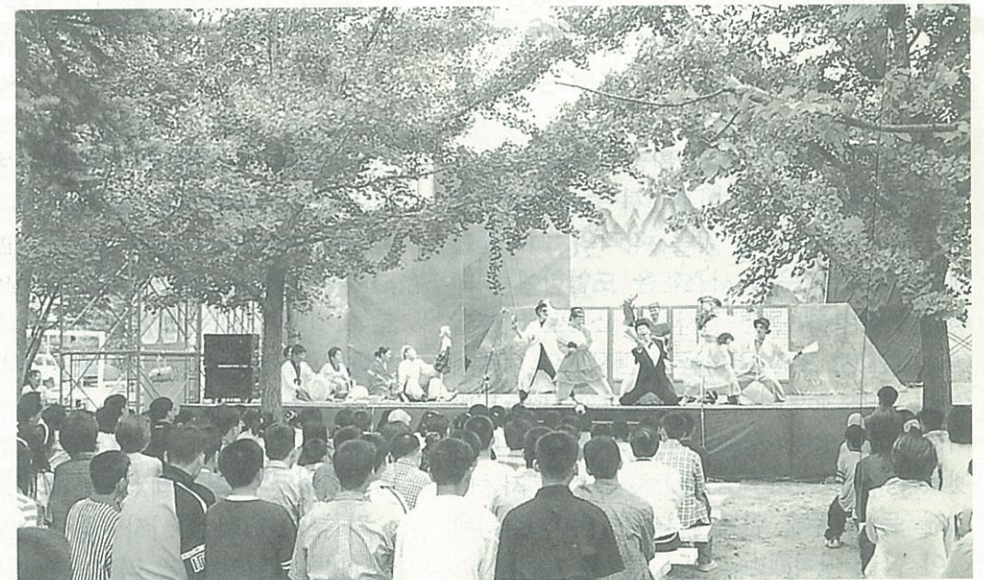
현장의 시설 프로그램 태부족

현장 종사자들에 의한 제2라운드에서는 문

화분야의 이승엽(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객원교수), 홍재원(현대성우리조트 경영관리팀장), 체육분야 김혁출(국민생활체육협의회 개발부장), 청소년분야 오덕규(한양초등학교 교장)씨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승엽교수는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여가시간 증대는 양보다는 질적 변화, 특히 문화 소비 경향이 변화할 것이라며 이는 가족 중심 활동 활성화, 아마추어 활동 증가, 관광 및 체육 분야 등과 연계한 소비 강화, 대중성 강한 상품의 소비 증가 및 주말 산업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재원팀장은 1995년을 이후 국내 리조트의 새로운 시설 투자는 거의 중지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 고객을 위한 문화나 시설은 추



▲소프트웨어 부족 등에 관한 적절하면서도 적극적인 청소년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가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어 고객들의 불만이 가중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리조트 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홍보를 통해 집중화를 분산시켜야 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혁출부장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요성과 마지막으로 국민생활체육에 대한 법제 정비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덕규교장은 여가시간 증대에 대비하여 사회시설 기반의 확충, 특히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독서실·체력단련실·영사관·문화교실·컴퓨터실 등을 학교



여가시간 증대는 주말을 중심으로

한 시간을 재편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관광 분야는 국민의 관광활동 증가로 인하여 숙박시설과 여가시설의 부족 그리고 공급 내용 및 체계 부족, 관광상품 개발 미흡 등과 같은 문제가 더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시설에 대한 효과적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첫 번째는 '체육시설의 확충 및 정비, 상호간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직장·학교체육시설과 같은 각각의 시설들은 네트워크화된 운영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시설은 정부가, 운영은 사용자 스스로가 부담하는 수입자 부담 원칙을 점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 네트워크화된 시설의 운영과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전화 자동예약제 등을 통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게 해야 함을 피력했다.

두 번째로 스포츠 클럽제를 활성화시킬 필

요나 지역사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 개선 및 관련 법규, 셋째 교실수업 방식 개선, 넷째 새로운 교육관 정착, 다섯째, 맞벌이 부모가 많은 현실에서 나 홀로 학생에 대한 배려 및 정책적 지원 그리고 교육적인 논리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 생활로의 밀착이 여가시간 증대 돌파구

각 분야 협회 종사자들의 현실성 있는 내용을 들어본 세 번째 라운드의 문화부문에서는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이 여가

시간 증대가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시장부분과 공공부분간의 갈등 등의 여건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정책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프로그램의 미흡, 정보화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하며 시설 확충과 운영 문제, 문화생활에서의 비용 문제,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 시장과 공공성의 대립과 같은 문제는 자기 주도적이고 평생동안 자기 교육을 할 수 있는 도서관 같은 공간들의 확충과 생활권 안으로의 밀착을 통한다면 주5일제 도입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성두 한국관광협회 사무처장은 여가시간 증대는 주중의 활동보다는 주말을 중심으로 한 시간을 재편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관광분야는 국민의 관광활동 증가로 인하여 숙박시설과 여가시설의 부족 그리고 공급 내용 및 체계 부족, 관광상품 개발 미흡 등과 같은 문제가 더 발생할 수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 지역 숙박시설이나 레저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기존의 숙박시설과 연계한 관광 소프트웨어를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서 관광 사업체의 활성화 및 관광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것은 여름에 집중된 휴가문화를 분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밖에도 거시적인 관광활동의 증가를 위해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한국레저협회 김창수사무총장은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스포츠 레저 활동에서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이 첫 번째 자연시설 활용 등에서의 시설 문제, 두 번째 정부의 재정적 지원 문제, 세 번째 세무편제상 레저 업계의 개편 필요, 네 번째 레저 관련 신 프로그램 및 신상품 등의 인증제 및 특허제 도입, 다섯 번째 담당 부서에 대한 정립과 정보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에 대한 지원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 분야에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손의숙기획팀장은 주5일제가 도입됨으로써 아이들이 지금의 교육환경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 기존 청소년단체 활동이 학교 중심의 활동이었다면 이것을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 둘째 하드웨어로서의 시설 공간 부족과 지도자의 부족, 세 번째 소프트웨어의 부족 등에 관한 적절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한 청소년 정책의 핵심이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한국문화복지협회 이종한회장은 이제는 보통 사람 개개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이 정책라운드에서 제일 크게 강조되었으며, 2라운드에서는 시설 및 프로그램의 거점과 양의 부족함이 강조되었고, 3라운드에서는 다양한 문화 사회층이 갖는 문제가 토론의 중심이 되었다고 결론을 맺었다. 각 부분별로 문제와 대응 방안이 다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거론된 토론회가 되었다고 평을 더했다.

주5일 근무와 내일의 여가문화

김 창 수 · 인천문화정책연구소장

☞ 여가시간 증가가 삶의 질을 보장 하지는 않는다

주5일 근무제의 전면적 시행에 대비한 사회적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물론 주5일제의 전면적 시행을 둘러싼 노사간의 줄다리기는 끝나지 않았고, 노사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시행 시기는 불투명하지만, 내년에는 어떤 식

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주35시간제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OECD 가입국이자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인 한국이 노동자들에게 최장시간 노동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할 명분은 없다.

주 5일제 시행으로 생산성이 오히려 향상되는 업종도 적지 않다. 관광업을 비롯한 각

종 여가 관련 산업의 호황과 소비 증가로 인해 내수시장의 확대도 예상되므로 이 제도가 사실상 노동자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금융업계와 일부 기업은 주5일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는 주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 중 토요일 근무시간 분 4시간을 줄여 주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것이 4시간의 여가시간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측에서 보면 2박3일간 약 60시간을 일에서 해방되어, 그 시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노동시간의 단축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여가시간의 증가가 곧바로 삶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여가시간은 무엇보다 평일의 노동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고, 바쁜 일상으로 소원해진 가족과 이웃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여가를 소

비로 대체하려는 경향을 우려해야 한다. 여가 활동을 능동적으로 계획하지 못하면, 개인들은 결국 시장과 문화산업이 조장하는 욕망의 포로가 되고 만다. 어렵게 '쟁취' 한 '황금의 주말'이 도리어 근로자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 '재충전 여가 패턴' + '사회성 여가'로 활성화

일본은 80년대 후반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시작해서 1997년에 전 사업장에 제도가 정착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여가활동도 변화했다.

일본인들의 여가 문화는 '내부 지향적 여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급적 '집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멀리 놀러 가지 않으며' '돈을 쓰지 않는' 패턴이 정착되고 있다. 비디오 감상, 독서, 정원 가꾸기, 집안 꾸미기(Do It Yourself), 조깅과 산책 등 일상생활에 밀착되거나 집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가 중심이 되고 있다. 물론 이들도 금요일 저녁에 떠나 일요일에 돌아오는 2박3일 여행을 자주 가고 싶어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연중 1~2회 이상 여행을 떠나는 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한편 노동시간은 단축되었으나 기업별로 능력주의를 도입하고 있어서 많은 근로자들은 능력 계발을 위한 독서나 어학 교양 학습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재충전 여가' 패턴과 함께 주목할 것은 일본인들이 여가 시간을 '마을 만들기'나 자원 재활용 운동, 장애인 돕기와 같은 사회봉사활동에 쏟는다는 사실이다. 여가시간의 확대로 '사회



중국에서는 주민들이 도심의 공원과 광장을 다목적 여가공간으로 알뜰하게 활용하고 있다 <사진은 단둥시>



주5일 근무제의 실시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여가가 소비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화계의 몫이다. 근로자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발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각종 기반시설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근로자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성 여가'가 활성화로 이어진 것은 이 제도의 중요한 성과일 것이다.

여가와 관련한 여론 조사를 해보면, 관광과 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지금까지 텔레비전 시청이나 수면으로 대체되었던 소극적 여가를 여행과 관광으로 바꾸고자 해도 비용이라는 장애물은 여전히 남는다. 여가 지형의 변화로 호황을 누리게 될 관광업계는 벌써부터 문화와 예술, 레포츠, 건강과 같은 특정한 이벤트들과 결부된 여행 관광 상품들을 개발하여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 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단위 다목적 대안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문화 역사 생태 체험의 요구를 수용하자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생태기행 프로그램이나 농경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단체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여행과 예술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테마를 기행과 접목시키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저비용 대안관광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가가 늘어났다고 해서 주말마다 여행을 떠날 수는 없다. 많은 근로자들이 관광지로

몰려간다면, 환경의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의 가속화가 예상되며, 상시적 교통체증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것이다. 도시를 멀리 벗어나지 않으면서, 또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실용적 여가 패턴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내실 있는 여가관을 정립하고 여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 공원, 사회복지관, 소공연장, 도서관 가장 원해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한 사회적 준비의 원칙은 가급적 거주지 가까이에 문화기반시설의 확충하는 것이다. 도시 거주자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이 '공원'이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관, 소공연장, 국공립 도서관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도시 공원의 확충과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자들이 근교의 산이나 강 그리고 도심공원에서 여가를 보낸다면 이동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수요 예측조사'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시의 공간으로 '공원'을 들었다. 시

민들은 시멘트 벽으로 폐쇄된 도시공간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 공원을 찾는다. 규모가 큰 공원보다는 중간 규모의 공원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북경이나 선양과 같은 중국의 대도시에는 공원과 광장들이 많은데, 주민들은 도심의 공원과 광장을 다목적 여가공간으로 알뜰하게 활용하고 있다. 대규모의 공원은 이동의 불편이 따르며 많은 인파로 인해 공원의 의미가 반감되며, 너무 작은 공원은 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공원은 그저 산책하며 통과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종 운동이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시민 문화활동 지원센터 및 노동자 문화센터의 건립이 시급하다. 노동자와 저소득층들이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지는 각종 공연과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상의 문제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취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 중산층이 선호하는 문화시설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감정에 친숙한 문화와 예술을 희망한다. 국민들이 '사회복지관' (14.2%) '사회문화 교육시설' (19.9%)이나 '민속박물관'과 같은 시설의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문화와 예술에 대한 교육과 창작과 같은 문화활동을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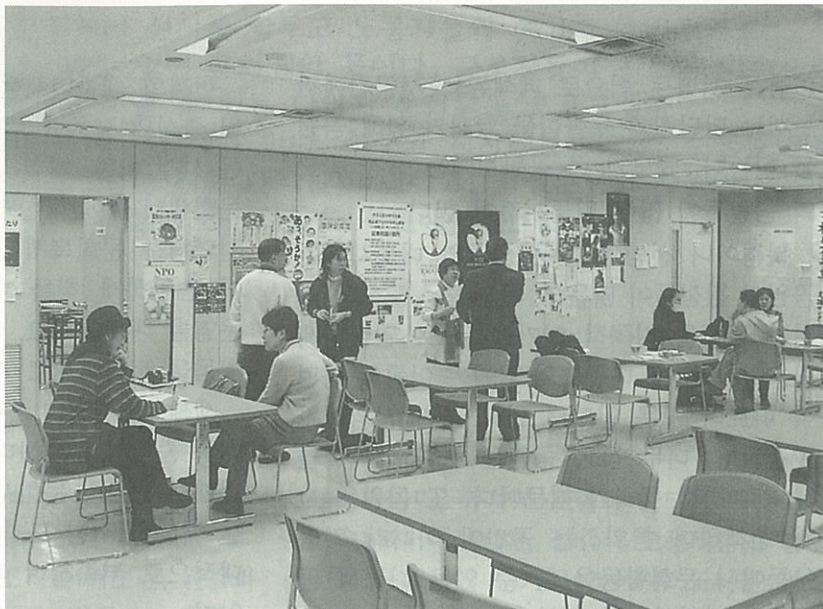
사회복지관이나 문화교육센터의 대상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서민층이다. 공연이나 행사의 관객으로만 사고하지 말고 이들이 생활에 기초한 문화예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교육과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의 예술단체들은 전문가 교육이나 회원 중심의 교육에 치우쳐 있어 시민문화교육은 사설 학원, 대학의 시민교육 과정,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 국한되어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복지 실현하기 위해 주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주민문화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업은 노동자들의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도서관의 추가 건립과 장서 구입비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도서관을 네 번째로 중요한 문화시설로 여기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 도시의 도서관은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도서관의 장서량이나 장서의 질도 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공공도서관이 진정한 지식 습득의 공간이나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문화공간이 되지 못하고, 학생들의 독서실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간 규모의 도서관을 설립하고, 도서관의 장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지역 내 전체 장서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봉사형 여가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소비주의적 여가나 가족주의적 여가를 넘어서 사회적 여가로 발전되는 것이 여가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러한 봉사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과 기업들은 지원해야 한다. 지원의 방법은 유휴공간을 봉사단체들이 모일 수 있는 지원센터로 개방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을 중심으로 각종 봉사활동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봉사단체들의 지원이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의 영역과 규모를 확대해 갈 수 있다.



일본 요코하마 시 사회봉사활동 지원센터. 일본인들의 여가시간 확대는 '사회성 여가' 활성화로 이어졌다(왼쪽). 중국에서는 주민들이 도심의 공원과 광장을 다목적 여가공간으로 알뜰하게 활용하고 있다(단둥시)

☐ 소비주의로 흐르지 않게 하는...

문명은 노동의 결과이다. 인간다움과 자기를 실현하는 길은 물론 노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여가의 덕택이기도 하다. 찬란한 그리스 문명의 노예노동과 그 노동으로 인해 생겨난 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여유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창조적인 노동과 사유는 여가 없이 불가능하다. 영어의 'school' 이 원래 여가를 뜻하는 그리스어 'scholē' 에서 나왔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학문이나 예술적 진리 탐구도 바로 여가의 소산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주5일 근무제는 끝없이 반복되는 고강도 노

동을 계속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가족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주5일 근무제의 실시를 앞둔 문화계에 던져진 우선 과제는 우선 노동자들의 여가가 소비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발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종 기반 시설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들도 근로자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여가문화 어디로 가야 하나 여가문화학회 세미나 참관기

한 준 상 ·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이제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교통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이제는 금요일 오후부터 교통정체가 시작되고 있다. 고속도로들도 예전과 달리 금요일 오후에는 지방으로 달려나가는 차량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영화관이며 전시관들도 토요일에는 상황을 이룬다. 전국 곳곳에서 퍼져 있는 놀이터와 휴식터도 덩달아 주말에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국토의 이곳 저곳이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들이다.

국민들 모두가 주5일 근무제 실시의 영향을 톡톡하게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경제 선진국처럼 여가를 즐기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는 여가로움이 깃들어 있다. 실정이 그러하기에, 더욱더 우리의 여가문화는 어디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하다.

☐ 여가의 본질과 정체 그리고 이견들

여가, 과연 여가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여가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여가문화는 주5일 근무제와 더불어 어느 방향으로 길을 잡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여가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그 무슨 대수냐, 짝나는 시간대로 놀고 즐기면 되는 것이지 하는 식으로 항변할 수도 있다.

여가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 즐기는 것도 아니라면 굳이 여가에 대한 개념 파악보다는 여가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숙지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강조하는 것은 한 나라의 사람들이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를 알면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고, 그 나라

사람들의 여가문화 수준을 알면 그 나라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 사회와 여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여가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와 여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여가를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자임하고 있는 학자들의 잡종교배(hybrid)적인 난전토론의 모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여가의 본질과 여가문화 발전방향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본 여가문화학회의 제1회 향연이 바로 그런 분출구였다.

이 날의 모임에서 한국에서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지성을 자부하는 학자들이 보여준 여가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의 수준과 견해 차이 역시 수준급이었다. 그런 차이는 주로 세 가지 갈래로 수렴되면서 동시에 다른 형식으로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다.

여가에 대한 서로 다른 세 가지 갈래는 논의의 성격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하나의 견해가 다른 견해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받아야 될 그런 독단의 견해는 아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여가에 대한 서로 다른 이론적 배경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들과, 그로부터 여가에 대한 국민들의 서로 다른 감각과 관점을 지니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모두가 여유로움을 상정하고 있지만, 그 여유로움에 대한 이해들은 서로 다른 형식의 여유로움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견해들이다.

☞ 문화 존속으로서의 '놀이'가 여가

여가에 대한 한 가지 사상적인 갈래는 여가를 '놀이'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 때의 놀이는 여가의 본질을 놀아 줌, 놀고 있음으로서의 놀이로 보고 있기에 편의상 자연주의적 여가관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다. 여가를 놀이로 간주하는 이해 방식은 호이징아의 주장대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호모 루덴스(Homo Ludens), 즉 놀이의 동물이기에 그 본성대로 제대로 노는 것이, 제대로 놀 수 있게 만드는 힘이나 세력이 바로 여가라고 간주한다. 여가에 대한 이런 견해를 편의상 놀이로서의 여가로 표현한다면, 놀이로서의 여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동양화에서 드러내 놓고 있는 신선(神仙)상 같은 것들이다.

동양화나 설화들에 따르면 신선들은 놀이 그 자체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기에 놀이 이외의 것에는 관심이 없다. 놀이 그 활동에는 그 어떤 이물질도 개입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놀이로서의 여가에는 신선놀이에 도끼 썩는 줄 모른다는 같은 이야기 거리가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

놀이로서의 여가는 생산이나 노동을 위한 수단이나 짬 보내기를 위한 도구로 이해하지 않는다. 놀이로서의 여가는 노동에 대한 생태적인 거부나 생산의 요구에 대해 원초적으로 구역질을 해낸다. 왜냐하면 여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의 원리이며 사회 존속의 원리들이기에, 이런 원리들을 거부하는 그 지점이 노동과 생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여가에 대한 이런 이해는 놀이 우리 문화를 이어가게 만드는 끈을 갖은 문화적 유전인자와 같은 '밈(meme)'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 자투리 휴식 보내기, '밈'의 여백 놀리기가 여가

여가에 대한 두 번째 방식의 이를 문화 존속의 밈으로 보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생산으로서의 휴식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 때의 여가는 휴가를 시간의 관점에서 '짬' 혹은 '자투리'로 간주된다.

따라서 여가라는 것은 공장이든 회사가든 학교든 그 어디든 관계없이 정해진 하나의 활동으로서 소비되는 생산시간과 잇대어질 다른 생산시간 사이에 잠깐 동안 비어 있는 짬으로서의 여유, 혹은 생산 후 따라붙어 다니는 자투리 시간으로서의 휴식을 지칭한다.

마치 첫 시간 후 '휴식'하고 둘째 시간 시

작 혹은 주말 '쉬고' 월요일 근무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는 시간적 여유와 그것에 관련된 강요받지 않는 자유로운 활동이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가로 간주된다.

여가를 자투리 시간으로서의 휴식으로 간주하는 이런 입장은 기능주의적 여가관으로 부를 수 있다. 동시에 이런 기능주의적 여가관은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기능주의적 여가관에 따라, 그들 스스로 주5일제 근무제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휴식 시간을 혹은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람들이 휴양지를 찾아 주말을 집 밖에서 보낸다면 자기 발전을 위해 계속 교



육을 받는다는, 특정한 형식의 스포츠를 즐긴다는 하는 휴식 방법들이 바로 이런 주5일 근무제로부터 보다 더 본격화될 여가 활용 방법들이다.

사회 역시 이런 기능주의적 여가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바로 레포트 증상이 그것이다. 수많은 레포트의 개발은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놓게 된다. 여가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역시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마치 여가에 대한 정형이 있는 것처럼, 여가가 여가 상품으로 호도됨으로써 여가 시장이 형성되고, 여가 클리닉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그로부터 여가 소비 그 자체가 또 다른 사회의 부작용을 초래시킨다. 잘 돌아보자고 만들었다는 그 여가 놀이와 여가 상품 때문에 여가 이전보다도 더 참혹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여가의 불평등이 사회 곳곳에 전염병처럼 번

진다.

자연주의적 여가관이나 기능주의적 여가관과는 달리, 여가에 대한 세 번째 이해 방식은 일상적 여가관이다. 일상적 여가관은 여가를 특별한 자투리 시간이나 짬, 혹은 놀 그 자체로만 간주하지 않는다. 일상적 여가관은 여가를 '여백 놀리기'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든 그 어떤 시간이든 자기의 몸/마음(몸) 속에 여백을 넓혀가며 동시에 만들어 가는 활동이 바로 여가의 본질이라고 간주한다. 몸과 마음을 묶어 하나로 만들어진 '몸'의 여백을 넓혀 가는 활동이 여가이기에, 이런 몸의 여가에는 '시간/공간/인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의 통합이 가능하다. 몸의 여백을 넓히는 활동은 그래서 그 언제든 일어나는 일상적인 것들로부터 시작한다.

☞ 여가는 내 안의 비어 있는 공간
... 그 주인공은 자신

일상적 여가관은 여가를 위해 유별난 시간을 만들어 낼 것도 아니며, 특별한 놀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여가를 일상생활의 한 장면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런 입장은 여가를 굳이 생산의 도구로 간주하거나, 혹은 여가를 소비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혹은 여가를 치료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여가는 생산일 수도 있고, 소비일 수도 있으며, 여가는 치료일 수도 있고, 예방일 수도 있다는 식의 종합적이고도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다.

여가를 삶의 일상적인 일, 마치 나날이 자기 겨드랑이에 날개가 조금씩 돌아 나오는 듯한, 그래서 날아갈 수 있는 듯한 '삶의 느낌과 삶의 기쁨'을 갖는 일로 간주하는 일상적인 여가관은 모든 이를 위한 여가와 여가에 대한 배움을 일상적인 삶으로 간주한다. 이런 일상적인 삶의 통합은 여가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만들기(學/習/學)'를 강조한다.

배우고 익히기만 하면,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지난날 흔적이 마치 절대적인 것으로 남아 후일에 영향을 주는 습기(習氣)가 되어 오히려 안 함만 못한 꼴이 되기도 하기에, 헝클어진 습기를 바로 잡아 의미 있는 여가가 되기 위해서는 습기(習氣)의 축축함을 말려주는 인간 본연의 반성과 반추로서의 새로 행하기,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내기/만들어 가기가 필요하다.

배우고 익히며 그리고 다시 만들어내기로서의 여가는, 그것이 그 어떤 일이나 놀이의 모습으로 표현되던 간에 관계없이 그 일에 푹 젖어버리는 상태로서의 흐름(flow)과 집중(centering)으로서의 사마디(三昧)를 중요시

한다. 노는 일이든 배우는 일이든 밥 먹는 일이든 그 어느 것에 구애받음이 없이 일의 과정에 깊이 도취되거나 푹 빠져 들어가는 것은 모두가 여가인 것이다. 모든 것에 있어서 푹 젖어버리는 그런 삼매는 몸과 마음의 통합으로서의 맑과 여백 놀리기로서의 자존감을 나날이 허락해주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여가관은 그냥 '쳐다보기 중심의 놀이'보다는 '행하기 중심의 놀이', '끌려 다니기 중심의 여유'보다는 '만들기 중심의 여유', '소비 중심의 참여'보다는 '무소유 중심의 참여'를 권유한다. 예를 들어 그 유명한 미술전람회나 음악회, 레포트 행사에 끌려 다니면서 그저 쳐다보기만 하고 사재기로 끝나버리는 그런 류의 수동적인 여가는 몸의 여백 놀기에 그리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수동적인 여가를 넘어서서 쳐다만 보지 말고 영성하지만 스스로 해보고, 만들어 내면서, 만들어낸 것들이 영성하더라도 그 참여 자체에 만족하면서 해가 다시 뜨는 내일에는 어제보다는 조금 더 자신을 들여내 보이는 그런 여백 만들기가 중요한 것이다.

내 스스로 못난 그림이라도 그려 보고, 영성하더라도 자전거를 타 보며, 제 아무리 불비는 지하철 속에서라도 책 한쪽이라도 내 스스로 읽어 내려가는 배우며/익히고/만들 여가는 여가가 바로 삶의 질을 가꾸어 주는 배움의 여가다. 여가, 그것은 바로 내 안의 비어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여백을 늘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당신의 여백을 강요할 것이다. 그때부터 당신에게 여가는 가막소가 될 것이다

축제문화 재편과 축제 만들기 프로젝트

임 정 희 / (사)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Ⅲ 시민들의 열정과 집단적 신명풀이

2002년 6월 한달 내내 모든 한국 국민들을 열광케 한 월드컵이 끝났다. 이제 한국사회에서는 월드컵으로 인해 확인할 수 있었던 시민들의 '접근'과 '참여'의 열정, 즉 집단적 신명풀이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사회적 에너지, 생산적 의미로 전환하는 노력이 시급하고 절실한 숙제로 등장했다. 축제의 전 과정 속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며, 느낌이며, 다짐했던 바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생활로 돌아가서도 생활현장의 문제와 갈등을 풀어나가는 삶의 에너지로 활용해야 한다.

물론 월드컵에 대한 평가가 동일하지 않고 월드컵이 만들어낸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대응도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해야 할 전제가 있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구성력이 주는 삶의 생동감이 아닐까 한다. 이것은 자발적 참여의 주체로서의 시민,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의 자기조직적이고 자율적 표현으로서의 문화라는 두 가지 지점에서 월드컵 현상을 해석하고 과제를 인식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자본과 미디어, 그리고 국가가 시민들의 폭발적인 문화적 의지, 문화적 의욕을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흡수해 가는 과정을

한국은 축제의 나라. 축제의 낙원처럼 부상하고 있어 보인다.

그러나 1,000여개에 달하는 한국의 지역문화축제들은 서로 비슷비슷한 포맷과 진행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성 예산 낭비, 축제 프로그램 개발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 외형적 규모 늘리기보다는 기존 축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문화적, 지역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그저 비판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다.

시민들 스스로 기업과 언론, 정부와 정당과는 다른 입장과 관점에서 월드컵이 만들어낸 특이함의 구조와 내용은 무엇이고 그 안에 어떤 국민적 열망이 내재해 있는가를 분석해야 하며, 나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열정을 일상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참여의 자발성과 열망의 강렬함을 토대로 '문화사회 만들기'를 제안하는 것은 월드컵의 열기가 그릇된 국가주의, 전체주의로 기울고 대자본이나 정치 세력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 글에서는 축제문화의 재편을 위한 기

본 원칙과 대안적 축제 프로젝트를 살펴본다.

Ⅲ 축제문화 재편을 위한 기본원칙

이미 알려진 대로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축제와 문화행사들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광주비엔날레, 전주국제영화제, 과천마당극제, 춘천인형극제, 경주문화엑스포, 세계도자기엑스포, 고양세계꽃박람회와 같은 국제 규모의 축제부터 강릉단오제·남원춘향제·안동탈춤페스티벌은 전통문화축제, 그리고 진도영등제·하동야생차축제·금산인삼축제·통영나전칠기축제·

무안연꽃축제·무주반딧불축제·보령머드축제·김제지평선축제 등 중소 규모 도시에서 벌이고 있는 지역특산물축제와 지역특성화축제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축제의 나라, 축제의 낙원처럼 부상하고 있어 보인다.

그러나 1000여개에 달하는 한국의 지역문화축제들은 서로 비슷비슷한 포맷과 진행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성 예산 낭비, 축제 프로그램 개발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 축제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와 조사(지역 내 문화자원 조사와 문화지표 개발), 문화적 네트워킹 구축, 구체적인 대안 담론의 활성화, 정책방향 설정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축제 수가 늘어나고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외형적 규모 늘리기보다는 기존 축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다양한 평가 척도에 의한)를 통해 문화적, 지역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1년 '문화연대'에서 작년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지역축제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축제의 관련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관 주도로 진행되는 축제에서는 지역 시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지역민들의 일상적인 카니발적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없다.

이번 월드컵에서 거리응원이 특별한 이벤트 없이도 유례 없는 도심 속 카니발을 만들



어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거리응원 안에서는 서로 다른 세대와 다른 삶의 가치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응원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동등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서로를 배려하는 일들이 생겨났다. 시민들이 축제에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축제를 주관하는 조직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자리에 참여하는 수동적 자세를 벗어나, 스스로 준비하고 축제의 우발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축제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만들고 행사를 주도하고 있고, 시민들과 시민조직이 스스로 축제를 만들어 자생적인 행사를 유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축제는 지배 계급들의 권력통치에 저항하고 억압에서 자유롭고 싶어하는 민중들이 스스로 만든 행사다. 우리에게도 '관' 또는 '마당'을 만들고 연행을 펼치면서 생활현장을 확대하고, 상상력의 다대한 토대를 통해 의식을 넓혀 가는 축제의 소중한 유산이 있다. 마당과 관은 차이가 있지만 차별하지 않는 곳이며, 해학과 풍자를 통해 갈등을 표출하고 해소하면서 개인적 소외를 극복하고 집단 주체로 성장하는 양질의 전화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하였다. 외국에서도 서로 이질적인 주체들이 모여 다성적인 목소리를 발산하는 민중들의 광장의 문화를 '카니발리즘'으로 명명하고 있다.

축제가 시민들이 문화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축제는 닫혀진 공간, 구획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린 공간, 일상적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대부분 대규모 축제를 벌이기 위해 지어지는 건물과 행사장은 개발 바람과 투기 바람을 일으키고, 행사 후 활용방안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축제를 특별한 장소에

국한함으로써 계획된 접근과 참여만을 보장하는 것과 달리, 시민들의 일상적 공간을 축제 마당이나 판으로 바꾸는 변화는 생활감정의 뒤집기를 유도하여 보장되지 않은 놀라움을 초래한다.

둘째, 지역의 시민들과 시민조직이나 단체가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축제가 개발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모든 축제들은 민간으로 이양되어야 하고, 시민들 스스로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청년 세대들의 문화적 욕구를 발산하고 해소할 수 있는 축제들은 장년 중심의 축제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월드컵 거리응원에서 보여준 청년세대들의 역동적인 참여는 난장에 대한 욕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청년세대들과 소수자들의 자발적 축제가 도심 속에서 개방적으로 벌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Ⅲ 축제 프로젝트와 문화사회 전망

앞과 같은 축제의 기본원칙과 대안적 방향 설정에 기초하여 다양한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계획되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프로젝트를 정책적 측면에서 정리해 본다.

첫째, 시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인사동, 대학교, 홍대 앞 등의 거리에 일상적인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월 1회 2부제 및 차 없는 거리 만들기를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들이 주관하는 연례 문화제의 경우 내부에 민간 추진단을 만들어 시민단체를 비롯한 민간 스스로가 기획, 운영, 평가하는 축제 틀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동아리한마당'과 같은 청소년 참

여 축제들을 확대하고, 거리에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작은 축제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확대 개편하여 선보인 '서울 프린지페스티벌' '레이브파티' '퀴어문화제' 등이 특정 거리를 거점으로 삼아 이루어지도록 배려가 있어야 한다.

넷째, 라이브 공연, 거리전시 역시 축제의 한 형식이다. 제도의 벽에 막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라이브 공연과 거리전시는 장소나 장르 주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고, 특히 벼룩시장을 포함한 거리전시는 지역화페운동과 결합할 경우 지역의 주민자치와 공동체문화 활성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제도 개혁과 시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라이브 공연과 거리전시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엘리트 체육 육성과 국가적 이벤트 개최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체육정책이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엘리트 체육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중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학교 공간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거리농구'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정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축제는 민중들의 잠재적인 문화적 능력을 활동적인 문화적 능력만큼이나 강하게 사회적인 삶 속에서 확인시켜주는 문화적 공간이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축제의 불연속성과 신랄함, 예측할 수 없음을 통하여 일상이 지닌 질서와 반복, 지속성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모든 이들의 삶의 에너지가 역동적인 균형을 지니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축제’ 시공간 전략

윤 성 진 / 공연예술기획 이일공 대표



■ 도시 브랜드화하는 축제

축제의 시공간 전략이라 함은 좁은 의미로는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려하는 축제의 개최시기와 축제의 일정, 프로그래밍, 축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선정과 행사장의 공간배치와 동선 설정, 공간 구성의 컨셉과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축제가 개최되는 지자체 또는 도시와 축제의 시·공간적 연관성을 지역 마케팅과 도시 마케팅에 활용해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을 의미하기도 하다.

얼마 전 세계를 열광하게 했던 2002 한일 월드컵은 세계시장에 대한민국을 널리 알린 세계 속의 지역 마케팅(국가 마케팅)의 성공 사례다. 국내에서도 지역/지자체/도시(이후 ‘도시’로 통칭함)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도시 자체를 상품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

고 있다.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던 일산이 고양꽃박람회를 통해 ‘살기 좋은 전원 도시’ ‘꽃과 호수의 도시’로, 산업도시 부천이 부천시향과 부천판타스틱영화제를 통해 문화 도시의 이미지로 변신에 성공했다. 과천은 6 회째에 이르는 마당극축제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을 몇 년째 고수하고 있다.

5·18 성지, 민중항쟁의 도시 빛고를 광주 역시 비엔날레를 통해 세계의 문화도시와 비견되는 국제문화예술축제를 가진 문화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이렇듯 축제는 자칫 행정구역 을 나누기 위한 지명에 불과할 수도 있는 도시 명을 브랜드화해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만들고 있다.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축제의 시공간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략 없는 축제는 도시와의 유기적인 연계점을 찾지 못해 용도 폐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필자가 프로그래머로 참여했던 제4회 광주비엔날레를 예로 들어 간략히 축제의 시공간 전략에 대해 기술해보고자 한다.

■ 품격 맞는 공간연출 ... 전시작품 설치에 치중

축제의 시공간 전략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으로 구분해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특정 도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공간 전략은 먼저 축제가 이루어지는 행사 장소의 확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한 장소 내에서의 공간 배치가 아닌 한 도시 내에서의 축제 행사 장소의 선정은 지역의 균형적 개발의 측면, 교통편의와 접근성의 측면, 외부 관람객 유치를 위한 고려, 주변 문화시설과의 연계, 경제적 상업적 부가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쇼핑 편의에 대한 고려,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자산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고려 등이 필요하다.

둘째, 선정된 장소 내에서의 관람객의 동선에 따른 행사장 배치, 프로그램 기획에 따른 행사장 배치, 편의시설과의 연계, 교통편의, 주변 문화시설과의 연계, 행사장 출입구 및 출입구별 통행량 등이 고려된다.

셋째, 도시 전체로는 행사장까지의 접근편의를 위한 표지판 정비와 도시환경 정비, 축

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옥외광고물의 배치 등을 고려해야 하며, 행사장 내에서는 행사의 테마와 컨셉에 따른 행사장 디스플레이와 인테리어, 사인물의 디자인 등이 있다.

제4회 광주비엔날레의 공간전략의 성과를 보자.

첫째, 행사 장소의 선정에 있어 제4회 비엔날레는 행사 장소를 남광주역 폐선철도 부지와 법정영창까지로 확대해 총 3개 지역을 활용했다. 이는 비엔날레의 전시 프로젝트별 주제를 반영한 장소 선정이었다. 도시의 균형 개발과 도시 전역의 축제 분위기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기는 했지만, 장소의 접근성 문제는 주행사장인 중외공원부터 지적됐고, 다른 두 지역은 더 심해서 세 장소를 모두 관람객이 극히 적었다는 것만 보아도 장소와 전시 프로젝트간의 연계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폐선철도 부지에서의 전시를 통해 광주 도심을 관통하는 수만 평의 폐선철도 부지를 문화 벨트로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시키며 도시 개발의 전략을 바꾸어 낸 점은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행사장의 공간 배치는 주전시관 내의 전시공간의 활용과 배치는 훌륭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동선과 프로그램의 연계, 축제행사와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한 적극적 공간 배치 노력은 부족했다.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특별전시를 비롯해 협소한 시



칼라피플 퍼포먼스



'영암왕인축제' 재현 행사(왼쪽)와 2000 미디어- 시티 서울 행사장 모습

청각실을 이용한 '씨네 비엔날레'와 협찬사 이벤트 행사 장소의 무분별한 허용 등이 지적됐다. 최고의 예술축제인 '비엔날레'의 품격에 맞는 공간 연출은 전시작품의 설치에만 치중하다보니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 도시마케팅 전략 따라 축제 시간 전략 영향

축제의 시간전략을 살펴보자. 축제가 개최되는 시기 선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첫째,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 전국 규모의 국가적 행사의 개최 시기, 지역민들의 연중 여가시간 분포와 문화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 외부 관광객들의 유입량과 시기, 계절과 기후와 기온,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정체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시기 등이 있다.

둘째, 축제 개최 시기가 선정된 이후 축제 개최 기간 내에는 축제 프로그램의 일정(프로그램) 및 행사 개장 시간과 폐장 시간의 조정, 하루 중 주요 프로그램의 배치 시간, 기간 중 관람객의 증감 추이에 따른 프로그램의 비중 조정, 행사장 내 관람객들의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셋째, 더 작게는 한 프로그램의 진행 시간을 관람 동선을 고려해 적절하게 정해야 하

는 것도 시간 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앞선 고려 사항들 이외에도 도시가 추구하는 도시 마케팅 전략에 따라 축제의 시간 전략은 영향을 받게 된다. 미래지향적 테크노시티를 추구하는 도시의 축제 시간 전략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시간을 현실에 옮겨놓아 도시의 미래상을 전개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 전통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경우 축제는 관람객을 전통문화가 재현되는 과거의 현장으로 옮겨놓을 수도 있다.

'영암왕인축제'의 재현 행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축제는 도시의 시간과 공간을 종적 횡적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영암왕인축제'가 여러 재현행사들을 통해 도시의 공간을 수백 년 전의 공간으로 바뀌어왔고, '미디어-시티 서울' 행사는 도심의 공간들을 새로운 미래적인 공간으로 뒤바꿔놓았듯, 축제의 시공간 전략은 나누어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시간 전략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번 비엔날레는 실패작에 가깝다. 월드컵 개최시기에 맞춘다고 가을에 개최됐던 비엔날레를 봄으로 옮겨왔는데 정작 관광객들은 많지 않았다. 또 6월에 진행된 야외행사는 더위로 인해 주관행사가 힘들어지기도 했으며 기후와 기온

에 따른 행사 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 또 행사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행사의 밀도와 집중도가 떨어지고, 축제행사의 부실화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지역의 문화축제와의 연계를 위한 공동홍보작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비엔날레 내부로 들어와서는 전시장 개장 및 폐장 시간은 적절했으나, 폐장 시간 이후에 마련된 신규 프로그램인 '한밤의 비엔날레'와 같은 행사를 위한 행사장 편의시설이 부족했다. 또 학생단체관람으로 인해 평일 오전에는 행사장이 만원이었지만, 다른 시간대의 관람객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칼라피플...' '한밤의...'

시·공간적 외연 확장

축제의 시공간 전략을 구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 프로그램이다. 제4회 광주비엔날레에는 두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주제 퍼포먼스'로 기획된 '도시를 채색하라!' '움직이는 그림물감'이라는 모토의 '칼라피플 퍼포먼스'는 비엔날레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또한 '한밤의 비엔날레'는 비엔날레 기간 중 개최된 행사 중 유일하게 행사장 폐장 시간 이후에 개최돼 시민과 관람객들을 위한 문화 서비스로서의 기능을 다했다.

이 두 가지 축제행사 프로그램이 비엔날레의 전시행사와 축제행사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이 두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의 시공간 전략이 행사의 내용이 되는 프로그램 기획과 깊은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쉽게 판단해볼 수 있다. 우선, '칼라피플 퍼포먼스'가 비엔날레 행사장의 공간적 외연을 확장시켰다면 '한밤의 비엔날레'는 비엔날레의 시

간적 외연을 확장시켰다. 도심 곳곳에서—광장, 터미널, 기차역, 충장로, 도청 앞 등—갑자기 출현한 '칼라피플' 들의 모습을 통해 시민들은 비엔날레를 떠올리며 미술전시의 관람객이 갖추어야 할 조형감과 색채감을 훈련받게 된다. 이들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외곽의 장소에서 '비엔날레'의 주제와 성격을 대변하면서 관객들에게 작용한다.

한편, '한밤의 비엔날레'는 지금까지 전시 관람시간 이후에는 죽은 공간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중외공원과 야외공연장을 '이소라의 밤의 프로포즈'와 같은 미니 콘서트가 열리는 '살아 있는' 공연장으로 바꾸어놓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비엔날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이 행사를 통해 비엔날레는 담 넘어 존재하는 '저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축제로 받아들이고 비엔날레 기간 동안 빗장을 걸었던 공원은 매 주말 밤마다 시민들을 받아들이며, '예술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매직 스페이스(Magic Space)로 변화했다.

전시관람으로 지친 관람객들이 6시만 되면 부리나케 행사장을 빠져나가야 했던 주말의 풍경은 좀 더 여유있는 관람과 편안한 문화서비스가 제공되는 '비엔날레'의 풍경을 연출하게 됐다. 지역 주민들을 축제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한 의지가 작은 노력으로 축제를 '우리들의 축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성공적인 시도였다.

여러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광주비엔날레'는 '광주'를 세계 속의 문화도시로 거듭나게 했으며, 광주는 지금까지의 무겁고 우울한 분위기를 벗어 던지고 진정한 '예향'으로서의 자부심을 '비엔날레'를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최고의 비엔날레로 성장해 가는 '광주비엔날레'의 잠재력과 도시 마케팅에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성공하는 문화관광 축제 만들기

이 각 규 / 한국지역문화이벤트연구소장

■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운 대안 찾아야 할 때

지역 이미지 홍보와 지역 이익 기회 창출의 수단으로서 최근 4~5년 사이에 활성화된 것이 '지방박람회'와 '지역축제'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지역 이벤트는 이천도자기축제, 금산인삼축제·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영암왕인문화축제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개최되고 있는 900여 개의 지역축제(2001년 11월 기준)와 경주문화엑스포·고양세계꽃박람회 등 2~3년을 주기로 개최는

회와 지역축제의 프로젝트 기획이 그렇게 간단히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지역축제의 파급 효과가 성공이나 실패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부담과 혜택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 또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성공하는 문화관광축제 만들기' 위해 심각하게 고



지방박람회, 광주비엔날레·부산국제영화제·과천세계마당극큰잔치 등의 대형 문화행사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지역 이벤트 붐'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방박람

민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1995년부터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국의 수많은 지역축제 중에서 관광상품화의 가능성이 큰 축제를 선

지역축제의 벽은 그 내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담당자는 축제를 기획하여 실시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수지의 밸런스가 맞는가, 실행위원회가 어떻게 움직이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스태프가 필요한가, 내부 조정과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직간의 단결과 마찰이 발생할 경우 대응방법은 무엇인가, 누구에게 무엇을 담당하게 할 것인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정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해온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문화관광축제 육성사업은 지난 8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마을잔치에 머물렀던 축제가 외국 관광객이 찾는 국제적인 축제로 탈바꿈하여 성공한 문화관광축제가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2002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도자기를 소재로 한 이천도자기축제는 9억원의 예산 투자로 24일간 개최하여 156억원, 인삼을 소재로 한 금산인삼축제는 8억원의 예산 투입으로 10일간 627억원, 전통탈춤과 안동의 문화를 마케팅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8억2000만 원의 예산 투입으로 10일간 약 438억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각각 창출시켰다.

이렇게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공사례가 있는 반면에 주제성 부재와 졸속한 준비, 무리한 예산 운영, 전문성 부족, 지역 내부의 갈등, 외부 전문가와 주최측의 불화 등으로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다.

■ 지역축제 개최시 제반 문제

지역축제의 벽은 그 내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담당자는 축제를 기획하여 실시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수지의 밸런스가 맞는가?
- 실행위원회가 어떻게 움직이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가?

- 어느 정도의 스태프가 필요한가?
- 내부 조정과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조직간의 단결과 마찰이 발생할 경우 대응방법은?
- 누구에게 무엇을 담당하게 할 것인가?

지역축제는 기획단계에서 시작하여 민간단체와 상공회의소, 지역 주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함께 합심하여 실시해야 한다. 시·군·구청의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실제 지역 주민들이 축제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협력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아닌 실행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축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축제 성공사례를 보고, 그대로 모방한다면 반드시 실패를 한다.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축제는 진행 도중에 발생했던 실패와 문제를 극복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면서 성공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 결과만 모방한다면 반드시 상황이 같지는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어디에 성공의 포인트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자신의 지역에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기획 방향을 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성공으로 연결될 것이다. 지역 활성화와 특산물 전략은 지역축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축제를 개최했다고 즉시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록제 또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축제를 개최하여 '시와군이 좋아졌

다'는 것으로 활성화가 되었다는 결론을 얻는 것이 아니고 축제 종료 후 축제에 관계했던 주민과 담당자가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인식의 생성이 핵심 포인트다. 지역축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개최되며, 직접 운영을 담당하는 주최자는 열심히 기획을 하고, 실행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엄청난 노력이 수반된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다. 즉 '이러한 행사는 관광객이 즐거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전시한다면 반드시 반응이 클 것이다' '이런 먹거리를 선보인다면 관광객이 많이 사먹을 것이다' 등 다양하게 추측하여 주최측만의 논리로 기획안을 작성한다. 그러나 축제에 참가하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은 수용자의 입장이 된다. 고객의 입장을 망각하고 기획자가 좋아하는 것만 반영하거나 관련 기업의 제품만을 무조건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축제의 평가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입장객과 참가자의 수, 수지결산의 균형 등 평가의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참가자 수가 많았다'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경우 '많다'라는 것이 개최시기에 한정되거나, 동일 지역에서만 다수의 참가자가 많았다면 별 의미가 없다. 반드시 참가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실질적인 평가는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



은 어떻게 연대하였는가가 평가의 대상이 된다. 축제 개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계하는데,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여 인간관계를 간단명료하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문화관광축제 성공 포인트 그리고 기대 효과

1. 지역을 팔아야 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지역의 매력을 국내외로 어필하는 절호의 기회다. 예를 들면, 이천도자기축제로서 이천시는 '도예문화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했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로서 안동시는 '탈춤과 선비문화의 도시'를 홍보했다.
2. 시민을 참여시켜 지역 의식을 불러일으키며 그 에너지를 활용해야 한다. 예컨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서는 109개 단체, 3만101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했다.

3. 유사한 흥내는 피해라. 이미 성공한 국내외 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참고는 하되 모방은 피해야 한다. 지역마다 고유의 특성과 상황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며 유사한 흥내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4. 흥행사로서 철저하라. 이벤트 프로듀서와 전문가를 기용한다면 일류급을, 그리고 재정 계획을 확실히 한다.
5. 기획단계에서 이벤트 프로듀서의 기용과 기획예산 책정은 필수적이다.
6. 축제의 명확한 주제 선정은 핵심 요소이다.
7. 축제의 추진 방향인 컨셉은 즐거운 마음으로 만든다.
8. 관광객을 매료시킬 수 있는 기획 구상이 되어야 한다.
9. 이벤트 아이디어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좁는 것이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해야 한다.
10. 매스컴의 주목을 받는 화제성 이벤트 창출이 필요하다.
11. 축제와 지역산업과의 연계가 되어야 한다.
12. 축제를 위한 실행 조직 만들기로 원활한 협력 체제 운영을 해야 한다.
13. 실시 예산과 규모의 상대성을 반드시 고려하라.
14. 지역 민간단체와 주민들을 적극 참여시켜 행정 주도형에서 탈피하라.
15. 관광객 위주인지 지역 주민 위주인지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를 명확히 하라.
16. 축제의 효과 측정으로 실시 효율성을 객관화시켜야 한다.
17. 제3섹터 추진 방식의 도입으로 축제 자원 확보의 안정성 관광 서비스 제고-민관 공동운영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축제는 진행 도중에 발생했던 실패와 문제를 극복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면서 성공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 결과만 모방한다면 반드시 상황이 같지는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만다. 어디에 성공의 포인트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자신의 지역에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기획 방향을 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성공으로 연결될 것이다.

18. 지역축제는 후원기업 및 단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공식 후원 제도 채택 및 활성화

본 제안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실시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의 구축으로 문화관광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둘째, 납세자인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지역축제 향유 주권 되찾아주기가 가능해진다.
셋째,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재인식하고, 지역의 이익 기회를 창출한다.

4

놀이문화와 축제, 그 신명의 원리

조 성 진 / 대구거리마임축제 위원장

㉞ 놀이는 삶의 길이로 초월이다

‘놀이문화가 없다’는 말을 한다. 먹고사는 일에 골몰하다보니 시간과 재화의 여유가 생긴 마당에 그 시간과 재화를 쓰는 방식이 하도 흥미하고 징그러워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겠다. 그러나 무슨 문화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로 무슨 대책이 가능한가.

삶 자체가 천박해진 것이다. 기계를 중심으로 한 비인간적인 생산 시스템, 거래를 기본 관념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들, 나만 해도 무언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다. 나나 우리 아이가 잠시라도 정보 습득에 소홀하면

불안하다.

즉물적인 쾌락에 빠져있지 않으면 불안하다. 금연운동이 주춤한다. 먹는 일에 열심이고, 살 빼는 일에 열심이고, 섹스에 열심이고, 종교에 열심이고, 영화나 시뮬레이션 같은 환상에 매달리고……. 산이나 물가에 가서도 고도리 치고, 너와 나, 나 자신과 생태계와의 모든 관계가 소통 불능, 교감 불능이다.

놀이는 몸을 가진 인간이 이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이다. 놀이에는 인간의 몸이 지닌 구조와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 인간의 몸은 언제나 먹고 싶고,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하고 싶다. 중국에서 우주의 중심원리를 음악의 중심음과 같은 개념을 써서 율려(律呂)라 했던 것도 그런 까닭이다. 인간은 ‘우주가 노래하며 춤추며 사랑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굳이아말로 그런 생각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관계하면서 음악과 몸짓을 그 중심에 둔다. 로마의 신앙행위로써의 연중 축제의 이름에는 모두 ‘놀이(Ludi)’라는 말이 붙는다. 비장한 현실의 문제와 재미를 추구하는 놀이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하나



위기를 곳으로 풀던 민족이 해방 이후 군부 독재라는 강제에 의해 위기를 돌파한다. 강제는 산업사회의 또 다른 이름, 몸을 생산 도구를 해석하고 '터미네이터'를 양산하는 국민교육과정 속에서 제식훈련, 체력장을 중심으로 한 몸교육을 받았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지나칠 정도의 관심을 보인다. 병적인 수준이다. 몸문화의 단절이 깊다.

의 행위 속에 결합되어 있다. 임권택의 <축제>라는 영화 역시 이런 관점을 지니고 장례라는 행위를 바라본다. 그렇게 놀이는 현실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습, 도덕적 관념에서 우리를 초월로 인도한다.

삶의 길이요, 초월의 방편이었던 놀이가 오늘날 왜 그렇게 협소한 의미만 지니게 되었는가? 노동으로부터 분리되고, 종교로부터도 경원시되는, 무언가 격이 낮고 퇴폐적이며 부차적인 행위로 취급되는 가운데, 오로지 여가라는 골치 아픈 시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역설되는 놀이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훌륭한 놀이 형식으로 제시하려는 곳의 현주소와 대안적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몸이라는 인간의 존재방식을 통해 보이는 현실세계와 보이지 않는 신적인 영역간의 소통을 시도함으로써 오늘의 삶을 누리고 또한 문제를 푸는 상징적 행위가 낫다. 화랑 제도가 사라진 고려 시대에도 무당을 화랑이라고 불렀고 이는 화랑의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었는가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빌어온 주자학은 이 땅에 글의 문화를 열어놓았다. 소수의 창조적 행위 결과를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게 되며 스스로의 삶을 해석하고 반성할 수 있는 사상적 체계를 얻게 되고, 또한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민족의식이 싹트게 되는 근대국가 형성의 과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㉞ 몸의 문화, 글의 문화

난 고조선 이후 고려까지를 몸을 중심으로 한 느낌의 삶을 살았고, 조선 시대에 와서는 글을 중심으로 반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해석한다. 《동이전》에는 우리 민족이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 했고, 신라의 정치와 군사 조직의 엘리트였던 화랑은 풍류도를 실천하는 집단 또는 제도로서 사뉘기를 부르고, 춤과 무예를 익히면서 나라의 제사를 집전하는 일을 도맡았다.

글을 알면 양반이요, 모르면 상놈이다. 글의 문화가 권력을 얻음으로 해서 몸을 쓰는 사람과 몸으로 하는 일과 그 경험적 지식은 주변부로 밀려나고 글의 문화는 마치 유행처럼 되어갔다. 임진왜란은 자폐적인 글문화의 허구를 드러내고, 우리 민족은 그 이후 몸을 쓰며 살아가는 민초가 오히려 스스로를 당당하게 표현하는 민중문화의 전성기를 맞는다. 풍물 탈춤 판소리 마을굿 등 오늘날 우리가 민속연희라 부르는 것들과 마을축제가 꽃을 피웠다.

그러나 그 문화는 거칠고 천박한 표현에 의존했다. 풍자와 해학을 통해 사회를 반영하고 감정을 분출시키는 신명풀이의 길을 텅지만 변혁의 사유나 풍류의 정신을 잇는 인식을 보여주는 데까지 가지는 못했다. 동학은 몸 에 하늘을 모시는 웅대한 사상으로 몸의 문화와 글의 문화가 융합할 수 있는 길을 제시

인문학적 반성 없이 조선 후기의 민중문화를 그대로 계승, 거칠고 천박한 분출의 표현문화를 그대로 반복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요즘 십대 가수들의 거칠고 깊이 없는 노래들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해방 이후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와 분단으로 인해 절대적 위기 국면을 맞는다. 위기를 굿으로 풀던 민족이 이번에는 군부독재라는 강제에 의해 위기를 돌파한다. 강제는 산업 사회의 또 다른 이름이다. 몸을 생산의 도구로 해석하고 ‘터미네이터(terminator)’를 양산하는 국민교육과정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란히’로 시작하는 제식훈련과 체력장을 중심으로 한 몸교육을 받았다. 잘 놀면 판따라요, 춤추기 좋아하면 춤바람이 난 거라 했다. 놀이는 어렸을 때 졸업하는 짓이요, 어른이 되면 산업전사로 거듭나야 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몸에 관한 일이라면 지나



했지만, 현실적인 권력을 얻지 못하고 일제의 물리적인 힘에 밀려 민족의 보편적인 사상으로 자리잡지 못한 채 기독교와 마르크시즘에 자리를 내주고 만다.

기독교와 마르크시즘 역시 놀이에 관한 한 생산가치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지 못했다. 오늘날 기독교는 바로 몸에 대한 해석의 빈약으로 인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며, 마르크시즘에 기초한 70, 80년대 문화운동은

철 정도의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그 관심과 이해가 그렇게 천박할 수가 없다. 몸에 좋다면 무엇이든 먹고, 다이어트·성형수술 등 용모에 대한 투자는 병적인 수준이다. 몸문화의 단절이 깊다.

[46] 풍류정신의 회복과 축제

축제가 우리 주위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 벌써 두 세대가 되어 간다. 일제가 전쟁에

광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생산과 싸움의 도구로 보면서부터다. 과정은 없고 목표만 있는 사회. 새마을운동과 잘 살아보자는 목표 아래 동제 또는 마을굿이라고 부르던 마을축제가 모두 사라져버렸다. 최근의 축제 붉은 먹고 살 만해서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축제의 형식을 되찾지 않으면 더 이상 사회가 존속할 수 없는 모종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강제와 권위만으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고, 전문성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다양성과 복잡성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 사회 그리고 나의 몸은 풍류의 회복 또는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풍류는 생태계와의 친화라는 덕목을 놀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개념이다. 요즘 휴가풍속도를 보면 인간은 물과 나무와 바람 이런 것 없이는 못

럽게 차린 밥 한 끼를 먹고 ‘거 잘 먹었다!’고 한다. 그것 또한 굿이다. 일상 속에서 체험되는 지극함이 굿인 것이다. 달보고 좋으면 굿이다. 그냥 놀러가는 법은 없다. 달을 맞으러 가는 거다. 생태계와의 교감과 놀이가 함께 있다.

굿을 할 줄 모르니 신명이 나질 않는다. 굿의 원리가 있다면 첫째는 천지신명과 함께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천지신명과 함께 한다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마임 연기자로서 가장 감동적인 공연은 야외에서 천지신명을 관객으로 삼아 공연을 할 때다. 바람도 나무도 관객이다. 내겐 그것이 생태계와의 교감이며 노동이고 굿이다.

페스티벌의 일본식 번역어인 축제의 우리 말은 굿이어야 한다. 그래야 축제를 일상화할 수 있다. 도시에서의 굿을 벌여본 경험이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린 아이들에게 휴장난 물장난보다 재미있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놀이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는 도시를 생태적 공간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포함한 일상을 신명과 풍류의 원리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굿을 비종교화,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본다. 좋으면 굿이다. 정성스

없는 우리는 마을굿이 축제의 원형이다. 여기엔 난장 개념이 있다. 난장은 퍼포먼스를 통한 통각적인 소통이다. 난장은 일반적인 학습이나 대화를 통해서 얻어질 수 없는 드러냄과 인식에 이르게 한다.

저마다의 삶의 과정과 기쁨이 축제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 내가 대구거리마임축제를 만드는 마음이 그것이다.

21세기 청소년문화운동의 새로운 지평



임 광 진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전문위원

세계문화 수용의식

글로벌 문화를 '제3의 문화'라고 부른다. 글로벌 문화는 학문과 예술 등과 같은 고급문화나 컴퓨터게임, 옷, 몸치장, 스포츠, 재즈, 춤 등 하위문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새로운 기술 개발로 말미암아 이런 분야들이 가장 빨리 국제화되고 탈민족화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계속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을 이용하고 또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미 이와 같은 글로벌 문화를 호흡하며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 문화를 수용하게 해야 할 것인가? 세계화 시대에 국경을 장벽으로 하는 문화의 차단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무의미하게 되었다. 세계화는 다른 사회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들과 기꺼이 교류하는 데서 형성되는 만큼, 과연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의 경험을 중시하고 있는가. 청소년들에게 '교차적 문화적 이해'가 가능한가.

21세기에 우리는 다른 문화와 접촉을 통해 그리고 이질적인 문화와의 경쟁을 통해서 더욱 창조적인 청소년문화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문화 요

소를 발견하고 다른 문화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나침반으로서의 문화'를 제시하고 있는가.

18세기 말부터 문화의 단일화 경향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바로 이성 안에서 계몽의 보편화와 특수주의의 소멸인자를 발견한 당시의 철학자들이 생각해낸 것이었다. 그리고 산업혁명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았다. 현대인들 역시 세계화가 점차 세계의 문화들을 하나의 모델로 융합시켜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 이 예상은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났고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즉 미국의 '코카콜라 식민지화' '사이버 문화'에 의한 세계화 등을 그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960년대에 사회학자들은 이 느낌을 피할 수 없는 세계화의 효과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명들의 '융합이론'이라는 형식으로 합리화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들은 좀더 신중해졌다. 세계화는 기대했던 융합을 생산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인류가 구조적으로 사회적 분열, 집단들의 자기규합, 문화적 구분, 여러 다양한 생활과 소비 양식들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해서 인류는 그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든 과정

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를 생산해내는 '놀라운 기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문화적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이들이 바로 우리의 젊은이라고 믿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 시민권의 확보

세계화되어 가는 오늘에 있어서 한 나라에서 뿐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문화적 시민권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에게는 문화교육이 중요하다.

문화적 시민권(Cultural Civil Right)이란 레나토 로살도의 '치카소 운동' (멕시코 계 미국인을 지칭하는 치카소의 권익 확보를 위한 운동) 연구의 핵심 개념이다. 이 개념은 법적 개념만으로는 이민자를 포함한 소수자

요가 있다.

모든 문화가 그렇듯이 문화와 문화 사이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인정함으로써 모든 문화는 동등한 위치와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문화적 시민권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날 전 세계적 문화의 교류와 접촉 시대에 있어서 하나의 문화 또는 자국의 문화를 세계문화화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지양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성을 지켜주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런데 전통문화는 민족문화의 금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고, 글로벌 문화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1세기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문화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미래에는 소위 말하는 '세계문화'가 지

문화산업 역시 올리히 백이 밀한 실험적 문화로서의 틈새문화의 틈새생산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세천년의 청소년정책이야말로 문화산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나아가 문화산업 속에서도 청소년문화기 꽃필 수 있도록 지원에 주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들이 완전한 시민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공식, 비공식적으로 가해지는 차별과 편견이 소멸되고 무엇보다도 소수계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에 대해 떳떳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상황, 즉 문화적으로도 시민권은 확보해야만 미국의 공식 이념인 융광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문화적 시민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기들의 문화적 유산에 대해 긍지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



'2001 한·일 미래지향적 청소년 교류 참가자들과 함께'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다른 문화와의 접촉과 경쟁을 통해 더욱 창조적인 그들의 문화 만들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금까지 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문화가 문화적 주도권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국가와 관계없는 지식과 기술, 정보 교환과 매스컴 등에 의해 문화의 주도권이 형성될 것이다.

세계문화가 미국문화의 확대판과 같은 요

소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세계문화를 미국 문화의 세계화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아무튼 세계화 혹은 지구화 등으로 흔히 칭해지는 현재의 문화적 상황은 각각의 문화들이 그 고유한 차이를 간직한 채 '창고 세일장' 혹은 '번잡한 교차로'로서 적절히 상상될 수 있을 만큼 이동과 교류, 섞임과 변화 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세계문화 시대의 문화적 시민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청소년 문화교육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한 당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틈새문화로서의 청소년문화

앞으로 우리는 문화산업이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맹목적인 소비에 대한 욕망을 새로운 문화 생산의 자원으로 바꾸어 주고 소비를 통해 자아실현을 하려는 욕구를 문화 창조의 잠재력으로 개발시켜 주며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문화산업이 관련을 갖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산업이 청소년을 소비 대상으로만 보고 또한 그들의 문화를 비생산적이고 비창조적이며 수동적이고 감각적 오락적인 것이 되게 한다면, 문화산업 역시 한계에 부딪혀 함께 공멸하게 될지도 모른다. 기성세대들이 최선을 다해 문화산업을 육성한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문화적인 창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 문화산업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기반이 붕괴되고 말 것이다.

울리히 백은 《지구화의 길》에서 실험적 문화로서의 '틈새문화'와 '틈새생산'이 거대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합리화의 물결에 대응하는 대안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줄

우리 청소년들이 모두 청바지를 입고 코카콜라를 마시지만 그들의 삶은 다른 속에 있다. 그런데 피상적인 관찰자는 그들의 걸모습만 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청소년의 문화적 상상력과 창조와 혁신의 힘을 있는 그대로 보고 믿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구적인 지역성 시대에는 이러한 틈새시장의 문화들이야말로 창조적인 생태계고 세계 시장을 힘쓰는 제품들을 기획하고 최고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창작 아이디어를 훔치거나 보다 점잖게 말해서 '창조'하는 곳도 바로 이곳이라고 한다.

또한 그는 틈새생산으로 가능한 것으로는 미래의 문화적 실험장과 창조적인 생산방식 그리고 창의력 위주의 저렴한 생산 등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온순한 젊은이'들이 표현해내고 만들어내는 그 생활세계적인 창조력과 문화적인 부를 무분별하게 소모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목전에 이익을 위해 '재목'이 사용될 경우 사회의 자기 혁신을 가능하게 해 줄 그 '숲'도 머지않아 매달라 버리고 위축되고 말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문화산업 역시 울리히 백이 말한 실험적 문화로서의 틈새문화와 틈새생산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새천년의 청소년정책이야말로 문화산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나아가 문화산업 속에서도 청소년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문화의 세계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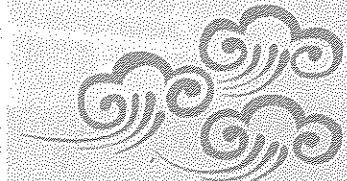


국제 청소년 포럼

대중소비의 획일적이고 소외된 특성에 대한 일반화는 실증적인 조사에 기반을 두지 않았고, 또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공감하는 모든 학자들은 주체의 창조·혁신·상상 능력을 과소평가했으며, 나아가 현대 기술이 생산의 표준화가 소비의 균일화라는 등식을 이끌어 냄으로써 논리적 오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점점 더 많고 다양한 상품들이 시리즈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장의 경쟁 때문에 점점 더 작은 시장, 틈새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원본의 생산, 재활성화 운동 그리고 재충전활동은 상식에 저항하는 문화들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고 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모두 청바지를 입고 코카콜라를 마시지만 그들의 삶은 다른 속에 있다. 그런데 피상적인 관찰자는 그들의 걸모습만 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청소년의 문화적 상상력과 창조와 혁신의 힘을 있는 그대로 보고 믿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제33회 '문화의 달' 을 맞이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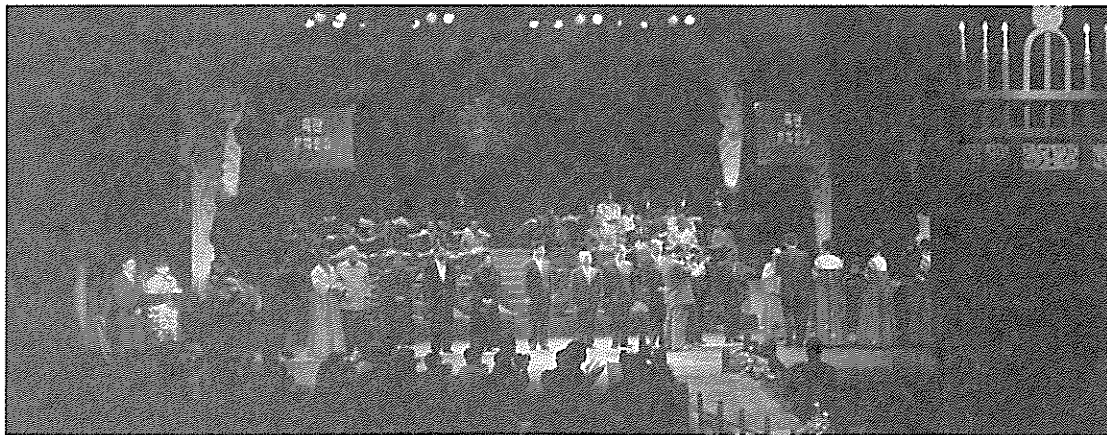
박 영 대 /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 과장

'문화의 달' 행사는 정부 주도 행사에서 민·관 합동행사로 변했다가, 다시 민간단체(문예진흥원) 행사로 바뀌었으며, 현재는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민간 자율성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주체 변화로 나타난 새로운 흐름은 지역을 활동의 중심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의 달' 과 '문화의 날' 설정을 국가의 의무로 부과하면서 국민들에게도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적극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이양

2004년도 제33회 '문화의 달' 행사가 10월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도청 앞 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를 주제로 펼쳐지게 된다.

지난 해 대구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화의 달' 행사는 1972년 8월 4일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어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또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 지방(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던 2003년 문화의 달 기념행사.

당시 문화의 날로 통합되었던 방송의 날(10월 2일), 영화의 날(10월 27일), 잡지의 날(11월 1일) 등이 대부분 10월에 몰려 있었던 점과, 그 해 문화예술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이 행사의 취지가 수확과 풍요의 계절인 10월의 이미지와 맞아 떨어짐으로써 10월은 국민 모두의 '문화의 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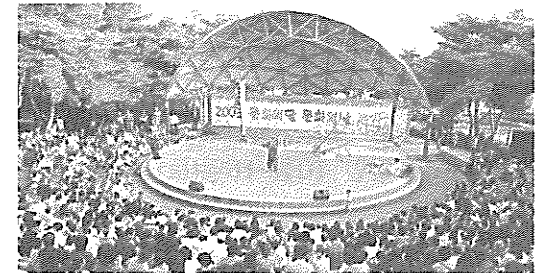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國家는 國民으로 하여금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文化의 날과 文化의 달을 設定한다” 라고 문화의 달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달(5월), 독서의 달(9월), 방송의 날(9월 2일), 관광의 날(9월 27일), 책의 날(10월 1일), 한글날(10월 9일), 체육의 날(10월 15일) 등 문화관광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부분의 행사와 마찬가지로 '문화의 달' 행사도 대체로 2개의 큰 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중 하나는 공적이 뛰어난 문화예술계 인사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행사이며, 다른 하나는 문화의 날을 정점으로, 10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그동안 '문화의 달' 행사는 법령에 근거한 대부분의 정부 행사가 그렇듯이 서너 번의 성격 변화를 거쳐 왔다. 정부 주도 행사에서 민·관 합동행사로 변했다가, 다시 민간단체(문예진흥원) 행사로 바뀌었으며, 현재는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민간 자율성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주체의 변화가 이어지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새로운 흐름은 중앙 중심주의에서의 탈피, 즉 지역을 활동의 중심으로 사고할 수 있게



▲ 지난 해 대구에서 열린 문화의 달 기념 문화예술행사.

된 것이다.

지난 해 문화의 달 행사가 대구에서 개최된 원인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와 대구 지하철사고와 연계시켜 생각하는 것이 원칙에 충실한 해석이 되겠으나, 실은 상당 기간 동안 쌓인 지역 중심적 사고가 몇 가지 계기와 맞물림으로써 현실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 특정 주, 특정 요일을 정하는 건 어떻게?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것처럼,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설정을 국가의 의무로 부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도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적극 참여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느낌의 차이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축제이기보다는 조금은 정부의 국민에 대한 요구가 강조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올해 '문화의 달' 행사에서는 이전의 행사들과 다른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날짜의 문제이다. 2004년 '문화의 달' 행사는 10월 16일에 개최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시민들과 하나가 되기에는 주중 수요일인 10월 20일보다는 그 전 주 주말인 10월 16일(토요일)이 좋겠다는 추진위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날짜와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겠으나, 만약 10월의 특정 주, 특정 요일을 정한다든지 하는 원칙이 정해지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관련 법률의 개정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유공인사들에 대한 시상식과 문화예술행사의 분리 문제이다. 이 문제는 지난 해 대구 행사 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었던 사안으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의 시상식에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는 연로한 문화예술인들을 모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금년도 행사부터 시상식과 문화예술행사를 완전히 분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으며, 시상식은 10월 20일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대신에 문화관광부 장관상인 지역 유공자상과 광주시 문화예술상은 10월 16일 본 행사 중에 시상하게 된다.

셋째, 8시간을 이어가는 릴레이 행사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전의 '문화의 달' 기념 문화예술행사가 대부분 시상식을 중심으로 식전 및 식후행사의 개념에 한정되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참으로 커다랗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이전에도 문화의 달에는 전국의 각종 문화예술기관과 지자체들에서 다양한 종류의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유공

인사들에 대한 시상식을 중심으로 치러진 본 행사무대에서 문화예술행사는 어차피 그 역할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참고로 금년도 '문화의 달'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 본부와 문화재청 및 국립박물관 등 소속기관이 개최하는 행사는 축제·공연·전시·경연 등을 포함 총 95개에 달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16개 광역지자체에서도 총 562개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상식과 분리된 기념문화예술행사 개최는 새로운 시도임과 동시에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과제이며 도전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완성하는 행사라는 점이다. 낮 시간에 펼쳐질 '빛의 마당'의 경우에는 ① 난장 아트 ② 강강술래 ③ 공공미술 ④ 생활예술시장 ⑤ 더불어 함께 마당 등 5개 섹션 11개 프로젝트에서 총 50여개의 시민 주체형 분야별 프로그램이 동시다발 형태로 이어진다.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계층들이 전체 참여인원 3800여 명 중 10%를 상회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처음부터 공동 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실제 참여 인원은 600여명으로 15.8% 수준이다).

'빛의 마루'에는 광주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관련 동아리들이 대부분 참여하게 되고, 밤 7시부터 9시 사이에 금남로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빛의 마루'에는 총 11개의 작품의 옴니버스 무대로 구성된다. 전체적으로 8시간 이상 계속되는 이 날의 행사는 우리 일반시민이 일상에서 느껴왔던 문화적 삶의 흥과 신명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창작자들의 활

동이 문화예술의 경계를 넘어 밖으로 확장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개최 도시 선정부터 축제로 ...3년 이상 준비해야

지금까지 논의한 '문화의 달' 행사의 특성과 관련해 문화관광부 관련 다른 행사의 경우도 상당 부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첫 번째 특정 날짜를 특정 요일로 조정하는 문제는 청소년의 달, 독서의 달처럼 특정한 달만을 지정하여 운용하거나, 한글날과 같이 날짜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의 시상식과 기념행사의 분리 문제나, 세 번째 행사의 내용 문제, 네 번째 시민 참여 활성화 등의 문제는 각각의 행사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고, 행사에 따라서는 이미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끝으로, 문화가 온전히 제 역할을 하는 사회라면 '문화의 달'이나 '문화의 날' 제도가 왜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현존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의 몇 가지 발전방향에 대해 언급해 두고자 한다. 2003년도 대구 행사부터 지역에서 개최된 '문화의 달' 행사가 4800만 모든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행사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의 달' 행사는 개

최 지역의 선정 작업부터가 하나의 국민 축제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2003년 대구의 경우나 2004년 광주의 경우 특별한 절차나 경쟁이 없이 행사 개최 도시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2005년의 경우, 이미 인천·전주·진주 등 몇몇 도시들이 경쟁 상태에 들어가고, 2006년 이후에는 더욱 많은 도시들이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정 작업 자체를 하나의 국민 축제 행사로 키워나가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철저하게 단년도 행사로 꾸려지고 있는 현재의 '문화의 달' 개념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 규모 등 직접적인 비교가 쉽지는 않겠으나 유럽의 '문화수도'처럼 최소한 3년 이상의 중기계획으로 행사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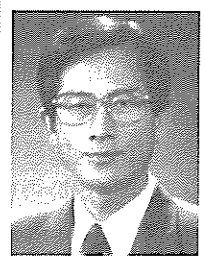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기 지역에 꼭 맞으면서도 재미가 있고, 국제적인 경쟁력도 갖춘 문화활동들을 찾아내어 발표하는 데는 3년도 결코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재 구상 단계에 있는 이 계획이 구체화되어 2006년도부터 사업화될 경우, 기본적으로 '문화의 달' 개최도시에는 3~4년 전에 선정되어 매년 평균 5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문화의 달'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의 모든 도시와 지역사회들이,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주민들이 소외와 차별이 없는 균형 잡힌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창의적인 삶을 즐겁게 꾸려갈 수 있을 때까지 '문화의 달' 행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맺는다.

지역문화와 관광자원 개발

文化論評



임 현 용 / 충남도문화관광국장

문화 선진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는 정신적, 경제적 자산이며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이 관광 산업이다. ‘굴뚝없는 高附加價値 産業’이라 칭하는 관광산업의 최대 자원은 지역문화다. 물론 각종 이벤트와 자연경관, 그리고 편리한 시설 등도 중요하지만 감동과 신비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장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는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에 가장 적합한 소재다.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따라서 우리 지역에 산재한 각종 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잘 보존함은 물론 다른 지역 문화와 차별성을 부각, 널리 알리고 언제든 찾아와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문화 관광 전략의 핵심이다.

우리지역은 백제역사의 중심지로서 역사문화에 있어서 신라문화권과 차별성이 있고 전

통문화도 호남이나 영남과 차별되며, 언어와 행동양태 등 생활 문화에서도 다르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유교문화에 있어서도 영남학파의 중심지로 각광받는 안동 문화권과 쌍벽을 이루는 기호학과 김장생, 송시열, 윤증 선생 등의 유적이 지역에 산재하고 있으며 밖으로 일본에 까지 영향을 미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는 개발 여하에 따라서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건축문화, 음식과 언어 등 생활문화, 전통놀이 및 춤과 음악 등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으로 이미 차별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매력성을 찾아내 부각시키는가가 고유한 관광 상품으로 발전될 수 있는 관건일 것이다. 매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고유한 자연미, 신비감, 고유성, 향수성, 교육적 가치 등을 꼽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문화자산을 원형 보존하는데만 몰두했을 뿐 이러한 요소들을 찾는데 소홀했다고 생각된다. 고유한 초기집



▲ 무용총수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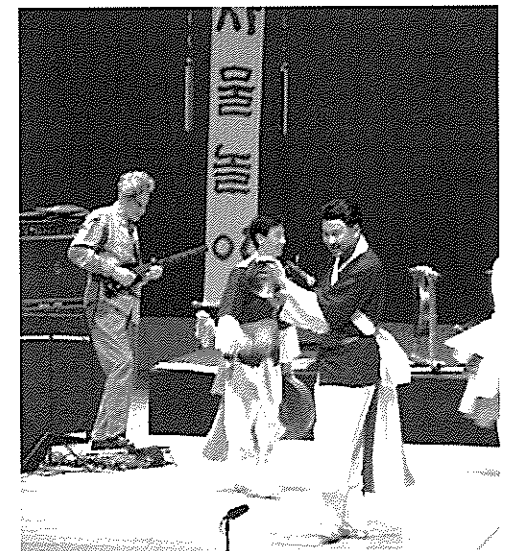
이 다른 나라의 건축물과 차별성을 충분히 가졌다고 하나 정적인 보존 상태만 보여 줄 수 있을 뿐 동적인 요소가 가미되지 않음으로써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었다.

그곳에 전통 의상을 입고 사람이 거주하며 생활의 일부라 할 수 있는 다듬이 방망이 소리를 들려 줄 수 있다면 훨씬 호기심을 자극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은가? 가을밤 어머니 혼자 또는 할머니나 누이와 마주 앉아 또닥 또닥, 때로는 토다닥 토다닥, 투박하면서 경쾌하고 불규칙하면서도 규칙적이며 가까이 듣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에서 들을 때 더 정겹고 청아한 다듬이 방망이 소리는 끊긴지 오래지만 얼마든지 재현할 수 있는 것들이며 이러한 요소들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바로 문화콘텐츠 개발이다.

독창적 콘텐츠개발의 전형

현대사회를 일컬어 지식기반사회라 하는데 우리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이야말로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그러자면 가장 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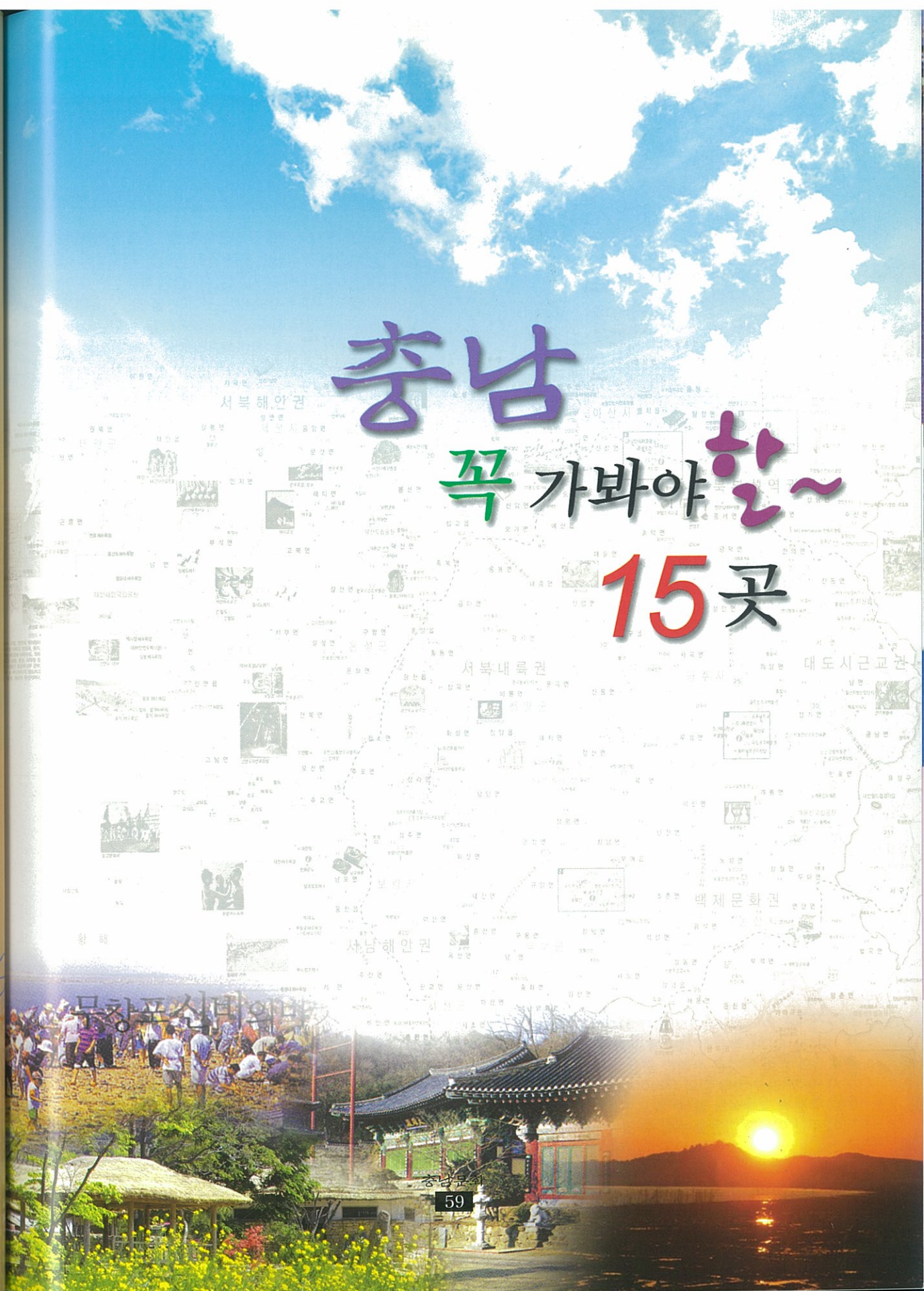
저 해야 할 일은 우리문화의 원형복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성과 독창성을 가진 고유문화를 원형으로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세계 유일의 상품임을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예는 최근 김덕수의 사물놀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통가락을 체계화하고 공연예술로 승화시켜 이를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찬사를 받은 바 있으며 ‘사물놀이와 오케스트라의 만남’ ‘사물놀이와 재즈의 만남’ 등은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 김덕수 사물놀이

우리 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자원 개발은 오늘날의 여가생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화 시대에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서 행정기관은 물론 주민과 기업, 학계를 망라한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충남관광안내도





광덕사

광덕사는 천안시 광덕면과 아산시 송악면의 경계에 있는 광덕산 서남쪽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천년사찰이다. 신라 진덕여황 6년 자장을사가 창건하고 진산대사가 중건한 이 사찰은 경기, 충청지방에서는 가장 큰 규모였다. 당시엔 절의 땅이 광덕면을 다 덮었다지만,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리고 다만 보물 제390호로 지정된 고려사경과 5층 석탑, 부도5기, 석사자와 대웅전 입구에 있는 400년수령의 호두나무가 광덕사의 오랜 내력을 알려준다.

광덕사와 호두전래 사적비 등 여러 가지 문화재를 지니고 있는 광덕산은 울창한 호두나무, 잣나무군락지와 야생동물의 보고이며,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발생 유원지인 광덕계곡 등 주변 풍광이 아름다워 주말 등산코스로도 손꼽힌다.

공주시

백제의 왕도

공주의 옛 이름은 웅진이다. 웅진은 우리말인 고마나루의 한 역이다. 고마는 곰(熊)을 뜻하고, 나루는 한자로 진(鎭)을 뜻한다. 그래서 공주는 곰나루이고 아직도 우직한 사랑이 땅의 기운 곳곳에 서려있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이다. 공주는 계룡산의 수려한 경관과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금강이 있어 산의 상서로운 기운과 강의 유유했던 정신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공주는 국보 12점을 비롯한 108종 2,906점의 유물이 발굴된 무령왕릉 백제의 궁성이었던 공산성 등 그 옛날 찬란했던 백제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백제의 왕도(王都)이다.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주고 인정이 많고 예의 바른 역사·문화·교육의 도시가 바로 공주이다.



공산성

공주시내에 들어서면 금강을 북에 두고 천연의 요새를 이룰 수 있는 나지막한 산이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백제의 옛 왕성인 공산성(사적 제12호)이다.

공산성은 '택리지'에 "성안에 군량과 군기를 저장하여, 강화·공주와 함께 전략적인 중요한 지역"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역사와 문화가 깃든 수려한 공산성에는 금강을 바라보며 한가롭게 산책할 성벽과 금서루, 진남루, 공북루, 쌍수정, 영은사, 연지 및 만하루 등의 유적이 있고, 우거진 숲과 숲 사이의 산책로도 잘 정비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주말이면 백제시대의 수문병 교대식도 볼 수 있고, 가족 또는 사랑하는 연인들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면서 수려한 풍광 속에서 자연이 주는 여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천안시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곳

천안은 천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곳, 혹은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이라는 뜻을 가진 땅이다. 예로부터 삼남(三南) 지방의 교통요지로 많은 사람이 거쳐 간만큼 이야기도 많고, 문화유산도 많은 곳이다. 봄에는 아우내에서 유관순의 뜨거운 애국심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봉화제가 열리고 가을에는 천안삼거리에서 잠자고 있는 전설을 깨우는 흥타령문화제가 열린다. 신고배처럼 시원한 산과 강, 거봉포도처럼 달콤한 사람들이 오는 이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곳이 천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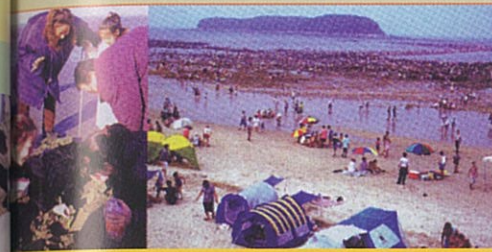


보령시

꿈과 낭만이 넘치는...

보령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가 완만하여 간석지에 농경지를 개발,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충청남도 최서단인 외연도와 황도까지 관할하는 바다를 포함한다면 충남 내륙의 넓이에 버금가는 광활한 지역이다.

보령은 시원한 바다와 물이 맑고 깨끗한 수많은 해수욕장, 크고 작은 섬들의 비경과 함께하는 바다낚시, "모세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보령산 머드를 홍보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보령머드축제는 다양한 머드체험 이벤트로 이제 세계인의 축제가 되었다.



바다 한 가운데가 열린다면 어떨까? 또 그사이를 걷는다면? 내 양옆으로 바닷물이 흐른다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 무창포이다.

무창포는 주변의 기암괴석과 울창한 송림 덕분에 해수욕, 바다낚시, 산림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휴양지이다. 또한, 무창포 앞바다에 떠 있는 석대도와 흑섬 사이로 넘어가는 해널이는 무창포의 최대 비경이다. 아직 무창포는 번잡한 휴양지라기보다는 조용하고 인심 좋은 어촌으로 호젓한 바다여행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무창포해수욕장의 북쪽에 한적한 어촌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무창포구에 고깃배가 들어오는 시간을 잘 맞추면 현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풍성한 횡감과 매운탕거리도 장만할 수 있다.

아산시

온천 고을

아산(牙山)에서 아(牙)는 어금니 '아'자이다. 이는 아산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어금니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산은 서해로는 아산만을, 동으로 봉간천, 서로는 삽교천, 중앙으로는 곡교천 등 그 유역을 따라 기름진 옥토와 국내 유수의 온천수 등이 분포되어 있다. 농촌과 어촌을 동시에 형성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서해안 지역발전의 입지조건이 양호한 곳으로 아산항 종합개발, 고속철도 역세권 신도시 개발로 지역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고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산은 온양온천, 아산온천, 도고온천 등 온천관광지로 이름난 곳이다. 주변의 빼어난 경관을 바탕으로 따뜻하고 몸에 좋은 온천수에 몸을 담그면 세상에서 묻혀온 먼지는 깔끔하게 떨어질 것이다.



외암민속마을

국가지정중요민속자료 제326호인 외암민속마을은 국가에서 지정 보호하고 있는 마을로 아산시 송악면 설화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예안 이씨일가가 약 5백년 전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마을로 문중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아서 큰집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끼 낀 돌담을 보면 옛 모습을 간직한 집들이 이 마을의 역사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외암민속마을은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디딜방아, 연자방아, 물레방아, 초가지붕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또한 외암민속관이 건립되어 있어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충청지방 고유의 양반집들과 초가집들이 고향의 향수를 일깨우듯 들어서 있는 이곳에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옛 전통가옥과 문화를 감상한다. 최근에는 전통사극이나 각종 영화 촬영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무창포 신비의바닷길



간월도

원래 두개의 섬이었으나 서산A·B방조제가 건설되고부터 하나는 육지가 되고, 다른 하나는 썰물때에만 건너갈 수 있는 섬으로 남게 되었다. 이 남은 작은 섬에 조선 초 무학대사가 토굴을 짓고 득도했다는 간월암이 있는데, 다른 암자와는 달리 밀물때는 섬이 되어 물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 신비롭기만 하다. 간월호에는 서산A·B지구 간척지의 풍부한 먹이와 물이 오염되지 않아 시베리아에서 매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60여종 40여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와 월동하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매년 11월부터 시작되는 천수만 철새축제에는 전국에서 철새를 보기 위해 수십만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겨울철에는 이 지역의 특산 별미인 새조개를 맛볼 수 있고, 어리굴젓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매년 정월 보름날 밀물때에 간월도리 어리굴젓 기념탑 앞에서는 굴의 풍년을 기원하는 굴부르기 군왕제가 열린다.



서산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태안반도의 동쪽에는 가야 산지가 있고, 이곳으로부터 서쪽으로 낮은 구릉성 산지가 뻗어 있으며 그 중심부에 팔봉산, 성왕산 등이 있다. 충청남도 서북단에 자리 잡고 가야산맥이 가로막아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었으나,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및 충청남도 내륙지역과의 연계가 편리하다. 매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0여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 월동하는 간월호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서산의 자랑이다.

11월에 시작되는 천수만철새축제에는 국내외의 수 많은 탐조인들이 이곳을 찾아 철새들의 향연을 즐긴다. 아름다운 산과 외롭게 떠 있는 섬들, 마음 한 구석을 기댈 수 있는 사찰들이 있는 서산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고장이다.

금산군

세계인삼 Expo가 열리는 곳

충청남도의 최남단으로 영·호남의 관문인 금산은 세계적인 인삼 고을이다. 금산은 전국 인삼의 80%이상이 집산·거래되어 한국에서 가장 큰 인삼시장이 형성되는 곳이며, 2006년 9월에 "금산세계인삼EXPO"가 개최되는 곳이다. 인삼과 축제의 고장인 금산은 봄에는 비단고을 산벚꽃축제, 여름에는 금강민속축제, 가을에는 인삼축제, 겨울에는 장동달맞이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사계절 내내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쌈싸름하고 달콤한 인삼 향기와 빠르고 경쾌한 농악과 두레농사를 지으며 부르는 농요, 자연을 거스르지 않은 평온함과, 눈이 시리도록 시선을 꼭 채우는 초록의 빛깔들로 여행객들의 마음까지 물들이는 금산은 아름다운 고장이다.



대둔산

소금강이라 불리우는 대둔산은 봉마다 기암절벽이요, 돌마다 괴석으로 충남 금산·논산, 전북 완주 3개 군의 군계에 걸쳐있는 '한국 8경'의 하나이며, 충남·전북 양 도의 도립공원이다. 대둔산내에는 오대산(269m), 월성봉(649m), 비랑산(565m), 태고사계곡의 갯바위, 고갈바위, 선녀폭포 등이 신선경을 이루며 주봉, 천마봉, 거성봉을 비롯한 기암괴석으로 병풍을 이루는 웅장함 때문에 옛날부터 시인 묵객으로부터 소금강이라 불리었다. 봄철에 진달래, 철쭉과 연록의 물결, 여름철의 운무 속에 영봉과 장폭, 가을철 불타는 듯한 단풍, 겨울철의 온봉 옥령은 형언할 수 없는 자연미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낙조대에서 맞이하는 일출과 낙조의 모습은 대둔산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장관이다.



논산시

충절과 예절의 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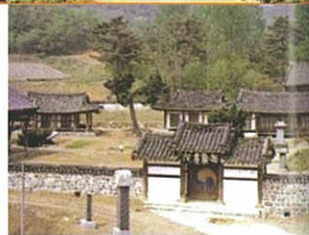
예학과 선비의 고장인 논산은 일찍이 한문화의 영향을 받아 성리학이 발달함으로써, 훌륭한 학자를 배출한 조선 성리학(기호학파)의 발생지이며, 노성산성,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관촉사, 옥녀봉, 개태사, 탑정저수지, 대둔산, 쌍계사 등의 논산 8경이 있는 곳이다. 논산하면 떠오르는 곳이 연무대이다. 연무대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은 거쳐야 하는 육군훈련소가 있기 때문이다. 논산은 강경의 전갈과 딸기로도 유명하다. 매년 개최되는 강경젓갈축제와 논산딸기 축제, 벚꽃축제는 논산을 다시 살펴 볼 수 있는 즐거운 볼거리이다.



돈암서원

인조 12년(1634)에 건립된 돈암서원은 율곡 이이의 학맥을 이어 기호학파를 이루었던 예학의 대가 사계 김장생을 중심으로 신독재 김집, 동춘당 송준길, 우암 송시열 등 문묘에 배향된 네 분만을 모시고 있는 보기드문 선정서원이다. 현종 원년(1660)에 돈암이라는 사액을 받은 돈암서원은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정책에도 불구하고 보존된 전국 47개 서원중의 하나로 "항가실기", "사계유고", "신독재유고"등 판각이 보존되어 오고 있다.

다른 서원과 마찬가지로 돈암서원도 외삼문, 강당, 내삼문, 사당을 중심으로 평지에 세워지는 서원건축에서 볼 수 있는 공간 미학을 대표하는 서원이다. 이곳 유림들이 매년 2월과 8월에 제향을 올리고 있다.



연기군

복사꽃 향기에 취한...

연기군은 복숭아의 고장이다. 연기군 마크 역시 열정, 진취, 따뜻함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복숭아를 연상시키는 원 모양인데 이는 풍요와 희망과 미래를 뜻한다. 지대가 목장, 과수원, 농작물 재배에 적합하여 복숭아가 많이 생산되며, 서면일대에는 복숭아 과수원이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매년 4월에는 도원문화제(桃園文化祭)가 개최되어, 복숭아 아가씨 선발과 백제대제(百濟大祭), 복사꽃잔치, 국악한마당, 씨름·그네·궁도·농악 등의 경연이 벌어진다. 이 밖에 소정면 대곡리 마을에서는 윤달이 오는 해에 마을 앞 장승을 새로 만들어 세우고 장승제를 지낸다.



비암사

비암사는 660년 백제가 멸망한 뒤, 백제 유민들이 나·당 연합군에게 역대 백제왕을 기리는 제를 지내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 허락을 받아 창건된 절이다.

비암사 극락보전내에는 담집(당가)이 있고 매우 큰 아미타불좌상이 안치되어 있다. 1960년 극락보전 앞에 있는 3층 석탑의 정상부에서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국보 제106호), 기축명아미타여래제불보살상(보물 제367호), 미륵보살 반가석상(보물 제368호)등의 백제시대의 석불이 발견되어 백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고즈넉한 숲에 쌓여있는 백제의 흔이 서리고, 800여년이 넘게 사찰을 지켜온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는 비암사는 인적이 드물어 옛 산사의 풍취를 한껏 음미할 수 있는 곳이다.



궁남지

부여군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백제의 고도

부여(사비)는 위례성(서울), 웅진(공주)에 이은 백제의 세 번째 왕도로 700여년의 백제역사속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백제의 왕도이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고장답게 많은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국립부여박물관과 궁남지, 정림사지, 백제왕릉 등 수 많은 유적지가 있다. 격년으로 열리는 백제문화제에서는 계백장군 출정행렬 · 백제사신행렬, 제전행사, 전통 민속 공연 및 경연대회, 전국시조경향대회, 궁도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찾는 이들을 즐겁게 한다.

이 밖에도 백마강의 고란사, 낙화암, 구드래나루터, 규암나루터를 오가는 유람선은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구드래나루터 일대 또한 국민관광지로 개발되어 백제 역사속에서 백제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궁남지는 부여읍 남쪽에 위치한 백제시대의 별궁 연못이다. 백제 무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궁궐의 남쪽에 연못을 팠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근거로 궁남지라 부른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동해 바다 한 가운데서 일종의 이상향인 신선이 사는 3개의 섬으로 삼신산이 있다고 생각하여 정원의 연못 안에 삼신산을 꾸미고 불로장생을 소원했는데, 궁남지는 이것을 본떠 만든것으로 신선정원이라 불린다.

백제의 조원(造園) 기술은 삼국 중 으뜸이었으며 통일신라의 조원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백제 사람 노자공은 일본으로 건너가 황궁의 정원을 꾸며 아스카시대 정원사의 사원이 되기도 했다. 빨간 연꽃이 도도하고 우아하게 떠 있고, 버드나무가 연못물에 머리를 담그고 있는 궁남지는 왕궁에 딸려 있던 연못답게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유난스럽거나 소란스럽지 않은 매력이 있다.

서천군

한산모시의 고장

서천군은 차령산맥의 끝자리가 서천군의 북부까지 미치고 있으며, 그 일부지역만 조금 높고 대부분의 지역이 준평원화된 평탄한 평야(서천평야)로 되어 있다. 마량리의 동백나무숲과 해돋이,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 한산모시마을, 신성리 갈대밭, 춘장대해수욕장, 문헌서원, 희리산휴양림, 천방산 풍광(風光)은 서천8경으로 유명하다. 특히 서천읍내에는 서천향교 · 서천읍성지 등 많은 사적지가 분포해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다. 한산의 모시는 서천의 자랑거리이자, 대한민국의 명물이다. 신라시대 때 모시풀을 발견하여 아낙네들이 모시로 해 입었다는 것에서 유래하여 1989년부터 한산모시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에 앉아 모시옷을 입고 소곡주를 마실 수 있는 신선도 부럽지 않을 땅이 서천이다.



마량포구 해돋이마을

휘어진 칼처럼 길게 튀어 나온 포구가 양쪽에 바다를 품고 동서로 가른 마량포구 해돋이 마을은 지형이 서쪽으로 돌출하다가 동쪽을 향하는 만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등만 돌리면 같은 날 해가 뜨고 지는 장관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마량 방파제에서 진초록 앞사귀에 붉은 동백꽃을 배경으로 푸른 새벽에 동남쪽인 띠섬과 장구만의 개야도 사이로 떠오르는 해와 동백정 앞 바다로 지는 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매년 12월 31일에는 오후 5시부터 "해님이 · 해돋이 축제"가 열려 길놀이, 모닥불 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밤새 진행된다. 해돋이와 해넘이의 장엄한 장관과 인근에서 잡힌 싱싱한 각종 해산물은 관광객의 발길을 유혹한다.

충남문화

64

청양군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

"콩 발 메는 아낙네야~"를 부르는 구수한 가락의 칠갑산, 매운 맛 뒤에 단맛이 일품인 알짜배기 청양고추, 불로장생의 명약이라 불리는 구기자 등 청양의 자랑거리는 셀 수 없이 많다. 칠갑산 자락에 위치한 장곡사를 비롯한 명승고적, 군민들의 후식처가 되어 주고 있는 칠갑산 주변의 천장호, 지천구곡, 칠갑산자연휴양림, 면암 최익현 선생의 사우인 모덕사까지 청양은 가는 곳마다 발목을 잡는 매력이 있다. 도심지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함은 없지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청양은 전국 제일의 천혜의 청정지역이다. 칠갑산이 아름다운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사찰을 가슴 깊숙이 안고, 호수에 발 담그고 있는 것처럼 청양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아늑함이 있는 땅이다.



장곡사

칠갑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천년고찰 장곡사는 신라 문성왕 12년(AD850년)에 보조선사 천징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이래 1,200여년 동안 존속해 온 장곡사는 장곡사철조약사 여래좌상부석조대좌(국보 제58호), 장곡사미륵불좌불탱(국보 제300호), 장곡사철조비로사나좌상부석조대좌(보물 제174호), 장곡사금동약사여래좌상(보물 제337호), 장곡사설선당(유형문화재 제151호) 등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많은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다.

특히 장곡사는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상 · 하 대웅전(보물 제162, 181호)을 갖춘 사찰로 유명하며, 약사여래도량으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장곡사 입구에는 300여개의 장승으로 조성된 장승공원이 있다.

홍성군

충절과 축제의 고을

홍성군은 아름다운 자연과 비옥한 땅을 딛고 자라나는 특산품이 많은 농 · 수산물의 고장으로 생산의 근원이 되는 태양과 땅, 그리고 풍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홍성은 고산사 대웅전을 비롯해 홍주성 · 홍주아문과 동헌이었던 안회당(安懷堂), 동문인 조양문이 홍성의 대표적인 문화재이며, 홍주의사충, 성삼문유해비, 김좌진 장군생가, 만해 한용운선생 생가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이다. 만해 한용운의 독립운동 정신과 문학 세계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개최해 온 "만해제"를 비롯해 대하 축제 중 가장 유명한 "남당리대하축제", 토굴 새우젓으로 유명한 "광천토굴새우젓축제"가 해마다 열리는 축제의 고을이다.



오서산

부드러운 산세와 흙으로 이루어진 오서산은 기암괴석과 굽이치는 능선이 어우러지고 하늘로 뻗은 해송이 곳곳에서 수려한 풍경을 연출하는 충남 최고의 명산이다. 늦가을 오서산 주능선을 하얗게 뒤덮은 억새의 향연과 빨갛게 물든 단풍의 조화로운 이국에서만 볼 수 있는 가을의 정취이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후련한 푸른 서해바다의 물결과 작은 섬들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상은 등산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코스이다.

최근에 오서산은 행글라이더 비행의 요람으로 떠오르고 있고, 산 남동쪽 기슭에 크고 작은 암반과 괴석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는 명대계곡은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충남문화

65

예산군

충절의 고장 예산

예산군은 예산읍이 중심이 되어 온양, 당진, 홍성, 공주 등 네 갈래의 교통로가 펼쳐져 있어, 옛부터 충남 북서부지역 교통의 중심이자 분기점 역할을 해왔다.

예산은 수덕사, 가야산, 충의사, 삽교평야, 추사고택, 예당저수지, 임존성 등 예산 8경과 맞춤기로 유명한 예산사과, 매년 4월에 열리는 매한 윤봉길의사 의거 기념다례행사와 매한문화제가 있어 더욱 아름다운 고장이다. 예산은 사과와 고장답게 10월에는 전국 제일의 맛을 자랑하는 예산사과를 홍보하는 능금축제가 열린다.

당진군

서해안시대의 주역

서해안 유일의 일출·월출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왜목마을이 있는 당진군은 세계 명물 서해대교의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에 충남 서해안에 도달할 수 있게 한 서해안시대의 주역이다.

농촌계몽소설인 심훈의 「상록수」가 집필된 고장, 삽교호·석문·대호방조제로 국토확장을 이루는 등 당진군은 쌀, 감자, 사과, 밤 등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고장이다.

450년의 역사를 지닌 기지시줄다리기, 안섬풍어제, 심훈을 기리는 상록문화제 등 토속적인 축제가 많은 당진은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일찍부터 천주교와 개신교가 전파되었던 지역이며,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부인 김대건 성인이 태어난 곳 또한 당진이다.

왜목마을

왜목마을은 충청남도 서해의 땅끝 마을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넘이와 해돋이 그리고 월출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이다. 바다의 물안개가 살짝 낀 날 해돋이가 더욱 신비에 가깝다는 왜목마을 매몰이는 일년내내 아름답다. 바다쪽의 노적봉 위로 솟구치는 해돋이는 수평선과 하늘을 동시에 검붉게 물들이며 바닷속 깊이 잠겨 버리는 모습은 가히 장관이라 할 수 있다.

왜목마을 앞바다에는 국화도와 매박섬이 떠 있다. 이곳 바닷가는 파도소리와 갈매기 노래까지 곁들인 한편의 시와 같은 운치가 빼어난 곳이다.

갯벌에서 굴을 따는 아낙네의 모습도 겨울 해변의 아름다운 정취로 물들어 온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슴속까지 물들이는 해넘이와 푸른 새벽의 해돋이를 함께 하고 싶다면 왜목마을이 최고로 좋은 곳이다.

충남여행!

이제 클릭한번으로 여행을 즐기세요!

천안시	www.cheonan.go.kr
공주시	www.gongju.go.kr
보령시	www.boryeong.chungnam.kr
아산시	www.asan.chungnam.kr
서산시	www.seosan.chungnam.kr
논산시	www.nonsan.go.kr
계룡시	www.gyeryong.go.kr
금산군	www.kumsan.chungnam.kr
연기군	gun.yeongi.chungnam.kr
부여군	www.buyeo.go.kr
서천군	www.sochon.chungnam.kr

신두해안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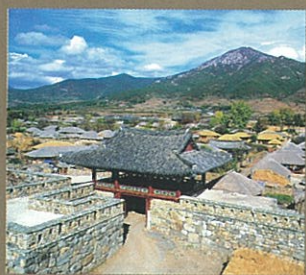
해안사구는 신두리해수욕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막처럼 펼쳐진 넓은 모래벌 빙하기 이후 강한 바람에 모래가 해안가로 운반되면서 오랜세월을 거쳐 모래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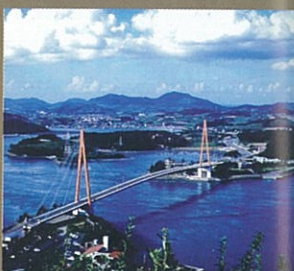
2004 통합복권기금 지원사업

남도문화체험

충남문화원연합회에서는 2004 통합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뛰어난 자연풍경을 간직하면서 가는 곳마다 문화적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순천·강진·해남·진도·목포 등 남도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난 11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2박 3일씩 7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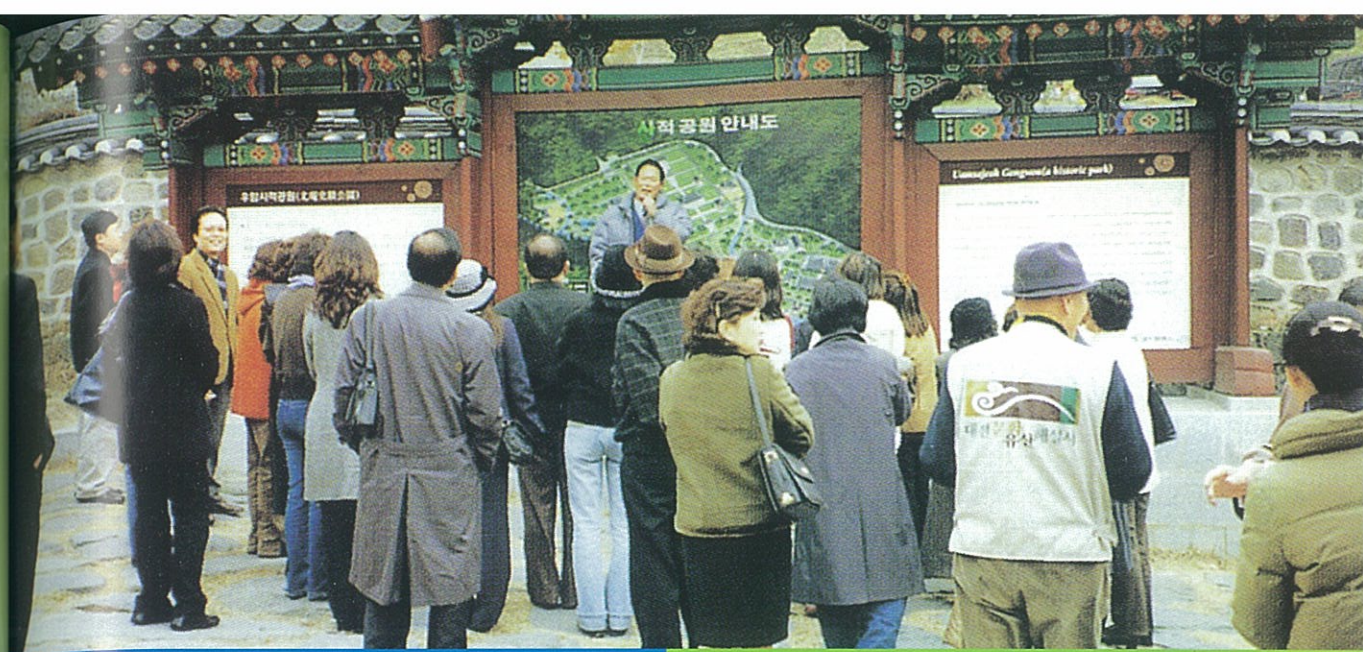
순천권
강진권
해남권
진도권
목포권



Namdo's Cultural Heritage

충남문화

68



문화체험 일정표

문화체험 프로그램

1일차

장소	상세 일정
순천	08:00 해당지역출발 12:00~12:30 낙안읍성도착(중식) 12:30 낙안읍성 견학
강진	15:00 영랑생가('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시인 영랑의 발자취를 느껴본다) 16:00 청자 도요지(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인 청자문화의 발상지)
해남	18:00~19:00 해남 도착(석식) 19:00 해남관광호텔(숙소배정)

2일차

장소	상세 일정
해남	08:00~09:00 조식 09:00 숙소 출발 09:30 녹우당(고산 윤선도의 유적지) 10:30 대흥사 견학
강진	12:30~13:30 중식 14:00 다산초당(정약용 선생의 유배지) 16:30 해남 땅끝 도착(땅끝 기념관 관람 및 자유시간) 18:00 석식 19:00 땅끝 테마파크 호텔(숙소배정)

3일차

장소	상세 일정
해남	08:00~09:00 조식 09:00 숙소 출발
진도	10:00 울돌목(해남 화원반도와 진도 사이의 좁은 해협) 11:00 윤림산방(조선후기화가 하유가 만년에 기거했던 화실) 12:30~13:00 중식
목포	14:00 유달산 순환 관람 15:00 국립 해양 박물관 관람
천안	19:00 천안 도착

■ 본 프로그램은 통합복권기금 지원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와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후원했습니다.

충남문화원연합회에서는 2004 통합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뛰어난 자연풍경을 간직하면서 가는 곳마다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순천·강진·해남·진도·목포 등 남도지역문화기행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

참여일정

지역	체험 대상	일자	대상
순천	낙안읍성 -현존하는 조선시대 읍성중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곳	2004 11.2(화)~11.4(목)	천안지역 문화 소외계층 병천지역 문화 소외계층
강진	다산초당 -정약용 선생 유배지 청자 도요지 영랑생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윤식 생가	11.15(월)~11.17(수)	당진지역 문화 소외계층 논산지역 문화 소외계층
해남	녹우당 -윤선도 등 해남유배 종가 대흥사 -서산대사·초의선사 유적 땅끝마을 -탐과 땅끝비, 전망대	11.19(금)~11.21(일)	공주지역 장애인회 태안지역 문화 소외계층
진도	울돌목 진도대교 윤림산방 -전통남화의 창작 산실	11.22(월)~11.24(수)	성환지역 문화 소외계층 연기지역 문화 소외계층
목포	유달산 국립해양박물관	11.26(금)~11.28(일)	보령지역 문화 소외계층 서산지역 문화 소외계층 충남도내 문화 소외계층
목포	유달산 국립해양박물관	12.3(금)~12.5(일)	부여지역 문화 소외계층 홍성지역 문화 소외계층 충남도내 문화 소외계층
목포	유달산 국립해양박물관	12.7(화)~12.19(일)	충남도내문화소외계층

충남문화

69



낙안읍성 민속마을



드라마 '대장금' 촬영

순천
지역



다산초당



영랑생가

강진
지역



녹우당

해남
지역



땅끝마을



울돌목과 진도대교



운림산방

목포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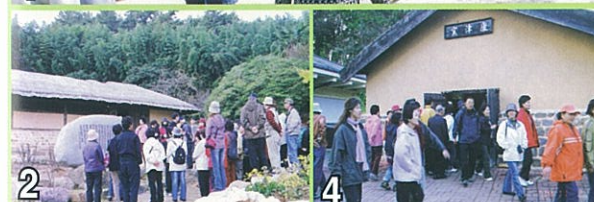


낮고도 높은 유달산



국립 해양 유물 전시관

답사광경 이모저모



- 1_ 순천낙안읍성
- 2_ 강진 영랑생가
- 3_ 강진 청자도요지
- 4_ 해남 대흥사
- 5_ 해남 녹우당
- 6_ 다산유물관
- 7_ 해남 땅끝마을
- 8_ 진도 운림산방 소치기념관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둘러보고



정정희 / 당진문화원장

중국문화탐방의 첫걸음은 상해였다. 상해시 남쪽 마당로 306동 4호 3층 건물에 초라함으로 남아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구지(大韓民國臨時政府舊址), 좁은 통로를 헤치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좁은 방에 퇴색으로 남아있는 당시의 흔적을 살폈다.

임정청사로 들어가는 도로는 겨우 2차선인데, 길 양편에는 플라타너스가 우거져있다. 임시정부청사 터 앞에 내리니 길가에 「大韓民國臨時政府舊址」란 팻말이 보인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임정 청사가 아니라 이곳을 찾는 한국인들을 안내하기 위한 관리처라 한다. 진열장에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김정일이 악수하는 사진이 진열되어 있었다.

임정청사는 그 옆 작은 골목 안 상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도 아니고 그야말로 닭장 같은 건물의 한 칸이다. 아무리 망명정부라지만 일 국의 정부청사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버스 속에서 어느 분이 말한 대로 “거기 가야 아무 것도 볼 것 없어”하는 말이 실감난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할 곳에 반드시 화려한 무엇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은 곳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고, 초라한 모습에서 정신의 기백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임정 건물 안에는 태극기와 당시에 쓰던 여러 가지 유물 유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작은 방들과 좁은 계단 등이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그러기에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었을까?



▲ 임정청사가 있는 골목

나는 조금 일찍 나와 골목을 둘러보았다. 깨끗하게 정리된 임정 건물 안에서 유물 유적을 자세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을 둘러보는 것이 당시 임정의 정황을 더욱 잘 알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길다란 몇 층 짜리 건물에, 마치 닭장인 듯, 사람들이 사는 곳(집이라고 하기도 그렇다)으로 들어가는 문이 죽나 있는데 작고 누추하기 그지없다. 마당은 물론 없고 문 양쪽에 큰 창문과 작은 창문이 하나씩 있는 것을 보니 집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겠다. 문 안쪽을 들여다보니 좁은 부엌에 두 세 개 정도의 방이 있을 것 같다. 음식을 만들고 자는 공간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집밖에 수도가 나와있는 것을 보면 물도 여러 집에서 공동으로 쓰는 것 같다. 또한 위 층에서는 창 밖 골목 쪽으로 장대가 나와있고 거기에는 빨래가 걸려있다. 생각하기에 참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이다.

임정 청사도 바로 그런 건물의 한 칸이다. 임정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번듯하게 살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가집만도 못한 이런 곳에서 오직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버린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온다.

다음 행선지인 노신공원으로 향하는 차 속에서 안내원이 상해 도시의 특징을 몇 가지 말해준다. 상해의 서민들이 사는 대부분의 이런 집에서는 수도를 공동으로 쓴다고 한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물을 길어 샘이 별로 없는 이 곳에서는 예전부터 공동으로 물을 써 왔다는 것이다.

조선족 안내원의 말은, 물에 인색한 이곳 사람들의 생활을 잘 보여준다. 안내원은 함경도출신의 조선족 3세인데, 연길에서 살다가 10년 전쯤 상해로 왔다고 한다. 그런데 상해에 와서 보니 이곳 사람들은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보온 물통을 들고 가서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중국 사람들은 차를 즐겨 마시는데 이 곳에서 자기가 마실 차 물은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관례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가져간 보온 물통에서 차를 마시며 얘기하다가 물이 떨어지면 다시 집에 가서 물을 가져와서 마신다는 것이다.

시간에 쫓겨 분주하게 이동해 노신공원(魯迅公園)이라는 명패가 달린 공원 앞에 내려섰다. 이곳은 윤봉길 의사가 일본 사라가와 대장을 사살했던 곳으로 유명하며, 예전에는 홍구공원(虹口公



상해임시정부청사

園)이라고 불리었다. 공원 내에는 노신의 묘와 노신기념관이 있고, 공원 옆에는 노신이 말년을 보낸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우리에게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의사의 도시락 폭탄 사건으로 잘 알려진 공원인데 현재는 윤봉길의사의 뜻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자와 의거 현장비가 공원 한가운데 세워져있다.

11월의 짧은 해는 오후 5시였지만 빠르게 어둠을 만들고 있었다. 서둘러 다음 행선지인 항주로 향했다.

아름다운 경치로 옛부터 '지상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항주, 지금도 낙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절강성의 성도(省都) 항주는 중국 7대 고도의 하나로서 중국 제일의 관광도시로 알려져 있다. 인구 6백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 항주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서호는 아름다움으로 그 유명을 뽐내고 있으며, 용정 차를 비롯한 녹차의 최대 재배지로 서, 또한 뽕의 재배도 성하여 비단으로도 명성을 떨치고 있는 도시였다.

13세기 무렵 이탈리아의 유명한 여행가 마르코폴로는 항주에 들렀다가 도시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항주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칭송했다고 전해진다.

서호(西湖), 춘추시대 말기 항주 일대 세기의 미녀 서자(西子)에 비유되는 서호는 아침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비오는 날도 좋은, 춘하추동 시시각각으로 끝없는 변화를 보여 준다고 항주가, 아니 중국이 자랑하는 호수다. 양귀비와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미인 서시(西施)를 기념하는 뜻에서 '서자호(西子湖)'라고도 불리는데, 서시에 대해서는 실제 인물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월나라 왕인 구천(勾踐)이 오나라의 왕 부차(夫差)에게 바쳤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결국은 구천의 계략대로 오나라왕 부차가 서시의 미모에 빠져 나라 일을 돌보지 않게 되었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다.

서호를 빠져 나와 영은사(靈隱寺)로 향했다. 선종 10대 사찰 중의 하나인 영은사는 동진(東晉) 시대에 지어졌는데 웅장한 모습의 운림선사(雲林禪寺)의 액자가 걸린 천왕전(天王殿)안에는 "운림선사"라 쓰여진 편액이 걸려 있었다. 이것은 청대 강희(康熙) 황제의 자필로써, 강희가 남쪽 지방을 순찰하던 중 항주에 들러 북고봉(北高峰)에 올랐는데, 구름이 자욱하고 안개가 덮인 곳 속에 영은사가 있는 것을 보고 이 네 글자를 생각해 냈다고 한다.

빼곡한 일정의 틀 안에서 영은사의 일부, 그것도 겨우 걸모습만을 살펴본 채 서둘러 나온 나는 육화탑(六和塔)으로 향했다. 북송 때인 970년 창건된 육화탑은 전단강의 대 역류를 막고자 하여 강변에 세웠다고 한다.

이 탑의 이름인 '육화'라는 의미는 원래 불교에서의 규약인 '육합(六合)' 즉, '天地四方'의 의미라 한다. 당시 건축계의 거장인 유호(喻皓)가 「목경삼수(木經三首)」를 근거로 설계했는데, 중국 목조 건축 분야의 걸작으로 국보로 지정되어 있어 항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렀다가는 유명 코스가 되고 있다.



▲ 해염/김구선생 피난처

자정 무렵, 다음 행선지인 해염(海鹽)에 도착한 후, 대강의 세면으로 하루를 정리하고는 피곤한 몸을 누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재청 별서로 향했다.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께서 1932년 4월 윤봉길 의사에 의한 홍구공원 폭탄사건 이후 피신하였던 피난처, 재청별서는 길가 아래 단아한 형태의 목조건축물로 남아 있었다. 이곳 저곳 방을 기웃거리며, 당시 선생께서 가슴을 조이며,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셨을 순간 순간들을 살핀 후, 그가 피신해 있는 동안 썼다는 '선월'을 생각하면서 왠지 모를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음 탐방 지인 소주(蘇州)로 향했다.

소주는 '동양의 베니스'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도시였다. 곳곳이 비경인 소주는 「上有天堂，下有蘇杭(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항주와 함께 중국에서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인 기원전 514년에 세워져 장구한 역사를 지닌 도시, 중국 춘추시대 오 나라 손씨의 발상지, 당(唐)대에는 장강 이남의 상업중심지였던 소주. 많은 이들로부터 소주의 아름다움을 듣고 중국여행의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들려보리라 다짐했었던 소주의 첫머리는 시내 중심가 건물 옥상에 높이 걸린 캐치프레이즈 지족상락(知足常樂)을 화두로 삼고자 한다. 지족상락이라는 사자성어는 원래 知足者常樂이라는 성어에서 나왔고, 그 뜻은 분수를 알면 만사가 평안하다는 잠언이다.

양자강 이남의 풍요로운 평야지대에 위치한 소주지역은 바다를 낀 공업벨트로 개혁개방이후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신흥 부자들의 땅이다. 속된 말로 부자 몸조심이라는 말처럼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기 사람들은 졸부처럼 너무 일찌기 삼폐인을 터뜨리거나 더 많이 가지려고 무리하다가 쪽박 차지 말고 소위 소강(小康)으로 만족하자는 현명한 처세훈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소주의 이미지는 현대의 모던한 생활과 오랜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듯 했다. 그 고전의 향기는 소주시의 남쪽 끝인 오문교와 반문을 거치면서 더욱 느낄 수 있었다. 예로부터 원림지성이라 불릴 만큼 중국 남방의 원림 건축예술의 정화가 집중되어 있는 곳, 중국 문화유산의 보석 중의 보석인 빼어난 정원을 간직

하고 있어 자연에 대한 사랑과 끝없는 상상력을 느낄 수 있다는
 졸정원(拙政園)으로 향했다.

졸정원은 원래 당나라의 시인 육귀몽의 집이었던 것을 어사였던 왕헌신(王獻臣)이 중앙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와 칩거할 때인 1509년부터 개축해 만든 것이라 한다. 그 이름은 진나라의 반약이 쓴 글 가운데 '채소밭에 물을 주고 채소를 가꾸는 것도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의 위정이다.'라는 글귀가 있는데 여기서 따온 것으로, 영어로 「Humble Administrator's Garden」(미천한 행정가의 정원)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졸정원은 소주에 위치해 있는 유원(留園)과, 북경의 이화원, 승덕이궁(承德離宮)과 함께 중국 4대 정원에 꼽힐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전체를 東園, 中園, 西園으로 나누어 조성돼 있으며, 호수, 인공 동산, 건축 등 3가지의 조화로움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이들의 아름다움을 집대성한 것이 중원의 원향당(遠香堂)에서의 전망인데, 원향당 자체가 하나의 미술품이지만 호수를 사이에 두고 곳곳에 작은 정자와 난간을 멋스럽게 배치하고 있었다.

졸정원을 나와 한산사(寒山寺)로 향했다. 한산사의 원래 명칭은 묘보명탑원(妙普明塔院)이었으나 당대 고승인 한산자(寒山子)가 이 곳에서 머문 후에 그의 이름을 따 한산사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한다.

한산사는 당나라의 시인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이라는 시로도 유명하다. 장계는 노를 저어 마을로 돌아가던 중 밤중에 풍교에 배를 정박해 두고 있는데 그 때 마침 한산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 시를 지었다고 한다.

月落烏啼霜滿天 달은 지고 까마귀는 우는데 하늘 가득 서리가 내리네
 江楓漁火對愁眠 풍교에는 고깃배 등불을 마주하여 시름 속에 자고
 姑蘇城外寒山寺 고소성 밖 한산사에는
 夜半鐘聲到客船 한밤중에 종소리가 객선에 이르네.

소주 사람들의 생활은 흐르는 운하와 이어져 있다고 한다. 돌담으로 둘러쳐진 낮은 주택가 밑으로 운하가 흐르고, 그 위로 많



▲ 소주/한산사

은 배들과 태양에 그을린 사람들의 씩씩한 모습으로 복적거린다. 당나라의 많은 시인들은 물 많은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나 역시 그들이 보았을 소주의 넉넉한 풍경들을 보았다. 운하를 따라 늘어선 검은 기와 지붕과 흰 벽의 집들,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는 듯한 굴뚝의 연기, 운하를 따라 흘러져 있는 아름다운 정원들, 일정한 간격으로 갖가지 모양을 뽑내며 기묘하게 세워져 있는 돌다리 등 독특한 분위기에 젖은 채 소주의 운하를 따라 내밀한 곳곳을 배로 둘러 본 후 호구산 아래 선착장에 내려섰다.

호구산의 원래 이름은 해용산(海涌山)이었는데, 호랑이가 웅크려 앉아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호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호구산에는 양나라의 중 감감이 만들었다는 감감전, 단칼에 베어낸 듯 두 조각이 난 시검석, 여러 전설이 전해지는 천인석,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8각 7층 벽돌탑, 일명 호구탑이 있다.

또 춘추시대 오왕인 합려(閬閭)가 이 곳 연못 아래에 묻혀 있다고 전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합려의 무덤을 만들 때 관속에 검 3,000개를 함께 묻었다고 한다. 이 검들 중에는 훗날 명검으로 전해지는 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혼란했던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은 이 검들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보는 앞에서 도굴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뛰쳐나오자 도굴은 중단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이 곳에 물이 들어차서 연못이 되었고, 그 후로 사람들은 검지(劍池)라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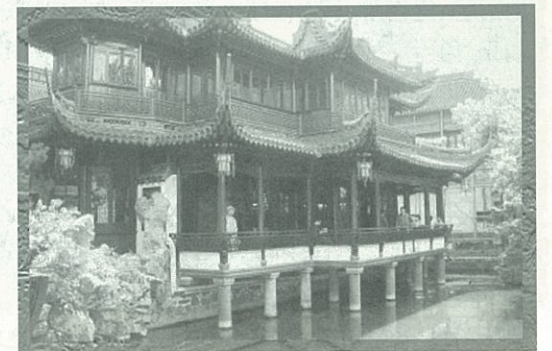
아무튼, 송나라 시인 소동파(蘇東坡)는 '소주에 와서 호구를 구경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말을 했을 만큼 호구

의 경치는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여행 엿새 째 되는 날 아침, 다소 불비고 있는 고속도로를 헤치며 다시 상해로 들어서면서 예원(豫園)으로 향했다.

예원은 명대인 반윤단(潘允端)이 지은 정원으로, 대부분의 중국 정원이 그렇듯이 인공으로 연못을 파고 화려한 건물을 지은 후 태호석으로 장식하고 있다. 예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면, 담장에 커다란 용(龍)머리를 두고 담장을 덮는 기와를 용 비늘과 같이 만들어서 담장 자체가 구불구불한 용의 몸통이 되어 머리와 연결되도록 꾸며놓았다. 마치 정원 전체를 용이 감아 들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건물의 지붕에도, 우리와는 달리 사람 모양, 동물 모양의 작은 조각을 만들어 놓고 처마의 끝 부분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러한 중국식 정원을 볼 때마다 규모나 화려함에 감탄하면서도, 우리의 정원과는 달리 너무나 인공적이고 빈틈없이 뻗뻗하게 장식물로 채우고 있는 점이 마음을 편하게 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정원에서는 나즈막한 담장 너머로 산이 보이고 개천이 보이고 마을이 보이는데, 중국의 정원은 그렇지 않다. 조그만 산도 인공적으로 만들고 연못도 우리 연



못과는 달리 인공적으로 만든 연못임을 대변에 알 수 있다. 또 건물과 건물사이와 연못가에도 길을 내었지만 자연스럽지는 않다. 정원을 장식한 태호석(太湖石)이란 괴석도 중국인들은 아름답다고 여기는지 어느 정원엘 가나 볼 수 있지만 우리 눈에는 구멍 뚫리고 비틀어진데다 회색 빛의 거무튀튀한 태호석이 멋있기 보다는 이상하고 어떤 것은 괴기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높은 담장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여 내부의 화려함은 일반 서민의 삶과 완전히 유리되어 있다. 결국 중국의 정원은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 담장 안에 모든 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온갖 화려함을 즐기는 곳 같다.

옛날 우리는 목포에서 흑산도를 거쳐 서해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뱃길을 이용해 강남(江南, 양자강 남쪽)으로 가는 뱃길을 열었다. 그 길로 가면 상해 쪽으로 갈 수 있었지만 조류의 흐름으로 상해보다 남쪽에 있는 영파(寧波)란 곳으로 주로 다녔는데, 우리 역사에서 이 길은 중국 남방지역과의 문화교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신안 앞 바다에서 발견된 고려시대의 해저 유물이 그 뱃길로 온 것이고, 강남지역의 농사짓는 방법이었던 모내기 방법인 이앙법과 강남에서 성립한 주자성리학도 그 뱃길을 통해서 한반도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진다. 예전부터 우리 나라 사람들은 삼월 삼짇날에 강남 갔던 제비가 봄소식을 갖고 돌아온다고 반겼고, 흥부전에서도 강남 갔던 제비가 착한 흥부에게 복이 가득 담긴 강남의 박씨를 물어다 주었으니 우리에게 상해지역은 친숙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듯하다.

1949년 중국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후, 동아시아 최대 도시의 명성은 일본의 동경(東京)에 넘겨주고, 최대 무역항으로서의 위치도 영국 조차지인 홍콩에 물려주었다. 그렇지만 상해는 중국 최대의 공업도시, 무역도시로서 북경 천진과 함께 직할시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한 도시이다.

1980년대 중국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 상해는 개혁 개방의 중심도시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1990년대에 중앙 정부의 결정으로 상해를 가로지르는 황포강(黃浦江)동쪽의 포동(浦東)지구를 개발하여 동아시아 최대의 금융 무역항인 홍콩에 버금가는 국제도시로 육성하고 있다. 이때 표방되는 구호가 「양자강 유역의



예원 건물의 상부. 처마모서리를 가파르게 치켜 올렸고 지붕을 화려하게 장식하였고 물고기 꼬리 모양의 치미가 재미있다.



용머리(長江流域의 龍頭)」, 「태평양 서안의 국제 경제 금융 무역의 중심지」이다.

2001년 10월 APEC회담이 열린 상해에서 아시아와 환태평양 각국의 정상들을 비롯하여 회담참석자나 취재자는 물론이고 TV를 통하여 상해와 APEC회담의 진행을 주시한 많은 세계인이 놀란 것도 약동하는 상해의 숨결과 해일과도 같이 분출하는 경제력이기도 하지만 광대한 중국의 문화와 자연에서이기도 한 점이 드러난다.

중국을 돌아보는 일은 중국의 문화와 역사와 자연을 돌아보는 일이다. 우리가 대국이지 않고 우리가 부국이지 않고 우리가 강국이지 않은 것은 우리의 문화와 역사와 자연이 방치되어서이고 소중하게 지켜지지 않아서이고

아름답게 이루어내지 못하여서이다. 중국을 돌아보며 새겨야 하는 것은 무한한 문화유산과 자연이라는 점을 새삼 간절하게 느꼈다. 자연환경기반과 문화환경기반을 선진화한 나라이기에 중국이 두렵고 중국의 발전이 우리를 크게 앞질러 나갈 것임에 더욱 두려움이 더한다.

사회주의 국가라는, 그래서 다소 경직되어 있을 거라는 선입견을 갖고 접한 중국. 그러나 중국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 넘는, 무궁한 문화적 재료와 경제적 잠재력, 대국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대단한 나라였다.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는 상해의 눈부심과 외탄의 야경을 가슴에 묻으며 중국이 정말 두렵다는 생각으로 6일간의 중국여행을 마쳤다.



▲ 중국문화탐방단일원

남도의 문화를 둘러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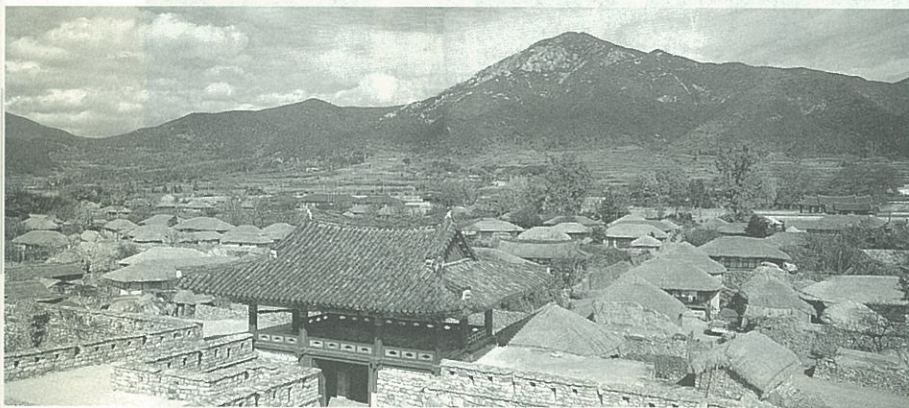
이정우 / 문학원연합회충남도지회 사무처장

낙안읍성

고살마다 남도의 정겨움이 넘쳐흐르고

소백산맥이 그 위세를 다하는 끝자리에 험하지는 않지만 웅장한 나무숲과 맑은 물줄기가 어울려 수려한 경관을 이루는 선암사가 있다. 거기서 오금재를 넘어 벌교 방향으로 조금 달리면 웅기종기 초가집들과 이를 둘러싼 낙안읍성이 보인다.

원로사학자 최영희 교수는 즐거울 낙(樂)과 편안할 안(安)자를 가진 낙안을 가리켜 “우리나라 고을 이름 가운데 가장 좋은 이름”이라고 했다.



남도기행의 한 가족으로 구성되어 아침 일찍 천안에서 달려 온 우리 일행은 4시간 여의 다소 지친 몸을 추스르면서 첫 탐방지 순천 낙안읍성에 발을 내려놓았다.

서산의 해미읍성과 함께 읍성의 표본이라 불리는 낙안읍성은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어 선인들의 생활모습을 한껏 엿볼 수 있었다. 장방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성안에는 지금도 108세대가 생활하고 있었다. 옛날서민들이 살아왔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낙안읍성은 집집마다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전시용인 용인민속촌이나 제주의 민속마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친근감이 든다.

성안에는 1450년 처음 건립된 낙안 객사(客舍)와 일종의 방어 시설인 해자가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었고, 출입과 방어의 기능을 동시에 지닌 웅성과 동문인 낙풍루, 남문인 쌍청루가 말끔히 복원되어 찾아 온 관광객들의 사진기에 속속 박혀들고 있었다. 낙안읍성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보름이면 달집태우기, 햇불 성 밝기 등의 민속행사가 열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전통혼례식도 열린다고 한다.

읍성의 곳곳을 세심하게 살펴 본 일행은 다음 행선지에 쫓겨 아쉬움을 달래면서 버스에 올랐다.

낙안을 벗어나면 벌교, 보성 땅이 연이어 나타나는데, 활성산 봇재를 중심으로 보성읍 봉산리와 회천면 영천리 일대의 산은 녹색 카펫을 깔아 놓은 듯 싱그러운 차밭으로 뒤 덮혀 있었다. 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 차나무를 가장 대규모로 재배하는 지역인데, 보성 다원은 1940년 개간하여 차묘를 심고 차 재배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조성되었다 한다.

“술을 즐기는 백성은 망하고 차를 즐기는 백성은 흥 한다”는 다산 정약용의 말처럼, 드넓게 펼쳐진 차밭 가운데서 백성을 흥하게 한다는 차 한 잔을 음미하며, 차나무에서 풍겨 나오는 향내를 즐기면서 인간세상에서 청정무구한 별천지의 세계를 느껴보고 싶었지만, 답사 일정 상 눈으로만 살펴보고 지나야 했다.

소설 ‘태백산맥’의 고장 벌교읍 입구에 들어서니 1863년 이곳에서 태어나 대종교를 창시한 나철 선생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조금 지나니 김구 선생께서 잠시 은거했던 사실을 기념하는 비도 서 있었다.

우리는 차를 달려 파사로움 가득한 한반도의 끝 해남의 녹우당으로 향했다.

해남읍에서 대흥사 쪽으로 가는 길 왼쪽에 위치한 연동마을에 서 있는 녹우당(緣雨堂), 어부사시사의 작가 고산 윤선도의 자취를 담고 있는, 해남 윤 씨의 종가. 그곳에는 고산의 유물과 작품집이 전해져 고산의 체취를 느끼려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다.

왕자들의 사부를 그만 두고 8도를 두루 살핀 끝에 이 곳 연동으로 이주해 수원에 있던 녹우당을 옮겨왔단다.

고산이 떠난 후 3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의 13대 후손들이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데, 녹우당 바로 옆에 세워져 있는 고산 유물관에는 고산과 그의 선조, 후손들의 유물 4천여 점이 전시돼 있다.

또한 연동마을 뒤편에는 윤고산이 심었다는 천연기념물 제241호 비자나무 5백 여 그루 자라고 있어 멋진 숲을 이루고 있다.

윤선도(孤山 尹善道 1587~1671), 우리 문학을 우리 글로, 우리의 정서를 나타낸 것

남도의 문화를 둘러보고

이라고 규정한다면, 고산 윤선도는 분명, 국문학의 비조(鼻祖)이다. 그는 85세 한평생의 대부분을 유배와 낙향으로 산 속이나 외딴 섬에서 보냈다. 해남에 있을 때는 산중의 풍취와 자신의 회포를 그린 산중신곡 22수를 썼고, 보길도에 있을 때는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40수를 남겼다.

치열한 당쟁으로 일생을 거의 벽지 유배지에서 보낸 윤선도는 ‘고산유고’에 자신의 문학적 심성을 가득 담아 놓았다. 노후에 은퇴하여 지은 어부사시사 등 시가는 우리말에 새로운 뜻을 창조하여 활용한 서정적인 작품으로 국문학사에 길이 기억될 수작이다.

앞개에 안개 걷고 뒷산에 해 비친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밤물은 거의 지나고 낮 물이 밀려온다
찌그령 찌그령 어영차
강촌 온갖 꽃 먼빛이 더욱 좋다

곳은 비 먼저 가고 냇물이 맑아온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낙시를 돌려매니 깊은 흥을 못 금하네
찌그령 찌그령 어영차
연강첩장을 그 누가 그려 낸가

물 외에 깨끗한 일 어부 생애 아니더냐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어흥을 비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냐
찌그령 찌그령 어영차
사시흥이 한가지나 주흥이 으뜸이라

구름이 걷은 후에 햇별이 두껍구나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천지가 폐색하니 바다는 의구하다
찌그령 찌그령 어영차
끝없는 물결이 깊인듯이 하여 있다

해거름녘, 어부사시사의 가사를 떠올리며, 제법 쌀쌀한 바람이 옷속을 파고들 즈음 우리는 서둘러 첫날의 마지막 코스인 대흥사로 향했다.

두륜산의 서쪽 계곡, 울창한 수림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물 맑은 계곡이 가까이 있는 터에 대둔사(대흥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대둔사는 신라 진흥왕 5년(544년) 아도 화상이 창건한 대가람으로 한때 서산대사가 머물렀던 유서 깊은 사찰인데, 서산대사는 묘향산 보현사에 입적하면서 “대흥사만이 병란을 비롯하여 삼재가 미치지 않을 땅이며 만년이 지나도록 파괴되지 않을 곳이니 나의 가사와 유물들을 대흥사에 보관토록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실제로 대흥사는 어떠한 전란에도 화를 당하지 않고 그대로 보전되어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고 한다.

대흥사에는 보물 301호인 삼층석탑과 서산대사의 유물, 탑산사 동종 등 여러 문화재들이 있고 옥들을 깎아 조각한 1천 개의 불상이 안치된 천불전, 서산대사와 사면대사, 처영대사의 영정이 봉안된 표충사 등의 전각이 있다.

또 인근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에서 단 두 그루밖에 없다는 희귀식물인 천연기념물인 왕벚나무가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었다.

다소 시간에 쫓겨 서둘러 일주문을 나선 일행은 첫 숙박지 해남 관광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강진 청자보다 푸른, 꿈이 넘쳐흐르고

고려청자의 빛깔만큼이나 푸르른 문화를 간직한 강진은 해남과 더불어 남도 답사의 1번지로 꼽히는 매력적인 고장이다. 예술과 학문의 고장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강진 사람들은 천 년의 신비를 간직한 뛰어난 예술품인 고려청자를 빚어냈다. 또한 가냘프고 세련된 언어로 순수 낭만주의 시인이라 평가받는 김영랑의 고향이자, 비록 강진 태생은 아니지만 다산 정약용이 1801년 신유사옥(辛酉邪獄)으로 19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며 학문의 꽃을 피운 곳이다.

강진 답사의 첫 코스로 영랑생가를 향했다. 1930년대 초 시문

학파의 일원으로 북에 소월(素月), 남에 영랑이라 할 만큼 호각을 이루던 우리나라 서정시단의 거성 영랑 김윤식이 태어난 곳이다.

영랑은 이곳 강진읍 남성리 탑동에서 1903년 1월 16일 부농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강진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휘문의숙을 거쳐 일본 동경 청산학원 영문과에서 공부했다. 귀국 후 박용철, 정지용, 이하운, 정인보, 김현구 등과 함께 '시문학' 동인지를 펴내면서 본격적인 詩作 활동에 참여하여 '모란이 피기까지는' '동백 잎에 빛나는 마음' '언덕에 바로 누워'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등 남도의 구수한 사투리로 주옥같은 81편의 시를 발표하였다.

스무 살이 되기 전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옥고를 치렀고, 애국적 열정과 민족의 기상을 문학의 통해서 영롱한 서정의 극치로 승화시켰다.

현재 보존되어 있는 영랑생가는 여러 차례 轉賣되어 원형이 일부 변형되었으나 1985년 12월 강진군이 이를 매입, 원형대로 복원한 후 관리하고 있다.

영랑생가를 나서서 강진만의 여유로움을 바라보며 30여 분 남쪽 방향으로 달리다 보면 고려청자의 도요지가 넉넉한 마음으로 오는 이의 발길을 이끈다. 자연스러운 선과 세련된 형태, 요란하지 않으면서 운치 있는 문양 등이 고려청자의 특징이다. 중국청자가 색이 짙고 탁한데 비하여 고려청자는 은은하고 투명한 비취색을 띄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최초로 銅으로 자기에 붉은 빛깔을 내는 기법을 개발해 청자에 응용했다.

고려청자는 12세기 전반기부터 맑은 비취색과 세련된 모습으로 그 미적, 기술적 수준

이 최고 절정에 다다른데, 청자가 투명한 비취색을 띠기 시작한 것은 11세기 말부터이며, 이때부터 청자의 형태 또한 세련된 미적 감각을 간직하게 되었다 한다. 또한 중국적인 느낌을 주는 문양들이 사라지고 한국 특유의 독특한 문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2세기 중엽부터는 상감기법과 문양에 있어서 가장 세련된 시기로 알려지고 있다.

12세기 전체를 통틀어 청자가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는 한편 14세기 중엽부터는 청자의 생산이 점차 줄어드는 대신 분청사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집단적으로 청자를 구웠던 곳은 이곳 강진과 전북의 부안 이었는데 그 중 강진 대구면의 용운리, 계율리, 사당리, 수동리 일대 18만여 평에 청자도요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청자기념관이 들어선 이곳을 정점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188개소의 가마터가 집단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당리는 청자 문화가 최대 절정을 이루어 청자의 백미(百媚)를 보여 주던 곳으로, 그 기법의 우수성에서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

청자도요지를 나와 다시 오던 길을 거슬러 강진만의 서쪽 해안 가를 따라 20여분 달리면 만덕산 백련사의 뒤편에 다산 초당 앞에 선다.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다. 그가 저술한 책 모두를 일컬어 '興猶堂全書'라 하는데, 총 500여 권에 달하는 이 책들은 철학, 윤리,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학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저술은 대부분 강진 유배

시절에 지어진 것으로, 유배라는 난관을 오히려 승화시켜 위대한 업적을 이룬 본보기로 꼽힌다. 조선의 선비들은 관직에 임하여서나 혹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학업을 게을리 하지 않고 끝없이 연마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그가 머물며 저술활동에 전념했던 곳이 바로 茶山草堂이다. 비록 허름한 집에 불과하지만 선비정신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증거로 남아 있다.

강진만이 한눈에 굽어보이는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이곳에서 10년 유배생활동안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500여 권에 달하는 실학서들을 집대성했다.

다산초당은 1936년 훼손되었던 것을 1958년 5칸도리 단층기와집으로 중건한 후 그가 우거했던 東庵과 제자들의 유숙처인 西庵을 복원하였다.

天一閣은 다산 정약용이 흑산도로 유배 간 둘째 형 약전을 그리며 심회를 달래던 곳으로 정면과 측면이 한 칸씩인 누각이다.

늦가을 강진만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안고 일행은 다시 해남 땅 끝으로 향했다.

육지의 끄트머리라는 상징성과 함께 대륙 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곳, 토말(土末). 이곳은 '갈두리'로도 불리는데, 갈두는 예전에 제주도로 통하는 중요한 뱃길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군마를 싣고 와 이 곳에서 육지로 보냈다고 한다.

땅 끝이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것은 1986년부터라 하는데, 땅 끝에서 바라보는 우리 국토와 다도해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높이 10미터의 탑을 세우고, 노령산맥의 마지막 봉우리인 해발 122미터의 사자봉 정상에 봉화대를 복원해 놓았다.

땅끝 기념비를 배경으로 또한 그 밑에 고즈넉히 세워져 있는 등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은 후 각자의 자유시간을 위해 일찍 여장을 풀면서 둘째 날의 문화기행을 마감했다.

진도

아리랑 가락에 깃든 애환과 남도예술의 본향

일행은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서둘러 여장을 꾸렸다. 한 곳이라도 더 눈으로 마음으로 담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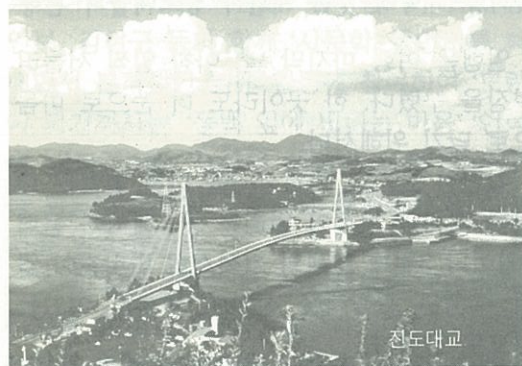
간단한 요기로 아침식사를 마친 일행은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 열리는 곳, 해마다 음력 2월이나 3월께 모세의 기적처럼 바닷길이 열려 수많은 관광객을 신비의 세계로 이끄는 진도로 향했다.

수려한 자연 경관과 드넓은 청정 해역,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사람들의 후한 인심, 게다가 예술적 소질이 뛰어난 문인들의 유배 문화와 고유의 토속문화가 어우러져 예부터 '전통 민속의 보고'라 불리고 있는 진도.

진도아리랑을 비롯해 강강수월래, 진도 씻김굿 등 땀이 있고, "압록강 동쪽에 그를 따를 자가 없다"는 평을 듣던 소치 허유로 대표되는 南畵가 있으며, 추사 이후 한국 서예의 맥을 이었다는 손재형의 글씨가 있는 진도, 그에 더해 몽고에 대항하며 항쟁을 벌이던 삼별초의 흔적이 남아 있는 용장산성, 정유재란 때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수군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간직하고 있는 진도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더 없이 귀한 섬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 일행은 진도대교의 복단, 붉은 빛깔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진도대교의 아름다움을

조망해 보고, 물길에 휘돌아 치고 있는 울돌목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이충무공 전적 비에 들렀다. 웅장한 규모로 세워져 있는 이충무공 전적비와 그 아래 기념관은 명량해전의 당시 상황을 잘 그려내고 있었다. 특히 군민들의 정성을 모아 성웅 이순신 장군의 넋을 기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바라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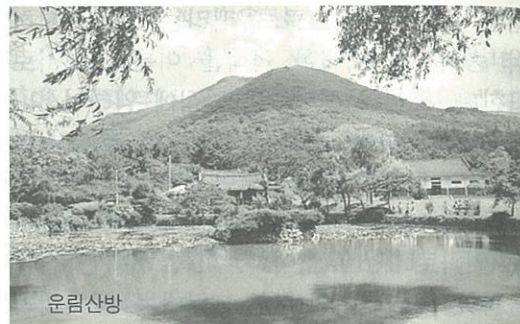
진도대교

진도대교는 길이 484미터로 1984년 세워진 진도의 관문으로 진도를 더 이상 섬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우리는 갈 길을 재촉하면서 남해바다 드넓은 수평선을 뒤로하고 진도대교를 건너 윤림산방으로 향했다.

雲林山房은 조선 말기 남화의 대가인 소치 허유(許維 1809-1892) 선생이 말년에 기거하던 화실의 당호이다. 선생은 詩·書·畵에 모두 뛰어나 조선 후기 3절이라 칭송 받았는데, 20대 젊은 시절에 대흥사 초의선사와 추사 김정희의 문하에서 서화를 배워 남화의 대가가 된 분이다.

소치는 스승인 김정희가 호로 붙여준 것인데, 서화에 뛰어나 중국 원나라 4대화가의 한 사람이었던 대치 황공망과 견줄 만 하다고 소치(小痴)라 했다고 한다.



윤림산방

윤림산방은 첩찰산을 깃봉으로 수많은 봉우리가 어우러져 있는 깊은 산골에 아침저녁으로 연무가 윤림을 이루었을 것이고, '연화부'를 지었던 소치의 사상으로도 윤림(雲林)이라는 당호가 걸맞았을 것이다.

비록 낙도에서 태어났으나 천부적인 재질과 강한 의지로 詩, 書, 畵에 능했던 소치는 추사가 세상을 떠나자 이곳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첩찰산 아래 쌍계사 남쪽에 집을 짓고 화실을 만들어 여생을 보냈으니 바로 윤림산방이다.

이곳에서 소치(小痴)는 미산(米山) 허형(許衡)을 낳았고, 미산이 이곳에서 그림을 그렸으며, 의제 허백련이 미산에게 처음으로 그림을 익힌 곳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유서 깊은 윤림산방은 소치(小痴 허유)-미산(米山 허형)-남농(南農 허건)-임전(林田) 등 4대에 걸쳐 전통 남화를 이어준 한국 남화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윤림산방 앞에 있는 연못은 한 면이 35m 가량 되며, 그 중심에는 자연석으로 쌓아 만든 둥근 섬이 있고 여기에는 소치가 심었다는 백일홍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소치 허유의 숨결이 살아 있는 진도, 소치 허유 가문의 덕택일까? 진도사람들의 피가 달라서 일까? 한 지역에서 국전작가가 10명

만 배출돼도 '藝鄉' 이라고 자랑을 늘어놓는데 진도에서는 국전작가가 기백 명에 이르니 놀라운 일이다.

진도사람들은 예로부터 대단한 문화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들의 독특한 문화양식으로 녹여 향유하는데, 남도의 진한 풍류로 대별되는 육자배기 문화라고나 할까? 어디서든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그림이 있고, 시가 있으며, 또한, 그 안에는 무언지 모를 한이 서려있다는 것이다.

윤림산방을 뒤로하고 일행은 서둘러 목포로 향했다.

노령에서 뺨은 산맥이 무안반도 남단에 다다라 마지막 힘을 쏟듯 솟구쳐 올라 봉우리를 형성한 유달산. 목포 8경 중에서도 제1경으로 꼽히는 유달산은 해발 228m의 낮은 산이지만 기암절벽들이 제각기 멋을 뽐내 '호남의 개골산'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낮으면서도 강한 기상 때문에 목포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고 특히 노적봉은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깃들여 있어 더욱 사랑을 받는단다.

이 유달산에는 영원한 목포의 가수 이난영의 노래비가 있어 이곳에서 난영가요제와 목포가요제도 매년 열고 있다.

유달산 달성공원 오른쪽으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난 전시실이 자리하고 있다. 240여종 1,300여분이 전시되어 있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난을 비롯하여 각종 희귀난을 볼 수 있었다. 굳이 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도 그 향기에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유달산의 북쪽 순환도로를 따라 해양대학까지 이어지는 일주도로를 달리면서 바다 건

너 손당을 거리에 있는 석양을 바라보는 일이 너무 황홀했다. 누구라도 시인이 되고 누구라도 사랑을 고백하면 이루어질 만하겠다는 생각이다.

일행은 유달산을 내려서면서 목포 시가지를 한 바퀴 돈 후, 이번 남도기행의 마지막 코스 국립 해양유물전시관으로 향했다.

목포시 갯 바위 문화거리에 자리한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문화재청 소속 기관으로, 우리의 소중한 해양 문화유산을 찾고 알리는 국내 하나뿐인 국립해양박물관이다.

이 전시관의 시작은 1976년 신안해저발굴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남 신안 해저에서 발견된 동북아시아 무역선은 수중 문화재를 향한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이를 널리 알리고 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본 유물전시관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시실은 바다에 잠들었던 옛 배와 다양한 문화재들, 바다마을 사람들의 삶과 문화, 우리 배-韓船의 역사 등을 주제로 꾸며져 있었다. 그리고, 야외 해변에는 수상전시관이 있는데, 선조들의 해양문화와 발자취가 담긴 문화재를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바다를 이용하고 개척하였는가를 느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해서 2박 3일간의 남도기행을 마쳤다. 다소 쌀쌀한 날씨였지만 우리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남도의 곳곳을 숨 가쁘게 달리면서 하나하나 살펴 본 것이다. 분명 남도에는 남다른 문화가 있었다. 남도의 그 문화를 찾아가던 사흘 간의 여정, 세상의 길을 따라가며 세월의 흐름과 그 흔적들을, 그 세월이 짜놓은 무늬들을 바라보는 시간과는 분명 다름이었다.

2004 충남의 향토축제



1400년전 백제의 숨결 깨어나다 제50회 백제문화제 부여에서 개최

제50회 백제문화제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에 걸쳐 부여 구드래 광장을 주무대로 천등산 채화단에서의 백제 혼불 채화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어서 백제 말 8층신과 황산벌 전투에서 구국충정의 한을 안고 산화한 오천결사대의 넋을 추모하는 제전의식인 충화 팔충제를 비롯 사비백제 6대왕 123년간 나라를 지켜 준

삼산 신령에게 백제문화제 개막을 고하고 군민화합과 발전을 축원하는 삼산제, 사비천도 이후 6왕의 성덕을 추모하는 백제 대왕제, 백제 말 삼충신인 성충·흥수·계백의 충절을 추모하는 삼충제, 백제 말 비참한 국운과 함께 낙화암에서 몸을 던진 백제 여인의 숭고한 정절을 추모하는 궁녀제 등의 제전행사가 펼쳐졌다.

백제 당시 왕의 행차를 거리축제로 재구성한 백제 역사문화 행렬을 비롯하여 백제 제26대 성왕이 538년 백제 중흥의 응지를 품고 공주 웅진성에서 부여 사비성으로 천도하고 이를 선왕과 천지신명께 고하는 백제 성왕 사비정도 축제, 백제 기악 재현, 계백 장군의 충정과 용맹을 표현한 계백 장군 출정식, 백제부흥운동 등의 역사 재현 행사가 펼쳐졌다.

아울러 국악과 가요를 접목시킨 퓨전 음악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장르의 신포민속예술단공연을 비롯해 부여 전통 민속 공연 6종목, 국립국악원 초청 공연 및 현악 공연, 국악 한마당잔치 및 청소년 음악회, 신명나는 우리 가락 설장고 등 전통 민속 행사가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학술 행사로는 반세기 백제문화제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모습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백제문화제 50주년 학술 세미나 및 612년 미마지에 의해 일본에 전래되어 일본 기악무의 모태로 인정받고 있는 백제시대 기악무의 복원 방안을 모색하는 백제기악 학술세미나 등 학술 분야 행사가 진행되었다.

문화 행사로는 경찰종합학교 경찰악대와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육군 국악의장대, 연예인 등 초청 공연이 이루어지고 백마강변 음악회와 50주년 기념 노래자랑, 그리고 궁남지를 배경으로 한 서동의 설화 탄생과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극화한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연극 등의 문화예술 행사가 열렸다.

체험행사로는 내 고장 역사를 바로 알고 애乡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백제역사 퀴즈왕 선발대회, 백제인의 뛰어난 창의력을 계승하고 백제토기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전국 백제토기 물레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백제문화제 반세기 전시전, 백제토기 가마굽기 및 열기 재현 등 8개 분야의 행사가 펼쳐졌다.

또한 행사기간 중에 백제 의상 입어보기, 백제문양 탁본뜨기, 민속놀이체험, 백제토기 만들기, 백제기와 및 팔문양전 찍기, 백제 8문양전 길 맨발로 걸어보기, 백제금동대향로 석고뜨기, 백제문화제 스탬프 찍기, 짚풀문화체험, 목장승·숫대깎기, 백제성쌓기, 목간만들기, 농경체험 등 13종의 각종 백제문화 체험장을 마련하고, 부여 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고전 영화가 매일 상영되었다.

백제역사 문화행렬

백제 당시 왕의 행렬 및 문화생활 등을 거리축제로 재현 구성하고, 백제문화제의 메인 이벤트인 백제 역사문화 행렬이 10월 9일 펼쳐졌다.



역사문화 행렬은 구드래 주무대를 출발해 시가지를 지나 부여중학교까지 부여 사비취 타대를 선두로 18개 행렬 총 1400여명이 52종 3980점의 소품이 동원된 행렬로 길이만 1km가 넘는 화려하고 장엄한 행렬이다.

백제 중흥의 웅지를 품고 지금의 공주에서 부여로 수도를 옮긴 제26대 성왕의 화려하고 웅장한 의상 행렬과 백제 사비시대 찬란한 문화와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는 대(大)백제 국기가 행진하게 되고 그 뒤로 큰북, 삼신 행렬과 전위대에 이어 동서남북의 사방과 중앙의 방위별 주재신으로 국대민안을 주관하는 오방 제신기와 오방 채색기가 이어지며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기와 함께 백제시대 고유 문양의 문장기, 국보 제287호로 지정된 백제금동대향로기가 행진한다.

또한 왕의 가마 행렬로 모든 기를 총괄하는 독을 선두로 그 뒤에 왕을 상징하는 교룡기와 왕의 친위대, 왕연 주변에 왕의 행렬을 상징하는 기치류, 어가에 탄 왕과 왕비, 그리고 햇볕을 가리기 위한 일산(日傘)이 따르고, 성왕 행렬 후미에 궁녀 행렬이 뒤따르며 그 뒤로 백제 중흥의 웅지를 품고 사비(부여)로 천도한 성왕과 왕비 행렬이 이어졌다.

이어서 사비시대의 중앙 및 지방관직 행렬, 후방 호위대에 이어 서동왕자와 선화공주 행렬, 비장한 각오로 끝까지 백제를 지키다 황산벌에서 최후를 맞이한 백제의 오천결사대와 8개 읍·면 주민들의 북행렬단이 끝으로 문화 행렬이 이어졌다.



■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백제문화 체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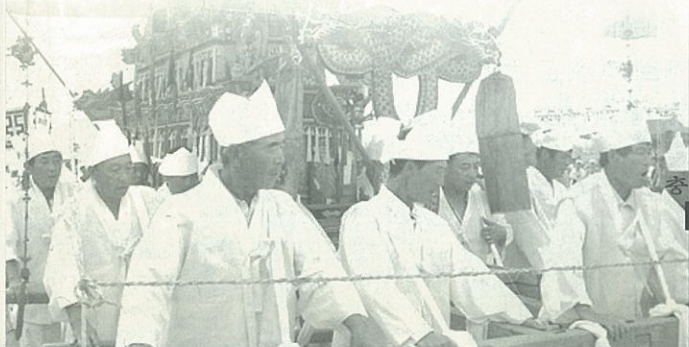
관광객이 오래 간직하고 다시 느끼고 싶은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구드래 광장에서는 백제문화 체험장이 운영되었다.

학습의 장으로 운영되는 백제문화 체험장은 백제 의상 입기 및 백제 문양 탁본뜨기 등 총 11종을 준비해 가족 단위나 학생, 관광객 등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었다.

백제 의상 체험은 왕 또는 왕비복, 공주 또는 태자복, 장군복, 각종 복식을 입어 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부여에서 출토된 백제 8문양전에 대한 탁본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궁중에서 전승되는 투호놀이 등을 비롯하여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체험과 전통 백제 토기 제작방법 체험, 백제문화를 대표하는 와당(기와)과 백제 8문양전 제작방법을 체험할 수 있었다. 백제 8문양전을 바닥에 깔아 길을 만들어 맨발로 걸으면서 울룩불룩한 문양을 느끼는 이색체험과 국보 제287호인 백제금동대향로 석고뜨기 체험, 새끼꼬기·이엉엮기·명석 만들기 체험, 장승깎기와 백제성 쌓기 체험 등 다채로운 활동이 마련되었다.

시 간	행 사 명	장 소
백제의 중흥 / 10월 8일(금)		
10:00~11:00	백제혼불채화 및 봉송	충화천등산
10:00~10:30	백제대왕행차①	구드래행사장
10:30~11:00	백제토기가마굽기 재현식	구드래행사장
11:00~12:00	경찰종합학교 경찰악대 공연	구드래행사장
12:00~13:00	충화팔충제	충화팔충사
14:00~15:00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공연	구드래행사장
15:30~16:00	계백장군출정행렬①	구드래행사장
16:30~17:00	신품민속예술단공연	구드래행사장
17:40~18:40	대만고용시국악단공연①	구드래행사장
18:00~19:00	삼산제	부여금성산
19:00~21:00	연예인초청 백마 강변 음악회	구드래행사장
백제의 중흥 / 10월 9일(토)		
10:00~10:30	개막식전공연(세도산유화기)	구드래행사장
11:00~11:30	개막식	구드래행사장
11:30~12:00	개막식후 공연(설장고)	구드래행사장
12:00~13:00	백제역사문화행렬	구드래-사비취-부여중
13:30~16:00	전국백제토기물레경연대회 (개막식 및 개인전)	구드래행사장
14:30~15:00	국방부국악의 장대공연	구드래행사장
15:30~16:30	대만고용시국악단공연②	구드래행사장
16:00~16:30	백제역사퀴즈왕 선발대회	구드래행사장
19:00~21:30	백제성왕사비정도축제 (부여군충남국악단축하공연)	구드래행사장

시 간	행 사 명	장 소
백제의 함성 / 10월 10일(일)		
10:00~12:00	백제대왕제	백제왕릉원
11:00~12:00	백제기악공연	구드래행사장
13:00~15:00	50주년기념 노래자랑	구드래행사장
13:00~16:20	전국백제토기물레경연대회 (단체전 및 시상식)	구드래체험장
14:00~16:00	백제기악학술세미나	국립부여박물관
14:00~31:00	수룩재	정림사지-사지리 구드래
15:00~16:00	백제 역사 퀴즈왕 선발대회	구드래행사장
16:30~17:00	백제 토기가마열기 재현식	구드래행사장
17:00~17:40	계룡장군 출정식	구드래행사장
18:00~18:40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연극	구드래행사장
19:00~22:30	국악한마당잔치 및 청소년 음악회	구드래행사장
백제의 부활 / 10월 11일(월)		
10:00~10:30	내지리단잡기	구드래행사장
10:00~11:00	삼충제	부소산삼충사
10:30~11:00	계백장군출정행렬②	구드래행사장
11:00~12:00	백제부흥운동	구드래행사장
11:30~12:30	궁녀제	부소산궁녀사
12:00~12:40	은산별신제	구드래행사장
13:00~13:30	백제대왕행차②	구드래행사장
13:30~14:00	웅정리호상놀이	구드래행사장
14:00~15:00	백제오천결사대충혼제	오천결사대충혼탑
14:10~14:40	세도장군제	구드래행사장
14:50~15:20	세도두레풍장	구드래행사장
16:00~17:00	국립국악원공연·현악공연	구드래행사장
17:00~17:30	폐막식(불꽃놀이)	구드래행사장



당진 안섬 풍어당제 '신명'

오늘까지 이틀간 부정풀이·대동굿등 거행
350여년 전통... 2001년엔 도지정 무형문화재

안섬 풍어당제가 1월 26, 27일 2일간 당진군 송악면 고대1리 안섬마을 일원에서 열렸다.

당진 안섬 풍어당굿보존회(회장 지운기)는 1월 26일 오후 8시부터 송악면 고대1리 안섬마을 일원에서 풍어를 기원하는 당제를 열고 ▲조라술 담기 ▲부정풀이 ▲본당굿 ▲대동굿 순으로 당제를 개최했다.

당진 안섬당제는 350여년 전부터 송악면 고대리 안섬마을에서 행해지는 민속행사로 원래 안섬은 당진군의 최북서쪽에 위치한 섬이었으나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됐으며, MBC드라마 '갯마을'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매년 음력 1월 첫 진일부터 3일 동안 마을일



▲ 풍어를 기원하는 안섬 풍어당제가 26~27일 당진군 송악면 고대1리 안섬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원에서 거행되는 풍어당굿놀이는 지난 94년 제 3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2001년에는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됐다.

“섬주민 풍어 안녕·기원” 태안 '황도 봉기풍어제'



▲ 황도 봉기풍어제 둘째 날인 24일 어민들과 관광객들이 섬을 돌며 강변용신굿을 하고 있다.

충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인 태안군 안면읍 황도리(黃島里) '황도 봉기풍어제'가 23, 24일 이틀간 현지에서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다.

황도 봉기풍어제 보존회는 섬 주민들의 풍어와 무사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음력 정월 초이튿날인 지난 23일 서제(序祭)로 소를 잡아 뒷다리를 제외한 12 부위

를 제물로 올려 제를 지내는 '괴고사(소잡기)'를 시작으로 축제를 개최했다. 이어 이 마을 주민들은 가정마다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세경굿'을 마친 뒤 선주(船主)와 어민들은 한 해 동안 자기 배를 지켜줄 선신(船神)의 내림을 받기 위해 제주를 선포로 제물과 5색 배기(船旗)를 들고 인근 당집까지 앞 다투어 뛰는 '당 오르기'와 '배기 경주'를 벌였다.

이 경주는 '당집에 제일 먼저 배기를 꽂는 선주는 한 해 동안 만선(滿船)을 누릴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면서 시작됐으며, 5색 배기가 당집 앞에 장사진을 이룰 무렵 봉기풍어제는 절정에 이르렀다.

당집에서의 굿은 23일 오후 5시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일두거리굿'으로 진행됐다.

24일에는 새벽에 선주와 선원들이 당제를 지낸 제물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자기 배에 가 선신을 모시는 '지속경쟁'과 고사를 지낸 뒤 바다를 떠도는 원혼을 달래는 진혼 송신 굿인 '강변용신굿'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봉기 풍어당령으로 한바탕 신명나게 풍어놀이를 벌이는 것으로 이틀간의 행사를 모두 마쳤다.



한해 액운 불길따라 '월~월~!' 2월 4일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솔밭논에서는 26개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송악풍물연구회 주최하고 이장단협의회 등 각급 기관의 후원으로 수 십 년전부터 이어져 오는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달집에 불이 점화되면서 장관을 이루고 있다.

동근달에 소원빌고 민속놀이 즐겨보세

외연도 풍어당제



보령시 외연도 풍어당제가 정월 대보름을 맞아 2월4일과 5일 이틀간에 걸쳐 오천면 외연도리 현지에서 개최됐다. 이번 풍어당제에는 김영관 당주 및 외연도 마을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올해 섬마을과 주민의 안녕 및 풍어를 기원하는 제를 4일과 5일 이틀 동안 올렸다. 외연도 풍어당제 행사는 보령의 대표적인 대보름 행사로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을 기해 섬 주민 모두가 참여해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며 화합을 다지는 행사.

▲ 정월 대보름을 맞아 섬마을과 주민의 안녕 및 풍어를 기원하는 보령시 외연도 풍어당제가 4일과 5일 이틀간에 걸쳐 오천면 외연도리에서 개최됐다.

이틀간에 걸쳐 펼쳐진 외연도 풍어당제는 산제와 당제, 용왕제로 구분해 마을 뒤 당산 동백수림 내에 위치한 중국 제나라 전황 장군 사당에서 황소를 제물로 바치고 정성을 다해 제를 올리며, 서해 용왕님께 풍어를 비는 행사로 약 400여년 전 조선 중엽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연기 '용암강다리민속행사'



▲ 사진은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용암강다리 재현 장면

민속전통을 승계 발전시키고 마을주민의 결속을 위해 매년 열리는 용암강다리 민속행사가 열리는 용암강다리 민속행사가 2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연기군서면 용암리 고북저수지에서 열렸다.

용암강다리는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400여년 전부터 매년 정월 보름날 남녀로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하며 여자가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전통 민속놀이이다.

"풍어 · 안녕 비나이다"

만세보령 풍어제 성료

제4회 만세보령문화제 풍어제가 정월 대보름을 맞아 2월 4일 오전 11시 각급 기관·단체장과 지역어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시 신항동 대천항에서 열렸다.

보령개량안강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풍어제는 보령 앞바다를 지켜 주는 용왕님께 올해 풍어와 함께 어부들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4회째를 맞은 이번 풍어제는 오전 11시 대천 5동 풍물패의 농악시연으로 막이 오른 후 참석자 모두의 정성을 모아 제례를 올리고 서해바다 용왕님께 풍어와 안녕을 기원했다.

이날 오전면 원산소리 저두부락에서도 음력 정월 대보름을 맞아 풍어제가 열렸다.

남녀 줄다리기로 마을 '풍년' 기원

행사에는 지역주민 400여명이 참여해 용왕제와 목신제 및 줄다리기로 나눠 진행된다.

용왕제는 2월 5일 오후 8시 마을 어귀인 고북저수지 상류지역에서 마을부녀자만 50여명이 참여해 저수지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목신제는 6일 오후 7시 마을두산 느티나무에서 지역주민 50여명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수령 수백년의 느티나무에 제사를 지내고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다.

이어서 오후 7시 30분부터 용암리 마을앞 도로에서 400여명 참석자 전원이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남녀가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행사가 개최되었다.



만세보령문화제 풍어제가 4일 지역어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천항에서 열렸다.

저두부락 선주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풍어제는 저두선착장에서 기관단체장과 지역어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마을의 안녕과 풍성한 고기잡이는 물론 평안한 한 해를 지켜줄 것을 기원했다.

서산 간월도 굴부르기 군왕제

2004. 2. 5

주민의 무사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수룡동당제가 정월 대보름날인 5일 홍성군 서부면 수룡동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수룡동당제는 천수만의 바닷길이 열려 뱃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한해의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400여년 전부터 매년 정월 대보름날 행해 오던 기원제다. 홍보지구 간척사업으로 마을의 지세와 생활방식이 변한 가운데서도 수룡동당제는 해마다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친목

과 화합의 행사로 치뤄져 지금까지 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도지정 무형문화제 제36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수룡동민속문화보존회(회장 김관은)주관으로 열리는 수룡동당제는 채현병 홍성군수를 비롯해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당제에 이어 오후 2시 용왕제와 저녁 7시 거리제 순으로 치러졌다.

정월대보름 '굴풍년' 기원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고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가 서산지역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졌다.

간월도 굴 부르기 군왕제 보존회(회장 김정인)는 2월 5일 오후 2시 간월도 항포구에서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굴 풍년을 기원하는 군왕제를 올렸다. 이날 군왕제는 흥을 돋우는 풍물놀이로 행사를 시작해 제를 마친 하얀 소복차림의 마을부녀자 30여명이 제수물

인 굴밥을 바다에 뿌리며 일제히 외치는 굴 부르는 소리로 백미를 장식하였다.

이밖에 고북면 봉생리와 초록리에서는 '큰말샘제'와 '각시 바위산제'가 각각 올려져 마을 주민들의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게 된다.

대보름 전날인 4일에는 대산읍 기은리에서 '장승제'가 올렸으며 운산면 여미리 '미륵장승제', 수당리 '산신제'도 봉행되는 등 전통 세시풍속의 맥을 이어갔다.



무창포 주꾸미 축제

2004. 3. 20 ~ 4. 11

신비의 바닷길로 널리 알려진 보령시 무창포항에서 봄철의 별미 주꾸미등 싱싱한 해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제5회 무창포 주꾸미 수산물 대축제가 3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무창포항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신비의 바닷길 주꾸미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서경)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무창포 연안에서 매년 봄철 다량으로 어획하는 주꾸미를 관광 특산품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주꾸미의 뛰어난 맛을 널리 알려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축제의 일환으로 마련하고 있다.



“모세의 기적도 보고
주꾸미도 드세요”

특히 이 축제는 어선에서 갓잡아 올린 초봄의 별미인 주꾸미를 비롯한 개불, 맛 조개류 등 다양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어 미식가들의 입맛을 돋우고 있다.

축제가 열리는 무창포는 신비의 바닷길로 널리 알려진데다 주변경치가 아름다워 방파제에서 바라보는 낙조가 환상적이다.

'2004 왕의 물 축제' 개최

연기군, 3월 21·22일 기원제·국악마당 등

연기군은 3월 21~22일 양일에 걸쳐 전의면 일원에서 '2004왕의 물 축제' 행사를 가졌다.

전의향토문화선양위원회(위원장 황우성)와 전의 왕의물추진위원회(위원장 윤석규) 주관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세종이 안질에 걸렸을 때 전의 초수로 고쳤다는 역사적 의미를 재현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맑은 물을 기원하며 유교식 제례를 올리는 '왕의 물 기원제'와 세종대왕에게 물을 바치기 위해 말을 타고 물을 나르는 '왕의 물 이동재현'은 이 행사의 백미로 꼽혔다.

한편 전의초수(약수)는 세종대왕이 한글창제 중 안질에 걸려 고생할 때 매일 궁궐로 약수를 날라 치료에 도움을 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기 '복숭아 축제' 성료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된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5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향토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연기군의 특산품인 조치원 복숭아의 명성을 알리며 참맛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제2회 복숭아 축제가 8월 6일 이기봉 연기군수, 심대평 충남도지사, 충남도 시장, 군수를 비롯한 지역주민, 출향인사, 대도시 주민 등 5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려대 서창캠퍼스에서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번 축제는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조치원 복숭아의 옛 명성을 되찾고 조치원 복숭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연기군이 주최하고 조치원 복숭아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선희)가 주관해 복숭아게임, 축하공연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관심을 모은 먹기 대회, 복숭아 아줌마 선발 대회, 복숭아 수확체험, 군민노래자랑, 야간 무료 영화상영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군 관계자는 “축제에 함께 참여하고 성원해 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200m 짜리 줄 당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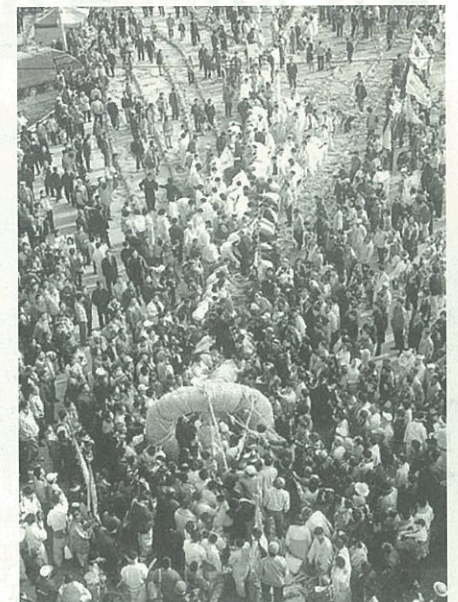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제75호인 당진군 기지시 줄다리기가 4월 1일 당제를 시작으로 4일 동안 민속 대축제로 열렸다.

지난 82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기지시 줄다리기는 세계 최대의 줄을 가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윤년마다 마음껏 당겨 볼 수 있는 체험형 이벤트.이번 축제는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 일원에서 전례 없이 큰 규모의 민속축제 행사로 막이 오르며, 특히 2시간에 걸친 줄 옮기기와 비녀장 끼우기, 줄다리기 본행사에 참여할 체험자 1000명을 줄다리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였다.

마지막 날인 4일에는 이번 행사의 절정인 줄다리기가 펼쳐졌는데 그 규모나 참여인원이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크고 웅장하며, 줄다리기에 사용되는 줄은 벼짚 3만속을 들여 연인원 500여명이 한달간에 걸쳐 제작한 것으로 길이가 200m, 두께 1.8m로 무게만도 40t에 이른다.

서산 박첨지 놀이

서산 3월 전통민속인형극보존회(회장 김동익)는 3월 27일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해미읍성(海味邑城·사적 116호) 잔디밭에서 양반 사회의 모순을 해학적으로 풍자한 '박첨지놀이'(道無형문화재 26호)를 공연했다.



▲ 450년 전통의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가 4월 1일부터 4일간 펼쳐진다.

올해의 줄다리기는 오후 2시부터 2시간에 걸쳐 본행사장인 흥척동으로 줄을 옮겼으며, 이어 오후 5시부터 줄다리기 본행사가 힘찬 함성과 함께 펼쳐졌다.



부여 은산별신제 거행

백제 부흥군의 원혼을 달래는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국가 중요무형문화재 9호·사진)가 3월달 24일부터 29일까지 옛새동안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별신당 일원에서 거행됐다. 사진은 별신제중 가장 핵심인 지난달 28일 상당굿 모습.

금산 '비단고을 산꽃축제' 인기최고



전국 최대 산벚꽃 자생지인 금산군 군북면 보곡산골에서 4월 17~18일 열린 '2004 비단고을 산꽃축제' 주행사에 5천여명의 관광객이 몰려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인 산꽃축제는 이 같은 인파가 찾아 들기는 처음으로, 음식은 동이 나고 차량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한바탕 흥역을 치렀다.

금산군은 이번 산꽃축제가 전국 봄축제 가운데 백미(白眉)로 자리잡음에 따라 마을권과 연계한 숙박형 관광 형태의 축제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서천 '기벌포 대보름제' 성료



서천문화원이 주최하고 기벌포 대보름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기벌포 대보름제는 풍성한 상품과 상금을 내걸고 2월 7일 오후 3시 나소열 군수를 비롯한 서천문화원장, 각급 기관단체장, 관광객,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롭게 열렸다.

제43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온 가족 함께 이순신 장군 만나러 가자

4월 24일부터 5일간 아산 현충사 일원서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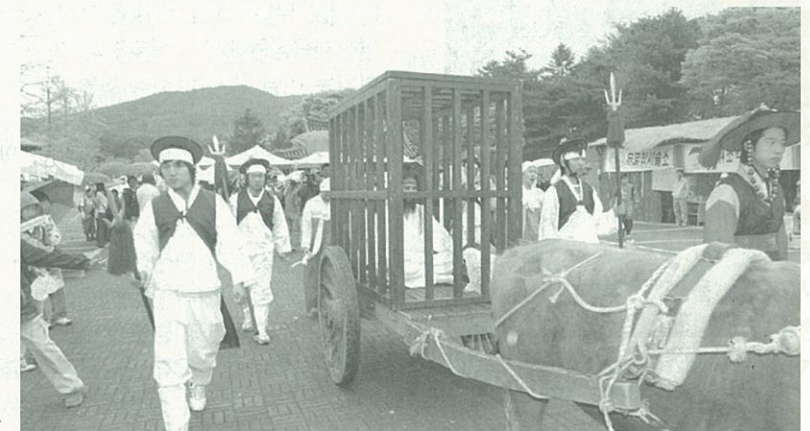
제43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가 이충무공 탄신 제 459주년 기념일을 전후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염치읍 현충사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는 2년간 국가지정 예비축제 기간을 거쳐 정부가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원년으로 이순신장군을 테마로 한 스토리 전개형 교육·문화체험 축제로 온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고, 느끼고 체험하는 차별성 축제로 펼쳐졌다.

전개형 체험 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장군과 거북선이 맹활약 했던 주요 해전을 중심으로 한 해전탐구관과 세계 3대 해전 명장인 영국의 넬슨제독과 일본의 도고 헤이 하치로등 명장비교 전시를 한다. 또한 조선시대 군영 및 진지에서 군졸복과 장군복을 빌려입고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전쟁장면, 압송행렬, 세계 4대 해전 비교 전시, 거북선과 판옥선의 모형부터 현재 군함의 전시등 배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밖에 대장간, 용기제작, 장승짜기, 맷돌과 절구와 투호놀이등의 체험현장과 이순신장군이 무과시험을 치르던 중 말에서 떨어지자 버드나무 껍질로 다리 상처를 묶고 다시 시험을 치렀다는 무과장도 재연되었다.

이번 축제는 노랑해전 헌정수 봉정을 비롯한 20여가지 주요행사와 전국궁도대회, 온양온천 마라톤대회등 10여 가지 부대행사와 함께 400년 전통의 외암민속마을, 온양민속박물관, 3대 온천지등 풍성한 연계관광을 즐길 수 있었다.



이순신 장군 압송행렬 ▶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교육형 민속축제로 자리매김

조선시대 명 판결을 다룬 마당극이 열린 관아체험 구역에서는 생동감 있는 연출과 함께 관전 태도가 산만한 관광객들을 현장 체포해 즉결 심판에 넘기는 등 돌발 연출도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또 옥사체험 구역에서도 관전하는 관광객들에게 돌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체포돼 곤장과 주리 등의 형벌 체험을 겪는 등 이벤트 행사가 이어져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았다. 이밖에도 이번 축제에서는 조선시대 운송수단 체험, 사생·백일장대회, 전통민속 공연 등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역사를 배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교육형 민속체험 축제로 자리매김 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예년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전국 대표 민속축제로 자리 매김 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교육적 의미를 가미한 체험형 민속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4일 청동리 연산체육공원에서 재현 행사
조선 성종때 좌의정 김국광 치적 기려

논산 연산백중놀이

논산시 연산면에서 전승돼 내려오는 민속놀이 연산백중놀이(충남도 무형문화재 제14호)가 9월 4일 오전 10시 연산면 청동리 연산체육공원에서 재현되었다. 연산백중놀이 보존회 주관으로 재현되는 이날 행사는 소속 회원, 각급 기관장과 사회단체,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연산백중놀이는 조선조 성종 때 좌의정에 오른 김국광의 치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농사일이 끝나 가는 백중일(음력 7월 15일)에 그의 묘소에 참배 한 후 벌렸던 민속놀이이다. 특히 한 해 동안 땀 흘려 농사일을 해 오던 머슴들이 이날 하루만은 일을 쉬고 연산장터 일원에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이 전해오고 있다. 연산백중놀이는 일제시대인 1942년도에 중단됐다가 1989년 기능보유자인 김용근씨의 노력으로 재현됐고, 1990년 개최된 제32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제15회 한산모시문화제

2004. 5. 1 ▶ 5. 6



한산모시 옷 패션쇼, 우수성 확보

국내 유일의 전통섬유축제인 제15회 한산모시문화제가 지난 5월 1일부터 6일까지 서천군 일원에서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산모시 옷패션쇼를 끝으로 다채롭게 열렸다.

모시라는 주제와 서천지역 전통과 독특한 향토문화를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둔 이번 축제는 어른과 어린이 모두가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장을 마련, 향토문화와 조상의 슬기와 열을 느껴보는 기회가 마련돼 큰 호평을 받았다.

이날 개회식은 나소열 군수의 사회로 진행돼 저명인사의 인사를 간단한 축하메세지로 유도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이어 벌어진 한산모시옷패션쇼는 봄 저녁 정취와 어우러진 모시 특유의 시원한 아름다움과 상큼함을 선보이며 5월의 첫밤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행사장 전체공간을 신성리 갈대밭에서 나는 갈대를 이용해 말집, 강녕, 움막, 초가집 등을 지어 획일화된 서양식 텐트로 대변되는 타 축제와의 차별화된 축제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초가안에서 모시삼기, 짜기, 짜기 등 모시가 만들어지는 전과정을 한 장소에서 볼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모시명인들의 도움을 받아 모시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해 축제에서 반응이 좋았던 모시 천연염색 코너 등을 확대하여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했으며 모시옷과 모시로 만든 소품들을 전시,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축제의 백미인 모시옷패션쇼의 경우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열고 모시삼기, 모시날기, 모시짜기 등 모시길쌈의 전과정을 연출하는 지방 고유의 민속놀이인 저산팔읍 길쌈놀이도 오전, 오후로 나뉘어 시연되었다.

한산모시문화제는 지난 98년 제9회 대회를 맞아 전국 18대 관광문화제, 충남3대문화제로 선정되었으며 저산문화제를 알기 쉬운 한산모시문화제로 명칭을 바꾸고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제7회 보령 머드 축제

해수욕과 머드마사지 등 풍성한 체험



제7회 충남 보령 머드축제가 7월 16부터 22일까지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보령머드의 세계화'란 슬로건을 내걸고 국내는 물론 세계각국 관광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 올해부터 세계적인 축제로 확대 개최 되었다.

동양에서 유일한 패각분 백사장을 자랑하는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해수욕과 함께 청정개펄에서 진흙을 채취하여 생산된 머드분말(mud powder)을 이용한 머드마사지를 체험할 수 있는 제7회 보령머드 축제가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렸다.

머드축제는 지난 1996년 7월 바다진흙을 가공하여 머드팩의 14종의 화장품을 개발한 보령시가 머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상품화로 성공한 '보령머드화장품'과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각종 관광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98년 7월에 처음으로 축제를 개최해 올해까지 7회 연속 문화관광부지정축제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2003년도에 이어 올해도 우수축제로 지정되는 등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머드 장애물과 머드 미니풀, 보령머드 체험 연예인 축구대회와 갯벌 조개잡기대회,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이 참여하는 머드세계 불꽃 경연대회, 세계머드 피부미용경

지난해 보령머드축제에 참가한 어린 피서객들이 머드교도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주요 행사로는 갯벌 극기훈련 체험, 갯벌 마라톤대회, 머드 바디 페인팅 등 이색적인 참여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사진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보령갯벌마라톤 대회 시상식(좌)과 경기(우) 장면)

로 추억을 만들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호응도가 높은 머드침단마사지, 대형 머드탕, 머드시름대회, 머드슬라이딩, 머드교도소, 인간마네킹, 캐릭터인형 등 체험 프로그램을 한단계 upgrade하여 운영되었다.

또한 뜨거운 태양아래 개최가 어려운 머드왕 선발대회, 제5회 세계머드피부미용경진대회, 불꽃경연, 해변국악공연 머드바디페인팅공연, 클래식의 밤, 머드페스티벌대회 등 축제기간내

게르마늄과 미네랄 등이 풍부해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보령산 진흙은 남녀노소,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다. (사진은 지난해 머드축제에 참여한 외국인 관광객(좌)과 대형머드탕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서객들(우))



내 야간을 이용해 백사장 일원에서 다양하게 펼쳐진다.

연계행사로는 관광지 순환이벤트로 관내 주요관광지간 무료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지난해 제6회 보령머드축제 공모사진전시 및 제7회 보령머드축제 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 머드홍보관, 머드화장품, 캐릭터상품코너운영, 보령에서만 접할 수 있는 특산물 판매, 웰컴투코리아(연예인) 팬사인회 등도 다양하게 개최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보령머드 축제는 신이 빚어 놓은 듯한 환상의 섬 외연도를 비롯한 78개의 크고 작은 섬과 모세의 기적으로 유명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한여름에도 오싹한 냉풍욕장, 석탄박물관, 국보 남해화상백월보광탑비 등 36점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함께 연계관광으로 즐길 수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기간동안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이 다량 방출되고, 외국산 제품에 비하여 게르마늄, 미네랄, 벤토나이트 성분 함량이 높아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보령머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고 밝혔다.



“진정한 웰빙족은 젓갈을 먹습니다”

살아 있는 마을을 위한 축제 문화!!

구수한 향토문화 제8회 강경젓갈축제가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강경포구일원과 젓갈시장 및 옥녀봉 등 강경을 전역에서 다양한 체험행사와 함께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번축제는 쉼 곳과 구경거리가 있는 곳, 환상을 즐기는 시간으로 축제기간동안 공동체의 소망을 정서적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경험하고 '선체험'하도록 해주는 환상성을 수반하는 문화적 체험과 정신적 건강을 추구하는 잔치로 마련되었다. 이 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향토문화축제에서 벗어나 외국인 관광객도 즐겨 찾는 등 국제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축제가 개최되기 이전인 96년경 젓갈점포가 고작 20여개에 그쳐 매출도 28억원 정도에 그쳤으나 현재 80여개 점포로 늘어나 젓갈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월400여명으로 논산지역경제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200년 전통의 젓갈! 강경포구로의 초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통을 이어가는 축제한마당으로 승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아래 젓갈연날리기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강경포구 및 주무대에서 5일동안 열린 이번 행사는 개막, 축하공연을 비롯해 젓갈 마당놀이 ‘홍도야 우지마라’와 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옥녀봉에서는 ‘논산과 문학’이 펼쳐졌다.

특히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이벤트 행사인 젓갈통지고 달리기, 젓갈합지박이고 달리기, 선비복장을 하고 다양한 젓갈을 맛볼 수 있는 황산골 웰빙선비밥상, 김치담아가기, 황석어젓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전국 퓨전젓갈음식 요리대회 및 젓갈캐릭터 상품전, 갈대숲 오솔길걷기, 놀뽕고을 잔치 등 특별행사가 마련되었다.

만세보령문화제

2004.10. 1 ~ 2

보령지역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 한마당 잔치로 꾸며질 제13회 만세보령문화제가 오는 10월 1~2일 양일간에 걸쳐 보령 종합경기장을 비롯 시내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올 해로 13회째를 맞은 보령문화제는 11만 보령시민이



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키로 하고 한차원 높은 문화예술을 통한 만세보령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두고 있다.

이번 문화제를 통해 지역 전통문화 창달은 물론 특색있는 문화관광 조성 및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문화축제 애향축제 화합축제를 기본 방향으로 지역의 전통문화, 세시풍속의 재현 확대, 시민과 함께 다수의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제5회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

9월 3일부터 청양농특산물 우수성 홍보



청양농특산물 대축제를 통한 화합한마당 잔치 제5회 청양고추·구기자 축제가 9월 3일부터 4일까지 충남 청양군 청양읍 지천 백세 건강공원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는 고추·구기자 등 수확기와 추석을 앞두고 군내 생산 농특산물 우수성과 청양관광 홍보등 청양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 행사를 마련. 먹거리와 볼거리 살거리가 풍부한 도·농 어울림 한마당으로 펼쳐졌다.

행사장에는 대도시 소비자에게 청양 고추 구기자 등 청양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추와 구기자 품종을 전시하고 재배기술 알리장터가 열려 청양 고추 구기자의 재배연혁 특설 기술 유통과정 등을 소개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청양농특산물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생산자는 원하는 품종을 선택 재배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농산물비교전시장, 청양고추 세척 건조과정 시연회 등을 볼 수 있다.

제 6 회

칠갑산 장승 문화축제

한국 최고의 장승문화 보존지역으로 일컬어지는 칠갑산 주변의 장승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제6회 칠갑산장승문화축제가 청양문화원 주관으로 9월 5일 칠갑산 장승공원에서 열렸다.

칠갑산장승공원에서 개막식을 비롯 칠갑산장승대제, 대형장승 및 솟대세우기, 장승짜기시연, 장승제시연, 창작장승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민속마을 부지와 장승공원 일원에서는 부대행사로 구기자주 만들기, 칠갑산두부만들기, 짚공예, 돌타살기 등 체험행사가 열리고 사물놀이 공연, 마당극 공연 등 한마당 축제가 펼쳐졌다.

칠갑산장승문화축제는 민족정신의 산실로 자리매김되어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들도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축제이다.



제24회 금산인삼축제

제24회 금산인삼축제가 9월 10~19일까지 열흘동안 금산군 일원에서 열렸다. 주제는 '건강·웃음·희망'.

금산인삼축제는 해마다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찾아와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국제인삼교역전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전통의 풍류와 현대적 멋이 조화를 이루는 이벤트 행사로 웃음을 선사하고 건강 한 미래와 만나는 건강축제였다.

체험 현장에서는 인삼 캐기, 약초썰기, 인삼 깎기, 인삼 접기, 인삼병(甁) 만들어 가기 등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인삼요리 경연대회도 열렸고, 연예인과 함께 하는 음악 여행과 퓨전음악 공연 등 젊은 세대를위한 축제도 있었다.

마지막 날 금산인삼 촛불 잔치로 막을 내릴

이번 축제는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앞두고 열리는 행사로서 그 의미가 더욱 컸다는 평이다.

금산인삼축제 행사 일정

(전시관=인삼종합전시관)

▲10일(금)-인삼왕 시상식(전시관) ▲11일(토)-인삼요리 경연(전시관)-전국 인삼약초요리 경연 및 전시회(금산웨딩타운) ▲12일(일)-인삼요리경연(전시관) ▲13일(월)-국제인삼교역전 개막식(전시관) ▲14일(화)-전국인삼홍보사절 선발대회(전시관) ▲15일(수)-인삼 세계화 심포지움(다락원), 앙드레 김 패션쇼(학생체육관)-16일(목)-전국 시조경창대회(다락원), 장사시름대회(민속놀이마당) ▲18일(토)-건강 어린이 선발대회(전시관) ▲19일(일)-촛불잔치(전시관·폐막)



금산인삼축제 5연패 달성

금산인삼축제가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전국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이로써 금산인삼축제는 지난

문화관광부, 전국최우수 선정
관광상품화 기능성등 높게 평가

과급효과도 652억원에 달해 산업형 관광축제로서의 자긍심을 더했다.

특히 제5회 국제인삼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연속으로 전국최우수축제의 영광을 이어 가게 됐으며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축제로 자리잡게 됐다. 문화관광부는 22일 금산인삼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강진청장문화제 등 3개의 최우수축제를 포함, 2004년 지원대상 문화관광축제 23개를 선정했다.

문화관광부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각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지원하고 있다.

금산인삼축제는 관광학과 교수, 축제관련 전문가 및 평가위원들로부터 관광상품화 가능성,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 각 부분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건강·웃음·희망을 주제로 열린 제 23회 금산인삼축제는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87만 5000명의 내방객이 다녀갔고 지역경제

교역전에서는 1358만달러의 성과를 얻어 한국인삼수출의 교두보로 확고히 자리잡았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6430명이 다녀가 한국 최고축제의 명성을 세계인에게 각인시켰다. 이처럼 2004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금산인삼축제는 '문화관광부지정 축제'라는 공식 후원 명칭을 사용하고, 최고지원액인 1억 6000만원의 예산지원과 함께 축제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 국내·외 홍보와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조직망을 통한 축제홍보·마케팅 등 행정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김행기 군수는 "금산인삼축제가 5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과 성원을 해준 모든 군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5년 이내 세계 10대축제 진입을 목표로 금산의 특성을 살린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해 홍보의 국제화, 다양화를 통해 세계적 축제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9월 30일까지 '경축의 밤' 등 한마당 잔치

천수만 대하의 참 맛을 선보이는 '남당하 대하축제'가 9월 18일 오후 5시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현지에서 개막식을 갖고 오는 10월 30일까지 43일간의 흥겨운 한마당 잔치를 펼쳤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대하축제는 천수만의 특산물 대하를 전국에 널리 홍보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편 주민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해마다 열고 있는 먹거리 축제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신선한 대하나 수산물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이벤트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축제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갔다.

남당리대하축제



태안 자연축제

10월 10일

전통소금 함께 만들어요



바닷물을 끓여 만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소금 제조방식인 자연(煮鹽) 생산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자연축제'가 태안문화원(원장 정우영) 주최로 10월 10일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남금마을에서 열렸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자연축제는 10일 오전 11시 개막을 시작으로 소금고사, 길놀이, 갯벌공연과 통자락 만들기, 간수 나르기, 소금굽기 등 자연생산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다.

또 남금마을 갯벌에서 자라는 능쟁이(학명 칠게)와 황발이(농게)잡기, 수차돌리기, 소달구지타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제공할 것으로 보였다.

정 원장은 "태안반도에는 18~19세기에 150여개의 자연 터가 있을 정도로 자연염이

태안 자연축제 10월 10일 남금마을서 수차 돌리기 등 체험행사 풍성

성행했으나 간척지가 생기고 천일염이 들어오면서 명맥이 끊겼다"며 "후손들이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뭔가 배우고 갈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은 1950년대 천일염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 전통 제조법으로 만든 소금으로, 갯벌에 통자락을 설치하고 조금때 6~7일간 갯벌흙을 써레질해 말린 다음 사리때 바닷물을 투과시켜 만든 간수를 가마솥에서 8~10시간 끓여 만들기 때문에 염도가 낮고 각종 미네랄이 함유돼 있어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천안흥타령축제 2004

'천안흥타령축제 2004'가 4일간의 춤열기를 뒤로 하고 10월 3일 폐막했다. 천안시와 주관 단체인 천안문화원은 지난 9월30일 거리퍼레이드를 시작으로 10월3일까지 4일동안 천안삼거리공원과 아라리오광장에서 '흥타령축제 2004'를 주최했다. 올해 흥타령축제에는 축제장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증가, 약 5만여명이 경연 참가팀들의 다양한 춤솜씨와 함께 각종 문화체험행사를 즐겼다.

10월1일 개막식에 앞서 한동안 비가 내려 행사 관계자들을 초긴장케했지만 개막식을 기점으로 쾌청한 가을 날씨가 회복, 축제의 성공적인 진행에 한몫했다.

춤 축제로 개편한 뒤 2회째인 올해 흥타령축제는 지난해와 몇가지 다른 면모를 보여줬다.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금요일 오후 시간대에 맞춰 진행된 거리퍼레이드에는 많은 시민들이 연도에 늘어서 박수를 보냈다.

경연참가팀 규모는 참가신청한 81개팀에서 27개팀이 불참한 54개팀이 참가, 2일과 3일 이틀동안 열띤 춤솜씨를 겨뤘다. 경연결과 대상은 학생부에 출전한 안성청소년무용단이 차지했다. 안성청소년무용단은 전통혼례를 춤으로 연출한 '시집가는날'로 600만원의 상금과 함께 대상을 거머쥐었다.

부문별 금상은 일반부 Get Backers(서울), 혼성부 민족굿패 '얼'(천안)이 선정됐다. 부문별 금상팀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전달됐다.

www.DanceCarnival.com

Let's
dance
in Cheonan!
다함께 흥겨운 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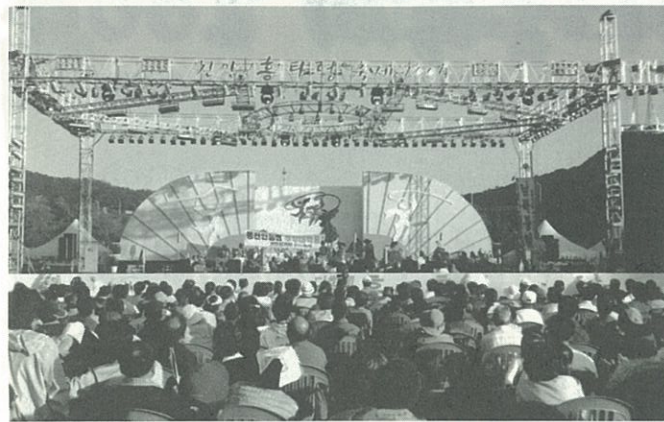
Cheonan Heungtaeryeong Festival

천안흥타령 축제 2004

2004. 9. 30-10.3

● 거리퍼레이드 2004. 9. 30(17:00~19:00)

시청광장 → 천안역 → 아라리오광장



흥타령축제의 일환으로 1일 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읍면동 대항 민속놀이에서는 단체줄넘기 목천읍, 씨름 성정1동, 그네뛰기 원성2동, 줄다리기 입장면이 각각 우승했다. 특별한 차질없이 무난하게 끝난 올해 흥타령축제는 외형상 전국 축제에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내용에서는 개선의 여지도 남겼다. 흥타령축제 폐막식에서 성무용 시장은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희망과 꿈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흥타령축제를 전세계에서 주목받는 축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흥타령축제2004’의 시작을 알리는 거리퍼레이드가 지난 달 30일 화려하게 펼쳐지고 이튿날인 10월1일부터 3일동안 전국에서 모인 춤꾼들의 춤 경연이 삼거리공원 주무대와 아라리오광장에서 펼쳐졌다. 30일 열린 거리퍼레이드는 천안시청을 출발해 천안역을 거쳐 아라리오광장까지 2km구간을 행진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선 보였다.

특히 이번 퍼레이드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손을 잡고 행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또 지난해보다 많은 인파들이 모여 참가자들에게 환영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참여 인원만 42개팀 1천2백 90명이 참가한 거리퍼레이드에서는 지역 상징물과 춤, 음악, 길, 옛 풍습 등 6개 분야의 모습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비롯한 KTX, 보부상 행렬 등 독특한 거리축제를 연출했다. 춤 경연에 참가하는 경연팀들은 천안역 광장, 복자여고 앞 등 퍼레이드 구간 곳곳에서 공연을 선보였고, 특히 중국 석가장시 예술단원들이 탈을 쓰고 공연을 할 때에는 관람시민의 환호를 받았다.

1일 오후 7시 성무용 천안시장의 흥타령축제 개막선언과 중국 석가장시 민속춤, 문등시 예술단의 축하공연과 함께 화려한 불꽃놀이로 이틀간의 춤경연대회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춤 경연이 시작된 2일. 당초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팀은 81개 팀이었으나 대회에 출전한 팀은 모두 54개 팀으로 27개 팀이 불참했다. 경연을 포기한 팀들은 준비가 부족했거나 학생들의 경우 시험기간과 맞물렸다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 대회는 학생부, 일반부, 혼성부 세 부로 나뉘어 예선 한번과 본선, 결선 후 최종결선 순서로 진행됐다.



춤 경연대회 진행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한층 성숙됐지만 여전히 참가자들의 많은 공연횟수와 참가팀들이 순서를 미리미리 전달받지 못한 점, 춤 경연 대회와 초청 공연 사이사이 흐름이 끊기는 점 등의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이 약 5만여 명을 넘어서고 대회가 진행되는 내내 자리를 뜨지 않고 경연팀들을 열심히 응원해 주는 모습을 보여 천안시민의 축제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줬다.

2일과 3일 열린 본격적인 춤 경연대회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만큼 수준이 높았다. 춤 종류도 스포츠댄스에서부터 재즈, 힙합, 고전 무용, 쿡무까지 다채로웠으며 출연자들의 연령대도 유치원 아이들부터 72세 할머니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다. 부채나 흰 장갑, 버드나무 가지, 스카프 등 다양한 소품들을 이용한 춤을 선보여 시민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총 11개 팀이 참가한 학생부 예선에서는 뽕바, 차차차, 자이브 등 다양한 춤을 선보인 서울시의 KDA어린이댄스스포츠, 색동 줄넘기로 흥을 돋운 천안쌍용초등학교의 hijump 등 7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A조와 B조로 나뉘어 경연을 벌인 일반부는 당초 참가 접수팀이 A조 B조 각각 19팀이었으나 실제 참가한 팀은 A조 B조 각각 10팀으로 20팀 전부 본선에 진출했다. 32세 이상과 성인과 학생들로 구성된 혼성부는 모두 23개 팀이 예선을 치루고 13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춤경연열기는 경연참가팀들의 결선 대회로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다.

결선에서 폐막식까지

학생부에서는 본선 없이 ‘시집가는 날’이란 주제로 전통 혼례를 춤으로 표현한 안성시의 안성청소년무용단이 최종 결선에 진출.

20개 팀이 경합을 벌인 일반부 본선대회에서는 9팀이 선발, 텔레비전 브라운관에서 뛰쳐나와 쿡무와 브레이크 댄스 등 현란한 춤 솜씨를 보여준 서울시의 Get Backers가 최종결선에 올랐다. 혼성부는 본선에 진출한 13개 팀 중에서 7개 팀이 본선에 올랐고 ‘태평천안’을 표현한 민족국패 ‘얼’이 최종결선에 진출했다.

최종결선에 오른 세팀 중 종합결선을 치른결과 영예의 대상은 학생부 안성청소년무용단이 차지해 상금 6백만원을 받았고 민족국패 ‘얼’과 ‘Get Backers’가 각각 금상을 수상 5백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결선에 오른 23개팀중 대상과 금상팀을 제외한 20개팀은 팀마다 노력상, 진취상, 장려상, 동상, 은상을 차지해 상금을 받았으며 중국 석가장시와 문등시 예술단은 특별상을 수상 각각 1백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거리퍼레이드를 시작으로 3일동안 천안시민들을 볼거리와 먹거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즐겁게 했던 흥타령축제2004는 성무용 천안시장의 폐회 선언과 내년을 기약하는 ‘SEE YOU AGAIN 2005’라고 씌어진 글씨에 불을 점화하는 점화식,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막을 내렸다.

홍성 만해제

2004.10.9 ▶ 10.10



▲ 제10회 만해제를 기념하는 문학의 밤 행사가 9일 홍성군청 후정에서 열려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악3중주 공연을 하고 있다.

행사 첫날인 10월 9일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한용운 선생 생가지에서는 채현병 군수를 비롯, 각급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해사상 강의와 기념식 및 추모 다례가 거행됐다. 또 이날 오후 2시부터 군청 대강당에서는 문인협회 홍성군지부(지부장 김정현) 주관으로 만해 청소년학교가 열렸으며, 3시부터는 남산공원 내 푸른쉼터에서 사진, 미술, 서예, 지역 문화지 간행물 전시 등 한우리축제가 펼쳐졌다.

저녁 7시부터 홍성군청 후정인 여하정에서는 지역 문인 및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낭송 및 공연 등 문학의 밤 행사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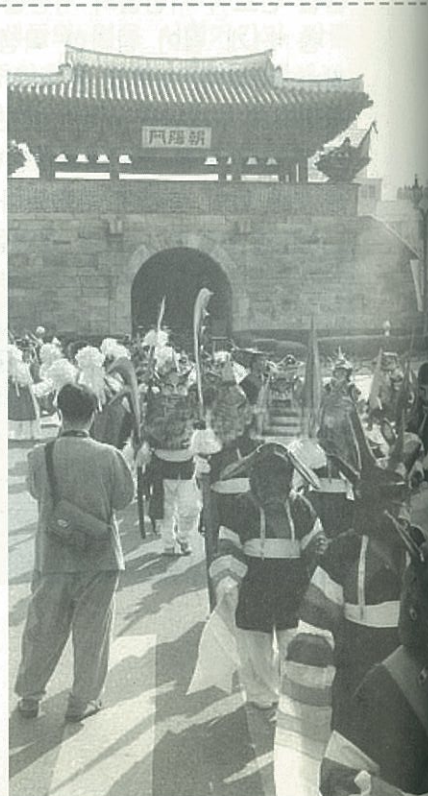
둘째날인 10일에는 오후 1시부터 홍주라이온스클럽(회장 오배근) 주관으로 홍주의사총에서 남산공원 푸른쉼터 구간에서 한마음 걷기대회가 열렸으며, 이어 3시30분부터는 푸른쉼터에서 만해 추모 공연 행사가, 오후 7시부터는 만해 선생을 추모하는 영화가 상영됐다.

아! 최영장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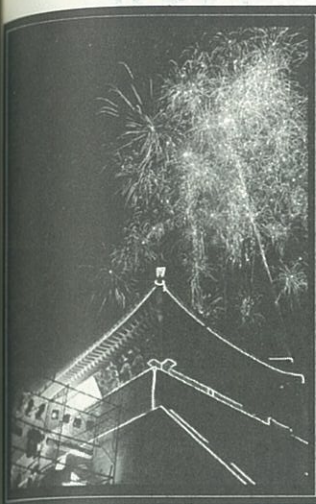
제1회 내포문화제 축하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진 16일 홍성군 조양문 앞으로 최영 장군 영신제 인물 가면과 12간지 가면을 한 시민들이 가두 행진을 하고 있다

사상 강의·기념식 개최 추모 공연·영화 다양

만해 한용운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전통문화를 선양하기 위한 '제10회 만해제'가 10월 9일 한용운 선생 생가지에서 만해사상 강의 및 추모다례를 시작으로 10일까지 이틀간 홍성군 일원에서 개최됐다.



제1회 내포사랑큰축제



풍요로운 바다와 넓은 평야가 끝없이 펼쳐진 내포지역의 서민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 '2004 홍성 내포사랑 큰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내포문화의 재발전'이란 주제로 펼쳐진 이번 축제는 10월 15일 길놀이로 시작으로 강강술래, 홍주성 탈환 의병전, 향토가수 공연, 내포 학술세미나, 불꽃놀이 등이 펼쳐졌다.

특히 홍주성 동문인 조양문에서 1,000여명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홍주성 탈환 의병전에서 의병들이 일본군을 물리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등 홍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16일에는 내포문화 재현 시가행진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결성농요 및 초청 민속놀이 시연, 국악공연,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및 록 페스티벌, 글로리아 소년소녀합창단 및 탈북 예술단의 공연 등이 펼쳐졌다.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여 동안 펼쳐진 내포문화 재현 행렬은 홍주목사 행차, 홍주의병, 최 영 장군, 성삼문 선생 행차, 김좌진 장군 청산리대첩, 전통혼례 행렬, 농경생활 재현 행렬, 최 영 장군 전통굿, 호상놀이, 풍어제, 결성농요 등 1000여명이 참가해 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는 등 내포축제의 가능성을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오후 8시부터 자유총연맹 홍성군지부 주관으로 2시간여 동안 펼쳐진 탈북예술단 공연에는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000여명의 주민들이 관람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17일에는 최 영 장군 영신굿과 전국노래자랑, 토종 충청도 사투리 경연대회, 한성준 춤 예술제, 창작 타악무용, 남사당 놀이, 극단 우금치의 '꼬대각시' 공연 등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한편 홍성군은 전문 평가기관에 내포사랑 큰 축제에 대한 평가를 의뢰해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전국 규모의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부여왕흥사지발굴 고증바탕 백제사 복원 기대



백제 사비시대 왕실의 원찰이었던 충남 부여 군 규암리 왕흥사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고증에 의한 백제사 복원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왕흥사는 백제 불교문화가 본격적으로 꽃핀 사비시대에 조성된 사찰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사서인 삼국사기·삼국유사에 동시에 등장하는 백제의 유일한 절이다.

지금까지 백제사는 '잃어버린 역사'로 치부돼 고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져왔다. 때문에 유적이 거의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왕흥사지'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2000년부터 5차례에 걸쳐 실시된 왕흥사지의 발굴 결과를 토대로 백제 사비시대 불교사찰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은 어떨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가 발굴·조사한 왕흥사는 중문·탑·금당·강당이 남북 일직선상에 위치한 백제시대 전형적인 가람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역 규모는 동·서회랑지 최대 너비 58.7m, 남북 길이 80m로 부여 능산리 사지와 규모나 형태가 흡사하다. 특히 사역 남쪽에서는 저습지와 경계를 이루는 동서방향의 석축이 발견돼 (2002년) 배를 타고 이 곳을 드나들었다는 기록을 입증했다. 연구소측은 석축이 백마강과 맞닿아 있었거나 인공으로 조성된 연못과의 경계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동·서회랑의 발견으로 목탑지 일부가 확인되면서 사찰 중심지인 금당과 강당의 위치가 파악됐다.

계곡 지형에 입지해 있어 퇴적이 이뤄졌기 때문에 유적은 평지에서 1~2m 아래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었다.

이 지역이 '왕흥사'로 추정된 것은 1934년 물고기 가시문양과 '왕흥(王興)'명이 새겨진 고려시대 기와가 부근에서 발견되면서다.

이를 근거로 왕흥사의 위치가 부소산 서북쪽 백마강 건너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지만 2001년 발굴에서 '왕흥'명 기와가 다량 출토돼 그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다. 특히 왕흥사는 백제시대 부여에서 유행한 기단 축조술을 이용한 와적기단 건물로 밝혀졌다. 와적기단 건물은 기와를 사용해 건물 기단 외부를 장식하는 독특한 건축기법. 군수리사지, 관북리 백제왕경유적 건물지 등에서도 발견되는 백제 후기 건축 양식이다. 그러나 축조방식은 각 유적마다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 왕흥사지는 아래쪽에 지대석을 쌓은 뒤 평기과를 가로방향으로 차곡차곡 쌓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일본 교토 키타시라가와(北

사비시대 조성 기와 외부 장식
日 와적기단 건물 모태 가능성
백제 가람구조 형태 완벽 고증

白川)폐사에서 확인된 것과 흡사한 것으로 왕흥사지가 일본 와적기단 건물의 원형이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왕흥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기와류와 토기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평기과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 벽과 서까래를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한 문양전·연목와(椽木瓦), 목조 건물 처마끝에 사용된 연화문 수막새도 다량 출토됐다. 특히 서회랑지와 부속건물지에서는 지붕 위에 올린 '치미'편이 출토돼 왕흥사지의 웅장한 규모를 짐작케 했다.

기록으로 본 왕흥사

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왕흥사가 언급된 횟수는 총 7회다.

삼국사기 4회·삼국유사 3회로 창건과 입지조건, 예불 의식 등 다양한 내용을 싣고 있다.

왕흥사 창건은 삼국사기 권 제27 백제본기 제5, 법왕 2년(600년)의 기록에 등장한다.

봄 정월에 왕흥사를 창건하고 승려 30명에게 도첩을 주었다는 것.

(法王二年 春正月 創王興寺 度僧三十人) 또 무왕 35년 봄 2월 왕흥사가 준공됐고 왕이 매년 배를 타고 절에 들어가 향을 피웠다고 기록도 보인다. 특히 이 절은 강가에 있었고 채색으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몄다고 서술, 왕흥사의 위치와 규모, 모양에 대한 설명도 찾아볼 수 있다.

(武王三十五年 春二月 王興寺成 其寺臨水 彩飾壯麗 王每乘舟 入寺行香)

왕흥사 창건·낙성 기사는 삼국유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법왕금살에 경신년(600년)에 승려 30인을 두고 사비에 왕흥사를 창건했지만 돌아가니 무왕이 즉위해 아버

지의 사업을 계승하고 수십년을 지나 완공했는데 미륵사라고도 한다고 전한다.

이 기사는 산을 등지고 물을 내려다보며 화목이 수려하여 사지의 미경을 갖췄으며 왕이 매년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절에 들어와서 그 형승의 장려함을 감상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삼국사기·유사에 창건·입지 등 언급

관련 기사를 미뤄볼 때 왕흥사는 수려한 경관에 웅장하고 화려한 사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왕흥사는 백제 멸망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6, 의자왕 20년의 기록은 왕흥사 여러 승려들 모두 마치 웬 배 돛대 같은 것이 큰 물을 따라 절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전하고 있다.

또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5, 태종무열왕 7년(660년)의 기록은 11월 5일 무열왕이 계탄을 건너 왕흥사 잠성을 공격, 7일만에 승리했고 이 전투에서 700명의 머리를 베었다고 전하고 있다.

2004.1.28

서천문화원 양수철 원장 취임



서천문화원은 1월 28일 문화원에서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양수철(梁壽澈)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지난 12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2백여 명의 재직회원중 120여명이 참석한 초빙에서 압도적인 신임투표로 선출된 양원장은 1959년 생으로 서천고교를 졸업하고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서천지회장과 중앙회 홍보실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뉴스서천 홍보실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뉴스서천 대표이사로 있으며 하늬회 회원으로 매년 그룹전을 열고 있는 화가이기도 하다.

성환문화원 송용삼 원장 취임



성환문화원장 이·취임식이 지난 27일 천안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민병달 천안문화원장, 권용태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 및 주민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신임 송용삼(52)원장은 취임사에서 『임기가 끝날때까지 지역민들에게 우리 문화를 홍보하고 몸소 실천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며 문화의 중심, 문화의 도시로 태어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성무용 천안시장은 축사를 통해 8년동안 문화원을 지켜주고 고생한 지해두 이임원장에게 감사를 표했고 주 5일 근무제 증가로 시민들의 문화욕구가 증가하여 문화원 역할의 중요성을 전하며 새로운 문화창출에 힘을 쏟아 살기좋은 도시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신임 송용삼 원장은 지난 95년 천안군 체육회 이사, 2000년 성환의용소방대 부대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다가 제 9대원장으로 취임하여 2008년 2월 27일까지 성환지역 문화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예정이다

예산문화원 이진자 원장 취임



"과감한 개혁을 실천하고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매사에 능동성을 발휘해 예산 예술의 발전 및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문화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0월 5일 예산문화원 정기총회에서 제13대 예산문화원장에 피선된 이진자(47·아트진미술원장)씨는 당선소감을 이같이 피력했다.

이 당선자는 대의원 44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비밀투표에서 20표를 얻었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 여권 신장과 여성의 사회 진출에 기여해 왔다.

이 당선자는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충청남도 예산교육청 행정자문화원, 민주평화 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조각가협회 회원 등으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펴왔다. 1991년 국민교육유공교원 표창, 1999년 충청남도 미술대전 조각 부문 대상, 2001년 충남문화예술상 수상, 2003년 청소년 건전 육성 감사패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충남역사문화원 공식 출범 옛 농업기술원에서 현판 제막식



▲ 지난 19일 충남역사문화원 현판 제막식 모습. <왼쪽부터> 유덕준 행정부지사(역사문화원 이사장),沈지사, 이복구 도의회 의장, 정덕기 역사문화원장.

백제의 역사와 충청지역의 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될 충남역사문화원(원장 정덕기) 현판 제막식이 4월 19일 열렸다.

대전 유성구 상대동 옛 도농업기술원 건물에 자리잡은 역사문화원은 원장과 연구직, 행정직을 포함 13명으로 구성됐고, 기구는 ▲충청학연구부 ▲도사박물관 ▲문화재연구부 ▲행정실을 두고 백제의 역사와 충청지역의 문화를 있다.

심대평 충남도지사 출판기념회



심대평 충남지사의 자전적 에세이 '길은 항상 새롭게 열린다' 출판기념회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각계 인사들의 축하 속에 개최됐다.

김종구 전 법무 장관 등이 초청인 형식으로 마련된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를 비롯 정원식 전 국무총리, 김학원 자민련 대표,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송인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 회장, 이규성·이동호 전 장관, 구노회·이상민·박상돈·김낙성·류근찬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 2000여명이 참석했다.

출판 서평에서 변평섭 대전매일신문 회장은 "이 책은 심 지사의 인간적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재미있다"면서 "효와 예는 인간의 인격을 이루는 기본으로 심 지사는 어릴 적부터 이런 기본을 가진 휴머니스트다"고 감상을 전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심지사 축하합니다"라는 말로 축하인사로 같음하며 '만세'를 제창하기도 했다.

심 지사와의 오랜 관계로 관심을 모은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는 "적지 않은 세월을 심 지사와 같이 보

냈다"면서 "이 책에는 자신이 느낀 것, 배운 것, 가진 것, 정치관·세계관·사생활 등과 내일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전 총재는 또 "책 이름대로 길은 항상 새로이 열린다"고 말하고 "심 지사는 우리나라의 큰 동량이 되실 분이다. 정성을 모아서 큰 힘을 보태자"고 격려했다.

심 지사는 "이번에 발간한 책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반성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맺어진 소중한 인연 등에 대한 뜻을 담았다"고 출판의 의미를 소개했다.

심 지사는 이어 "최선의 노력, 최상의 결실을 좌우명으로 삼아 온 것처럼 앞으로 새로운 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민선 지사 마지막 3기 동안의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다.

심 지사의 삶과 철학, 고뇌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저서는 지난 3월 말 1쇄 출판에 이어 4쇄가 인쇄 중이다

홍주성 옛모습 되찾는다

홍성 홍주성이 오는 2024년까지 3800여억 원을 들여 조선시대 모습으로 완전 복원된다.

홍주성이 옛 모습으로 복원되면 역사체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해져 지역문화 발전과 관광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군은 8월 13일 오후 군청 제1 회의실에서 문화재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주성 복원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홍성읍 오관리 일대 1만1195평 규모의 홍주성을 오는 2024년까지 20년 연차사업으로 완전 복원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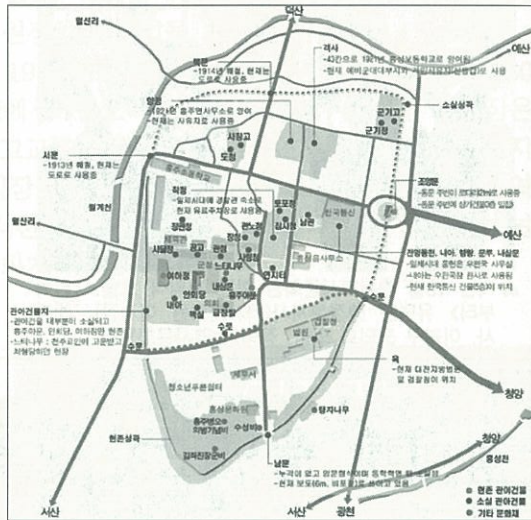
홍주성 복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지 매입 및 보상비, 공공기관 이전비, 성곽·건물 복원비 등 모두 385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복원계획에 따르면 총 길이 1772m의 홍주성 성곽과 서문, 남문, 북문을 발굴조사 후 원형대로 복원하고 현존하는 안회당, 홍주아문 등 관아건물 외에 성곽 내부에 있던 관아건물 27동을 다시 지어 옛 모습으로 되돌린다.

복원되는 관아건물은 내아·책실·급창방·사령청·관청·공고 등 목사관 관련 시설과 전영동헌·전영내아·전영내삼문·행랑·전영문루 등 전영관련시설, 객사·객사북문 및 외문·남관 등 객사관련시설, 향청·작청·장청·관노청·토포청·십사청·장관청·도청·사창고·군기청·군기고 옥사 등 행정실무시설, 사달정 등 누정시설 등이다.

또한 홍주성 모형과 홍성지역의 생활문화 등을 보여줄 수 있는 386평 규모의 홍주역사관이 건립되고 김좌진장군비, 홍주병오의병 기념비 등을 설치한 역사교육공간도 마련된다.

이밖에 저자거리, 공예촌, 응기촌, 민속마을, 전통음식체험 거리 등을 조성해 평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전통문화 행사와 지역



▲ 홍주성 복원 계획도

특산품 판매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홍주성이 조선시대 모습으로 복원되면 홍주 지역의 옛 명예를 회복해 지역 문화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남 서북부 내포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홍주성은 고려시대에 성곽과 관아 등이 축조되고 5군 14현을 관할하던 홍주목이 설치되면서 조선시대까지 군사요충지 및 행정의 요충지 역할을 해왔다.

조선시대 당시 홍주성은 조양문을 비롯한 4개의 성문을 연결하는 성곽 내부에 동헌, 객사, 향청, 책실 등 건물 34동이 존재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그동안 대부분 시설이 소실, 파괴되고 성곽 810m, 건물 4동만이 현존하고 있다.

홍주성곽과 조양문, 홍주아문은 지난 1972년 사적 231호로 지정돼 있다

한평생 수집 연구 '향토 지킴이'



김영한 회장

평생을 향토사 연구에 바쳐온 김영한 충남향토사연구연합회장(84)이 때늦게 주류 사학계로부터 '박사'를 헌정 받는다.

민족문화와 한국학 연구의 본산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장을병)은 20일 오후 2시 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한국학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 김회장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 16일 밝혔다.

40여년간 지방행정공무원으로 봉직하며 충남지역의 고문서 3만여점을 수집 관리해 충남도청 사료실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고 특히 퇴임 후 25년간 학술지 '향토문화'를 발간하여 수많은 자료와 연구 성과를 소개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김 회장의 학위수여는 CEO나 정치인들이 온갖 그럴듯한 공로(?)를 만들어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것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실제로 김 회장은 내세울 만한 학력도 변변찮지만 그동안 주류 사학계 학자들이 자존심을 팽개치고 그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을 정도로 수많은 성과를 올려왔다.

김 회장이 향토사 연구에 매달리기 시작한 것은 미 군정시절 논산군청에서 문화재 업무를 맡으면서부터. 이후 6·25 때 잃어버린

안동 김씨 관련 자료를 찾아나서면서 본격적으로 고문서 수집에 나섰다. 충남도 문화예술평과를 비롯 공직 생활 중 모은 자료는 국왕의 친필과 과거 답안지, 서찰등 모두 3만여점에 이른다.

대표적인 것이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국문교서. 내무부 행정자료실 전시작업에 참여했다가 찾아낸 뒤 학술지 '향토문화'에 발표해 보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 회장이 발굴하여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거나 문화재로 지정된 자료는 열거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이같은 공로로 서울신문 제정 향토문화대상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표창등을 받은 바 있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 20년 넘게 충남향토연구회를 이끌며 '향토문화' 27권을 펴낸 김 회장은 현재도 현장답사를 빠뜨리지 않는 등 향토사 연구에 마지막 혼을 불사르고 있다.

현재도 충남도 문화재위원, 충남향토문화연구연합회장등의 적지 않은 직함을 갖고 향토사 연구에 한치의 게으름이 없다. 학회와 박물관, 고미술계등으로부터 'SOS' 요청 역시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전문위원 자격으로 충남도 역사박물관 준비작업에 참여하며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집대성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김 회장의 소감은 남달랐다.

"나이도 먹었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아무래도 잘못 심사한 것 같아요. 오라고는 하나까 가진 해야겠죠."

태안마애삼존불 국보 307호 지정



태안 마애삼존불 <사진>이 드디어 국보 307호로 지정됐다.

태안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8월 30일 관보 고시를 통해 태안마애삼존불을 국보 307호로 관보고시를 통해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안군과 각급 사회단체들은 군내 도로변 곳곳에 국보 지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축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한편 태안군은 그동안 태안마애삼존불의 국보 지정을 위해 지난 2003년 6월 국보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7월 국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동국대 박물관장인 장충식 박사의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국보 지정을 위해 군민들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왔다.

신정교 금산문화원장 화관문화훈장



신정교 원장

문화관광부는 10월 17일 신정교 금산문화원장을 화관문화훈장 서훈자로 선정하는 등 올해 문화예술발전 유공자와 제36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및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신정교원장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문화 진흥에 크게 이바지 했으며, 특히 지역 축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 남다른 정열을 보여 온 것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시상식은 10월 20일 오전 10시 정동극장에서 열렸다.

분야별 서훈자 및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문화훈장 서훈자(34명)

▲금관문화훈장 = 이해구(전 서울대 음대 학장) ▲은관문화훈장 = 고 김사엽(전 동국대 교수) 고 김희조(작곡가) 임동권(민속학자) 엄대섭(전 대한도서관연구회장) 박연희(소설가) 김서봉(화가) 김충현(서예가) 김동혁(예명 김동원, 연극인) ▲보관문화훈장 = 김문환(서울대 교수) 임영웅(연극연출가) 정영화(영남대 교수) 고 임세순(필명 임영조, 시인) 김주연(문학평론가) 이수덕(서예가) 김학자(무용가) 박기정(시·사만화가) ▲옥관문화훈장 = 태덕수(한국탈춤단체총연합회장) 최기영(대목장) 김정동(목원대 교수) 정석진(평창문화원장) 강영중(대교그룹 회장) 우제길(판화가) 김기찬(사진작가) 한용희(한국동요음악협회장) ▲화관문화훈장 = 김태환(한국영상박물관장) 윤통웅(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장) 신정교(금산문화원장) 윤수옥(장흥문화원장) 최용문(속초문화원장) 김지승(태양당인쇄 대표) 이준희(국악인) 서현석(지휘자) 송춘희(대중예술인)



◀ 부여군 부소산의 산책길이 역사적인 명소와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져 관광객들로 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산길따라 백제 역사속으로

백제인의 충절과 혼이 서린 부소산이 문화유적과 어우러진 산책길로 인기를 얻고 있다.

부여의 진산인 부소산은 검푸른 숲을 이룬 해발 106m의 나지막한 산으로 백제여인의 절개의 상징인 낙화암을 비롯해 백화정, 사자루, 궁녀사, 고란사, 부소산성, 영일루, 삼층사, 군창지와 발길 닿는 곳마다 백제의 역사와 백제왕실의 이야기가 곳곳에 배어 있는 역사의 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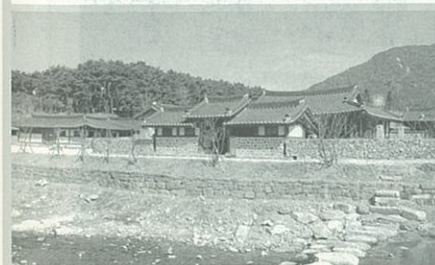
이처럼 문화재도 감상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부소산 산책길은 사비문을 시작으로 백제말 삼층신인 성충, 흥수, 계백의 위패와 영

정이 봉안된 삼층사와 계룡산 연천봉에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영일루를 지나 내려가면 소나무와 갈참나무들이 빼곡하게 우거져 있고 산새소리와 고목을 넘나드는 다람쥐와 청설모, 꿩 등을 만나게 된다.

궁녀사까지 1km가량 되는 길을 연인과 가족들의 산책길로 더할나위가 없으며 태지천 악수는 산책길의 멋을 더해주고 있다.

여기에 간간이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 자연과 함께 정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각광을 받고 있다.

외암마을 민속관 개관



아산 송악 일원 5000여평 전통가옥·영상관등 갖춰

선조들의 생활문화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외암민속관이 10월22일 개관했다.

외암민속관은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및 역촌리 일원 5000여평의 부지에 국비 16억 5000만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8억 8000만원 등 총 47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건립됐다.

아산시는 지난 99년 4월 부지매

입 후 문화재 분야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외암민속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11월 양반가옥 착공을 시작으로 중류층, 서민층 가옥과 홍보영상관, 주차장, 주변 조경, 유물전시 공사에 들어가 총 전시시설 14동(118평), 홍보시설 2동(42평), 부대시설 2동 등을 완료했다.

2004 충남문화예술인대회



문화원·예총회원 600명 참석 / 장사익 & 특별무대 마련 / 신행정수도 건설 결의대회도

충남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한마당 잔치 2004 충남문화예술인 대회가 30일 홍성 홍주문화회관에서 심대평 도지사, 재현병 홍성군수를 비롯 각급 기관 단체장, 각 시도 문화예술인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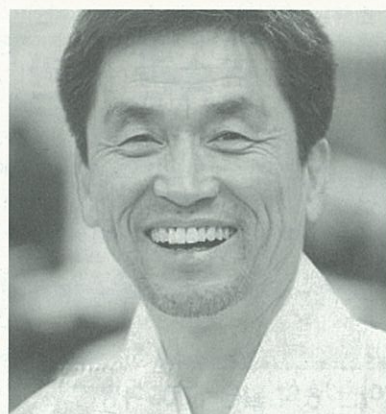
충남국악관현악단의 축하공연, 시낭송, 미술퍼포먼스 등에 이어 열린 본 행사에서는 대천문화원 구명희씨를 비롯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25명의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 등이 수여됐다.

식후 공연으로는 조치원문화원 소리봉사단의 공연과 함께 홍성 광천 출신의 소리꾼 장사익씨가 '쫄레꽃' '동백꽃' 등을 선사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충남문화예술인들은 대회가 끝난 뒤 신행정수도 건설 결의대회를 갖고 신행정수도 건설의 중단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유공문화예술인

장사익 氏 감사패 수여



祝 2004 충남문화예술인대회 수상자 수상



충청남도지사 표창

- | | | | |
|---------|-----|-------------|-----|
| ● 대천문화원 | 구명희 | ● 한국예총 천안지부 | 성정숙 |
| ● 공주문화원 | 류재열 | ● 한국예총 아산지부 | 천경석 |
| ● 서산문화원 | 유희범 | ● 한국예총 홍성지부 | 현자 |
| ● 논산문화원 | 김인규 | ● 국악협회 충남지회 | 황옥순 |
| ● 태안문화원 | 윤계동 | |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 표창

- | | | | |
|-------------|-----|--------------|-----|
| ● 한국예총 보령지부 | 김부권 | ●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 최상진 |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남연회회장

- | | | | |
|-----------|-----|---------|-----|
| ● 아우내 문화원 | 박충래 | ● 천안문화원 | 정중현 |
|-----------|-----|---------|-----|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장 표창

- | | | | |
|---------|-----|---------|-----|
| ● 홍성문화원 | 안현욱 | ● 성환문화원 | 한명현 |
| ● 예산문화원 | 우제풍 | ● 서천문화원 | 최명규 |
| ● 금산문화원 | 양진숙 | ● 부여문화원 | 김영태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남연합회장

- | | | | |
|-------------|-----|-------------|-----|
| ● 한국예총 부여지부 | 한상조 | ● 한국예총 서산지부 | 정명호 |
| ● 한국예총 논산지부 | 김연경 | ● 한국예총 예산지부 | 오순복 |
| ● 미술협회 충남지회 | 박지은 | ● 음악협회 충남지회 | 박정숙 |



◀ 민족시인 한용운 선생의 독립 정신과 문학사상을 기릴 만해 문학체험관이 2006년까지 건립된다. 사진은 만해 문학체험관이 들어설 홍성군 결성면 소재 한용운선생 생가지 모습

민족시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독립정신과 문학 사상을 기리기 위한 문학 체험관이 건립된다.

홍성군은 민족의 지도자이며 독립운동가, 민족시인인 한용운 선생의 정신을 되살리고 문화적 체험과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오는 2006년까지 만해 문학체험관을 건립한다고 4일 밝혔다.

만해 문학체험관은 사업비 30억원을 투입, 결성면 성곡리 한용운 선생 생가지 내 4500여평 부지 위에 200평 규모의 2층 건물로 건립되며 내년에 착공해 2006년 완공할 계획이다.

만해 문학체험관에는 한용운 선생의 문학관련 자료와 독립운동 자료, 불교관련 자료, 유물 등 400여점이 전시될 전시실과 함께 각종 세미나나 모임을 열 수 있는 대형 세미나실이 들어선다.

또한 문학체험관에는 펜션 형태로 지어진 100여평 규모의 문학인의 집이 마련돼 만해 문학사상을 전수하고 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교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홍성군은 만해 문학체험관이 건립되면 2-3개월마다 전국 유명 시인 초청 세미나 및 문학인의 밤을 열고 만해 문학사상 강좌를 상설 운영해 만해선생의 애국애족 정신과 문학 사상을 기려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해 문학사상을 집중 연구하고 전국 문인들이 머물면서 문학 창작과 교류장소로 활용케 하는 등 연간 10만여명이 다녀가는 만해 문학체험 관광지로 운영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만해 문학체험관이 건립되면 민족의 지도자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정신을 되살려 후세들의 민족사관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해 문학사상 전수와 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만해 한용운 생가지 내에는 문학체험관 이외에 만해 선생의 시비와 어록비 등이 들어서 민족 시비 공원 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부여 세도 '가회리 장군제' 장관상

우리멋 한마당 한국민속예술축제 폐막



지난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남대표팀의 '거창일소리' 시연

우리나라 전통민속예술을 발굴하고 이를 보존·계승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제45회 한국민속예술제가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부여 구드래 백마강변에서 열렸다.

올해 45회를 맞은 이 축제는 “백마강 구드래 우리멋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50주년을 맞은 백제문화제와 연계해 열렸다.

또 행사기간인 지난 10월 4일에는 제11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가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는 20개 시·도 대표팀 등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장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연을 펼쳐 전남 ‘갈곳 들소리’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한 강원도 양구의 ‘바랑끝지게놀이’는 국무총리상, 경기도 ‘아방리농요’와 전북 고창의 ‘성남줄곳’, ‘부여 세도 ‘가회리장군제’는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각 시도대표팀들은 축제기간동안 민속놀이를 비롯, 민요와 농악, 무용 등 열띤 경연과 민속예술의 진수를 선보이며 우리민족의 고유의 흥과 풍류를 선사했다.



대상 / 전남 '갈곳 들소리' 팀



금상 / 충남 '세도 가회리장군제' 팀

특히 이번 축제를 통해 전국 각 지역의 특색있는 민속문화를 한자리에 감상하고 민속문화·백제 문화체험 및 체험이벤트 등에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부여군은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주요 행사장 및 시내 요소에 자원봉사 요원을 배치해 이미지 제고 및 백제 고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천안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 주최 문화발전 대토론회

2004. 9. 14 / 오후 2시 충남대 정상화국제문화회관



지역문화발전과 진정한 문화분권을 위해서는 지역문화기관에도 전문경영인 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참여정부의 지역문화발전정책이 자칫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왜곡될 수 있다며 문화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14일 오후 2시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열린 문화분권시대, 지역특성화문화발굴 육성 대토론회에서 지역 문화시설에 전문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제하고 전문경영인(CEO)영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충남의 인물 1

이 연구원은 “지역문화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의 책임자를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선임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예술감독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해마다 문화 전문인력이 대거 배출되고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 정작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500여개소에 달하는 전국 공공문화시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전문 인턴십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토론자들은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장영석 부여문화원장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문화 활성화 대책은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지역문화 발전과 부흥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미 디트뉴스 편집위원은 “주어진 권한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중앙에 매몰될 수 있다. 지방정부의 문화에 대한 인식과 확고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책임성을 강조했다.

전문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대토론회는 지역 특성화를 위한 문화분권을 비롯해 ▲충청지역, 선비문화의 특성화 방안 ▲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다룬 축제개발 방안 ▲문화특성화를 위한 지역문화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제1주제 / 지역 특성화를 위한 문화분권

- 발제자 : 이원태(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 장영석(부여문화원장)
김선미(디트뉴스 편집위원)

제2주제 / 충청지역, 선비문화의 특성화 방안

- 발제자 : 임선빈(충남역사문화원 연구위원)
- 토론자 : 양수철(서천문화원장)
김경수(청운대학교 교수)

제3주제 / 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담은 축제개발 방안

- 발제자 : 김춘식(천안대학교 교수)
- 토론자 : 이인배(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정지수(태안문화원 사무국장)

제4주제 / 문화특성화를 위한 지역문화단체의 역할

- 발제자 : 정선기(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 조성남(대전중구문화원장)
최호택(배재대학교 교수)

■ 좌장 / 이 정 우(충남문화원연합회사무처장)

2004

충남지역 향토사연구자료 시상 및 발표회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지회장·민병달)은 지난 10월 15일 당진문화원 강당에서 도내문화원장, 사무국장 및 향토사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 충남지역 향토사 논문 및 자료공모에 따른 시상식과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논산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인 조중현씨의 「금석문으로 본 임진병자 양란의 논산 선비들 활동」과 우수상을 수상한 연기향토박물관장 임영수씨의 「승경도놀이」, 장려상을 수상한 청양향토사연구위원 윤홍수씨의 「정산 망향정복원」과 역시 장려상을 수상한 청양향토사연구위원 이정구 씨의 「지천리 산신제 고찰」에 대한 연구동기와 조사에 따른 배경 설명,

연구내용 등 수상 논문과 자료에 따른 배경 설명, 연구내용 등 수상논문과 자료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초청특강으로 향토사가인 전서산문화원장 김현구씨의 「향토사연구의 방향」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수 상	성 명	제 목
최우수상	조중현	금석문으로 본 임·병 양란의 논산선비들 활동
우 수 상	임영수	승경도놀이 연구
장 려 상	윤홍수	정산 망향정 복원
	이정구	지천리 산신제 고찰

한편 수상논문과 제출된 논문들은 12월에 개최되는 전국향토사연구 공모에 충남을 대표해 참가하게 되었다.

충남의 인물 1

조치원문화원 제공

충신 변응정(忠臣 邊應井)

연혁

변응정(邊應井, 1557~1592)은 임진왜란 때에 해남현감(海南縣監)으로 있으면서 어지러운 관내를 진정시키고 의병을 모집하여 금산으로 왔다가 조헌(趙憲)이 전사한 뒤 전열을 가다듬어 적을 맞아 싸우다 웅령(熊嶺)에서 전사한 인물이다.

이 사당은 이러한 그의 충절을 기리는 유적으로 원주변씨(原州邊氏) 종가집 뒤편 야산에 1930년대에 건립하였다. 한편 전의향교 유린들은 1988년 전동면 청나리 산 18-1(속칭 개미고개)에 변응정의 추모비를 건립하였다.

한편 금산 종용사(錦山 從容祠, 현재 금성면 의총리에 소재)에 조헌, 고경명(高敬命)등과 함께 제향 되어있다. 변응정의 사당기(祠堂記)와 축문은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이 만들었으며 행장은 우계 성혼(牛溪 成渾), 죽천 김진규(竹泉 金鎭圭), 지재(趾齋) 민선생 등 3선생이 지었다.

인물행적

변응정의 본관은 원주이고 자는 문숙(文淑)이다. 변윤중(邊胤中)의 손자이고 공조자랑을 지낸 변열(邊悅)의 아들로 어머니는 이흔(李昕)의 딸 철성이씨(鐵城李氏)이다.

일찍이 문예에 능숙하였으나 문과에 여러번 실패하여 1585년(선조 18) 무과에 응시에 이르렀다. 이해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관내의 소요를 진정시키고 격문을 돌려 의병을 규합한 뒤, 금산에서 전투를 하던 조헌과 합류하기 위하여 행군하였으나 차질이 생겨 조헌이 전사한 뒤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제군수 정감과 함께 싸워 큰 전과를 올리다 적운의 야습을 맞아 육탄으로 맞서 싸우다 끝내 웅령(熊嶺)에서 전사하였다. 이때 조정에서는 이미 변응정을 전라좌수사로 임명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전사한 것이다. 이해 12월 성혼의 상소로 병조판서로 증직 되었다.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전설 및 일화

변응정은 일찍이 문예에 능숙하였으나 여러번 문과에서 실패하자 중부(仲父)인 변협(邊協)의 권고로 무과에 응시하였다. 그러나 무과에도 낙방하였으나 당시 북쪽 변방이 어지러운 때라 무과에 응시하였던 사람은 모두 변방으로 파견되게 되었는데 변응정도 이때 변협의 추천으로 함흥에 파견되었다. 당시 함흥감사가 장졸들의 무예를 시험할 때 장원을 하였고, 1585년(선조 18)에 무과에 다시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이후 월송진 만호와 선전관을 지냈으며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정에서는 그를 해남현감에 제수하였다. 당시 관내에는 어지러운 틈을 타 창고의 자물쇠를 부수고 관청의 물건을 약탈하는 소동이 일어나자 이를 진정시키고 격문을 돌려 의병을 규합하였다. 그는 항상 의병들을 어루만져 사랑하고 의기를 격려하니 이탈하는 군사가 한명도 없었다. 한편 당시 적이 대군으로 침입하였기 때문에 그 본토가 비어 있을 것이므로 직접 본토를 공략할 것을 상소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쟁의 요충지로 삼남지방을 중히 여긴 변응정은 금산에서 전투를 하던 조현과 합류하기 위하여 모집된 의병을 이끌고 진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차질이 생겨 조현이 전사한 뒤에 도착하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그는 “어찌하여 의병장과 약속을 하고서 이를 어겨 함께 죽지 못했던 말인가.” 라고 탄식하고 김제군수 정감과 함께 큰 전과를 올렸다. 그러다 적이 밤을 틈타 습격해 오자 그 무수한 적의 수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는 육탄으로 맞서 싸우다 끝내 전사하고 말았다.

이때 이러한 변응정의 충의에 탄복한 적들은 큰 무덤을 만들고는 표지목(標識木)을 세워 조문하여 이르기를 “조선의 충간이요. 의열의 담력이다(朝鮮國忠肝義膽)”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시의 영의정이었던 서애 유성룡(西厓 柳成龍)은 『징비록(懲毖錄)』에서 “왜적을 무찌르는데 용맹한 충신들이 모두 웅령에서 전사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전라도 일대가 홀로 온전(穩全)해서 중흥의 기본이 되게 한 것은 바로 이 충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으며,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은 “만세불사(萬世不死)”라 칭송하였다.

한편 변응정은 출전하기에 앞서 구국의 마음으로 죽음을 결심하고는 동생에게 글을 보내 말하기를 “임금이 욕을 당하였으나 신하로서 죽음이 마땅하다.” 라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전사하고 나면 홀로 남으실 노모를 걱정하며 작별의 뜻으로 써 입던 옷과 머리카락, 손톱을 함께 보내드리고 죽은 뒤 이것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부탁하는 등 전투에 앞서서 그의 비장한 각오를 엿볼 수 있다. 당시 변응정의 혈서가 원주변씨 종가에 남아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찾아 볼 수 없다.

김 용 중(金 龍 中)

1898년 3월 2일 금산군 중도리 347번지에서 아버지 金逸澤과 어머니 朴順和 사이의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13년 금산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이해 결혼하였다.

18세때인 1916년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呂運亨을 만나 독립운동과 민족주의에 대해 영향을 받았다. 1917년 고향 선배인 宋哲의 도움으로 미국에 망명한 뒤,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하였다. 이 당시 안창호 선생과 서재필 박사의 도움을 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으며, 동포에게 한글과 한문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1927년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였다. 이후 콜롬비아 대학, 남가주 대학,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정치 경제학을 수학 하였다.

1928년 보스턴 선데이 신문에 “일본의 黃金통치”라는 논설을 실어 일본의 虐政을 고발 하였다. 1934년 LA에서 이 지역 독립운동가인 송철 박사와 함께 사업을 벌였으며, 독립 지사들에게 현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해 新韓民報의 영문국장으로서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기사를 쓰면서 언론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1941년 북미한인연합국민회 섭외부 위원장 주필로서 조국위 독립을 세계에 홍보하였고, 1943년 대한민국 국민회의에서 중앙집행위원에 피선되었으며, 이승만 박사 대신 위교위원장에 임명되어 상해의 임시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독립자금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외교적 독립운동의 전개에 적극적이었다. 이해에 한국문제 연구소를 설립하고 소장에 취임하였으며, 영문 일간지 “The Voice of Korea”를 간행하여 독립의 필요성을 세계에 알렸다. “한국의 소리”라는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여 조국의 독립과 재미 동포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였다.

1947년 31년만에 일시 귀국하여 김규식, 안재홍, 여운형, 등과 만나 통일정부 수립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1948년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승인한 ‘파리 유엔 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가로막



는 것은 남북의 싸움이 아니고, 美蘇 간 의 전쟁이라고 강조하였다. 1961년 金日成이 “남북조선 연방제 통일안”을 제시하자, 남한의 장면 총리와 북한의 김일 성에게 자신의 “中立化 통일 방안”의 공개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 주요 내용 은 첫째 남북한간의 연락부 설치, 둘째 중립국에서 남북회담 설치, 셋째 자유선 거에 의한 제헌국회 창설과 쉰한국정부 수립, 넷째 유엔과 인접 국가들이 보장하 는 중립국가 협정체결 등이다.

이상과 같이 그의 활동은 다소 과격해 보일 정도였으며, 조국과 민족을 위한 절 대 충성심을 살펴볼 수 있다. 냉전 이데올로기가 극복되지 못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일 조국의 달성을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적 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조국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방과 건국의 시기에 훈장을 받지 못하였으며, 후에도 추서되지 못하였다. 해방된 뒤 에는 최고 통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과의 의견 대립으로 직접 국정 운영에 참여 하지 못하였다.

송철 박사의 회고록에 “이승만 박사의 라이벌”이라는 표현은 김용중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과 정책의 입안과 추진시 의견 대립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 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였으며, 연방정부 통일을 주장하여 용공으로 몰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의식은 당시에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파로 몰려 말년을 외롭게 마감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금산의 인물 중 1910년 경술국치 당시 순국 자결하여 한일 순국의 단서를 제공 하였던 홍범식 군수의 아들 홍명희는 해방 이후인 1948년 4월18일부터 30일까 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지도자연석회의’시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안을 격렬 하게 반대하였다. 순수한 민족주의자로 민족적 양심을 대표하였던 홍명희의 사상 과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김용중 역시 통일 조국을 주장하 다가 이승만 대통령과의 정책 대립으로 이어졌고, 해방 이후 국정 운영에 참여하 지 못하였다.

1975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병원에서 사망한 그는 통일 조국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하면서 화장하여 뼈를 휴전선에 뿌려 주기를 원하였다. 구려 나 당시에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현재 7백의총 옆 금성면 의총 1리의 선영 에 모셔져 있으며, 묘 앞에는 비를 세워 뜻을 기리고 있다.

자료제공 : 김영보(김용중 선생의 딸, 전 금산여고 교장, 현재 서울 거주),
김성수(손자, 현재 금산군 중도리에서 유치원 경영)

안국사지 배바위



정미면 수당리 안국사에는 전설을 지닌 배바위가 있다.

고려 초엽의 일이다. 중국에서 큰 난리가 일어나자 바닷 가에서 목공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가씨라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배를 타고 동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 대 난리를 피해 달아난 가씨는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전에 황해바다의 큰 풍랑을 만났다. 배는 뒤집혀지고 그는 겨우 부러진 뚝대에 의지한 채 물결에 밀려 정미면 수당 리 앞바다 모래펄에 내동댕이 쳐졌다. 구사일생으로 목숨만은 건졌지만, 며칠동안 바다에서 시달 린 가씨는 어부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는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비록 언어가 통하지는 않았지 만 어부와 그의 아내는 극진하게 간호했고, 그로 인해 가씨는 기운을 되찾을 수 있었다.

어부는 가난했다. 보기에 먹을 것도 풍족치 못한 집이었지만 가씨에게는 쌀을 구해다가 미음 을 쑤어 주었다. 어부의 아내는 갯가에 나가서 생선을 구해다가 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가씨가 빠른 시일내에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부 부부의 인류애에 넘치는 사랑 덕분이 었다.

기일이 점점 흐르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부부의 사랑에 감격한 가씨는 은혜를 갚을 길을 찾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 것인지를 물었다. 어부의 대답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답할 것은 없으니 가씨가 앞으로 살아나갈 궁리만 하시오』
라고 말했다. 가씨는 한참 기다리다가,

『그렇다면 그대들의 앞으로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어부의 아내가 나서서 말하기를,
『배나 한 척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하고 한숨을 쉬는 것이었다. 가씨는 한참동안 그 여인을 바라보다가,
『부인, 저를 이 집에 두 달만 더 있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하고 빙그레 웃자,

『두 달이고 일 년이고 좋소. 당신은 중국사람 치고 마음씨가 너무 곱소』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가씨는 그 이튿날 아침 일찍 톱과 낫, 새끼줄을 가지고는 어디론가 갔다가 늦게서야 돌아왔다. 어부가 「몸도 성하지 않은데 밤늦게까지 어디를 돌아다니냐」 고 물어도 가씨는 빙그레 웃을 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 이튿날도 새벽에 주먹밥을 싸들고 나가 밤늦게 돌아왔다. 그 다음 날도 그랬다. 어부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살아갈 궁리를 하느라 뗏집이라도 짓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을 뿐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가씨가 새벽부터 집을 나선 날부터 두 달째 되는 날 아침 가씨는 일찍 일어나더니,

『오늘은 다른 일 다 제껴두고 저와 갈 곳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따라갔다. 산을 두어 개 넘고 모래사장에 다다랐을 때 모래사장 바위 아래 풀잎에 덮여 있는 큰 물체가 보였고, 어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부인, 부인이 먼저 뚜껑을 열어야 풍어가 되지요. 풀잎을 들춰 보시오』

가씨는 이렇게 말하며 부인을 그 물체 가까이로 이끌었다.

어부의 아내는 가씨가 시키는 대로 조금 높은 곳의 풀잎을 들춰보았다. 뱃머리였다.

그 큰 물체가 그렇게도 소망하던 배였던 것이다.

『부인, 나를 구해주신 은혜를 이제야 갚는 구려』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가씨는 자기가 배를 만드는 목공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려주었다.

가씨가 만들어 준 배는 이상하게도 단단했고 속력이 빨랐다. 배의 성능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지게 되자 여기저기서 배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들어왔다. 가씨는 열심히 배를 만들었고 그 결과 돈도 많이 모으게 되었다. 가씨는 늙어서 허리가 구부러질 때까지도 배 만들기에 열중했다. 많은 돈을 벌어들여 모두 곡식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가 일하는 수당리 안국산 바위구멍에 그 곡식들을 차곡차곡 쌓았다. 중국에서 곡식이 부족하여 굶주렸던 그로서는 곡식이 쌓여가는 것처럼 즐거운 일은 없었다.

어느 날, 황해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이 배는 크게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작업장소를 안국산 곡식 가마 겹까지 넓혔다. 가씨는 나이가 든 노인답지 않게 정열을 기울였다. 햇불을 켜놓고 밤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다. 먼 곳에서 천둥소리가 울리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늘상 하던 대로 곡식을 쌓은 굴부터 거적으로 가리려고 하는데 천둥소리가 크게 울리며 벼락이 여기에 떨어졌다. 그가 만들던 배는 갑자기 큰 바위로 변했다. 곡식을 쌓아놓은 동굴을 덮은 채 배모양의 바위로 굳어져버린 것이다. 가씨도 거기서 목숨을 다한 것은 물론이다. 이 바위가 오늘날 안국산에 있는 배모양의 큰 바위다. 그리고 그 아래 깔려있는 곡식 가마는 우리나라 전 백성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곡식이 저장되었었다고 전한다.

불교문화유산의 보물창고, 용봉산



혹시 아시나요?

'용봉산'일까? '팔봉산'일까?

충청의 기암절벽이 금강산과 비슷하다 하여 소금강(小金剛)으로 불리우는 용봉산. 지금의 용봉산은 고려시대에는 북산(北山), 조선시대에는 팔봉산(八峰山)이라 불리웠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통치가 이루어지던 1925년 이전의 어느 날, 갑자기 한 몸, 한 줄기 기암괴석(奇巖怪石) 자랑하던 팔봉산은 억지로 허리가 잘린 채 두 개의 이름이 붙여졌다. 그 이름에는 조선시대 이래 고찰(古刹)이었던 용봉사와 수암사의 이름이 활용되었고, 결국 홍성군 소속의 산은 용봉산으로, 예산군 소속의 산은 수암산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용봉산과 수암산이 존재한다. 하나의 몸으로 태어나 하나로 살지 못하고, 물리적인 강제로 인한 허리 잘린 팔봉산,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용봉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불교문화유산이 남아있다. 용봉사와 인접한 곳에는 옛 용봉사터·용봉사 마애여래입상·신경리 마애여래입상 등이 있으며, 용봉사 안에는 괘불을 비롯하여 부도·맷돌·석불좌상 등이 있다. 용봉사 진입로의 남쪽에 자리한 가마밭골과 용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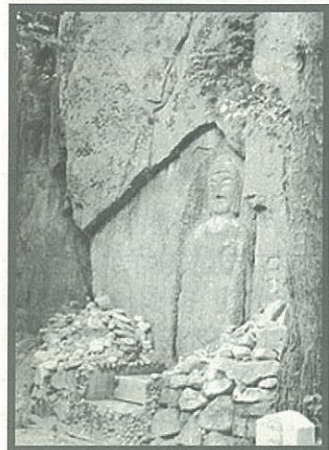
지기에는 옛 절터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공주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상하리 석불입상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또한 용봉산의 남쪽 기슭에는 상하리 미륵불입상이 있으며, 상하리 빈절골에도 절터와 마애보살입상이 있다. 이 가운데 용봉사 마애여래입상과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용봉사 마애여래입상

용봉사 마애여래입상은 용봉사의 일주문과 사찰의 중간 지점에 자리한다. 지방 유형문화재 제118호로 지정된 이 마애불은 거대한 바위면의 남면에 일정한 구획을 정한 다음 왼쪽에는 명문을 적고, 오른쪽으로 다시 구획을 정하여 남쪽을 향한 입상(立像: 서있는 불상)의 불상을 돌을새김으로 조각하였다. 불상의 높이는 대략 230cm 정도이다.

불상의 머리는 소발(素髮: 머리카락의 표현이 없음)로 얼굴의 크기에 비하여 작는데, 육계(머리 위에 솟은 부분)는 정수리 부분을 약간 솟은 듯이 조각하여 전체적으로 마치 팬이를 얹어놓은 것과 같다. 상호(相好: 얼굴 모습)는 전체적으로 근엄한 듯 표현하였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있다. 삼도(三道: 목에 표현한 세 개의 줄)

의 표현은 바위면의 마모 때문에 알아보기 힘들다. 전체적으로 조각 솜씨의 미숙함에서 나타난 어설픈 느낌을 주기도 한다.



▲ 용봉사 마애여래입상

어깨는 아래로 처진 듯한 모습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는데 그 위에 통견(通肩: 법의를 입을 때 양 어깨를 모두 덮는 양식)의 법의(法衣)를 걸쳤다. 옷주름은 완만한 U 자형(字形)의 주름이 계단처럼 평행하도록 조각하였는데, 가슴 부분에서 무릎 아래까지 묘사되었다. 법의의 오른쪽 자락은 오른 팔을 휘감으면서 뒤로 넘겨졌고, 왼쪽의 자락은 왼 손에 걸쳐 무릎 아래까지 내려졌다.

수인(手印: 부처의 손 모습)은 오른 팔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 다리에 붙이고, 왼 팔은 들어 왼쪽의 가슴 높이까지 올렸는데, 현재 손목의 윗부분이 파손되어 알 수가 없다. 다만 바로 인접하여 용봉사의 윗쪽에 조각된 신경리 마애여래입상과 빈절굴 절터의 마애보살입상(磨崖菩薩立像)의 예와 비교한다면, 왼손의 모습은 시무외인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릎 아래에는 발가락의 표현이 선명하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용봉사 마애여래입상은 조각 기법상 인근에 위치한 서산 마애삼존불상의 기법을 계승한 것으로서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마애불의 오른 편에 새겨진 명문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세로로 새겨진 일련의 명문(銘文) 내용은 다음과 같다.

貞(?)元十五年己卯四月日仁符

○佛願大伯士元烏法師

○○徒官人長珍大舍

앞의 내용에서 정원(貞元)이란 연호는 바위면의 마모로 인하여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용봉사 마애여래입상의 조성 연대는 799년경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서산의 마애삼존불상과 비교했을 때 긴장감과 탄력성이 떨어진 평면적인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보물 제355호로 지정된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은 용봉사의 북쪽 거의 정상부분에 위치한다. 산의 정상부에서 동남쪽으로 길게 뻗다가 갑자기 우뚝 솟은 경사진 바위 면에 불감(佛龕: 불상을 만들기 위해 판 넓은 홈)을 만들고 그 안에 불상을 돌을새김의 방법으로 조각하였는데 세부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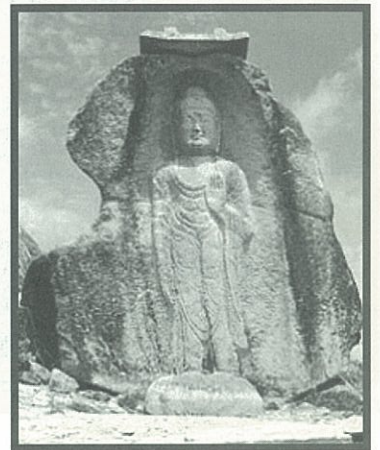
불상의 머리는 소발(素髮)이며 육계는 높다. 얼굴 모습은 전체적으로 둥글고 원만하게 처리하면서도 통통하게 표현하였다. 백호(白毫)는 매우 뚜렷하게 표현하였고, 눈썹은 반원형으로 인중 부분은 깊게 조각하고 끝으로 갈수록 얇게 표현하여 부드럽게 처리하였다. 목은 신체에 비

하여 매우 짧지만 삼도(三道)의 표현은 뚜렷하다. 대체로 얼굴 모습은 부드럽고 인자한 부처님을 조각하고자 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돌을새김의 정도를 깊게 조각하고 있어 팽창된 양감을 느낄 수 있다.

신체는 얼굴에 비하여 다소 왜소한 느낌을 주지만 균형은 잘 잡혔다. 둥근 어깨에는 통견(通肩)의 법의를 걸쳤는데, 얇게 묘사되면서 무릎 아래까지 흘러내리고 있다. 법의(法衣)의 옷주름을 살펴보면, 가슴에서 배까지는 완만한 U 자형으로 4조(條)의 굵은 선각을 한 다음 양 어깨에 걸쳤고, 배꼽 아래에서 다리에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바람이 불어 옷주름이 가랑이 사이로 약간 들어간 것처럼 표현한 2조의 얇은 음각선이 V 자형으로 양 팔에 이어졌다. 또한 허벅지 부분에 묘사된 2조의 의습선(衣褶線)은 좌우 대칭으로 八 모양과 완만한 U 자형으로 처리되면서 역시 양 팔에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무릎 아래로는 법의의 끝단을 묘사한 2조의 의습선이 완만한 V 자형으로 양감 있게 표현되었다.

얇은 법의 속에 표현된 다리는 오른쪽으로 약간 휘어진 모습으로 처리하였으며, 발은 대좌와 함께 별도의 직사각형 돌로 가공하였다. 대좌(臺座, 지름 120cm)는 연화(蓮花) 대좌로서 복연좌(覆蓮座)로 표현하였고, 두 발의 표현은 먼저 윗면을 반원형으로 넓게 구획을 정한 다음, 정면을 향해 가지런히 표현하였다. 두 발의 크기는 서로 비슷하며, 각각 5개의 발가락도 양각하였다.

수인(手印)은 시무외인 만을 결하고 있는데, 오른 팔은 자연스럽게 내려 다리에 붙이고, 왼 팔은 들어 가슴 위에 올리면서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수인은 홍성 지역의 다른 불상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지역만의 특징적인 조각 수법으로 이해된다.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광배(光背)는 거신광(擧身光: 머리 부분과 몸에서 나오는 빛을 함께 표현한 것)의 형태로 3조(條)의 선각(線刻)으로 묘사하였는데, 두광(頭光)은 원형으로 육계 위에서 코 부분까지 약 2/3의 원을 구획하고, 이어서 그 아래로 발목까지는 타원형의 신광(身光)을 선각하였다. 한편 머리 위에는 후대의 것으로 보이는 사각형의 개석(蓋石: 지붕)을 올려 놓고 있는데, 팔각 지붕 형태로 앞면의 밑부분에는 연화문이 음각(陰刻)되어 있다.

요컨대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은 서산의 마애삼존불상의 형식적 특징을 계승하면서도 규모가 커졌고, 상체 부분은 깊게 조각하면서도 하체 부분은 선각으로 얇게 조각한 점 등으로 미루어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은 용봉사 마애여래입상과 함께 수인(手印) 및 전체적인 특징에서 이후에 조성되는 홍성 지역의 불상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조 원 찬(홍성공업고등학교 교사)

삼 의 사(三義祠)

- 소재지 :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94번지
- 창건연대 : 삼의사 건립 1981년
노응환·노응탁 정려 1831년 노응호 정려 1892년 건립
- 문화재 지정 : 만경노씨 삼의사 생가지 충청남도 기념물 제23호

연혁

공주에서 정안으로 가는 23번 국도를 따라 2km정도 가다가 근흥교 직전에서 좌회전해서 다시 3.5km정도 가면 귀산교가 나온다. 이 다리 건너에 위치한 마을이 검바위마을인데, 만경노씨 삼의사(三義祠)는 이 마을의 우측에 위치한다.

만경노씨 노응환, 노응탁, 노응호 삼의사를 제향한 삼의사 전경



삼의사는 만경노씨 삼형제 노응환(盧應暄), 노응탁(盧應卓), 노응호(盧應浩)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된 유적이다. 이 사우의 건립유서는 만경노씨 삼형제의 충절이 국가로부터 명정을 받은 것에서 비롯된다. 이들의 행적은 1817년(순조 17) 12월에 진사 윤경현(尹景鉉), 이병서(李秉緒) 등 65인의 공주 유생들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임진왜란 때에 금산에서 순절한 노응환·노응탁을 포장해 줄 것을 진정하고, 다시 1818년(순조 18)에 공주유생 유봉환(兪鳳煥)을 비롯한 공주, 연기, 전의, 청양, 정산 등의 충청도 유생 45명이 감사에게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이들의 포장을 청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노응환·노응탁은 1831년(순조 31) 충신으로서 명정을 받아 정려를 건립하게 되었으며, 삼의사(三義祠) 가운데 막내인 노응호는 1892년(고종 29)에 명정을 받아 정려를 건립하였다.



이렇게 삼의사의 충절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려로서 건립을 보았지만, 이들을 추모하고 제향할 사우가 없는 것을 아쉽게 여긴 공주의 유림과 후손들은 1987년 80여 명이 연명으로 발의하여 '노씨 삼의사 사우건립추진회'를 조직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고증을 받아 1979년 12월 19일에 삼의사(三義祠)의 생가터는 충청남도 기념물 제23호로 지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1981년 사우를 세우고 '삼의사(三義祠)'라고 현액하고 1982년에 주변을 정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향인물의 행적

삼의사가 위치한 귀산리 일대는 만경노씨의 세거지역이다. 『만경노씨족보』에 의하면, 만경노씨의 시조는 고려 명종때 만경군(萬頃君)에 봉해진 노극청(盧克淸)으로 본래는 전라도 만경에 거주하였는데, 극청의 7세손인 노혁(盧革)에 이르러 처음으로 공주에 거주하게 되었다.

노혁은 1401년(태종 1)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재감 부장, 동부승지를 거쳐 1434년(세종 16)에는 홍주목사와 홍주병마절제사를 역임한 인물로 공주의 토성인 공주이씨 가문의 판군기감(判軍器監) 이안의(李安義)의 딸과 혼인한 것으로 미루어 처가 쪽과의 인연으로 공주에 정착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조선 초기 공주에 정착한 만경노씨는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노응환, 노응탁, 노응호 삼형제가 모두 의병으로 활동하고, 노응환의 아들인 노



▲ 노응환·노응탁 정려(1831년 명정)

숙이 이괄의 난으로 인해 공주로 피난해 온 인조에게 군량 300석을 바쳐 공을 인정받으면서 그 지위가 더욱 확고해져 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노응환(盧應暄, 1555-1592)은 본관이 만경으로 자는 명원(明遠), 호는 수암(守庵)이며 중봉 조헌(趙憲)의 문인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스승인 조헌이 창의를하자 그를 따라 청주성 전투에 참여하여 청주성을 탈환한 후 금산전투에 나아갔다. 그러나 적의 기세가 강성하여 끝내는 38세의 젊은 나이로 순절하고 말았다. 그의 충절은 1817년(순조 17)에 진사 윤경현(尹景鉉), 이병서(李秉緒) 등 65인의 공주 유생들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그의 표장을 청하고, 다시 1818년(순조 18)에 공주유생 유봉환(兪鳳煥)을 비롯한 공주, 연기, 전의, 청양, 정산 등의 충청도 유생 45명이 감사에게 연명으로 포장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져 죽은 후 240여 년이 지난 1831년(순조 31) 명정을 받아 정려를 건립하였다. 묘소는 공주시 우성



면 조왕동에 있다.

노응탁(盧應卓, 1560~1592)은 노응환의 동생으로 자는 계희(季晦), 호는 국재(菊齋)이며 형과 함께 조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며, 문장과 학술로 이름이 높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스승인 조현이 의병을 일으키자 형인 응환, 동생 응호와 함께 의병을 모아 청주전투에 참전하고 이어 금산전투에 선봉이 되어 싸운가 중과부적으로 칠백의사와 함께 33세의 나이로 순절하였다. 노응탁 또한 그의 형인 노응환과 마찬가지로 1817년(순조 17)에 진사 윤경현(尹景鉉), 이병서(李秉緒) 등 65인의 공주 유생들이 올린 1차 상소와 1818년(순조 18)에 공주유생 유봉환(兪鳳煥)을 비롯한 충청도 유생 45명이 감사에게 올린 2차 상소문으로 그 충절이 세상에 알려져 1831년(순조 31) 형인 노응환과 함께 명정을 받아 정려를 건립하였다. 묘소는 우성면 귀산리 삼의사 뒤편 우측에 있는 아버지 노세득의 묘 옆에 위치해 있다.

▼ 노응호 정려



노응호(盧應皓, 1574~1592)는 노응환의 동생으로 자는 시희(時晦), 호는 체헌(楸軒)이며 중봉 조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두 형과 함께 창의하여 청주 전투에 참전하였다. 청주성 탈환 후 조현의 명으로 호서지역의 군량을 모아 금산으로 갔으나 이미 두 형과 칠백의사가 모두 장렬하게 순절한 뒤였다. 그는 형의 시신을 안치한 뒤 고향에 돌아와 그 해에 죽었다. 노응호는 두 형들이 명정을 받은 후 60년이 지난 1892년(고종 29)에 명정을 받아 정려를 건립하였다.

이들 3형제는 1892년(고종 29)에 보은의 후율사(後栗祠)에 제향되었으며, 금산의 종용사(從容祠, 현재의 금산 칠백의총)에도 제향되어 있다. 이들의 행적은 『중봉집(重峰集)』과 『항의신편(抗義新編)』, 『공산지(公山誌)』, 『공주군지(公州郡誌)』, 『보은군지(報恩郡誌)』 등에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으며, 금산 칠백의총 경역내에 있는 「일군순의(一軍殉義)」 비문 중에도 노응탁에 대한 기록이 전하고 있다.

유적현황

삼의사는 1981년에 건립된 유적으로 내삼문인 충의문(忠義門)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형식이며, 사우 오른쪽으로 '삼의사 순절비'가 세워져 있다.

삼의사의 아래쪽으로 만경노씨 삼의사(三義祠)의 정려가 위치하고 있다. 정면에서 볼 때 왼쪽에 위치한 정려는 노응환·노응탁의



정려로, 정·측면 1칸에 흘처마 맞배지붕이며 익공계통의 건물이나 익공 자체는 생략되어 있다. 8각 고주초석 위에 건물을 세웠다.

정려 안에는 충신 노응환과 노응탁의 정려라고 각인된 현판이 있으며, 1891년(고종 28)에 명정받고, 1930년에 중수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후손 수찬(壽瓚)이 지은 정려기가 현판 아래에 걸려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정려는 본래 감모정(感慕亭) 동편에 위치해 있었는데, 1946년 수해로 인해 침수되어 지그의 자리로 이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정려의 앞에는 1890년(고종 27) 대사헌 김락현(金洛鉉)이 짓고, 호조판서 민영상(閔永商)이 쓰고 성균관대사성 한광수(韓光洙)가 전한 노응환의 신도비(비신 : 169cm×63cm×27cm)가 세워져 있다.

삼의사의 정면에서 볼 때 오른쪽에 세워진



◀ 삼의사 순절비

노응호의 정려는 원래 1892년(고종 29) 명정받아 후손이 살던 반촌리에 세워졌던 것을 1982년 삼의사를 단장하면서 이 위치로 옮겨 세운 것이라고 한다. 정려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노응환·노응탁의 정려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각 칸에 2구씩 화반대공을 배치한 이익공 건물이라는 점, 처마가 부연을 갖춘 겹처마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려안에는 '충신 노응호의 정려'라는 명정현판이 걸려 있으며, 명정연대는 1892년(고종 29)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판의 아래에 걸려 있는 중수기는 10세손인 정환(政煥)이 쓴 것으로, 정려가 1970년에 중수되었음을 보여준다. 정려 앞에는 삼의사 건립연혁비(三義祠建立沿革碑, 비신 : 169cm×63cm×27cm)가 세워져 있다.

삼의사의 뒤편 동쪽에는 세 형제의 아버지인 노세득의 묘소와 신구 묘갈 노응탁의 묘소와 묘갈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만경노씨의 시조 만경군 노극청을 비롯한 5위의 단이 설치되어 있다.

관련자료

상서류

상서류는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1817년(순조 17)12월에 공주진사 윤경현(尹景鉉), 이병서(李秉緒) 등 65인의 공주 유생들이 연명으로 올려 임진왜란 때에 금산에서 순절한 노응환·노응탁을 포장해 줄 것을 진정한 문서이다. 다른 하나도 같은 내용의 상서인데, 다음해인 1818년(순조 18) 2월에 공주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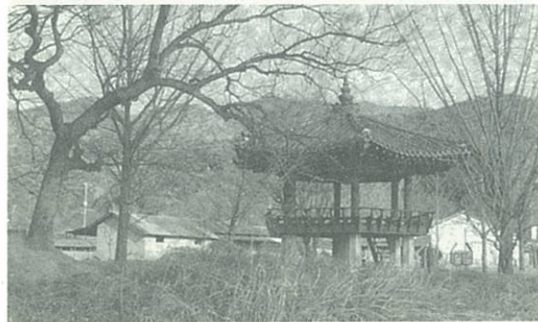


공주진사 윤경현 등의 연명 상서(1817년)

생 유봉환(兪鳳煥) 등 공주, 연기, 전의, 청양, 정산 등의 충청도 유생 45명이 연명으로 올려 감사에게 노응환, 노응탁의 포장을 청한 문서이다.

감모정(感慕亭)

▼ 삼의사가 강학을 받았던 감모정



이 유적은 삼의사 정면에 있는 연못에 축조된 정자로 원래는 모정이었다고 하며, 세 형제가 아버지인 '노세득(盧世得)'으로부터 강학을 받던 곳이라고 전해진다. 현재의 건물은 1982년 삼의사 건립과 함께 복원된 것이다.

노숙정려

동곡리 조왕동에 노응환의 아들인 노숙(1587~1655)의 정려가 위치하고 있다. 노숙은 자는 문백(文伯), 호는 관류당(觀流堂)이다.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이 일어나 인조가 공주로 남천(南遷)하여 공산성 쌍수정에 머물자 군량미 300석을 상납하여 왕과 군사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였다. 이에 왕은 그의 충절을 가상히 여겨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제수하고 금배와 옥저를 하사하였으며, 마을 이름도 조왕동(助王洞)이라 사명(賜命)하였다고 한다. 이때 인조의 파천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전설이 몇가지 있는데, 조왕동의 지명유래도 그 중 하나이다.

다른 전설로는 '임절미(인절미)'와 '도로메기' 전설이 있다. 인조가 공주로 내려오는 길에 우정면 목천리(현 우정면 목천리 소(우)물마을)에 이르렀을 때 이 마을의 주민들이 떡을 만들어온 사람의 성을 따서 떡이름을 '임절미(인절미)'라고 했다고 한다.

또 인조가 공산성에 머물러 있는데, 음식이 맛이 없었다. 이 한 어부가 금강에서 잡아다 바친 메기를 왕이 맛있게 먹고 은어(銀魚·본래 은어라는 물고기는 따로 있었다)라고 이름



▲ 노숙 정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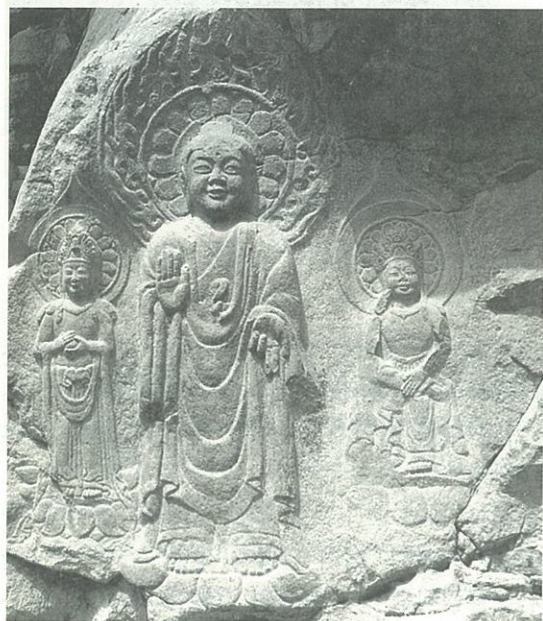
을 지었는데, 한양으로 돌아간 후에도 공주에서 먹은 은어의 맛을 잊지 못하여 은어를 잡아오라고 하여 먹어보니 맛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고기를 도로 메기라 하라"고 하여 "도로메기"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1864년(고종 1) 충청도 감사가 노숙의 충의 사적을 조정에 상신하여 1869년에 명정을 받았다. 정려 건물은 정면·측면 각 1칸의 겹처마로 된 초익공 팔작지붕이며 현재의 건물은 1976년 보수한 것이다.

정려 내부에는 충신 정헌대부지중추부사겸 오위도총부 도총관 노숙의 정려임을 나타내는 명정현판이 걸려 있고 명정연대는 기사년(己巳年)이라고만 적혀 있지만 관련기록들을 통하여 1869년(고종 6)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려의 정면 우측에는 1925년에 새로 건립된 노숙의 신도비(165cm×62cm×30cm)가 위치하고 있다. 본래 신도비는 홍문관 제학 송근수(宋近洙)가 찬(撰)하고, 병조판서 민치상(閔致祥)이 서(書)했으며, 좌부승지 조병세(趙秉世)가 전(篆)하여 고종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새로 비를 세우면서 노숙의 묘소 앞에 매안하였다고 한다. 도정사료실에 교지가 보관되어 있다.

서산마애삼존불상

北漢公貞 贈 提府都五尉月大綏張
和 蓋 金 身 臨 管 都 衛 無 城 夫 豫 女



- 있는 곳 : 운산면 용현리 2구
- 크 기 : 본존불 280cm,
미륵보살 166cm,
제화갈라 170cm

연혁 및 여건

백제의 미소로 잘 알려진 이 마애불은 강당골 맑은 계곡을 건너 호젓한 산중턱에 세워졌다. 이 불상이 조성된 것이 서기 600년 경이며 국보로 지정된 것이 1962년이다. 지정되기 전까지 주민들은 그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가치를 모르고 무관심하여 긴 세월동

안 수풀 속에 묻혀 있었으며 선량한 관리는 고사하고 부처의 조각을 삶아 먹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 곳을 훼손하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동기는 1959년에 당시 부여 박물관장이던 홍사준 관장이 보원사지의 유물을 조사하러 왔다가 주민들에게서 마애삼존불에 대한 말을 듣고 답사 후 당



시 국보보호위원(문화재위원)인 김상기, 이흥직 두 교수에게 연락하여 세분이 일차 답사 후 그해 5월에 김재원(중앙박물관장)과 황수영교수가 현지 조사 보고하여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로 지정되었다.

이 귀중한 마애불이 조각된 후 상처투성이로 수풀 속에 파묻히게 된 것은 아마도 보원사가 퇴락한 시기와 같을 것으로 볼 수 있다. 1965년도에는 보호각을 세웠는데 철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은 함석으로 하였으며 철문을 달았고 관리사도 지었다. 1969년에 보호각 및 관리사를 다시 짓고 삼존불 아래를 석축 하여 도로를 만들었다. 지정당시 문화재 업무가 교육청 소관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원평초등학교에서 관리하다가 1965년도에 운산면 거주 정장옥씨를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1999년까지 안내 및 관리를 맡아 왔는데 설명이 하도 유창하여 관람객이 모두 감탄하였다.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 대부분은 안내원의 불빛을 따라 달라지는 미소를 경이롭게 바라보다가 돌아간다. 미소 이외 역사성 배치상의 특성 등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돌아서는 것이다.

이 마애불에 대해서는 동국대 문명대교수가 체계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그의 논문인 “서산 마애삼존불상의 도상 해석”을 인용한다.

조성배경

이 불상의 조성 시기를 서기 600년경으로 보는데 당시 백제의 형편은 475년에 한강변의 수도지역을 고구려에 빼앗기고 공주로 천

도한 이후 대 중국 교류창구를 이곳 태안반도로 옮겼는데 바로 꼭 거쳐야할 길목에 있다. 공주, 부여 왕도시대 성왕, 위덕왕, 무왕 시 즉 523~640년까지 100여 년 간 국력이 최고로 신장되고 불교 역시 중국과의 교류로 많은 발전을 하게되는 바 백제의 고로에 우리 나라 최고의 불상인 태안 마애불과 서산 마애불은 조성해 놓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현상과 도상해석

(1) 본존불

얼굴은 만만한 미소를 띠면서 명암을 뚜렷하고 풍부하게 나타내어 독특하고 참신한 개성미를 보여주고 있다. 둥글고 복스런 얼굴에 입은 꼭 다물고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뺨은 한껏 팽창하여 만만한 웃음을 짓고 있는 유쾌한 얼굴은 한국인 가운데 젊고 쾌활한 장자풍(長子風)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특유의 부드러움과 세련된 조각미는 백제인의 독특한 수법이며 이 유쾌한 미소는 “백제의 미소”로 명명되고 있다.

이렇게 여유로운 미소는 어디서 온 것일까! 시대적으로 국력의 신장으로 물산이 풍부하여 사람들이 여유로운 생활을 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얼굴은 북제(北齊)불상에서 관련성을 찾아 볼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백제적으로 발전된 새로운 스타일이며 자비무한하고 순진무구한 백제불교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다. 체구는 장대하며 묵중한 대의는 태안 마애불과 비슷하지만 훨씬 부드러워졌다.



승각기의 띠매듭은 태안 불과 비슷하나 한번 꼬아 맺을 났으며 띠자락을 중국식은 밖으로 길게 늘였으나 여기서는 안으로 넣었다. 수인은 태안 불이 양손의 새끼손가락과 약지를 구부린 반면 여기서는 왼손의 한쪽만 구부리고 있다.

이런 변형은 북위(北魏)불상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삼국시대 특히 백제불상의 특징이다.

광배는 보주형이며 연꽃무늬와 불꽃무늬로 되었는데 연꽃무늬는 백제막새기와 무늬로서 백제불상의 특징이다.

(2) 향우(向右):미륵 반가상

미륵보살상으로서 팽팽하고 짧은 상체로 생기찬 소년적인 체구를 보여주며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처럼 날씬하지도 않은 독특한 모습이다. 오른쪽 무릎은 굽고 내린 왼쪽 다리도 목직한 편이지만 상체와 조화되고 있다.

(3) 향좌(向左) 보살상

제화갈라보살상(提華羅菩薩像)으로서 얼굴은 미륵보살 보다 한결 가름한 미인형으로 가는 눈, 작은 입, 통통한 뺨, 만만한 미소는 백제미인의 전형적인 얼굴이다. 머리 위의 높은 고관(高冠)은 정면의 삼각형 장식과 주위의 꽃무늬 문양이 새겨진 것으로 인도→중국→한국으로 와서 삼국시대 보살상에 많이 나타난다.

양식상의 특징

구도의 특징으로 좌 반가사유상, 우 보살입상이라는 기발한 배치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태안 마애불의

이불병립상(二佛並立像)의 특이한 배치와 함께 백제인들이 변화를 좋아하고 창조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온 양식이다.

4) 편년

불상의 발달과정상 563년으로 추정되는 계미명금동삼존불(癸未銘金銅三尊佛)이나, 고려 것으로 추정되는 571년의 경사년신묘명(景四年辛卯銘) 금동삼존불과 비교하여 서기 600년경 작으로 추정하였다.

5) 명칭과 의의

주불이나 미륵보살상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으나 우 협시보살은 그간의 연구자들이 관음보살로 보았으며 문명대교수만 제화갈라보살로 보았다.

근거는 법화경의 수기사상에 의한 삼세불로써 과거불인 연등불(燃燈佛)은 진흙 밭에서 자기의 머리를 깔아준 착한 일을 한 공덕으로 석가에게 장차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주었고 현재불인 석가는 미륵에게 미래 세에 미륵불이 되리라는 수기를 준 것을 상징한 것으로 보았다. 이 연등불의 보살 명이 제화갈라보살이다.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불로 본 것이다.

이 마애삼존불상은 삼국시대 특히 백제불교의 불상조성 의지를 이해할 수 있고 한국조각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당대 최고의 걸작품으로 평가되며 백제미소와 백제양식의 완성으로 우리와 가장 친근한 불상이다. 또한 태안 불과 같이 석굴 사원의 시초이며 마애불의 시초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충남의 향토축제 1

공주문화원 제공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GEUMGANG NATURE ART BIENNALE 2004

미술을 통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

2004년 8월 17일 ~ 10월 31일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특별전(동물이라는 자연)

기간 | 2004.8.10~10.31

장소 |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조직위원회 전시장 (구 공주경찰서)

내용 | 국내작가 25명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전야제

일시 | 2004. 8. 16(월) 오후 7시

장소 | 공주영상정보대학 운동장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개막식

일시 | 2004. 8. 17(화) 오후 3시

장소 | 장군봉 자연미술공원 / 공주영상정보대학

자연미술전

기간 | 2004.8.17~10.31

장소 | 장군봉 자연미술공원 / 공주영상정보대학

내용 | 설치작품(외국작가 31명, 국내작가 33명)

자료전시(특별전시관) : 본 전시에 초대된 모든 작가의 작품
자료(소품, 사진, 스케치, 비디오 등) 실내에서 전시

野投 자연미술 자료전

기간 | 2004.8.17~10.31

장소 |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조직위원회 전시장(구 공주경찰서)

내용 | 자연미술 사계절 연구작품

자연미술 심포지움 장소 | 공주 영상정보대학

III 자연미술 세미나

2004.8.13

· 임정희 : 자연미술이란 무엇인가?

· 하이케 스트렐로-독일(미술학자)

: 자연미술의 문화 및 사회적 관련성 - 토론

2004.8.14

· 김병수, 정재훈:대지와 세계의 투쟁으로서 자연미술

: 야투에 관한 문화기술지적 연구

· 힐더가드 쿼트 - 독일(미술지 발행자, 저널리스트, 강연가)

: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을 향하여-토론

III 자연미술 컨퍼런스 2004.8.15

· 초대작가 및 평론가, 일반

충남의 향토축제 2

예산문화원 제공

제8회 추사문화제

I. 목적

- 추사 김정희 선생의 드높은 사상과 서예정신을 계승 발전
- 지역문화축제로 승화발전시켜 특색있는 향토문화 축제로 정착

II. 행사개요

- 기간 : 2004.10.9(토)~10.10(토)
- 장소 : 추사고택, 예산문화원, 예산중앙초등학교 꿈둥지관
- 주최 : 예산문화원
- 후원 : 예산군, 충청남도,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주요내용
 - 공식행사 : 제8회 추사문화제 전야제,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제
 - 본 행사 : 제15회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서예백일장
 - 학생대회 : 1) 제9회 학생풍물겨루기대회(초·중·고)
2) 제10회 어린이사생실기대회(초)
3) 제6회 학생서예대회(초·중·고)
4) 제6회 학생글짓기 대회(초·중·고)
 - 부대행사
 - 1) 제11회 예산열린분우회 분재전시회
 - 2) 작은연등만들기
 - 3) 전통혼례
 - 4) 규방공예체험
 - 5) 탁본체험
 - 6) 가훈써주기
 - 7) 아나바다 벼룩시장
 - 8) 페이스페인팅체험
 - 9) 풍선아트체험
 - 10) 추사캐릭터와 사진찍기
 - 11) 어린이 영화상영

- 12) 추사목각 작품전시회-봉대공방 정봉기
- 13) 작은음악회-통기타가수 공연(추사고택)
- 14) 학생실기대회
- 15) 추사서예백일장 초대작가 간담회

III. 일정별 행사 계획

□ 첫째날 : 10월 9일(토)

시 간	행 사 명	장 소	주 관
11:00~17:00	아나바다 벼룩시장	주차장	문화단체
13:30~18:00	제9회 학생풍물겨루기 대회	예산중앙초등학교 꿈둥지관	풍물패아사달 (회장 우제풍)
14:00~15:30	전통혼례	아외공연장	예산 문화원
13:00~15:00	어린이 영화상영	공연장	예산 문화원
16:00~17:30	청소년 연극공연	공연장	예산 문화원
18:30~22:00	제8회 추사문화제 전야제 (영상음악회, 추사가요제)	문화원 특설무대	예산 문화원 (주)미음

위 행사외에 추가 행사는 행사장 주변에서 진행됩니다.

□ 둘째날 : 10월 10일(일)

시 간	행 사 명	장 소	주 관
10:00~10:30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제	추사선생묘	문화학교한학반
10:00~17:00	제10회 어린이 사생실기대회	추사고택	한국화반
	제6회 학생서예대회		서예반
	제6회 학생글짓기대회		규방공예
11:00~15:00	추사 서화 영인본 작품전	추사고택	전통공예동호인회
	추사 목각 작품전		봉대민속공예
	추사서예백일장 장원작품 전시회(1~14회)		이사회
	어린이사생실기대회 수상작품 전시회(1~9회)		이사회
11:00~18:00	제15회 추사추모전국서예백일장	추사고택	이사회
12:00~14:00	추사초대작가 간담회		이사회
14:00~15:00	작은음악회(포크송)		EXIT
10:00~18:00	분재전시회		예산열린분우회

IV. 세부 추진 계획

1. 제8회 추사문화제 전야제

- || 일시 : 2004.10.9(토) 18:00~21:30 || 장소 : 예산문화원 특설무대
 || 참여인원 : 1,000여명 || 주관 : 예산문화원
 || 프로그램

- 1부 : 식전공연-풍물단, 퍼포먼스 등
- 2부 : 추사가요제- 18:00~21:30
- 본 행사 : 의식행사, 추사가요제
- 축하공연 : 연예인초청공연(공연팀 섭외중)
- 가요제 참가신청기간 : 2004.10.1~10.6(6일간)
- 참가자격 : 해당 읍면 거주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읍면당 1명씩)
- 접수처 : 예산군청 경영문화관리실(330-2226)
- 시상계획

구 분	인원(명)	시상내역 및 부상	비 고
최우수상	1	상장 및 상금(500,000원)	예산군수
우수상	1	상장 및 상금(300,000원)	예산군의회의장
장려상	1	상장 및 상금(100,000원)	예산문화원장
인기상	2	상장 및 상금(50,000원)	예산문화원장
참가상	7	상품	

■ 진행순서

시간계획			내 용	비 고
시작	마침	소요		
계		240분		
18:00	18:30	30	영상소개	추사문화제 홍보 및 예산군 홍보영상을 상영
18:30	19:00	30	식전행사	축사(군수, 의장) 개회사(문화원장)
19:00	19:20	20	전통춤&북놀이	
19:20	20:00	40	가요제	6개읍·면 대표 노래
20:00	20:20	20	초청공연	예산사랑회 댄스공연
20:20	21:00	40	가요제	6개읍·면 대표 노래
21:00	21:30	30	초청가수공연/심사집계	박상철
21:30	22:00	30	시상식	
			폐식	

2.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제

- || 일 시 : 2004.10. 10(일) 10:00 || 장 소 : 추사고택 추사묘 앞
 || 참여인원 : 500여명
 || 진행순서

시간계획			내 용	비 고
시작	마침	소요		
계		41분		
10:00	10:05	1	개회	
10:05	10:15	10	산신제	전용국 선생
10:15	10:45	30	묘제	전용국 선생
			재배	일동
			초헌	군수
			아헌	기념사업회장(신두순)
			종헌	과생대표
			독축	부원장(이주원)
			재배	일동



|| 추사선생묘제 진설도

匙櫟箸	麵	麵	麵	餅
			密漬	
華陽炙	肉煎	肉湯	蔬湯	魚湯
		水肉	炙	蔬煎
脯		熟菜		生菜
棗	栗	柿	梨	檣
	退酒器	香爐	香盒	藥果
		祝版		茶食
				酒瓶
				豆腐
				食鹽
				散子

|| 산신제 진설도

櫟箸	麵	羹
	炙	
脯		
棗	栗	柿

3. 제15회 추사 추모 전국서예백일장

- ||| 일시 : 2004. 10. 10(일) 09:00~18:00 【본선】
- ||| 장소 : 추사고택(우천시-예산군학생체육관)
- ||| 부문 : 3개부문 【한글서예, 한문서예, 문인화(사군자, 수묵화, 담채)】
- ||| 시상 : 당일방표 시상
- 장원(1명) : 문화관광부장관상장 및 부상(상금 500만원)
 - 차상(3명) : 충청남도지사상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추사문화재단이사장상장 및 부상(상금 각 100만원)
 - 차하(6명) : 예산군수상장(2), 추수기념사업회장상장(2) 예산문화원원장상장(2) 및 부상(상금 각 50만원)
 - 특·입선(약간명) : 추사기념사업회장상장, 예산문화원장상장

백일장 일정

시간계획		행 사	비 고
부터	까지		
계			
09:00	10:00	과생접수	
10:45	10:50	회호대회 개회사	
10:50	10:55	환영사	예산군수
10:55	11:00	심사위원 발표 및 심사규정 발표	심사위원장
11:00	11:10	명제 게시	우제품
11:10	11:30	종이배포	
11:30	13:30	회호	
13:30	15:30	심사	
15:30	17:00	심사집계	
17:00	17:30	시상	

4. 제9회 학생종물겨루기 대회

- ||| 일시 : 2004. 10.9(토) 13:30~18:00
- ||| 장소 : 예산 중앙 초등학교 꿈등지관
- ||| 주관 : 풍물패 아사달(대표 우제품)
- ||| 응모방법
- 참가범위 : 군내 초·중·고 풍물반 중학교장 추천을 받은 풍물반
 - 경연 : 선반, 얹은반
 - 심사결과발표 및 시상 : 당일 대회장에서 심사발표 시상



||| 시상내역

- 개인상(2명) : 예산군수상장 및 상금(3만원)
- 지도교사상(1명) : 예산군의회위원장상장 및 상금(10만원)
- 조화상(3개학교) : 예산문화원장상장 및 상금(20만원)
- 신명상(2개학교) : 예산문화원장상장 및 상금(20만원)
- 창의상(2개학교) : 예산문화원장상장 및 상금(20만원)

5. 제10회 어린이

- ||| 일 시 : 2004. 10. 10(일) 09:00~14:00
- ||| 장 소 : 추사고택 안(우천시-다음 일요일로 순연)
- ||| 주 관 :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 ||| 응모방법
- 참가범위 : 군내 초등학교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작품 부문 : 1~3학년 →상상화, 2~6학년→수채화(풍경), 수묵화
 - 심사결과발표 및 시상 : 추후 발표 시상
- ||| 시상내역
- 대상(1명) : 예산군수상장 및 장학금(20만원)
 - 금상(2명) : 예산군의회위원장상장 및 장학금(10만원)
 - 은상(4명) : 예산문화원상장 및 상품
 - 동상(6명) : 예산문화원상장 및 상품
 - 특·입선(약간명) : 예산문화원상장 및 상품

6. 제6회 학생서예대회

- ||| 일 시 : 2004. 10.10(일) 09:30~14:00
- ||| 장 소 : 추사고택 특설과장(우천시 예산군학생체육관)
- ||| 주 관 : 서예반 문화학교
- ||| 응모방법
- 참가범위 : 군내 초·중·고 학생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 작품규격 : 초등 → 화선지(1/4절지), 중·고등 → 화선지(1/2절지)
 - 심사결과발표 및 시상 : 추후발표통지
- ||| 시상내역
- 대상(1명) : 예산군수상장 및 장학금(20만원)

- 금상(3명) : 예산군의회의장상장 및 장학금(10만원)
- 은상(3명) : 예산문화원장상장 및 상품
- 동상(3명) : 예산문화원장상장 및 상품
- 특·입선(약간명) : 예산문화원장상장 및 상품

7. 제6회 학생글짓기 대회

- || 일 시 : 2004.10.10(일) 09:30~15:00
- || 장 소 : 추사고택 화순옹주 홍문 앞(우천시 다음 일요일로顺延)
- || 주 관 : 규방공예반 문화학교
- || 응모방법
 - 참가범위 : 군내 초·중·고 학생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 부 문 : 3개 부문(산문, 수필, 시) ※주제 - 당일 발표
 - 심사결과발표 및 시상 : 추후 발표 시상
- || 시상내역
 - 대상(1명) : 예산군수상장 및 장학금(20만원)
 - 금상(3명) : 예산군의회의장상장 및 장학금(각 10만원)
 - 은상(3명) : 예산문화원장상장 및 상품
 - 동상(3명) : 예산문화원장상장 및 상품
 - 특·입선(약간명) : 예산문화원장상장 및 상품

8. 부대 행사

1. 제11회 열린 분우회 분재전시회

- || 기간 : 2004. 10.9(토)~10.10(일) [2일간]
- || ※ 개최식 : 2004. 10. 10(일) 09:00
- || 장소 : 추사고택
- || 주관 : 예산열린분우회

2. 아나바다 벼룩시장

- || 일시 : 2004.10.9(토) 11:00~17:00
- || 장소 : 다목적실 및 주차장 주변
- || 주관 : 학생동아리 버드발자국

- || 내용 : 신청자로 구성하여 의류 및 생활용품 중심으로 아나바다 벼룩시장 운영

3. 어린이 영화상영

- || 일시 : 2004.10.9(토) 13:00~17:00(13:00, 15:00 2회 방영)
- || 장소 : 공연장
- || 주관 : 청년회

4. 추사목각작품전, 추사서화영인본작품전, 추사백일장장원수상작품전, 어린이 사생실기대회 수상작품전시회

- || 일시 : 2004.10.10(일) 11:00~17:00
- || 장소 : 추사고택 주차장
- || 주관 : 전통공예동호인회
- || 내용 :
 - 추사목각작품(봉대민속공예 정봉기 작품 15점 전시)
 - 추사서화영인본작품 전시회(15점)
 - 추사서예백일장 수상작품 전시회(13점)
 - 어린이사생실기대회수상작품 전시회(63점)

5. 작은 음악회

- || 일시 : 2004.10.10(일) 14:00~16:00
- || 장소 : 추사고택 잔디밭
- || 주관 : EXIT (음악동아리)
- || 내용 : 통기타 라이브 공연



제6회 가족과 함께 하는 거리영화제

일 시 : 2004.10.10(일) 09:30~15:00

장 소 : 추사고령 횡단도주 횡단 일(우천시 다음 일로 연기)

거리영화제 목적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영화를 통하여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하며, 주민의 정서함양과 청소년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영화제를 실시하였다.

일 시 : 2004년 6월 5일(토) 오후 8시

장 소 : 푸른쉼터 (남산공원 홍성문화원 옆)

주 관 : 홍성문화원

후 원 : 문화관광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보훈지청

올해로 6회를 맞은 거리영화제는 평소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적은 주민들과 문화생활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하여 실시되었다.

영화제는 가족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일반 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아닌 탁 트인 공간인 공원에서 영화를 상영하였다.

공원에 자리한 푸른쉼터 무대에 스크린을 설치하여 영화관처럼 큰 화면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실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음향을 설치하였다.

또한 영화는 멀리에서도 화면을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무대 앞쪽에 의자를 놓고, 의자가 없는 뒤흘에는 깔개를 나누어 주어 자리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고 편히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영화제는 곧바로 영화를 상영하지 않고 먼저 흥겹고 잔잔한 풍물과



▲ 거리영화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



▲ 영화상영전 풍물공연을 하는 모습

과 트럼펫 공연을 곁들여 지루하지 않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풍물을 치자 흥겨워 주민들이 박수를 치고 어깨를 덩실거렸고, 트럼펫이 울려 퍼지자 여름향기로 가득 채워진 공원이 조용해지면서 한껏 저녁노을의 끝을 느끼며 우수에 젖게 하였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자 온 주민들이 기다리던 영화가 스크린에 비춰지자 흥겨움과 잔잔함의 공연으로 인해 흠뻑 젖었던 마음을 가다듬고 영화를 관람하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넓고, 시원한 공원에서 여유로움과 자유로움을 느끼며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모습에서는 일상에서 얻은 스트레스로 얼룩진, 일그러진 얼굴은 볼 수가 없었다. 아마도 오랜만에 보는 영화이고, 탁 트인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하며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에서 그동안의 모든 일상속일들을 잊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행사장인 공원 안은 적막한 공간에서 영화 속 주인공들의 감정을 공유하여 그들이 기뻐하면 같이 웃고, 그들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는 감정들을 표현하는 소리로 공원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해갔다.

영화에 푹 빠진 주민들은 누구하나 도중에 자리를 뜨지 않고 귀찮게 달려드는 모기도 안중에 없이 오로지 영화에만 관심이 집중되었다.

영화상영이 끝나고 주민들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의자를 한 곳에 모아주고, 쓰레기를 치워주는 모습은 주민들의 발전된 선진주민의 시민의식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았고, 한번의 아쉬움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자연을 벗 삼아 영화를 관람하는 자리인 이번 거리영화제에는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았으며, 친구나 가족, 연인과 같이 왔던 모두에게 영화에 관련하여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앞으로도 문화원에서는 작품성 있는 영화를 선정, 상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이 올바른 문화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충남의 향토축제 4

논산문화원 제공

강경젓갈축제

국가 문화관광축제인 2004 강경젓갈축제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며 볼거리·먹을거리·살거리가 풍성한 향토문화축제로서 횡수를 거듭할수록 지역 잔치의 수준을 벗어나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도 수백명이 찾는 국제적인 문화·관광·산업축제로 발돋움 하고 있다. 실제로 젓갈점포 및 매출액은 축제 실시전인 96년도에는 20여개에 28억 정도에 그쳤으나 젓갈시장이 쇠락의 시기에 업종을 변경했거나 떠났던 상인들이 다시 돌아와 현재는 80여개 점포에서 하루 거래되는 매출량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젓갈이 논산 지역경제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200년 전통의 강경젓갈은 대부분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처리된 저 염도 처리와 저온 처리 시설로 과학적인 숙성 방식을 고수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지난해 논산시와 철도청이 연계한 강경젓갈 관광열차는 젓갈 구입 후 관측사를 비롯해 논산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 볼 수 있는 축제연계관광으로 큰 호응을 얻어 이용객 1만여명이 젓갈을 구입해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행사개요

기간 : 2004. 10. 14(목) ~ 10. 18(월). <5일간>

장소 : 강경포구, 옥녀봉, 젓갈시장

주최 : 논산시

주관 : 강경 젓갈축제 추진위원회

주요행사 : 황산골 웰빙 선비밥상, 젓갈주먹밥 사먹기, 불꽃놀이, 강경젓갈 전시관, 관광객 젓갈 김치 담아가기, 김대균 줄타기 공연, 남사당놀이, 재래시장. 어시장 재현, 놀뽕고을 잔치, 젓갈홍보대사와 기념사진 촬영, 젓갈 마당극 - 홍도야 우지마라, 퓨전젓갈음식 요리대회 및 전시, 천연 염색 체험



논산문화원

축제장 공연 모습

젓갈통 지고 달리기-외국인참가모습



주요 프로그램

공식행사(6)	· 식전행사 (육군훈련소 군악시범) · 개막식(초청인사 환영리셉션) · 강경젓갈 전시관 개관식 · 폐막식 (화합의한마당 및 축제 유공자 표창)	· 젓갈퍼레이드 · 식후행사 (논산여상 짬뽕 댄스)
체험이벤트(13)	· 관광객 젓갈김치 담아가기 · 젓갈통 지고 달리기 · 맛갈젓 O, X 퀴즈와경매전 · 젓갈 주먹밥 사먹기 · 젓갈 페이스 페인팅 · 젓갈캐릭터와 포토 한 컷 · 관광객 진기록 경진대회	· 외국인 까나리액젓 김치담그기 대회 · 젓갈 함지박 이고 달리기 · 황산골 웰빙 선비밥상 · 황석어젓 만들기 · 천연염색체험 · 젓갈종류 알아 맞추기
문화체험행사(13)	· 강경포구 용왕제 · 남사당 놀이공연 · TJB TV특집 강경젓갈축제 개막축하 공연 · 전통 다도체험 · 강경포구 버라이어티쇼 · 젓갈 마당극 · 목공예체험	· 김대균 줄타기 공연 · 포구하늘에 젓갈연날리기 · 논산과 문학 · 축제연계관광 -병영체험 연계 추진 · 포구가요제 · 퓨전예술공연
특별행사(11)	· 제3회 퓨전젓갈 음식 요리대회 및 전시 · 놀뽕고을잔치 · 강나루 불꽃 놀이(개.폐막식) · 강경젓갈캐릭터 상품전 · 어르신 노래 자랑 · 안데스 음악공연	· 갈대숲 오솔길 걷기 · 외국인 장기자랑 · 젓갈홍보대사와 기념 촬영 · 천연기념물 순회 전시회 · 젓갈학술 세미나
상설행사(9)	· 강경젓갈전시관 운영 · 강경 옛모습 사진 전시 · 2003강경젓갈 축제 사진콘 테스트 입상작품전시 · 젓갈시장 장다리 퍼포먼스 · 재래시장·어시장 재현	· 중소기업 우수 제품 홍보판매전(특산물 포함) · 젓갈 용기전 · 황포돛배 재현 · 부모님께 젓갈 선물보내기 코너 운영
부대행사(13)	· 생활체조 경연대회 · 젓갈장사 씨름 대회 · 향토 특색음식점 운영 · 논산여상 관악 밴드 공연 · 관광객 환영음악놀이 · 품바공연 · 향토음식 시연회	· 제3회전국학생 강경포구 사생 대회 · 청소년 문화 축제 · 비만탈출을 위한 영양과 운동의 만남 · 강경정보상고 관악밴드 공연 · 읍면동의 날 · 젓갈로 차린 웰빙 식탁

강경 전통 맛갈젓 소개

Ⅲ 주요품목 : 젓갈(새우젓, 황석어젓, 멸치젓, 멸치액젓)

Ⅲ 개 요

- 1930년대 최대의 성시를 이룬 강경은 지리적으로 내륙 깊숙이 위치하여 해상과 육상교통의 요충지로서, 각종 수산물의 거래가 왕성하였으며, 전국 각처에서 강경의 젓갈을 구입하기 위해 성시를 이루었다.
- 현재 전국 최대의 젓갈시장이 자리 잡고 있으며, 대형 도·소매업소와 중소기업소가 성업중으로 다양한 종류의 젓갈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다.
- 젓갈은 어패류의 근육이나 내장에 소금을 첨가하여 자연 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무기질, 단백질, 어지방,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
- 새우젓과 멸치젓이 젓갈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까나리액젓, 조개젓, 황석어젓 등 다양한 각종 젓갈이 있다. 전통비법으로 제조되는 것이 강경젓갈의 특징이다.
- 강경젓갈은 영양분이 잘 보존된 상태에서 적당히 숙성 발효되어 진한 감칠맛으로 직접 먹을 수도 있고, 김치 등의 부원료나 자연조미료로써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소화흡수가 양호하고 영양적 가치가 매우 높은 식품이다.
- 강경에서는 재래식 토굴이 아닌 현대화되고 과학적으로 시설된 저온창고에서 10~15℃ 정도를 유지하면서 발효시킨다. 발효기간은 대체적으로 3개월정도 지나면 거의 발효가 된다. 이 기간은 우리 선조들이 땅에 묻거나 서늘한 곳에서 100일 동안 발효시켜 백일주를 담그던 지혜를 상기하면 저온에서 100일 동안의 발효기간은 과학적인 의미가 있다.

Ⅲ 젓갈관련 소개

- 젓갈은 크게 김장용 젓갈과 양념젓갈로 구분된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새우젓을 비롯 황석어젓 멸치젓 멸치액젓 등이 김장용 젓갈에 속한다.
- 밑반찬으로 먹는 양념젓갈은 명란젓, 창란젓, 꼴뚜기젓, 전어밤젓, 어리굴젓, 아가미젓, 오징어젓, 갈치숙젓, 낙지젓 등 종류가 다양하다.
- 육젓은 빛깔이 곱고 살도 많아 쉽게 눈에 띈다. 오젓은 육젓에 비해 작다. 추젓은 내년 가을까지 먹을 수 있고 묵은 것은 올해 김장용으로 적합하다.
- 김장용 젓갈로는 새우젓에 3년이상 숙성시킨 멸치액젓을 넣는데 최고의 맛을 보장 한다.

축제 성장의 이유

Ⅲ 관광객 위주의 동선 배치

이동거리 축소, 체험행사 및 이벤트행사의 효율적 배치

Ⅲ 체험형 프로그램 신규 개발

황석어젓 만들기, 재래시장·어시장 재현, 젓갈로 차린 웰빙 식탁, 비만 탈출을 위한 운동과 영양의 만남

Ⅲ 젓갈상인협회의 적극적인 협조

위생적인 스탠드럼통으로 교체, 판매원의 위생복 착용, 행사기간 중 20%할인 판매, 친절 한 손님맞이, 할인판매 가격표 부착

Ⅲ 젓갈전시관 개관 및 운영

퓨전젓갈음식전시, 강경옛모습사진전시 등 멀티미디어를 통한 첨단 내부시설로 강경과 강경젓갈을 소개

Ⅲ 관광객 유치 실적

2004년 내국인 738,450명 외국인 7,430명

축제장 안내

Ⅲ 위 치

충남 논산시 강경읍 강경포구 (젓갈시장 + 옥녀봉)

Ⅲ 열 차

호남선 강경역에서 하차

■ 서울역(호남선) → 논산(06:05~23:05 50분간격. 2시간 30분 소요)

관광열차운행 : 서울 ⇄ 강경

Ⅲ 버 스

서울강남터미널 → 논산(06:00~19:50 50분간격. 2시간 40분 소요)

Ⅲ 호남 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논산(연무읍) 인터체인지에서 20분 소요)

■ 논산 IC→강경

Ⅲ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 서논산 I.C → 강경 (10분 소요)

■ 연무 I.C → 강경 (10분 소요)

Ⅲ 국 도

■ 전국의 국도 및 지방도가 1번국도와 23번 국도가 연결되고 대전에서 40분거리



2004 강경젓갈축제는 14일 포구하늘에 젓갈 연날리기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강경포구 및 주무대에서 5일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강경포구 용왕제를 비롯하여 젓갈마당놀이 흥도야 우지마라와 금강이 내려다보이는 옥녀봉에서는 가을밤 시낭송과 포구시화전이 펼쳐졌다. 특히,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이벤트행사인 『젓갈 통지고 달리기, 젓갈 합지박 이고 달리기, 선비복장을 하고 다양한 젓갈을 맛볼수 있는 황산골 선비밥상』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전국퓨전젓갈음식 요리대회 및 젓갈캐릭터 상품전, 갈대숲 오솔길 걷기, 놀이 고을잔치』 등 특별행사가 마련되었고, 상설행사로는 『젓갈옹기전, 2003 젓갈축제 사진 콘테스트 작품전시, 강경젓갈 전시관 운영,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판매전(특산물 포함), 젓갈캐릭터 우표·엽서전, 황포돛배 재현, 재래시장.어시장 재현』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한편 논산문화원은 축제와 연계하여 조선후기 사대부 가옥인 윤증고택을 둘러보아 축제장을 손님과 시민들에게 예학의 고장 논산을 알리고, 추억을 선사하는 의미 있는 축제로 만들었다.



옛 강경의 명성을 되살리고, 전통 맛갈젓의 홍보와 판촉을 위하여 제1회 강경전통 맛갈젓 축제를 시작으로 매년 10월 중순경에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제8회째를 맞고 있다. 해를 거듭 할수록 강경전통 맛갈젓의 브랜드화와 홍보판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현대화된 상점이 늘고 있으며, 현재 80여개소가 성업중에 있다.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전통 젓갈시장에서 인절미, 수제비, 막걸리, 김치등풍성한 먹거리를 내놓아 강경의 훈훈한 인심을 말 해주고 있다. 잊혀져가는 3대 시장의 명성을 맛갈젓을 통해 되살리고 시민 화합과 관광객을 유치하여 소득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4년 강경젓갈축제는 밤하늘에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화합의 장을 만들며 내년을 기약 했다.

기지사줄다리기

기지사줄다리기 세계화 '첫발'

기지사줄다리가 일본 아키타현 가리와노 줄다리기와 상호 교류한다.

4백여년 이어온 우리나라의 기지사 줄다리가 대제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가리와노 줄다리기와 민간교류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교류는 양국간에 줄다리기 행사를 참관하고 한일 민속 문화예술에 대한 토론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며 기지사 줄다리를 세계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다.



기지사줄다리기 대제행사는 오는 4월1일부터 4일간 송악면 기지시리 흥척동 일원에서 치러질 예정으로 상호교류 첫해인 올해 일본 아키타현의 가리와노 줄다리기팀 25명이 당진을 찾게 된다.

기지사줄다리기 행사 전인 9일부터 기지사줄다리기 보존회원 등 관계자 18명이 4일간 일본 아키타현을 방문해 가리와노 줄다리기 행사를 참관하고 민간 교류활동을 펼친다. 기지사 줄다리기와 가리와노 줄다리기는 행사 규모나 진행방법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줄다리기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정보교환과 일본 관광객 유치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 대제 성황리에 마쳐

기지시줄달리기 대제 행사가 4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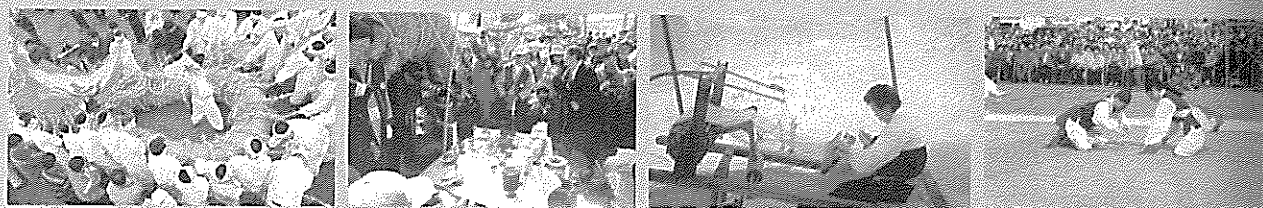
4월1일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추정 인원 10~15만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마지막 날 줄다리기 본 행사를 앞두고 벌어진 길놀이를 통해 줄 길이 200m, 약 40톤 무게의 줄을 2천명이 옮기면서 줄다리기를 통해 조상들이 남긴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 다채로운 민속행사가 함께 열려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기도 했다. 관람객들은 아찔한 외줄타기에, 그리고 퓨전 마당극에, 또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패에 눈과 귀를 빼앗겼다.

학생과 주민, 그리고 외국인과 관광객 등 2천여명이 2조로 나뉘어 흥척동 광장까지 암줄과 솥줄을 옮기는데 만 2시간이 넘게 걸렸다. 줄을 옮기는 길놀이 행사에 참석자들은 인간문화재 구자동씨와 수상두목 그리고 수하두목의 지휘아래 깃발과 호루라기를 이용, 힘을 한데 모아 거대한 줄을 조금씩 옮겨갔다.

정승희(신평고 1학년) 학생은 “모두 힘이 합쳐졌을 때는 힘들지 않았지만 힘이



모이지 않았을 땐 매우 힘들었다”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여럿이 모이면 되는구나 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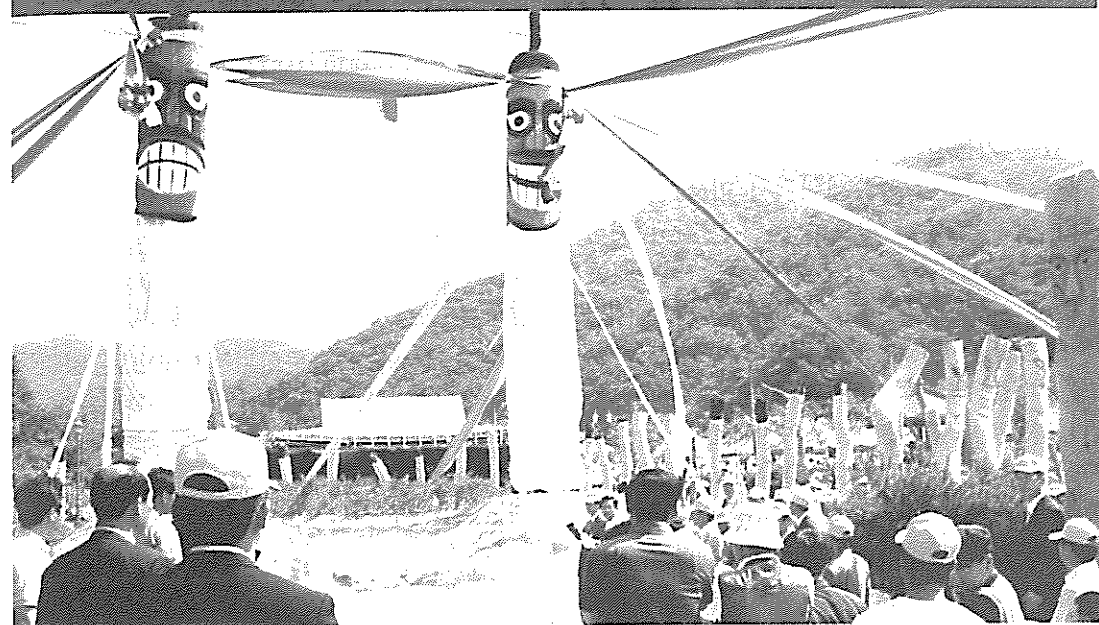
마지막 날 행사에는 7~8만 여명의 관람객이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각 언론사 및 취재진도 대거 몰려 세계최대 줄다리기 축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또 15분여 동안 이루어진 줄다리기 대결에서는 수상(물위동네)이 이겨 주민들은 지역과 나라의 평안을 기할 수 있게 됐다며 환호했다.

충남의 향토축제 6

청양문화원 제공

칠갑산장승문화축제



▲ 10m의 높이를 자랑하는 '국내최대장승' 제막식

축제배경

칠갑산(해발561m)은 충남의 서북부와 동북부를 가르는 차령산맥의 산지에 속하는데 산세가 거칠고 험준하여 비교적 자연의 훼손이 덜하고 산지에 자리한 마을들이 겪은 문화변동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심하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충남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민속문화가 보존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칠갑산을 의지하여 형성된 마을은 행정구역상 청양군 정산면, 대치면, 장평면에 속한다.

이지역 산촌에서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특히 1983년 대치터널의 개통이후에 변화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마을공동체 신앙과 그 의례가 비교적 잘 보존 전승되어 오고 있다. 일부 마을에서는 공동체 신앙 의례가 소멸되거나 소멸하였지만 이 지역 산촌마을에 대해서는 어른신들의

기억과 체험을 통하여 한 두세대 이전의 민속신앙을 재현해 볼수 있다. 따라서 지금에 있어서도 칠갑산 주변 마을의 공동체 신앙과 그 의례는 정확하고 풍부하게 밝힐 수 있다.

칠갑산 주변마을의 하당신으로는 장승과 솟대(집대)가 매우 보편적이고 또한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속학상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은 물론이고 청양의 대표적 축제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장승은 마을입구에 세워져서 마을 안의 행운과 재복(財福)은 밖으로 흘러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마을 밖의 불운과 재앙은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 곧 마을의 제액초복(除厄招福)과 풍농(豐農)을 위한 하당신이다. 그런데 장승은 다소 해학적이긴 하지만 무서운 얼굴 표정과 아울러 몸통에 쓰여진 천상천하충귀대장군(天上天下逐鬼大將軍)이란 명문등으로 보아 장승이 지닌 역할은 분명히 알 수 있다.

장승은 세상을 다스리며 온갖 잡귀를 쫓는 장군으로서 마을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개혁사례를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청양군의 장승 테마공원과 장승축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칠갑산장승문화축제가 정착되면서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발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의 장승(토템)조각가들도 수년동안 남미지역을 중심으로 토템만들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교류를 위해 칠갑산장승문화축제 동참 의사를 밝혀 오는 등 청양장승이 세계인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지방화와 국제화 시대를 맞아 청양지역의 장승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제6회 칠갑산장승문화축제를 맞아 장승공원을 마을장승, 지역별장승, 창작장승을 재배치하고 10m높이의 국내최대장승을 세워 지역발전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최대장승제막식 및 장승제가 거행돼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축제목적

한국최고의 장승문화보전지역으로 일컬어지는 칠갑산장승공원에서 장승문화축제를 개최 한국장승문화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민속문화교육장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칠갑산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지역 특성을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축제개요

- Ⅲ 기 간 : 2004년 9월 5일(일)
- Ⅲ 장 소 : 칠갑산 장승공원 일원
- Ⅲ 주 최 : 칠갑산장승문화축제선양위원회
청양군
- Ⅲ 주 관 : 청양문화원

행사개요

행 사 명	비 고
개막식(10:30~)	민속마을행사장
칠갑산장승대제 (최대장승제막식)	칠갑산장승공원
장승깎기시연 및 솟대제작 창작장승전시	
장승제 시연	
장승명문식	
가족장승깎기	
장승퍼포먼스(장승도, 장승무)	
학생그리기대회 및 가족허수아비 창작공모전	
짚공예 체험	
소달구지타기 체험	
전통민속놀이체험	
돌탑쌓기 체험관	
소원성취 기원문달기	
국악공연(청무풍물패, 농악대)	
마당극공연(벽수)	
공예품 전시 · 판매	
먹거리장터(무료시식코너)	
청양의맛 먹거리 체험	
청양구기자주 제조체험	무형문화재
춘포짜기 체험	무형문화재
추억 사진찍기	

축제총평

매년 4월경에 개최되던 축제가 많은 양의 폭설로 인해 행사일정이 연기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국내최대장승제막식 및 장승



▲마당극공연(벽수)

깎기 시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향토문화축제의 주제반영도에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부대행사중 가족창작허수아비전을 열어 가족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장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대치면 농소리, 이화리, 정산면 송학리, 해남리, 용두리 천장리등의 마을사람들이 참석해 전통방법으로 장승을 깎고 제를 올리는 장면을 볼수 있었으며 장승을 주제로 한 마당극을 공연하여 지역주민, 관광객등이 함께 참여하는 한마당 잔치가 되었다.

읍·면 제도의 유래



정 우 영
(태안문화원 원장)

1. 서언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단위는 광역단체인 시도(市道)와 기초단체인 시군구(市郡區) 그리고는 시, 군, 구의 하부조직으로 읍면동(邑面洞)과 마을의 동리(洞里)등이 있다

그런데 광역단체인 시도(市道)와 기초단체인 시군구(市郡區)에서는 단체장인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함과 아울러 의회의원을 선출하여 행정의 감시 및 견제의 역할을 맡기고 있음은 물론 마을의 동리에서도 동네 한복판에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놓고 필요시에는 이곳에서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리행정에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도 있다. 여기에 비하여 읍면(邑面)에서는 시, 군, 구와 같이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하여 마을 단위와 같이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방 자치 단위로는 별스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가장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곳은 읍면사무소이다. 단체장인 읍면장을 우리가 직접 선출하는 것도 아니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것도 아닌 읍면사무소가 우리에게 가장 친밀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읍면사무소에서는 우리의 신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호적(戶籍)과 주민등록(住民登錄) 또는 병사(兵事) 업무를 비롯하여 신원(身元)증명이나 인감(印鑑)증명 등의 민원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부락의 이장(里長)과 함께 마을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국도정(國道政)의 홍보나 시군정(市郡政)의 홍보 또는 각종업무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최일선의 마을담당 직원들이 읍면직원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하였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여 성공시킨 주역들도 읍면직원들 이었으며 신통종 지도 등 미곡증수비약 운동과 같은 잘살기 운동을 성공시킨 주역들도 다름아닌 읍면직원들 이었다는 사항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읍면직원들의 주요업무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보다는 마을에 출장하여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끼니때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처지가 되기에 이르니 먼 곳에

사는 형제들이나 일가친척 보다는 오히려 가까운 사이가 되어 가정사 및 애로사항을 의논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단으로 항의성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생길때에는 도청직원이나 시군청직원들은 한걸음 뒤로 물러나 버리고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항상 읍면 직원들의 몫이었다. 이와같이 읍면은 단체장의 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의회도 구성이 되어있지 않은 시군청의 산하기관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친근감을 주는 기관임에는 틀림이없다. 그리하여 본란에서는 읍면제도의 유래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2. 역사적으로 살펴본 읍·면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에서 면(面)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시기는 조선조(朝鮮朝) 초기에서 부터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살펴보면

경외이호호위통유통자외측매오통유리정매일면유권농관
京外以五戶爲統有通者外則每五統有里正每一面有勸農官

【우리말해석】 : 서울과 지방에 매 5호마다 통(統)이 있었고 매 5통마다 이정(里正)을 두고 매 1면(面)마다 권농관을 두고 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볼때 조선시대의 군(郡)에서는 동일방면(同一方面)의 몇 개리(里)를 통합하여 하나의 권농관(勸農官)을 파견하고 농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케 하였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면(面)이 되었다는 것이다¹⁾. 아울러 “반계수록(磻溪隨錄)” 상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향리범오가위통유통장 십통위리리유리정매십리경측위방치방정일인의측위향즉 금지면

鄉里凡五家爲統有統長 十統爲里里有里正每十里京則爲坊置坊正一人外則爲鄉人外則爲鄉即今之面²⁾

즉 [시골에는 5집마다 통(統)이 있어 통장이 있고 10통마다 마을이 있어 리정이 있고 매 10리마다 방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의 면이다] 는 내용이다.

위의 기록으로 보아도 卽今之面(이것이 지금의 면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등 면(面)이라는 명칭이 이때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1) 행정구역연혁 및 지명관계 사례 47p:1987 내무부 발행

2) 한국지방행정사 54p:1966년 내무부 발행

이런 것으로 보아도 면(面)은 조선조 초기에서 부터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조선조 초기나 중기에 있어서의 면은 명칭만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을뿐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

즉 면에서는 군(郡)과 같이 6방(房)의 이속(吏屬)들에 의하여 사무를 집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면장 한사람의 개인에 의하여 사무(事務)를 집행하였는데 명칭도 면장(面長) 이외로 면임(面任), 도윤(都尹), 풍헌(風憲), 약정(約正), 검독(檢督), 방장(坊長), 사장(社長), 관령(管領) 등으로도 불려졌음을 볼 수 있다³⁾

면(面)과는 달리 군(郡)에서는 6방(房)이 있었는데 그들의 분담업무는 다음의 “표1” 과 같았다

六房의 事務分掌

- | | |
|----------------------------|---------------------------|
| ■ 吏房 : 人事, 秘書, 其他庶務에 關한 事務 | ■ 戶房 : 戶口, 貢賦, 田報, 其他財政事務 |
| ■ 禮房 : 儀禮, 祭祀, 學敎等에 關한 事務 | ■ 兵房 : 軍政에 關한 事務 |
| ■ 刑房 : 法律訴訟 等에 關한 事務 | ■ 工房 : 工匠, 營繕 等에 關한 事務 |

【표 1】 육방의 분담업무표

이와 같이 면에서는 군과는 달리 면장 개인 하나에 의하여 사무를 집행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마을 里長의 역할과 비슷하였던 것 같다.

그러다가 조선조 말엽인 1894년에 갑오경장(甲午更張)이 발생하는데 이 갑오경장은 일제의 조정에 의하여 발생 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봉건적인 전제군주(專制君主)체제 즉 일인왕권 체제하에서 근대화의 싹이 트기 시작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며 다음 해인 을미년에는 전국의 8도(八道)의 지방제도를 23부(府)제로 바꾸었으며 다음 해인 1896년에는 23부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13도(道)로 바꾸는 등 변화가 많았다

이러한 시기에 면장(面長)의 명칭은 집강(執綱)이라 불렀는데 당시의 면에는 집강 밑에 서기(書記), 하유사(下有司), 면주인(面主人), 등의 직원들도 있었다

분장 업무를 살펴보면 서기(書記)는 면내장부(面內帳簿)의 기록 및 보고(報告)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었고 하유사(下有司)는 면사무사역(面事務使役)을 담당하였었고 면주인(面主人)은 군청 및 각 마을에 대한 공문발송 등을 담

3) 한국지방행정사 9p, 1987 내무부지방행정연구원발행

당하였었다.⁴⁾

그런데 당시의 지방제도가 매우 민주적이었으니 놀라울 뿐이다

1895년 11월 3일에 반포된 향회조규(鄉會條規) 및 향약변무규정(鄉約辨務規定)을 살펴보면 향회(鄉會)에는 대회(大會:郡會)와 중회(中會:面會) 또는 소회(小會:里會)로 구분하였는데 군회(郡會)인 대회는 군수(郡守)와 각면(面)의 집강(面長) 및 각면에서 공선(公選)된 2명씩으로 구성하였으니 오늘날의 군의회(郡議會)와 흡사하다는 사실이고 면회(面會)인 중회는 집강(執綱)과 각리(里)의 존위(里長) 및 각리에서 공선된 2명씩으로 구성하였으니 오늘날의 면의회(面議會)와 유사하고 리회(里會)인 소회는 존위(尊位)를 의장으로 하여 마을내의 세대주들로 구성하였으나 징역(懲役) 또는 조세 체납의 처분을 받은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으니⁵⁾ 당시의 상황으로 볼때 놀랄만한 민주제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집강(면장)과 존위(이장)의 선임 방법도 상부에서 임명해 오던 종전의 방식을 폐지하고 1년을 임기로 하여 매년 정월에 집강은 중회에서 선출하였고 존위는 소회에서 선출하였으며 당선자가 그 임무에 위배할때에는 임기에 불구하고 선출할때와 같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도 있었다.⁶⁾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인 제도는 일제(日帝)가 조선을 합병하고는 영구적인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폐지하고는 종래의 면(面)은 군현(郡縣)과 동리(洞里)와의 중간기관에 불과하도록 함으로써 동리(洞里)를 단위로 하여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던 당시의 관행을 소구역인 동리 대신에 면을 기초적인 행정단위로 함으로서 대대적인 지방행정에 대한 일대변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며 이때 부터 면은 법적인 뒷받침을 받는 행정기관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第8号 로 공포(公布)된 “面에 關한 規定” 의 내용은 “표2” 와 같고 1912년 3월 6일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第16号로 공포(公布)된 “면경비부담방법(面經費負擔方法)” 의 내용도 “표3” 의 내용과 같다

4) 한국지방행정사 52p 지방행정협회 前葛書 79p

5) 한국지방행정사 52p, 1966년 지방행정협회발행

6) 한국지방행정사 11p, 1987년 지방행정연구원발행

7) 한국지방행정사 55p, 1966년 대한지방행정협회발행

8) 지방행정구역발전사 290p, 1979년 내무부 발행

9) 지방행정발전사 313p, 1979년 내무부발행.

「面에 관한 規程」

朝鮮總督府令 第8号 1910. 10. 1 公布

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 第25條에 依하여 面에 관한 規程을 左와 같이 定함
朝鮮總督 子爵 寺內正毅

第 1 條

面의名稱及區域은 從前의 例에 依함.

面의 名稱及區域의 變更은 朝鮮總督의 認可를 得하여 道長官이 이를 定함.

第 2 條

面長은 道長官이 이를 任免함.

第 3 條

面長의 手當並事務執行에 要하는費用은 面의 負擔으로 함.

前項經費의 支出並負擔의 方法은 道長官의 認可를 得하여 府尹又는 郡守가 이를 定함.

第 4 條

本令에 面이라 稱함은 社, 坊, 部, 其他何等의 名稱을 用됨을 不拘하고 面에 該當되는 것을 謂함.

附 則

第 5 條

本令施行의 際面長又는 面長에 該當하는 職務에 在하는 者는 모두 本令에 衣하여 其의 職에 任되어진 者로 看做함.

第 6 條

本令은 公布의 日로부터 施行함.

【표 2】 面에 관한 規程

「面經費負擔方法」

朝鮮總督府令 第 16号 1912. 3. 6 公布

面經費負擔方法을 左와 如히 定함 朝鮮總督 伯爵 寺內正毅

第 1 條

面經費는 財産으로 生하는 收入, 面交付金 其他面에 屬하는 收入으로써 此에 充하고 尙히 不足할 때에는 面賦課金을 賦課徵收 함을 得함.

第 2 條 : 面賦課金으로 賦課할 種目及制限이 左와 如함

一. 戶別割 : 平均一戶에 三十錢以內

二. 地稅附加金 : 本稅一圓에 平安南北道 咸鏡 南北道 에 在하여는 八十錢以內 其他의 道에 在하여는 五十錢以內.

第 3 條

地稅의 賦課없는 地方又는 特別의 事情이 있는 地方에서는 道長官의 許可를 得하여 他의 種目을 設하고 地稅附加金에 代함을 得함.

第 4 條

地方의 事情에 依하여 特別한 必要있을때는 道長官의 許可를 得하여 第2條의 制限을 超過하여 面賦課金을 徵收함을 得함.

第 5 條

戶別割은 面內에 居住하여 獨立의 生計를 營하는 者에게 對하여 此를 賦課함.

戶別割의 賦課徵收期日은 國稅戶稅의 例에 依함 但特別한 事項이있을 때는 府尹, 郡守의 許可를 得하여 別도히 賦課徵收期日을 定함을 得함.

第 6 條

戶別割은 所得又는 資産을 標準삼아 等級을 設하여 賦課함이 可함 但, 特別한 事情이 있을때에는府尹郡守의 許可를 得하여 均一한 賦課를 함을 得함.

第 7 條

地稅附加金은 面內에서 地稅를 納하는 者에게 對하여 本稅와 同時에 賦課 徵收함. 但特別한 事項있을 때는 府尹, 郡守의 許可를 得하여 別途히 賦課徵收期日을 定함을 得함.

第 8 條

面主人, 面下人의 手當, 給料에 充하기 爲하여 必要 있을때는 府尹, 郡守의 許可를 得하여 第2條 賦課金外에 現品을 賦課함을 得함. 現品을 徵收코자 하는때는 調定當時의 價格에 依하여 其換算金額을 定하고 併히 此를 告知함이 可함.

現品의賦課를受한者는金錢으로서 代納함을 得함.

附 則

本令은 大正二年四月一日부터 此를 施行함

【표 3】 면경비부담방법(面經費負擔方法)

이에 앞서 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57호로 공포된 『조선총독부지방관 관제』상의 제25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各府郡에 面을 置함이라 面에 面長을 置함 判任官의 待遇로함 府尹이나 或 郡守의 指揮監督을 承하야 面內의 行政事務를 補助執行함이라 面과 及面長에 關하는 規程은 朝鮮總督이 定함이라”라고 규정함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일제가 조선을 합병하고는 기초행정 단위를 郡이 아닌 面으로 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 면장의 대우도 判任官으로 하였음을 볼 수가 있다. 이와같이 면행정을 중요시하였던 일제는 1913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로 “道の 위치, 관할구역 및 府君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定하는 내용의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부령을 발표하게 된다.

그러나 이 법령은 부칙에 규정한대로 19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행정구역에 관한 폐지분할의 정리관계로 한달이 늦어진 1914년 4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당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기준은 郡은 面積40方里 인구는 약 1만명을 한도로 하였고 面은 面積약 4方里 호구는 약 800호를 최저기준으로 하였었다.7) 아울러 전국적으로 13道 12府 317郡 4,322面에서 13道 12府 220郡 2,521面으로 축소되게 되었는데 이때에 결정된 面의 규모가 대부분 오늘날 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가 1917년 6월 9일에는 면제(面制)및 동시행규칙이 공포되어 동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 당시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면의 사무(事務)를 규정하였음과 아울러 면의 수입도 정하였는데 당시 면의 사무는 “표 4”의 내용과 같다.8)

면의사무

1. 도로교량도선(道路橋梁渡船), 하천제방(河川堤防), 관개배수(灌溉排水),
2. 시장(市場), 조림(造林), 농사양잠축산(農事養蠶畜産) 기타 산업(産業)의 개량보급(改良普及), 해충구제(害蟲驅除),
3. 묘지(墓地), 화장장(火葬場), 도장(屠場), 상수(上水) 하수(下水), 전염병 예방(傳染病豫防), 오물(汚物)처리
4. 소방(消防), 수방(水防), 기타별도의 지정이 있는 것 등이었고 면의수입(收入)으로는 부과금(賦課金)으로서
 1. 지세할(地稅割) 또는 시가지세할(市街地稅割)
 2. 호별할(戶別割)
 3. 특별부가금(特別賦課金) 등이 있었다

【표 4】 면의 사무

7) 한국지방행정사 55p, 1966년 대한지방행정학회발행

8) 지방행정구역발전사 290p, 1979년 내무부 발행

그러다가 1920년 7월29일에는 면제시행규칙중 일부가 개정되게 되는데 개정된 내용중에는 인구2만 이상의 면에 대하여는 협의회원의 선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전국적으로는 다음의 “표5”의 내용과 같이 24곳의 면이 이에 해당되었으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公州面, 大田面, 江景面, 鳥致院面, 등 4개면이 인구가 2만명이 넘는 지정면에 해당되었다.9)

협의회원 선거를 행할면

수원군 水源面,	개성군 松都面,	시흥군 永登浦面,	청주군 淸州面,
공주군 公州面,	대전군 大田面,	논산군 江景面,	연기군 鳥致院面,
전주군 全州面,	익산군 益山面,	광주군 光州面,	금천군 金泉面,
영일군 浦項面,	진주군 晋州面,	창원군 鎭海面,	통영군 統營面,
해주군 海州面,	황주군 兼二浦面,	의주군 義州面,	춘천군 春川面,
함흥군 咸興面,	경성군 羅南面,	성진군 城津面,	회령군 會寧面

【표 5】 협의회원 선거를 행할면

그러나 이러한 지정면 제도는 1930년 12월 29일 공포되어 다음해인 193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邑面區域에 관한 法令에 의하여 전국의 40개面이 처음으로 邑으로 승격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인구가 2만명이 넘는 面은 지정면이 아닌 邑으로 승격시키게 되었다

아울러 당시 읍으로 승격된 40개 읍의 명칭은 아래의 “표6”의 내용과 같다.10)

읍의 명칭 및 구역 현황

水源邑 : 수원면 일원,	永登浦邑 : 시흥군영등포면일원
淸州邑 : 청주면 일원,	忠州邑 : 충주군 충주면 일원
公州邑 : 공주면 일원,	大田邑 : 대전군 대전면 일원
天安邑 : 천안면 일원,	江景邑 : 논산군 강경면 일원
鳥致院邑 : 연기군 조치원면 일원,	全州邑 : 전주면 일원
益山邑 : 익산면 일원,	井州邑 : 정읍군 정주면 일원
光州邑 : 광주면 일원,	麗水邑 : 여수군 여수면 일원
濟州邑 : 제주면 일원,	金泉邑 : 김천군 김천면 일원
慶州邑 : 경주면 일원,	浦項邑 : 영일군 포항면 일원
安東邑 : 안동면 일원,	尙州邑 : 상주군 상주면 일원
晉州邑 : 진주면 일원,	鎭海邑 : 창원군 진해면 일원
統營邑 : 통영면 일원,	密陽邑 : 밀양군 밀양면 일원

9) 지방행정발전사 313p, 1979년 내무부발행.

10) 지방행정발전사 485p, 486p, 1979, 내무부발행

東萊邑 : 동래면 일원,	兼二浦邑 : 황주군 겸이포면 일원
沙里院邑 : 사리원면 일원,	安州邑 : 안주군 안주면 일원
義州邑 : 의주면 일원,	定州邑 : 정주군 정주면 일원
宣川邑 : 선천면 일원,	江界邑 : 강계군 강계면 일원
春川邑 : 춘천면 일원,	江陵邑 : 강릉면 강릉면 일원
鐵原邑 : 철원면 일원,	北靑邑 : 북청군 북청면 일원
城津邑 : 성진면 일원,	羅南邑 : 경성군 라남면 일원
會寧邑 : 회령면 일원	雄基邑 : 경흥군 웅기면 일원

【표 6】 읍의 명칭 및 구역 현황

그 이후로도 인구가 2만이 넘는 면들은 읍으로 승격되기에 이르는데 충청 남도의 사항만을 살펴본다면 1938년 9월 27일 총독부령 제197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邑面 및 邑面長에 관한 규정중 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論山面과 長項面이 邑으로 승격되었고 1940년 10월 23일 총독부령 제221호로 공포되어 같은해 1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법률에 의하여 禮山面과 錦山面이 邑으로 승격되었고 1942년 9월 30일 총독부령 제243호로 공포되어 같은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법률에 의하여 瑞山面과 廣川面이 邑으로 승격되었고 1944년 9월 29일 총독부령 제253호로 공포되어 같은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법률에 의하여 溫陽面과 洪城面이 邑으로 승격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행정구역요람(내무부발행)에 의하면 온양면과 홍성면은 1941년 10월 1일 총독부령 제253호에 의하여 邑으로 승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2년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혼돈이 생긴다(정확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외의 읍들은 해방 이후에 邑으로 승격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한편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의 기간을 미군정(美軍政)에서 통치하게 되는데 미군정에서는 1946년 11월 15일 “道 및 其他地方의 官公吏, 會議員의 選擇”이라는 내용의 법률을 군정법령 제126호로 공포하여 시행한다고 하였다 당시에 공포된 군정법령 제126호의 제2조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7”과 같다

제 2 조 選舉될 官公吏

左列官公吏는 選舉制職員으로 함.

가. 道知事	나. 府尹	다. 郡守	라. 島司	마. 邑長	바. 面長
사. 道會議員	아. 府會議員	자. 邑會議員	차. 面會議員		
其他官吏도 法令에 依하여 選舉制로 함을 得함					

【표 7】 군정법령 제126호의 제2조에 규정된 내용

그러나 이와 같이 미군정에서 제정된 지방관리 및 의회의원에 대한 선거는 제도상만 규정되어 있을뿐 사실상으로 시행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되자 정부에서는 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로 “地方行政에 關한 臨時措置法”을 공포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이법의 제17조에는 『邑, 面區域內에 施行하는 國家行政事務는 法令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自治團體인 邑, 面에 委任하여 行한다. 邑長, 面長은 選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공포된 “地方自治法”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기초자치 단체는 市, 郡이 아닌 邑, 面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는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중지되었다가 1952년 4월 25일에서야 처음으로 면의회 의원을 선거하게 된다.

아울러 1956년 8월 8일에는 제2대 면의회 의원을 선거하였고 1960년 12월 12일에는 제3대 면의회 의원을 선거하였으나 5. 16 군사혁명으로 인하여 해산하고 말았다. 뿐만아니라, 邑面長의 선거도 1956년 8월 8일 처음으로 직선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여보았고 1960년 12월 26일 두 번째로 선거를 실시하여 보았으나 이것 역시 5.16으로 말미암아 임명제로 바뀌고 말았다. 5. 16 이후의 지방자치제도는 1961년 9월 1일 법률 제707호로 공포된 “地方自治에 關한 臨時措置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는 邑, 面이 아닌 市, 郡으로 변경되게 되는데 당시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내용은 아래의 “표8”과 같다

地方自治에 關한 臨時措置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종류)

(1) 지방자치단체는 大別하여 다음의 2종으로한다

1. 道와 서울特別市
2. 市와 郡

(2) 道와 서울特別市는 政府의 直割下에 두고 市와 郡은 道の 管轄구역內에 둔다

제3조(郡의 명칭과 구역)

郡의 명칭과 구역은 인구10만 내로 再劃定할때까지는 종전에 의한다

제4조(邑, 面)

(1) 郡에 邑, 面을둔다

(2) 邑, 面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폐지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서 정한다

(3) 邑, 面의 직제는 郡의 규칙으로서 정한다

【표 8】 地方自治에 關한 臨時措置法

이렇게 하여 이때부터의 읍면은 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잃고 순수한 郡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읍면은 한때 법인격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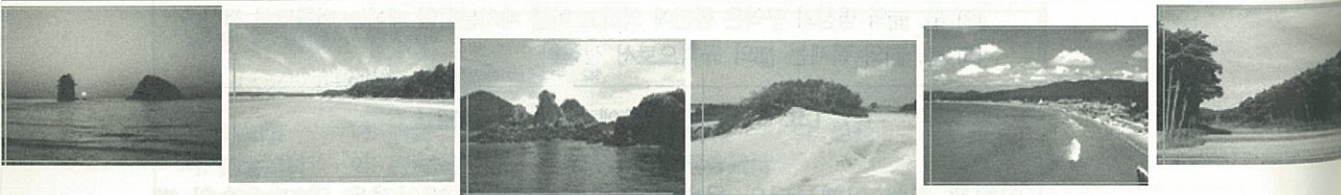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군수가 아닌 읍면장을 선거하기도 하였었고 읍면 의회의 의원을 선거하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인격을 잃고 순수한 시군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기관으로 변하여 버렸다. 그러면서도 읍면은 주민들로부터 가장 친밀감을 갖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통신의 발달로 집집마다 전화가 개설했고 있음은 물론 개인마다 휴대폰이 있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할 필요가 없이 전화만 하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읍면 직원마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어 마을 출장시에는 필요한 집만 찾아가면 그만이지 마을전체를 일일이 순회할 필요도 없어졌다. 그러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부락 분담직원을 만날 수가 없어 옛날과 같은 “면서기”를 모른다. 아울러 요즈음은 식량증산 등 농업정책에 대한 주민지도가 필요없음은 물론 새마을사업등 개발사업도 주민부역이 아닌 공사비가 투자되어 돈으로 직접 공사를 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더더욱 면서기를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요즈음은 면사무소에 가보아도 아는 사람이 없다” 면서 옛날의 “면서기”를 아쉬워한다

물론 옛날과는 달리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고 국민소득이 1만달러가 넘어선 요즈음 개발사업을 꼭 부역으로만 시행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면서기” 라고 하여 자가용을 타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고 휴대폰을 소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읍면 직원들이 마을 주민과 함께 끼니를 함께 하며 가족과 같이 마을을 터놓고 상의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다.

하루빨리 옛날과 같이 “박서기”, “김서기”, 하면서 정을 나누던 시절로 돌아가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할뿐이다.



향토문화연구 2

서산시가지의 기능지역 분화에 관한 고찰

리 명 구
(서산향토연구회 회원)

I. 머리말

도시는 자연부락(自然部落)의 촌락(村落)이 발전하여 소도시, 중도시, 대도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인위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하여 취락(聚落)이 발달하기도 한다.¹⁾

인위적으로 건설한 취락은 시가지의 기능분담계획에 의하여 구획정리를 하고 건설하므로 기능분화가 뚜렷하나, 자연발생적인 도시는 처음에는 모든 기능이 혼합되어 있다가 도시(都市)가 점점 발달하면서 시가지(市街地)의 기능(機能)이 뚜렷하게 분화(分化)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²⁾

서산시는 현재 규모로 보아 중소도시³⁾에 해당하며 광활한 평야와 구릉지대로 서해안 개발과 더불어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등 대산공단, 그리고 현대 다이모스(전 우주항공 자리), 현대과워텍, 동희오토카, 건설중인 기아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자동차 전문단지가 조성되고(2003.7.19일 충청남도 승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위치해 있으며 대산항만이 국제항만으로 건설되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서산시를 관통하고 있어 국제무역전진기지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도시이다.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 고용인력의 창출로 인한 인구증가로 교통수요증대, 환경오염요인의 증가, 공업화진전, 주민소득 상승 등을 가속화하여 인구규모의 변동 및 경제규모의 확대가 예상되며 개발여건이 풍부하고, 산업구조면에서도 도·농 통합에 따라 3차 산업 위주의 도시형 구조에서 관광, 첨단농업 등이 결부된 도·농 통합에 따라 3차 산업 위주의 도시형 구조에서 관광, 첨단농업 등이 결부된 도·농 복합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업종전환의 가속화가 전망되고 있다.

1) 서산향토연구회, 「서산의 문화」, 2000년 제14호, p133

2) 상계서, p134.

3) 상계서, p134.

따라서 서산시가지는 여건변화에 따라 배후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도시가 발달하고 시가지 기능도 점점 뚜렷이 분화되어가고 있다.

도시적 성격을 띤 시가지는 1942년 10월 1일 서산읍으로 승격(부령 243호)된 후부터 발달하였다.⁴⁾

서산시가 2003년 현재 중소도시로 발전하면서 시가지의 기능도 제법 뚜렷이 구별되어 각 산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업종의 입지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시가지의 기능분화에 대한 고찰을 하기로 했다.

서산시는 근래 상업기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가지(市街地)의 기능(機能)분화도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뚜렷이 분화(分化)되어 가고 있다. 또 근래도시 개발 사업계획에 의해 인위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농공업단지조성이 이루어져 시가지의 기능이 구분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II장에서 서산시가지의 기능지역(機能地域)분화(分化)가 시대별로 어떠한지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기능(機能)의 내용(內容)을 파악한다. III장에서 필자의 제언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II. 서산시가지의 기능지역(機能地域)⁵⁾ 분화(分化)과정

1. 1942이전

1910년 이전 조선시대에는 관아 중심의 소규모 시가지가 형성되었기에 시가지의 기능변화도 뚜렷하지는 않다. 다만 조선시대 성곽을 중심으로 하여 성곽안의 관청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중심업무지역(C.B.C)⁶⁾과 그 주변 성문 밖의 주거지역을 구분할 수 있고 일제



<그림1> 1942년 현재 서산 시가지의 기능지역 분화

4) 전계서, p136.

5) 기능지역 : 용도(목적)별로 존재하는 지역.

6) 대부분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심에는 도시의 중추관리기능과 중심상업기능이 대량으로 집중하고 있고, 땅값이 높은데 이런 지역을 중심업무지역(C.B.D 즉 Central Business District)이라고 한다. 이 중심업무지구에는 관청, 회사, 은행, 보험, 신문, 잡지, 방송 등 각종 업무용 건물과 백화점 등의 상업용 건물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는 많은 인구가 모여들어 인구 과밀 현상을 빚고 활기를 띠지만 밤에는 사람들이 시 외곽주거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어 인구는 격감하고 활동도 정지상태에 이르게 된다. 즉, 도시가 크게 성장하게 되면 중심 업무지구의 범위가 넓어져서 중심 지역의 상주인구는 감소하고 주택, 학교, 공장 등은 번두리로 옮겨간다. 중심업무지구에는 낮 동안 많은 사람과 자동차가 모여 교통혼잡, 소음, 주차난,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극심한 교통혼잡이 나타난다. 도심에서 좀 떨어진 교통의 요지에는 도심의 기능을 나누어 맡는 부도심이 생기기도 한다.

7) 서산향토연구회, 「瑞山의 文化」, 2000년 제12호, p61.

시대인 1910년부터 1942년 읍으로 승격되기 이전까지는 시가지의 발달로 기능지역도 분화되어 읍내리 165번지 일원에는 시장이 형성되었으므로 상업기능이 나타났다. 따라서 <그림1>과 같이 기능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

가. 중심업무지역(C·B·D지역)

서산군청과 부속건물, 동헌객사 등 옛 관아건물, 경찰서, 우편소, 소학교, 도립병원, 잠업여자강습소, 잠업조합과 그 부속건물, 읍사무소, 법원, 문화원, 농업협동조합 등 각종 업무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이 집중되어 있어 도시의 중추관리기능과 중심상업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2>

나. 상업지역

읍내리 165번지 일대(현 계림장 여관 뒤 지금 서해주차장)에 시장이 형성되어 5일장의 중심지가 되고 그 주변에 면포, 어물 잡화상들이 상설되어 있는 상업지역이 이루어졌다 <그림3>.

다. 주거지역

중심업무지역 주변과 상업지역 주변 읍내리 동문리 일대에는 가옥이 밀집된 주거지역이 형성되었다 <그림4>.



<그림2> 중심업무지역



<그림3> 상업지역



<그림4> 주거지역

2. 1942년부터 1988년까지

1942년 10월 1일 서산면이 서산읍으로 승격되고, 1956년 6월 동부시장이 개설됨으로서 시가지의 발달과 시가지 기능의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서산시청에서도 1981년 12월 31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표1>⁸⁾과 같이 기능지역(용도지역)별 도시계획을 추진하였다.

7) 서산향토연구회, 「瑞山의 文化」, 2000년 제12호, p61.

8) 서산시청, 「시정백서」, 1999, p372.

<표 1> 용도지역별 면적

(자료 : 서산시 도시건축과, 단위 m²)

기능지역구분	결정면적	비고
주거지역	5,420,000	
상업지역	406,000	
공업지역	800,000	
녹지지역	12,574,000	
계	20,200,000	

위의 내용은 도시계획상의 면적이고 실제 기능지역별 면적은 차이가 있다. 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속에는 저자가 구분한 중심업무지구가 포함되어 있다.

1973년 2월 28일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터미널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어 <표2>와 같이 상업기능지역이 확대되었다.

<표 2> 용도지역변경조서

(자료 : 서산시 도시건축과, 단위 m²)

기능지역구분	결정면적	변경후	비고
주거지역	5,420,000	5,393,500	
상업지역	406,000	433,000	
공업지역	800,000	800,000	
녹지지역	12,574,000	13,574,000	
계	20,200,000	20,200,000	

<표 3> 용도지역 축소 결정조서

(자료 : 서산시 도시건축과, 단위 m²)

기능지역구분	결정면적	변경후	비고
주거지역	5.3925	2.570	
상업지역	0.4335	0.220	
공업지역	0.8000	0.078	
녹지지역	13.574	생산녹지 1.542	
		자연녹지 7.515	
계	20.20	11.925	

1976년 12월 6일에 도시계획구역 과대지정으로 각종 인허가에 따른 주민불

8) 서산시청, 「시정백서」, 1999, p372.

9) 상계서, p372.

10) 전계서, p374.

편과 도시지역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구역을 기존 20.20km²에서 11.925km²로 축소하였다. <표3>10)

1979년 5월 8일 기존 버스터미널이 협소하여 이전 추진과 현 의료원 옆동아 전직부근에 지정되어 있던 준공업지역을 예천동 공동묘지지역으로 부분적인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였다. <표4>11)

<표 4> 용도지역변경결정조서

(자료 : 서산시 도시건축과)

기능지역구분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2.570	증 0.055	2.625	석림제사 공장주변
상업지역	0.220	증 0.037	0.257	차부이전 지역
준공업지역	0.078	증 0.082	0.160	예천동 공동묘지 주변
생산녹지지역	1.542		1.542	
자연녹지지역	7.515	감 0.174	7.341	(감)예천동 공동묘지 주변
계	11.925		11.925	

<표 5> 도시계획 변경결정조서

(자료:서산시 도시건축과)

구분		면적(m ²)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합계	11,925,000	-	11,925,000	100
	소계	2,625,000	증 443,000	3,068,800	29.42
	주거전용지역	-	-	-	-
	주거지역	2,625,000	증 443,000	3,068,800	29.42
공업지역	소계	160,000	-	160,000	1.34
	전용공업지역	-	-	-	-
	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160,000	-	160,000	1.34
녹지지역	소계	8,883,000	감 514,000	8,369,000	66.49
	생산녹지지역	1,542,000	-	1,542,000	11.97
	자연녹지지역	7,341,000	감 514,000	6,827,000	54.52

1984년 3월 26일 도시인구의 팽창과 3차 산업의 발달로 기존시가지의 주거 및 상업지역의 수요증가에 필요성이 대두되어 <표5>12와 같이 녹지지역 일부

10) 전계서, p374.

11) 상계서, p374.

12) 전계서, p375.

13) 도립서산병원 : 현 서산시청주차장 위치, 전 서령초등학교 건물, 충청남도 도립서산병원 개원

를 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시가지의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기능지역이 변화를 가져왔다. 이 기간 서산시가지의 기능지역분화현상은 <그림5>와 같다.

가. 중심업무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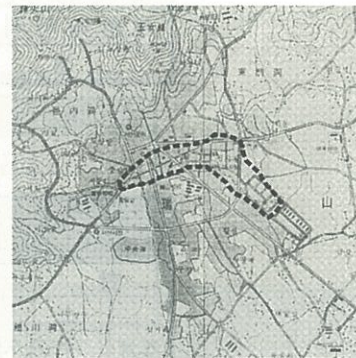
서산군청을 중심으로 경찰서, 교육청, 서산읍사무소, 소방서, 농협중앙회서산시지부, 서산단위농협, 조흥은행등 금융기관, 도립서산병원¹³⁾, 그 외 병원(서울병원, 고려병원, 삼성병원), 국민학교, 잠업강습소 및 잠업조합과 부속건물, 법원 검찰청, 농산물 검사소, 농지개량조합, 연연초조합, 축산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 세무사무소를 비롯한 각종 행정사무소, 측량 건축설계사무소, 버스정류소, 인쇄소, 각종 신문보급소, 각종사회단체사무소 등의 각종 사회단체사무소 등의 중추관리기능이 밀집되어 있다 <그림6>.



<그림 5> 1988년 현재 서산 시가지의 기능지역 구분



<그림 6> 중심업무지역



<그림 7> 상업지역

나. 상업지역

서산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시가지가 발달하기 시작하여 규모가 커지자 상가들이 늘어나고, 1956년 6월 동부시장 개설로 상업지역이 대폭 확대되었고 1973년 2월 28일자로 시가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버스터미널 주변(현재 축산협동조합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주거지역이 27,500㎡ 감소

12) 전계서, p375.

13) 도립서산병원 : 현 서산시청주차장 위치, 전 서령초등학교 건물, 충청남도 도립서산병원 개원(1962. 11.9), 지방공사충청남도서산의료원 전환(1983. 7. 1), 서산의료원 준공 서산시 석림동 568-5번지로 이전(1989.3.21)

14) 전계서, p373.

15) 전계서, p377.

한 5,392,500㎡이고, 상업지역이 435,000㎡로 주거지역 감소분이 상업지역으로 확대되었다.¹⁴⁾

동부시장은 포목, 의류, 가구, 철물, 채소, 어물, 기타 잡화 등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고 시장주변지역과 구시장(읍내동)에서 동부시장사이의 근린상가지역으로 발달하였다. 1979년 버스터미널이 동문동 307번지 일원으로 이전되면서 버스터미널 주변 지역도 근린상가로 발달하였다 <그림 7>.

다. 공업지역



<그림 8> 공업지역

서산시 석림동(현 지방공사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맞은편)에 동아전직서산공장과 영창공업사가 중심이 된 준 공업지역이 형성되었다.

동아전직 서산공장은 제사, 견직 염색공장으로 1976년 5월 1일 준공가동하다가 제사공업사양화로 1987년경에 공장이 문을 닫았고, 공업지역을 시가지 외각 지역인 예천동으로 변경결정(1979년 5월 8일)되어 이곳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동아전직공장자리는 현재 공터(농경지)로 있는 상태이다<그림8>.

라. 주거지역



<그림 9> 주거지역

제1외곽도로(새주소명 안전로)개설로 시가지는 급격히 도로주변을 따라 팽창하였다. 동부시장개설 버스터미널 이전으로 상업이 발달하며 시가지가 확장되어 상업지역이 늘면서 주거지역도 그 주변에 확장되어 발달하였다. 농경지(논과 밭)가 주거지역으로 변하고 주거공간도 고층화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며 고밀도 주거지역형태로 변모하였다 <그림9>.

마. 녹지지역

시가지 변두리에는 9,057㎡를 녹지지역으로 고시(1976년 12월 6일)를 하여 보존하였으나 공업지역 주거지역 확장으로 점점 감소되어가고 있다.

14) 전계서, p373.

15) 전계서, p377.

3. 1989년부터 현재까지

서산시 승격을 계기로 서산시가지는 도시기본계획승인 등 본격적인 도시화추세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착수함에 따라 더욱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10월 31일자 충청남도 고시 제1992-199호 석림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1993년 7월 27일자 충청남도 고시 제93-162호로 읍내지구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시 승격 이후 도시계획재정비에 착수 1995년 2월 20일자로 충청남도 고시 28호에 의한 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을 충남서해안공업지대의 배후지원 및 서산광역생활권의 지역중심 도시와 서산해안국립공원 관광교통의 거점도시로 육성키 위한 전략계획으로 면적은 <표6>15와 같이 기정 도시계획구역의 약 3배인 37,094㎡로 확장함에 따라 도시의 규모가 크게 발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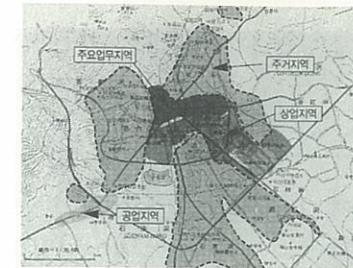
<표 6> 도시계획 변경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1,925,000	25,168,755	37,093,755	100.0
주거지 역	소 계	3,342,008.6	2,750,991.4	6,093,000	16.4
	일 반 주 거 지 역	3,342,008.6	2,453,991.4	5,796,000	15.6
	준 주 거 지 역	-	297,000	297,000	0.8
상업지 역	소 계	327,200	189,800	517,000	1.4
	일 반 상 업 지 역	327,200	174,800	502,000	1.3
	근 린 상 업 지 역	-	15,000	15,000	0.1
공업지 역	소 계	160,000	775,000	935,000	2.5
	일 반 공 업 지 역	-	935,000	935,000	2.5
	준 공 업 지 역	160,000	△160,000	-	-
녹지지 역	소 계	8,095,791.4	21,452,963.6	29,458,755	79.7
	자 연 녹 지 지 역	6,553,791.4	13,864,963.6	20,417,755	55.0
	생 산 녹 지 지 역	1,542,000	2,823,000	4,365,000	11.8
	보 전 녹 지 지 역	-	4,765,000	4,765,000	12.9

※자료 : 서산도시계획 재정비 1994.12

이 기간 서산 시가지의 기능지역 분화현상은 <그림 10>과 같다.

15) 전게서, p377.



<그림 10> 2003년 현재 서산 시가지의 기능지역 구분



<그림 11> 중심업무지역

가. 중심업무지역

서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각 관공서들이 증축 및 고층화로 밀집되고 더 많은 기관 및 사무소가 들어서고 더 넓은 규모의 건물과 공간이 필요한 기관은 외곽으로 이전되기도 한다. 은행, 우체국, 백화점 기타 사무소 건물들이 고층화되고 있다.

서산시청도 증축하여 의회사무실(2000년 증축)등 부족한 사무실로 활용하고 은행(국민은행, 조흥은행, 신한은행), 농협, 수협, 축협, 금융채권, 기타 금융기관들이 고층화되었다. 빌딩 및 상가건물이 고층화되고 그곳에 측량 건축 토목설계 사무소(19개소), 보험회사(14개), 유선방송, 여행사, 신문사, 인쇄소(23개소), 건설회사(20개소)극장, 세무서 및 세무사무소(9개소), 광고기획, 법무사사무소(12개소), 변호사사무소 및 법률사무소(12개소), 법원, 검찰청, 선거관리위원회, 백화점, 문화원, 감정평가원, 학원, 행정서사, 고급의류점, 자동차편의점, 여과, 정보통신기기, 병·의원, 약국, 각종 회관 등 중추관리기관들이 밀집되었다.<그림 11>.



주요업무지역인 1호광장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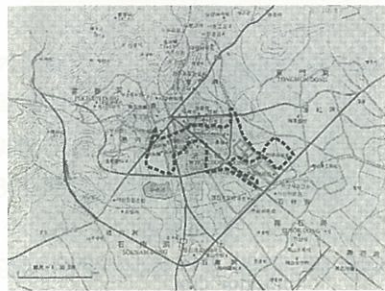


상업지역인 버스터미널 주변

나. 상업지역

기 조성된 상업지역도 건물이 고층화되고 대형 백화점과 대형 마트가 들어서는데 변화가 있고, 1992년 2월 8일 서산 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공사 제1단지(구주공)조성으로 주변지역(먹자골)을 비롯한 버스터미널과 이

어지는 일대가 근린상업지역으로 확대되었다. 2001년 4월 24일 완공된 서산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논(畓)이었던 곳이 근린상업지역으로 확장되었다<그림12>.



<그림 12> 상업지역

다. 주거지역

1997년 신대산사거리에서 서산부페웨딩홀까지의 제2외각도로(새주소명은 동서로)건설로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또는 빌라 등 고밀도 주거지역이 시가지 변두리에 생겼다.

동문동 538번지일원(현 서령고 옆) 삼성아파트(1990년 4월 준공 620세대), 동문동 (현 서령중 앞) 대림아파트(1990년 10월 준공, 198세대)건축으로 주거지역확장, 1992년 동문동주택공사1단지(현 구주공)300세대 준공, 1994년 동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현 귀빈예식장일대)으로 주거지역이 확장되고, 석림동주택공사 제2단지(신주공)가 1차 1995년, 2차 1996년에 1, 153세대가 완공되어 주거지역이 확장되고, 1991년 3월 14일부터 1993년 12월 23일 완공된 읍내지구 택지개발사업(현 교육청앞)으로 대림동신(1995년 12월 준공, 360세대) 부영아파트(1996년 2월 25일 준공, 1093세대)등 건축으로 주거지역확장, 석남동 35-24번지에 영진크로바아파트 414세대가 1993년 10월에 지어지고, 1998년 6월 27일 착공 2001년 완공된 동문동 현대아파트 앞 서산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가지가 확장, 1999년 예천동 524-5번지에 지어진 현대아파트 236세대, 2000년 5월 1차, 2001년 10월 24일 2차로 읍내동 현대아파트 915세대가 완공됨으로서 주거지역이 확대되고 시가지형태가 바뀌었다. 2002년 착공하여 2003년 4월 준공 예정인 석남동 주택공사 센스빌(현 서산중학교옆)이



읍내동 현대아파트



<그림 13> 주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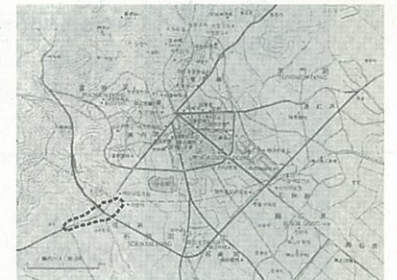
30,000평 대지에 1903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주거지역이 확대되었다 <그림13>.

라. 공업지역

변경된 준공업지역인 예천동에 1987년 11월 약 3400평 대지에 영창공업사가 지어지면서 주변에 종합자동차정비공업사(1급 2개소)가 들어서고 자동차관련종합서비스 및 전문공장(카센터, 자동차서비스, 종합카인테리어, 오토밋션, 밋데리, 타이어, 시트카바, 자동차실내크리닝, 라지에타 등), 자동차부품상점, 크레인, 펌프카, 추레라, 중기, 렉카 지게차 공장, 자동차매매상사, 세차장들이 집적이익(集積利益)을 따라 입지하고, 태양금속을 비롯한 건축자재제조 조립공장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그림 14>.



영창공업사주변



<그림 14> 공업지역

마. 녹지지역

1994년 12월 서산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의하여 29,548km를 녹지지역으로 결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시가지 외곽지역은 모두 표시할 수 없어 그림은 생략한다.

III. 맺는 말

위에서 시대별로 서산시의 기능지역 분화에 관해 살펴보았다. 도시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시가지가 발달하고 시가지의 기능도 뚜렷이 분화되기 시작하여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중심업무지구의 중심업무기능을 담당할 관공서가 외곽으로 분산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교육청, 공립의료원, 한국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서산경찰서가 외곽으로 나갔고 우체국이 외곽에 건축중이고 앞으로 법원 검찰청이 예천동으로 이전된다. 또 외곽에 고밀도 주거지역인 아파트단지가 생기고 있다. 그렇게 되면 시가지의 부도심지(副都心地)가 따로 형성될 것이며 시가지 기능도 변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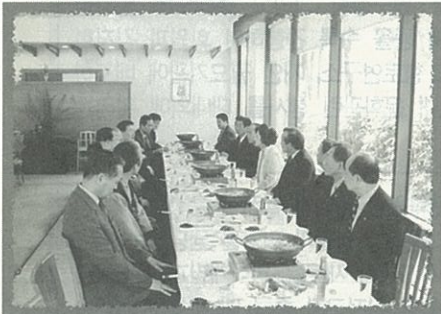
2004년 충남도지회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향토사연구 활성화사업 「충남지역 향토사 자료 공모」	• 일시 : 2004.10.15 • 장소 : 당진문화원 • 대상 : 문화원 및 향토연구회 회원 등	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사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국사 정립과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고자 매년 개최하고있는 사업으로써 해를 거듭할 수록 질높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입선한 4개의 논문작품에 대해 시상식과 최우수(조중현), 우수(임영수)논문에 대하여 발표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로 궁금한 점을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마련하였으며, 초청특강으로 향토사가인 전 서산문화원 김현구 원장으로부터 '향토사 연구의 실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내용의 강의도 이어졌다. <table> <tr> <th>성 명</th> <th>제 목</th> <th>등급</th> </tr> <tr> <td>조중현</td> <td>금석문으로 본 임·병 양란의 논산선비들의 활동</td> <td>최우수</td> </tr> <tr> <td>임영수</td> <td>승경도 놀이 연구</td> <td>우 수</td> </tr> <tr> <td>윤홍수</td> <td>정산만향정 복원</td> <td>장 려</td> </tr> <tr> <td>이정구</td> <td>지천리 산시제 고찰</td> <td>장 려</td> </tr> </table>	성 명	제 목	등급	조중현	금석문으로 본 임·병 양란의 논산선비들의 활동	최우수	임영수	승경도 놀이 연구	우 수	윤홍수	정산만향정 복원	장 려	이정구	지천리 산시제 고찰	장 려	
성 명	제 목	등급																	
조중현	금석문으로 본 임·병 양란의 논산선비들의 활동	최우수																	
임영수	승경도 놀이 연구	우 수																	
윤홍수	정산만향정 복원	장 려																	
이정구	지천리 산시제 고찰	장 려																	
2	2004 충청남도 문화예술인 대회	• 일시 : 2004.10.320 • 장소 : 홍주문화회관 • 대상 : 도내 문화예술인	충남도내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남의 문화예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창작의욕 진작 및 향토고유문화 창달의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로서 문화예술발전에 공이 지대한 사람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다채로운 공연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상호 문화예술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됨																
3	2004년도 지역축제 평가 개선발전워크샵	• 일시 : 2004.11.30~12.1 • 장소 : 한화콘드 • 대상 : 축제주관단체, 문화원, 시군 공무원 등	축제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 축제주관 단체 및 문화원,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실시함. 금년도 개최된 30여종의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시군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한 자료를 전문연구원 또는 대학교수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워크샵 행사시 이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최종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feedback하여 축제를 더듬어 나가는 계기가 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4	忠南文化 제8호	• 일시 : 2004.1~12월 • 대상 : 도내 문화원	충남도지회가 출간하는 『忠南文化』는 본지회의 연간 활동상황과 회원들의 향토문화에 대한 조사·발굴·연구상황 그리고 충남도의 문화행사 및 시책 등을 수록 간행하여 회원과 각지회 및 문화원, 향토연구소, 개인 필요기관에 배포하여 충남도내 문화관련 행사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됨	
5	중국문화탐방	• 일시 : 2004. 11.7~11.12 • 장소 : 중국 內 상해, 항주, 해염, 가흥, 주장, 남경, 소주일원 • 대상 : 원장, 사무국장 등	도내 각 문화원의 운영과 발전적 문화활동의 전개를 위해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문화원 종사자들의 새로운 의식개발과 지역문화발전의 기틀을 다지고자 중국 내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문화시설, 독립운동 관련 유적 등의 탐방을 통한 다양한 문화교류를 이룰 수 있는 특별사업	
6	지역특성화 문화발굴 육성 문화발전 대토론회	• 일시 : 2004. 9. 14 • 장소 : 충남대학교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백미홀 • 대상 : 도내문화원 및 대전광역시 문화원	지역의 전통성, 역사성, 독창성을 담은 특성화된 문화를 발굴, 활성화하여 지역 정체성 확립과 향토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사업.	
7	통합복권기금 문화체험프로그램	• 일시 : 11. 2 ~ 12. 5 • 장소 : 순창, 강진, 해남, 진도, 목포 등 남도지역 • 대상 : 충남도내 문화소외계층	2004 통합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뛰어난 자연풍경을 간직하면서 가는 곳마다 문화적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남도문화기행 체험프로그램을 6차에 걸쳐 시행 문화유산해설사 및 전문 해설사의 동행으로 남도의 문화와 예술 해설실시 (참여자 전체 무료, 숙식제공, 안내자료 및 간단한 음료 제공 등)	
8	운영위원회	• 일시 : 매월 또는 수시 • 대상 : 운영위원 7명, 원장	주요 현안 사업토의 및 예산(안)심의, 목적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등 협의	
9	월 레 회	• 일시 : 매월 또는 수시 • 대상 : 도내 문화원장	도내 17개 문화원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정보교류, 충남문화발전을 위한 정책토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공동의 목표추진 등을 위한 정례 모임	



▲ 정기총회(천안문화원)



▲ 4월 월례회 (보령한화콘도)



▲ 6월 월례회 (태안문화원)



▲ 8월 월례회 (서천문화원)



▲ 10월 월례회 (당진문화원)



▲ 1월 운영위원회(조치원문화원)



▲ 3월 운영위원회(부여문화원)



▲ 7월 운영위원회(홍성문화원)



▲ 9월 운영위원회(청양문화원)

충남도내 17개 문화원

전국문화원연합회충남도지회



지역특성문화발굴육성을 위한
문화대토론회(9.14 충남대학교)



▲ 복권기금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위원회(9.21 천안문화원)



▲ 충남지역향토사연구자료시상(10.15 당진문화원)



▲ 중국문화탐방(10.7~10.12) 중국주요도시



▲ 향토사연구논문심사(10.7 천안문화원)



▲ 2004충남문화예술인대회(10.30 홍주문화회관)



▲ 2004지역축제워크숍(11.30~12.1 보령한화콘도)

2004년 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2004년도 신년교례회	• 일시: 1. 2(11:00) • 장소: 천안웨딩코리아 • 참석인원: 300여명	공공기관, 단체,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기업계, 체육계 등 각계 인사들 초청 신년인사회 개최	
2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 일시: 2. 5 ~ 7 • 장소: 천안삼거리공원 • 참여: 기관단체장, 일반시민 등 1000여명	묘기연 및 대형연날리기시연회, 연날리기, 제기차기, 널뛰기, 투호던지기 등 읍·면·동대항 민속놀이 경연대회 및 연만들기, 제기만들기 교실 등 실시 시민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의 장	
3	정월 대보름 맞이 장승축제	• 일시: 2. 5(11:00) • 장소: 풍세면 민화전가 • 참여: 100여명	• 장승공원에서 신년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제례 • 전통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민속발굴의 의미를 새김	
4	2004 문화학교	• 기간: 4월 ~ 12월 • 과목: 12개 과목 • 수강인원: 400여명	• 요일별 개별강좌 기타, 다도, 꽃꽂이, 한문, 사진 등 12개 과목 • 유적지순례(5월 31일)-강화도	
5	수채화 교실	• 기간: 4월 ~ 12월 (매주 월, 화요일) • 수강인원: 60명	• 소묘, 데생, 수채화 초급 및 중급과정 아이스케치 및 전시회 관람 등 • 년 1회 작품전 실시	12. 18~21 작품전
6	시창작 교실	• 기간: 4월 ~ 12월 (매주 금요일) • 수강인원: 20명	• 예술강좌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론, 수사론, 문장론 등 시창작 강의 • 년 1회 시집 발간	
7	향토유적순례교실 (고적답사반 운영)	• 기간: 4월 ~ 11월 (격주 수요일) • 수강인원: 30여명	• 향토유적지를 중심으로 답사하는 프로그램 • 월 2회 답사(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및 실내강의 등 실시	
8	한고을 한문화운동 - 여류시인 김부웅 추모제	• 일시: 4. 25(11:00) • 장소: 광덕산 운초묘역 • 참석: 100여명	• 분향시낭송, 헌화, 제례, 다례, 시세계 조명강의 등 • 문인협회, 향토사연구소, 문화가족, 회원, • 차문화협회 천안지회 회원 등 100여명 참석	
9	온조대왕 제향 봉행	• 일시: 5. 12 • 장소: 직산현관아 • 참석: 50여명	고전문화연구회를 중심으로 온조대왕의 제향 봉행	
10	폴란드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 일시: 6. 15(19:30) • 장소: 천안백석대 백석홀 • 참석: 1,800여명	천안문화원 개원 50주년 및 천안흥타령축제 2004의 성공개최 기원을 위한 초청공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협연) 세계적인 연주단체 및 연주자의 초청공연으로 천안시 및 천안문화원의 이미지 위상 제고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1	개원 50주년 기념 문화예술제	• 일시: 7. 9 ~ 7. 14 • 장소: 강당, 전시실 등 • 참석: 300여명	• 7. 9 : 문화의 향기 - 국악관현악단 공연, 시 낭송, 문화원내 각종 서클 발표회 등 • 7. 10 : 50주년 기념비 제막식. 기념식(기념 사, 축사, 유공문화예술인 표창, 사 업보고, 지역문화선언문낭독, 문화 원송가 합창 등), 50주년기념 사진 전, 특별기획전, 문화원 발간 도서 전 등 전시회 및 문화뱅크 초청공 연등 실시 • 기관, 단체장, 일반시민, 문화예술인 등 참석	
12	"화미회" 수채화전	• 기간: 7. 10 ~ 14 • 장소: 전시실 • 참여: 회원 11명	수채화교실 수강생 중 중급과정을 이수한 11 명으로 구성된 "화미회" 다섯 번째 작품전	
13	글짓기 교실	• 일시: 7. 23 ~ 31 (10:30~12:30) • 대상: 초등학교 3~6년생 • 인원: 30여명 수강	• 초등학교 3 ~ 6학년 대상으로 신청접수 후 30여명 수강 • 작문지도, 독서지도, 원고지 작성법 등 강의	
14	"천안문화" 38호 발간	• 발행일: 8. 15 • 발행부수: 1,000부	향토문화정보지로서 상반기 천안지역 문화예 술소식, 논단, 장르별 활동, 기획 특집(개원50 주년 기념식 및 예술제) 등 수록	
15	향토문화자료 23집 "호국의 영웅 김시민 장군" 발간	• 발행일: 8. 25 • 발행부수: 1,500부	김시민 장군의 일대기 및 각종 자료를 수집 총망라하여 수록	
16	천안흥타령축제 2004	• 일시: 10. 1 ~ 3 • 장소: 천안삼거리공원 아라리오광장 등 • 참여인원: 100,000여명	• 천안지역의 고유 정서가 녹아진 「흥타령 춤·노래·의상」을 주테마로 신명, 감동, 열 정의 모습으로 표출되는 참여형 열린 축제 • 출경연, 거리퍼레이드, 개막식, 자유공연, 부대행사 등 실시	
17	제34회 학생 글짓기 · 사생대회	• 일시: 10. 2~3(14:00~17:00) • 장소: 천안삼거리공원 • 참여인원: 700여명	• 초·중·고생 대상 실기대회 개최 10.2(사생대회), 10.3(글짓기대회) (학교별·부문별 각 10명씩 추천 받아 실시) • 시상식 : 10. 9 (14:00)	
18	한마음 실내악단 제11회 정기연주회	• 일시: 12. 6(19:00) • 장소: 천안문화원 강당	• 부설 한마음 실내악단의 제11회 정기연주회 로 클래식, 외국민요, 가곡 등 연주 및 특별 출연등 80분간 실시 • 단원 30명으로 구성 매주 월요일 오전 연습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9	여성합창단 운영 -제11회 정기연주회	•일시: 12. 14(19:00) •장소: 천안시민회관 대강당 •참여인원: 1,000여명	•천안문화원 노래사랑 문화가족 여성합창단 레이디스 싱어즈의 열한번째 정기연주회 단원 60명, 성악가 특별출연 등 •매주 토요일 오전 합창연습, 영상음악감상	
20	한·일 작가초대전	•일시: 11. 24 ~ 30 •장소: 천안문화원 전시실 •참여인원: 20여명	한국, 일본 양국의 정상급 작가 초대전 (서양화)	
21	천안문화사랑 운영	•규모: 30평 •장소: 천안역 역사내 •기간: 11월	천안역 역사내 문화홍보관인 「천안문화사랑」 의 천안관련 홍보물(천안의 역사, 문화유적, 민요, 인물 등) 홍보판 제작 및 천안의 문화환 경, 도시현황 등 소개	
22	향토사연구소 운영 "향토연구" 제 15집 발간	•발행일: 11월 말 •발행부수: 1,000부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정기회지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들의 연구논문 수록	
23	2004 오늘의 천안미술전	•기간: 12. 6 ~ 9(4일간) •장소: 전시실 •인원: 30여명	<디자인에서 살펴보는 2004 오늘의 천안미술전> 대상 : 단국대 등 관내 대학 디자인과 교수 부문 : 시각, 공예, 섬유, 도자, 유리조형, 제품 디자인 등	
24	"천안문화" 39호 발간	•발행일: 12월 초 •발행부수: 1,000부	향토문화정보지로서 하반기 천안지역 문화예술 소식, 논단, 장르별 활동, 기획 특집 등 수록	
25	유화교실 작품전	•기간: 12.23 ~ 26(4일간) •장소: 전시실 •인원: 15명	유화교실 수강생들의 두 번째 수료 작품전	
26	영상문화교실	•기간: 11월 ~ 12월	영상자료(DVD, VCD, CD-T, CD 등)구입	
27	청소년 어울마당	•일시: 12월중 •장소: 천안문화원내 문화사랑방 •참여인원: 100여명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천안문화원 기타동 아리공연, 시낭송, 청소년독서서를 토론회 및 초청 문학강연 기타리스트 초청공연 등 실시	
28	선진문화탐방	•기간: 12월중 •장소: 남도기행 •참여인원: 30여명	회원, 문화가족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탐방	
29	향토사조사연구사업	년 중	향토사 관련 자료 수집(문헌 및 향토사 관련 원고 등) 등	
30	향토사료관 운영	•기간: 년 중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리, 보완 등 각급 학교의 단체관람, 일반시민 등 연중 관람	



▲천안문화원 주최 2004 신년교례회



▲천안문화원 개원 50주년 기념행사



▲백제시조 온조대왕 제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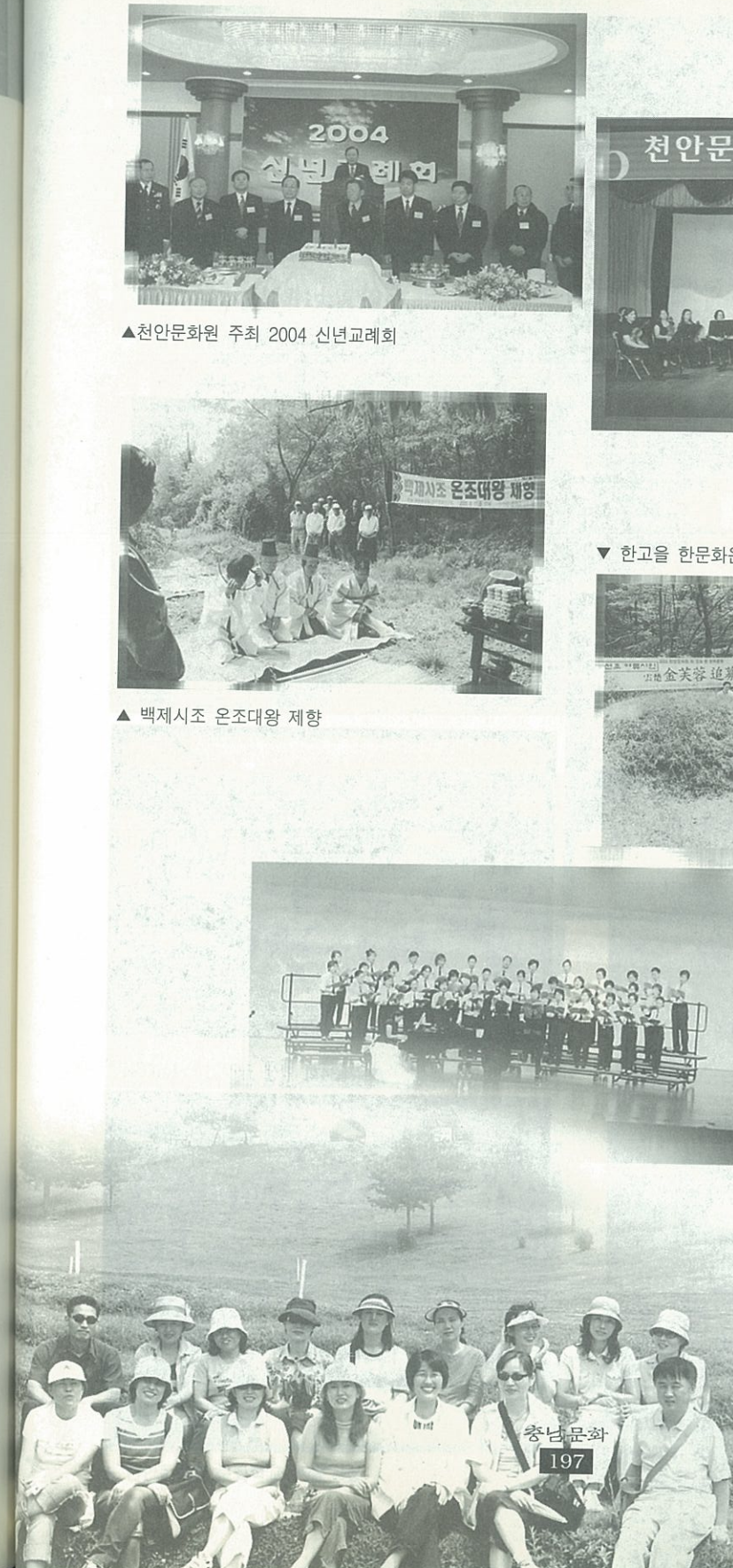
▼한고을 한문화운동-운초 김부옹 초모제



◀천안문화원 「레이디싱어즈」
제11회 정기연주회



◀문화학교
-유적순례반





▲ 2004 흥타령 축제

▼ 천안문화원 한마음실내악단 제11회 정기연주회



▼ 2004 향토축제개선을 위한 토론회



어린이 글짓기 교실 ▶



▼ 제34회 학생 글짓기 · 사생대회



충남문화 198

▼ 년중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는 천안문화원



▲ 천안문화원 문화학교-수채화교실



▲ 천안문화원 문화학교-실내악교실



▲ 천안문화원 문화학교-다종이 인형공예



▲ 천안문화원 문화학교-한문교실



▲ 천안문화원 문화학교-시창작교실



▲ 천안문화원 문화학교-유화교실

인구 50만진입 축하 음악회

45주년 기념 천안 대공연

패티김

"I did it My Way"

2004년 12월 9일(목) 19:30
유관순체육관

입장료: 10,000원

예매처: 천안시청 민원실, 읍·면·동 사무소
공연문의: 천안시 300-20311, 천안문화원 575-3004

천안시 · 천안문화원

천안시 인구50만돌파 기념
-패티김 초청공연

충남문화 199

2004년 아우내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유관순열사 추모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	• 일시: 10. 12 • 장소: 유관순열사사우 • 참석인원: 300명	순국 제84주기 유관순열사 추모기념 천안시 초·중·고학생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함으 로써 유관순열사 및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 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창작활동의 기회를 부여함	
2	내고장문화 인물발굴	• 일시: 12월 • 발행처: 아우내문화원 • 발행수: 500부	우리고장의 인물인 조선시대 선인 박문수어사 의 행적을 조사하여 자료집을 펴내어 업적을 기 리며 널리 전파함	
3	3.1절 기념 봉 화 제	• 일시: 2. 28~29 • 장소: 아우내장터 → 추모각 • 참석인원: 1,000명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을 깊이 추모하고 계 승·발전시키고자 그날의 함성을 재현, 이날 행 사는 아우내장터에서 사적관리소 광장까지의 횡 불행진과 봉화제, 만세 3창등으로 이어졌으며 시민의 단결과 애항심을 함양케 함	
4	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 일시: 2. 5~7 • 장소: 천안삼거리공원 • 참석인원: 1,000명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사물놀이 공연 및 시루 떡 절단, 연날리기등의 부대행사와 전통민속놀 이인 윷놀이, 널뛰기, 투호던지기등의 대회를 개 최하여 한마당 잔치를 이룸	
5	민학전가 장승축제	• 일시: 2. 5 • 장소: 천안 풍세면 보성리 • 참석인원: 300명	지역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토속문화 장승축제로 석공예, 목공예 작품 100여점등의 민속공예품 전시와 풍물놀이, 국악등을 접목시 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	
6	해외문화교류	• 일시: 11. 7. ~ 12 • 장소: 중국의 주요 문화 유적지 • 참석인원: 20명	지역문화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외 문화 유적지와 축제등을 탐방 새로운 문화의식을 재 고,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대책 협의	
7	작은도서관 운 영	• 일시: 상시 • 장소: 아우내문화원 • 참석인원: 무제한	양질의 도서및 향토자료등을 비치하고 지역민들 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고 열람 및 대출을 통해 독서생활에 일조를 함.	
8	백일장 및 사생대회 시 상 식	• 일시: 11월 • 장소: 아우내문화원 • 참석인원: 100명	학생들의 창작능력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우 수작품을 선별하여 상장 및 부상품을 수여.	
9	입 상 작품집발간	• 일시: 11월 • 장소: 아우내문화원 • 발행수: 500부	청소년들의 생각과 사상이 묻어있는 백일장 및 사생대회의 입상작품을 책에 수록하여 발간.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0	허수아비축제	• 일시: 9월20~10월20일 • 장소: 유태평양캠프 • 참석인원: 1,000명	허수아비를 다양한 내용의 테마로 구성 및 제작 하여 가족과 함께 보고 즐길수 있는 문화체험의 장을 펼침.	
11	청소년 역사탐방	• 일시: 10월29일 • 장소: 공주,부여 문화유적 지 • 참석인원 : 200명	청소년들에게 역사적인 문화유적지를 답사케 하 여 산지식을 터득케 함.	
12	꽃꽂이 강습회	• 일시: 10월~12월 • 장소: 아우내문화원 • 참석인원: 50명	지역주부들을 대상으로 꽃꽂이 강좌를 실시하여 꽃예술품 습득함은 물론 아름다운 가정을 가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줌.	
13	주부문화강좌	• 일시: 12월 • 장소: 아우내문화원 • 참석인원: 50명	관내주부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와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14	풍물놀이 강 습 회	• 일시: 11월~12월 • 장소: 아우내문화원 • 참석인원: 50명	강사를 초빙 지역민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열어 건전한 여가생활과 문화의식을 조성	
15	사이버문화원 운영	• 일시: 상시 • 홈페이지: http://aunae.cult21.or.kr/	지역향토문화소식 및 문화활동 상황등의 이미 지, 동영상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운영함.	
16	통합복권기금 역사·문화체험	• 일시: 10월14일, 16일 • 장소: 관내 및 충청서해 지역, 대구동구지역 문화 유적지 • 참석인원: 150명	소외계층의 지역민에게 역사·문화 체험의 프로 그램을 제공하여 직접참여도 하고 즐길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킴.	



백일장 및 사생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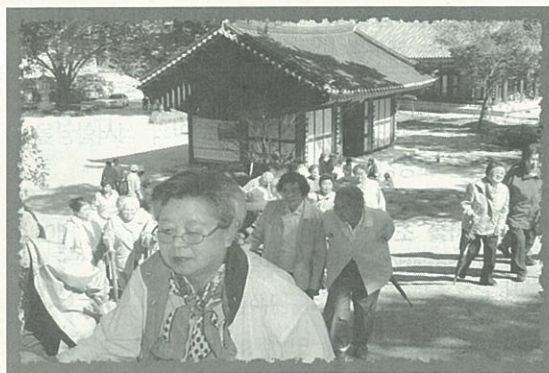


2004년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 청소년역사탐방



▲ 역사·문화체험(태안마애삼존불상내)



◀ 대구동구지역(동화사)

▼ 민화전가장승축제(인간문화재 명창 신영희 선생 초청공연)



▼ 대보름 맞이 민속놀이한마당(투호던지기)



▼ 허수아비축제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컴퓨터교실(Ⅰ)	• 일시 : 2004. 6.29~8. 3 (매주 월~토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20명	컴퓨터 기초활용을 위한 윈도우 운영 및 인터넷 정보활용 방법 교육	년30회 문화학교
2	한문교실	• 일시 : 2004.8.16~ 12월 (매주 월~금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25명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생활한자	년30회 문화학교
3	서예교실	• 일시 : 2004. 11~12월 (매주 월~금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20명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 궁체지도	년30회 문화학교
4	컴퓨터교실(Ⅱ)	• 일시 : 2004. 11.10~12.15 (매주 월~토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15명	컴퓨터 기초활용을 위한 윈도우 운영 및 인터넷 정보활용 방법 교육	년30회 문화학교
5	여성취미교실 (꽃꽂이강습)	• 일시: 2004. 9/21, 10/5, 10/12 10/19, 10/26, 11/2, 11/9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140명	생활꽃꽂이 지도	년7회
6	청소년문화 강연회	• 일시 : 2004. 11~12월 • 장소 : 관내학교 • 참석인원 : 1,000명	관내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에 관한 강의	년5회
7	청소년음악회	• 일시 : 2004. 11월중 • 장소 :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인원 : 500명	청소년 대상으로 문화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정서함양 기회마련	년1회
8	제22회 내고장자랑 글짓기	• 일시 : 2004. 10. 23 • 장소 :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인원 : 400명	관내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내고장자랑에 관한 글짓기 공모, 시상	시상 11월27일
9	제15회 애향의식고취 그림그리기	• 일시 : 2004. 10. 23 • 장소 :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인원 : 300명	관내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공모, 시상	시상 11월27일
10	제7회 경로효친 휘호대회	• 일시 : 2004. 10. 23 • 장소 :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인원 : 100명	관내 초·중학생 대상으로 경로효친에 관한 서예공모, 시상	시상 11월27일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1	입상작품집 발간	• 발행 : 2004. 11.20 • 발행부수 : 500부 257작품(국판칼라)	글짓기, 그림, 휘호대회 입상작품집 발간	500부
12	제14회 내고장문화유적 순례	• 일시 : 2004. 6/28, 7/2, 7/19, 11월중 • 장소 : 천안시일원 • 참석인원 : 180명	유적지 답사를 통해 우리 것에 대한 금지와 애향심을 함양시킴	년4회
13	사이버향토 문화원관리	• 일시 : 연중 • http://sunghwan.cult21.or.kr	각종 지역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 여 지역문화 및 지역정보 홍보자료로 활용	
14	세시풍속웃놀이	• 일시 : 2004. 2. 6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80명	민속놀이를 통한 화합 단결 및 친목 도모	년1회
15	역주신증동국 여지승람(천안편)	• 발행 : 2004. 12월중 • 발행부수 : 500부 국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있는 천안편을 근거로 원문풀이, 인물소개, 관련서적 소개, 풀이 등 역주 책자 발간	500부
16	내고장명가를 찾아서① 발간	• 발행 : 2004. 12월중 • 발행부수 : 500부 4×6배판	성환읍에 14대째 거주하고 있는 초계 정씨 문중의 자료를 조사 정리하여 당시의 역사성 및 생활상등의 우리고 장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도록 책 자 발간	500부
17	우리고장 문화 알리기	• 일시 : 2004. 5/28 • 장소 : 백제문화권 일원 • 참석인원 : 45명	지정문화재와 유적지를 중심으로 현 장을 답사하면서 향토의식 고취를 위 한 설명을 병행하고 향토문화 안내책 자 및 문화원소개전단 배포	년1회
18	문화원장 이·취임식	• 일시 : 2004. 2. 27 • 장소 : 문예회관 • 참석인원 : 300명	이임원장-7, 8대 지해두 취임원장-제9대 송용삼	
19	2004통합복권기금 "문화체험 프로그램"	• 일시 : 2004. 9/22, 10/17, 11/3, 11/7, 11월중 • 장소 : 안동, 천안관내 유적, 변산반도 • 참석인원 : 240명	문화소외지역의 독거노인, 관내불우 학생, 청소년, 주민등을 대상으로 자 연기행 및 생활문화체험	년6회
20	지역 "문화홍보관" 조성	• 일시 : 2004. 12월중 • 장소 : 성환역 구내 • 방법 : 이동식안내판 설치 8개	향토문화의 체계적인 홍보를 통한 애 향의식고취 및 다중공공기관에서의 문화홍보 역량제고	년중



▲ 컴퓨터교실(1)



▲ 한문교실



▲ 컴퓨터교실(II)



▲ 여성취미교실(꽃꽂이강습)



▲ 제22회 내고장자랑글짓기



▲ 제15회 애향의식고취그림그리기



▲ 제7회 경로효친 회포대회



▲ 세시풍속 웃놀이



사이버향토문화원관리 ▲



▲ 문화원장 이·취임식



▲ 우리고장 문화 알리기

▼ 2004통합복권기금 "문화체험프로그램"



◀ 제14회 내고장 문화유적순례



2004년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2004 갑신년 신년교례회	• 일시 : 2004년 1월 3일 (11: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400명	관내 각종 기관 및 사회단체장 기업체장 유지 신년하례 인사 교류 및 축하연	
2	반향 공주문화 소식지 발간	• 기간 : 1월~12월 • 4x6배판 68쪽 • 격월 발간 3,000부	웅진춘추, 공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바로이 분, 고사와격언, 향토사료, 이달의 문화인물, 내고장소식, 문화원소식, 문화가 산책 등	
3	예인촌 정기공연 -갑신년 새해 우리문화 마당	• 일시 : 1/9, 19: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250명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 - 선헌리지게놀이, 우리소리마당, 극단파고 의 탭댄스, 진도북춤, 승무, 신년고사소리, 추원만정, 피리 및 쇠납 등	
4	예인촌 정기공연 극단 "파고" 아름다운사인2004	• 일시 : 2/13 19:00 2/14~2/15 16:00, 19: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300명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 - 극단 '파고' 작품명 : 아름다운 사인 2004	
5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 일시 : 2/23~6/30 (주1회~2회)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회 의실, 놀이마당, 문화사랑방, 전시실 • 참석인원 : 200명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로 문화심성개발 과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 감성훈련을 통하여 계층간 문화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 육의 장을 제공 ① 가곡반 ② 풍물반-초급 ③ 풍물반-중급 ④ 댄스스포츠반-초급 ⑤ 댄스스포츠반-중급 ⑥ 국선도반 ⑦ 서예반 ⑧ 생활영어반 ⑨ 사진예술반	
6	예인촌 정기공연 -이결재의 공주소리	• 일시 : 4/9 19:00 • 장소 : 공주문화원강당 • 참석인원 : 150명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 - 흥을 부르는마당, 함께하는 소리, 가슴속 의 노래들 등	
7	예인촌 정기공연 -"아이랑 어른이랑"	• 일시 : 5/14 19: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300명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 - 신행무, 농부가, 태평무, 단가, 댄스스포츠, 미션챔버합주단 등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8	제9회 "효"사상선양 공주시 초·중·고 학생 백일장	·일시 : 6/3 14:00 ·장소 : 공산성 쌍수정광장 ·참석인원 : 500명	효의 본고장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효사상을 선양 고취시키고 문학의 저변확대 - 참가대상 : 공주시 초·중·고학생	
9	제14회 공주시 여성한글백일장 및 문학강좌	·일시 : 6/10 10:30 ·장소 : 공산성 쌍수정광장 ·참석인원 : 100명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유도와 문학의 저 변확대 참가대상 : 충청남도 여성, 대학생, 직장인 등	
10	예인촌 정기공연 극단 "파고" -방황하는 별들	·일시 : 6/11 19:00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참석인원 : 200명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 - 극단 '파고' / 작품명 : 방황하는 별들	
11	공주미술협회 학생미술실기대회 시상식 및 전시회	·일시 : 6/9~6/12 15:00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제1전시실 ·참석인원 : 300명	공주미술협회 학생 미술실기대회 시상식 및 전시회	
12	『역사·문화마을 만들기』사업 봉현농경문화마을 "모내기"체험행사	·일시 : 6/12 14:00 ·장소 : 우성면 봉현리 ·참석인원 : 3000명	-사라져가는 전통농법을 재현 -전통문화를 발굴·재조명·재구성 -"모내기"체험	
13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	·일시 : 6/24 19:00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참석인원 : 200명	수료식 및 발표회 - 옷다리풍물, 서예전시, 가곡발표, 댄스스 포츠 등	
14	공주문화원 가곡반 -가곡발표회	·일시 : 6/28 19:30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참석인원 : 150명	가곡교실 회원들의 갈고 닦은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 마련 - 못잊어, 보리밭, 진달래꽃, 꿈, 고향생각, 청산에 살리라 등	
15	제8회"효"사상선양 공주시 초·중·고 학생 백일장 시상식	·일시 : 6/29 16:00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참석인원 : 100명	- 백일장 시상식 - 참가대상 : 공주시 초·중·고 학생	
16	예인촌 정기공연 "권재덕의 옛소리"	·일시 : 7/9 19:30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참석인원 : 200명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 - 서낭재, 모심기놀이, 탑놀이노래 등	
17	『역사·문화마을 만들기』사업 봉현농경문화마을 "김매기"체험행사	·일시 : 7/11 9:00 ·장소 : 우성면 봉현리 ·참석인원 : 3000명	- 사라져가는 전통농법을 재현 - 전통문화를 발굴·재조명·재구성 -"김매기"체험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8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일시 : 7/26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참석인원 : 200명	·언플러그드 뮤지컬 공연 작품명 :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19	『역사·문화마을 만들기』사업 봉현농경문화마을 "우당탕탕 원두막 짓기"	·일시 : 7/26~7/29, 13:00 ·장소 : 우성면 봉현리 봉현초등학교 ·참석인원 : 150명	·자연과의 교감, 생각의 확장 ·인성교육 프로그램 ·'우당탕탕 원두막짓기' 체험	
20	『역사·문화마을 만들기』사업 봉현농경문화마을 "여름드레마당"	·일시 : 8/13 14:00 ·장소 : 우성면 봉현리 ·참석인원 : 3,000명	·사라져가는 전통농법을 재현 ·전통문화를 발굴·재조명·재구성 ·"여름드레마당"체험	
21	예인촌 정기공연 "한여름밤 여름나기"	·일시 : 8/13, 19:30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참석인원 : 250명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 - 권재덕의 옛소리, 탭댄스, 댄스스포츠, 퍼포먼스, 가야금연주, 이걸재의 공주소 리, 한국무용 등	
22	2004 통합복권 기금지원사업 지역문화원중심지역문화체험	·일시 : 9/16~9/22, 9:00 ·장소 : 공주지역 내 박물관중심 ·참석인원 : 200명	·지체장애인, 영세민을 대상으로 공주 지역의 박물관 문화체험 ·명주원, 변영생원, 삼취복지원, 장애인 연합회 행사참여	
23	예인촌 정기공연 "환경음악회"	·일시 : 9/17 19:30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참석인원 : 200명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 - 공주영교코스합창단의 환경음악회 - 샘물이 혼자서, 개구리소년 왕눈이, 사공의 그리움, 효도실천 제일공주 등	
24	제50회 백제문화제 사진전시회	·일시 : 10/9~10/12, 10:00 ·장소 : 공주문화원 제1전시실	제50회 백제문화제 사진전시	
25	제18회 전국남여 시조경향대회	·일시 : 10/10~10/11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참석인원 : 200명	제18회 전국남여시조경향대회	
26	2004 결식아동돕기 자선공연	·일시 : 10/16, 15:00,19:00 ·장소 : 공주문예회관 강당 ·참석인원 : 500명	·결식아동돕기 자선공연 ·사물놀이, 한국무용, 가야금창작곡, 공주소리, 한국무용, 연변가수, 탭댄스 ·부대행사 가훈씨주기 등	
27	청소년 대상 전국문화유적 순례답사	·일시 : 11/4, 11/10 ·장소 : 공주시, 부여군일원 ·참석인원 : 150명	청소년들에게 옛전현들의 숨결이 살아있 는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향 토문화유적답사를 통하여 호연지기를 기 르며 조상의 얼과 정신을 배움	

2004년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 여성한글백일장



▲ 문화학교수료식



▲ 지역문화학교



▼ 봉헌모내기



▲ 효사상선양학생백일장

2004 통합복지기금 지원사업
지방문화원중심 지역문화체험

• 주최: 전국문화원연합회 • 주관: 공주문화원
 • 후원: 문화관광부·복지기금위원회 • 일시: 2004년 9월 16일~22일까지

◀ 지역문화체험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서산의 해양 민속조사	• 일시: 1월~12월	서산 지방의 연안지방을 대상으로 전문학술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연구, 조사하고 이를 책자로 편집, 발간함.	
2	문화의식 강좌	• 일시: 7월13일,16일 • 장소: 서산문화원 • 참석인원: 300여명	• 15개 분원을 2회로 나누어 분원을 더욱 활성화 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촉진함. • 서산문화원의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설명과 문화의식에 대해 서산문화원장이 강연함.	
3	문화유적 현장학습	• 일시: 10월29일 • 장소: 경남하동 • 참석인원: 40여명	•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직접 현장을 답사하며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 보호의식과 우리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기질 수 있도록 함. • 경남 하동군 악양 명치원으로 차의 향기를 찾아라는 이름으로 문화가족 40여명이 답사함.	
4	문화대상 시상	• 일시: 11월 5일 • 장소: 서산문화원 • 수상자: 1명(송국범)	• 향토문화 예술진흥에 공이 많은 인사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이 고장의 명예와 후생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함.	
5	청소년문화상 시상	• 일시: 11월5일 • 장소: 서산문화원 • 수상자: 9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행, 예행, 선행 3개부문의 청소년 문화상을 시상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	
6	이달의 문화인물 기념행사	• 일시: 1월~12월 • 장소: 해당장소	정부가 지정하는 이달의 문화인물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조명해 보는 행사를 매월 실시함.	
7	정보자료실 운영	• 일시: 1월~12월 • 장소: 정보자료실 • 시행방법: 회원 및 일반인	정부가 지정하는 작은 도서관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신간도서 구입, 각종 영상자료물구입, CD구입, 문화원간 배부 서적 및 각종자료 등을 통해 내실을 확충해 가며 지식정보 제공의 산실로 널리 활용하여 향토사 중심의 특화된 도서관으로 발전시킴.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8	사이버 문화원 운영	• 일시 : 1월~12월 홈페이지 http://seosan.cult21.or.kr • 시행방법 : 회원 및 일반인들에게 다양하고 빠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충청남도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문화원 고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컴퓨터 정보통신 체계를 활성화하고 각종 지역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디지털 지역정보센터로 운영함.	
9	향학관 운영	• 일시 : 10월 8일 • 장소 : 서산문화원 • 참석인원 : 150명	서산출신 학자들로 이루어진 서산지역 문화발전연구원을 창립하고 기념행사로 서울대 명예교수 이종상교수를 초청하여 세계문화유산과 고구려 고분벽화의 의미라는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함	
10	초대전 제2회 내포바람전	• 일시 : 11월 18일~22일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현직 미술교사	•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 지역적 특색을 바탕으로 한 전시회를 개최 • 중고등학교 현직 미술교사들로 구성된 서산시 미술교과교육연구회회원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실시함	
11	문화원 평생 교육강좌	• 일시 : 1월~12월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회원, 일반인	문화관광부의 지역문화학교 운영 지침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일반 교양강좌와 지역문화학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강좌를 평생교육강좌로 개설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함.	
12	서산의 지정 문화재 영상 자료제작	• 일시 : 4월~12월 • 대상 : 초·중·고, 학계, 일반인등	우리지역의 지정문화재를 영상자료화하여 지역내 초·중·고등학교에 발송학습자료로 활용하고 학계의 연구용 및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에게 배포 지역의 소중한 문화를 대내외에 홍보함	
13	「스산의 숨결」 발간	• 일시 : 1월~12월 • 발간부수 : 2,500부 • 대상 : 회원, 출향인사 각급기관,전국문화원	문화원의 소식지인 스산의 숨결을 36면 2,500부를 발간하여 회원 및 출향인사 전국문화원 등에 보급하여 향토문화교향지로 발전시킴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4	제6회 청소년 문학제	• 일시 : 9월 19일 • 시상식 : 11월5일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서산지역의 초·중·고등학생	• 서산지역의 초·중·고등학생 600여명이 참석하여 백일장을 실시하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시상식을 가짐 • 또한 수상한 학생들의 작품을 책자로 발간함.	
15	박첨지놀이 해외공연	• 일시 : 11월11일~15일 • 장소 : 일본	탐곡리 농촌마을의 순수 마을주민 (농민)들로 구성된 도지정무형문화재 (제26호)인 박첨지놀이를 일본을 방문하여 공연함.	
16	향토사료관 운영	• 일시 : 1월~12월 • 장소 : 서산향토사료관 • 규모 : 170평	향토사료관의 상시운영으로 지역향토사의 구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많은 내방객이 방문하는 지역의 산교육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토사료관을 연중 운영함.	
17	청소년 푸른 음악회	• 일 시 : 5월 29일 • 장 소 : 서산문화원 • 참석인원 : 200여명	청소년들이 좀더 밝은 감성으로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청소년, 학부모 200여명을 초청하여 음악회를 개최함. 플루트, 첼로, 클라리넷연주 및 시낭송, 통기타연주등 시와 음악이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함	
18	찾아가는 우리 전통 차 시연	• 일 시 : 11월 • 장 소 : 해당학교 • 대 상 : 서산관내 오지 학교	문화적 혜택이 적은 오지지역의 학교를 직접 찾아가 우리의 전통차 문화를 보급하여 학생들에게 다도예절 교육을 통해 우리 조상의 슬기와 지혜를 배울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	
19	자유발언대	• 일시 : 11월6일 • 장소 : 1호광장 • 대상 : 초·중·고등학생	청소년들에게 톡톡튀는 주장과 성숙한 의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며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20	지역문화체험 프로그램	• 일시 : 10월9, 11, 19일 • 장소 : 인지, 부석사, 대산 참샘골 호박농장 • 대상 : 모자기정,노인270여명	문화적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외지역 농어촌을 대상으로 유적답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향수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1	향토사료 수집	• 일시 : 1월~12월 • 대상 : 향토사료(토기류)	전년사업에 이어 백제토기를 중심으로 사료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향토사료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토사료관에 전시함으로써 사료관 활성화에 기여함.	



2004년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 내포바람전



▲ 자기주장발표대회

▼ 청소년 푸른음악회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갑신년 신년교례회	• 일시 : 2004.1.2 • 장소 : 문화예술회관 • 참석인원 : 250명	각급 기관 및 단체장들과 많은 문화계인사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 함	
2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 일시 : 2004.2.5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앞마당 • 참석인원:300명	충남문화유산해설사회가 주관하여 제기차기, 투호 등 민속놀이경연이 펼쳐졌고, 가훈씨주기, 종이공예전시회, 소원빌기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3	내고장문화유적답사	• 기간 : 전반기(3월~7월) 후반기(9월~11월) • 참가인원 : 시민 및 단체 전반기 600명	논산8경을 대부분 제외하고, 유서깊고 아름다운 문화유적지를 선정하여 예학과 충절의 고장 논산을 시민에게 알리는 문화유적답사를 실시	
4	중요무형문화재 제90호 황해도 평산 '소놀이 굿' 공연	• 일시 : 2004. 3. 25 • 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참석인원 : 150명	전통문화 공연을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연극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소 문화예술품을 관람하기 어려운 장애우들을 특별 초청하여 문화생활을 함께 향유 함	
5	논산시 문화재 백일장, 그림 공모	논산시 각 초·중·고에 6월중 문화재와 관련 된 작품을 공모, 그림 456점과 원고 82부가 접수되 심사 및 일부시상	논산시 각 초·중·고에 논산의 문화재와 관련된 주제로 그림과 원고를 공모하여 논산의 문화재에 대해 학생들이 관심과 사랑을 갖도록 하였으며, 올 12월 시상식을 갖을 계획	
6	청소년을 위한 푸른음악회	• 일시 : 2004. 6. 4 • 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참석인원 : 400명	강경상업정보고, 논산여자상업고, 육군훈련소 군악대의 관악협주와 논산 색소폰 동호회의 연주가 학생 및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	
7	논산시 읍·면·동 노인 장기 대회	• 일시 : 2004. 6. 20 • 장소 : 놀이회관 • 참석인원 : 150명	관내 읍·면·동 별로 각 노인정에서 추천한 선수들이 참가하고, 시민들이 함께 구경하는 대회. 총 62명의 출전선수 가운데 채운면 용화2리 김민수씨(61세)가 차지 함	
8	서예회화 대회	• 일시 : 2004. 9. 18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참석인원:100명	논산 서예발전과 서예인들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대회를 개최,대상 일반부는 논산시 반월동 남승관 씨가 학생부는 논산여상 박상희 양이 차지 함. 12월에 전시회와 함께 시상할 계획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9	문화원 문화체험 (1, 2단계)	• 일시 : 2004.9.1~9.30 • 참석인원 : 230명(1단계) * 2단계사업 진행 중	통합복권기금으로 지원한 프로그램으로 1단계사업은 복지시설 여러분과 일곱차례에 걸쳐, 예학의 고장과 충절의 고장임을 알 수 있는 곳으로 몸이 다소 불편해도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유적지를 답사하고, 예절교육과 다도체험 함	
10	「논산문화」 발간	2003년 봄호부터 매회 80페이지정도 분량으로 1,800부씩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알찬 내용으로 연4회 계간지로 발간. 문화원 회원, 전국문화원, 관내 기관 단체, 출향인사 등 배포.	
11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연극공연	• 일시 : 2004.11.5 • 장소 : 건양콘서트홀 • 참석인원 : 500명	논산극단 '셋강'이 주관한 이번 공연은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문화적 소양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 시켰으며, 동시에 연극에 대한 관심을 고조 시킴	
12	송년 가족 시낭송회	• 일시 : 2004.12.28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참석인원 : 250명	한해를 보내며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를 통해 서로 교감하고, 시를 낭송하는 가족은 물론 시를 감상하는 시민들은 잊지 못 할 송년의 밤을 만듭	
13	계백장군 사당제	• 일시 : 11월 • 장소 : 부적면 계백장군묘 • 참석인원:300명	올해는 계백장군묘제를 사당제로 모시고, 유림대표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백장군의 충절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후손에게 전하고자 거행 함	
14	논산의 금석문 (金石文) 재발간	2004년 12월 중 발간에정	종전 1차 발간 된 바 있으나 누락된 비문도 있고, 한글 번역문이 없어 일반 시민들이 내용을 알 수 없었음. 이번에는 비문사진, 탁본, 한문원문, 한글번역문을 함께 실어 일반시민과 학생들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재발간.	
15	「논산문예」 제12집 발간	6월에 실시했던 논산시 문화재와 관련 된 원고 공모에서 입상한 우수작을 모아 문예 작품집으로 발간	문화원 주최로 시행 된 논산시 문화재 백일장 공모에서 입상한 우수작품을 모아 문예지 발간	
16	논산지역의 유명종가 제례의식 조사 연구	유명종가들의 불천위제, 세일사, 영당제, 시제, 기제 조사 연구	사계 김장생, 신독재 김집, 서석 김국광, 서정 김겸광, 익안대군, 팔송 윤항 불천위제를 비롯 명재 윤증의 영당제, 시제 등 조사	



▲ 2004 신년교례회



◀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 내고장 문화유적 답사



▼ 계간지 『논산문화』 가을호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연극공연

2004년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금산의 풍수지리조사	•금산의 풍수지리조사 •조사지역 : 금산의 전지역	금산의 풍수지리조사 용역	
2	삶꽃보고서 발간사업	•삶꽃보고서 발간	금산의 민속, 역사 발굴 조사	
3	금산문화학교운영	•일시 : 3~8월 •장소 : 금산문화원 •강좌수 : 6개강좌 •참여 : 122명	사물놀이, 문예창작(초급,중급), 서예강좌 (초급,중급), 한국화강좌(초급,중급) 판소 리강좌 통해 생활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4	금곡서회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서예동호인단체, 금곡서회 회원	문화학교 초급반을 이수한 회원들로 구 성된 고급과정 서예 전시회 개최	
5	금강민속축제	•일시 : 7.27~28일 •장소 : 부리면 평촌리 •참여 : 20,000명	금산농악판굿, 물폐기농요, 농바우끄시기 등 공연 금산의 민속체험 마당 (농바우 끄시기, 돌무들리기, 풍물놀이, 민요부르 기) 가족과 함께 하는 추억만들기마당	
6	금산문화예술제	•일시 : 10.25~30일 •장소 : 금산다락원 생명의 집 •참여 : 400명	문화의 달을 기념하는 종합문화예술제로 미술전시, 서예전시회 개최	
7	금산농악단운영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군내,자연마을 •참여 : 2,200명	•읍·면 농악경연대회개최 •각 마을에 금산농악전수 •금산농악 강습	
8	금산농악축제	•일시 : 12월31일 •장소 : 금산다락원 생명의 집 •주관 : 금산농악보존회 •참여 : 12,000명	금산농악 매굿과 큰기울리기, 제야의복 소리, 촛불켜기, 불꽃놀이, 초청공연 등	
9	금산민속연보존회	•일시 : 1~12월 •장소 : 장동달맞이축제 기타 축제 의 현장, 금산문화를 홍보하는 장소 •대상 : 금산민속연보존회회원	연 띄우기, 연만들기 체험교실운영, 연 전시회 등 연의 축제	
10	나아내풍물단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동호인단체 나아내풍물단 •회원 : 45명	•각종축제 금산풍물굿공연 •금산문화원학교 초급과정 이수한 회원 으로 구성 고급반 과정	
11	비단골산꽃축제	•일시 : 4.1~30일 •장소 : 군북면 산안리 •참여 : 15,000명	100여만평의 산벚꽃자생단지에서 꽃길여 행, 민속공연 등 자연친화적인 축제구성	
12	장동달맞이축제	•일시 : 2.4~5일 •장소 : 금산읍 양지리 장동마을 •참여 : 20,000명	•달과 불 그리고 풍물을 주로 하여 한 국을 대표하는 전통마을축제로 육성 •인삼, 약초와 연계 겨울 관광문화축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3	푸른빛합창단운영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40명	매주 목요일 「군민과 함께하는 노래모임」 개최	
14	창현회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한국화 동호인 단체 창현회원	•문화학교 초급과정을 이수한 회원으 로 구성된 고급 과정 •미술전시회 개최	
15	청소년동아리활동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참여 : 700명	매주 수요일 오후 문화원을 개방 토리 패 풍물단 운영	
16	청소년어울마당	•일시 : 7. 31일(1회) •장소 : 금강놀이마당 •참여 : 100명	청소년 여가 활동과 탐구 정신을 함양 하기 위하여 비단강 금강탐사 기행	
17	충청남도지사 주부풍물경연대회	•일시 : 6. 12일 •장소 : 충남당진군석문면 •참여 : 45명	충청남도지사기 주부풍물대회와 아내풍 물단 참가 장려상 수상	
18	제30회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일시 : 7.14일 •장소 : 태안군 문예회관 •참여 : 45명	충청남도합창경연대회에 금산을 대표하 여 참가	
19	풍각쟁이 발표회	•일시 : 10.22일 •장소 : 금산다락원 생명의 집 •참여 : 400명	금산문화예술제 노래모임 풍각쟁이의 국악공연	
20	삶꽃문화사랑운영	•일시 : 1~12월	•삶꽃문화사랑운영수당 •삶꽃문화사랑시설유지비	
21	3도3군연합축제	•일시 : 11.5일	3도3군연합 정기합창제	
22	소년소녀어린이합창단	•일시 : 1월~12월	매주 토요일,일요일 어린이 합창단	
23	청소년토리풍물단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참여 : 100명	매주 오후 문화원을 개방 토리패 풍물 단 운영 및 지도	
24	문화원소모임(동아리) 활동화	•일시 : 10~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참여 : 150명	군민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 식을 통하여 문화향수권 신장	
25	문화체험프로그램	•일시 : 10월중 •장소 : 문화탐방 •참여 : 150명	독거노인 대상으로 문화체험 탐방	

2004년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제14회 민속한마당	• 일시 : 10. 19예정 • 장소 : 군민회관대강당 • 참석인원 : 500명	10월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의 장기자랑 및 민속공연 한마당 개최	
2	농악교육 및 연습	• 일시 : 년중 • 장소 : 농악대사무실 • 참석인원 : 80명	매주 월~금 까지 웃다리 풍물 및 사물놀이 교육	
3	국악단 교육 및 연습	• 일시 : 년중 • 장소 : 농악대사무실 • 참석인원 : 35명	매주 토요일 경기민요 및 판소리 교육	
4	향토사운영	• 일시 : 년중 • 장소 : 연기군내및 군외 • 참석인원 : 200명	향토사료조사연구 활동 및 내고장 문화 교육	
5	문화유적답사	• 일시 : 6/11, 7/23, 8/16 • 장소 : 연기군내, 도내 • 참석인원 : 150명	유적지 순례를 통한 내고장 문화 알리기 및 유적답사	
6	제4회 연기대첩제	• 일시 : 11월 5일 예정 • 장소 : 서면 고북저수지 • 참석인원 : 300명	고려 때 몽고 합단적을 물리친 전투지에서 대제를 올림	
7	경로효친의 달 행사	• 일시 : 4월 28일 • 장소 : 수덕사 • 참석인원 : 350명	65세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적 답사	
8	노인학교 운영	• 일시 : 10. 20 예정 • 장소 : 군민회관대강당 • 참석인원 : 500명	군내 65세이 이상노인들을 위한 노인학교 운영	
9	성삼문 문화제	• 일시 : 10. 27 예정 • 장소 : 금남면 문절사 • 대상 : 학생,유림,일반인 • 참여인원 : 300명	충신 성삼문을 기리는 추모행사 및 백일장대회 개최	

▲ 제24회 금산인삼축제



▲ 산벚꽃 축제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0	독후감공모	• 일시 : 10. 27 예정 • 장소 : 문절사 • 대상 : 군내 초·중·고 학생 및 일반주부 • 참석인원 : 70명	군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사생대회 개최 및 독후감 공모	
11	사생대회개최	• 일시 : 11. 5 예정 • 장소 : 연기대첩공원 • 대상 : 초등부, 중등부 • 참석인원 : 300명	군내 초등부, 중등부를 대상으로 사생대회 개최	
12	전 시 회	• 일시 : 10. 15~20 예정 • 장소 : 전시실 • 대상 : 연기군민 • 참석인원 : 100명	서화의 맥을 잇고 있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시회를 개최 및 도자기 전시회	
13	군민친선바둑대회	• 일시 : 11. 8~9 예정 • 장소 : 군민회관소회의실 • 참석인원 : 150명	바둑기능인 양식 및 군민들의 상호친목도모	
14	해맞이 우리소리 한마당	• 일시 : 1. 3 • 장소 : 군민회관대강당 • 대상 : 문화예술인 • 참석인원 : 500명	2004년 해맞이 우리소리 한마당을 통하여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	
15	효자효부표창	• 일시 : 10. 19 예정 • 장소 : 군민회관대강당 • 대상 : 8개읍면 효자효부 • 참석인원 : 500명	8개읍면을 대상으로 효자효부표창	
16	독서실운영	• 일시 : 년중 • 장소 : 연기향토사무실 • 참석인원 : 연기군민	도서(고서)를 구입하여 독서실 운영	



▲ 농악대연습



새해맞이 우리소리한마당 개최 ▶

효자효부표창 ▶



▲ 전통소리교실운영



▲ 바둑대회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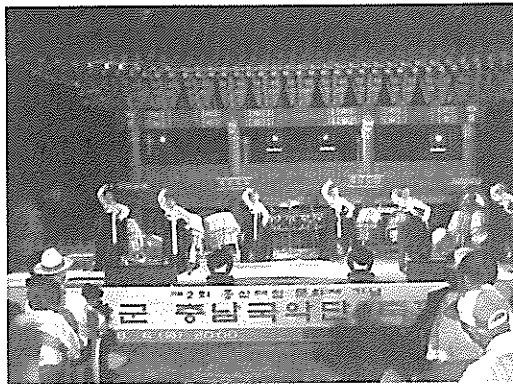
2004년 부여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전국 백제토기 물레경연 대회	•기간 : 2004. 10. 9~10. 10 •장소 : 백마강변 행사장 •참여인원 : 100여명	전국 도자공예전공 대학생들이 참여한 전국백제토기 물레경연대회행사	
2	어린이 역사교실	•기간 : 2004. 5. 2~11. 30 •장소 : 전국 주요 유적지 •참여인원 : 800 여명	군내 초등학교 대상 월1회 사적답사 및 영화감상 실시	
3	전통민속 사생대회	•기간 : 2004. 10. 4 •장소 : 백마강변 행사장 •참여인원 : 800 여명	제4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기념으로 군 내 초등학교 사생대회개최	
4	교사를 위한 문화유산순례강좌	•기간 : 2004. 12. 29~12.30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80여명	군내 초·중고 교사의 향토사 연구를 위 한 문화유적 현장 답사	
5	우리문화 우리민속 한 마 당	•기간 : 2004. 12. 21. •장소 : 부여군민회관 •참여인원 : 200명	동지 팔죽썰먹기, 떡만들기 등 각종세시 민속 재현	
6	문화현장 탐방교육	•기간 : 2004. 11. 4~12. 22 •장소 : 전국문화유적지 •참여인원 : 300명	문화원 회원의 교양증진을 위한 무안백 련축제, 파평 윤씨 모자 미라전, 짚풀생 활사박물관 등 답사	
7	제2회 궁남지 연 꽃 축 제	•일시 : 2004. 7. 23~7. 26 •장소 : 궁남지(사적135호) •참여인원 : 10만여명	연꽃과 궁남지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환 경 조성을 위하여 연꽃 전시회, 사생대 회, 짚풀 공예품 만들기 대회 등 개최	
8	제2회 홍산대첩 문 화 제	•기간 : 2004. 8. 6~8. 7 •장소 : 홍산 태봉산성 •참여인원 : 2,000여명	홍산지역의 전통문화 복원과 지역문화 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체험형 문화축 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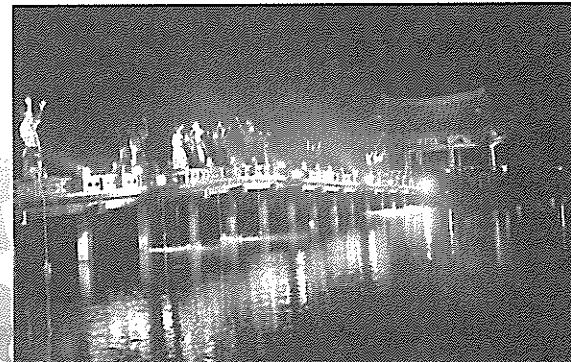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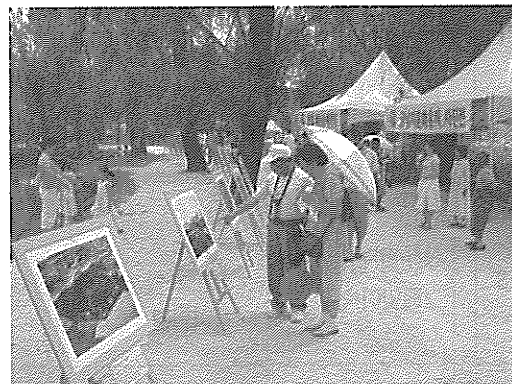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9	제50회 백제문화제	•기간 : 2004. 10. 8~10. 11 •장소 : 백마강 행사장 •참여인원 : 30만 여명	제50회 백제문화제 각종 체험프로그램 및 반세기전시전, 가마굽기 등 체험행사	
10	우리는 문화가족 운	•기간 : 2004. 3. 29~12. 30 •장소 : 전국문화유적지 •참여인원 : 250여명	가족단위 사적답사, 자연체험, 전통민속 놀이 등 문화체험 활동 전개	
11	시인 신동엽 추모백일장	•기간 : 2004. 11. 12. •장소 : 국립부여박물관 •참여인원 : 500 여명	우리고장 출신인 신동엽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도단위 청소년 대상 백 일장	
12	2004 문화학교	•일시 : 2003. 5. 11~12. 31 •장소 : 부여군민회관 •참여인원 : 150명	군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평생교육기 회 제공을 위한 한국화, 도예, 일본어, 한문 강좌 개설 운영	
13	제6회 성홍산 해맞이축제	•기간 : 2004. 1. 1. •장소 : 임천면 성홍산성 •참여인원 : 5,000명	새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군민화합을 도모하는 소원지 풍선날리기, 촛불기원 제, 국악공연 등 실시	
14	신 년 교 례 회	•기간 : 2004. 1. 2. •장소 : 청소년수련원 •참여인원 : 1,000여명	희망찬 새해를 맞아 군민의 화합과 단 결을 다짐하는 신년세배, 축하행사, 신 년교례회 명부등 발간	
15	청소년을위한 향토문화강좌	•기간 : 2004. 11. 8~11. 30 •장소 : 부여군내 초·중·고교 •참여인원 : 1,000여명	백제노래인 산유화가(충청남도 무형문화 재 제4호)를 군내 초·중·고등학생에 게 가르쳐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림	
16	관광정보센터운영	•기간 : 2003. 1. 1~12. 31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7,000여명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에게 관 광정보 제공, 유적지 현장설명 등 실시	

2004년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 제2회 홍산대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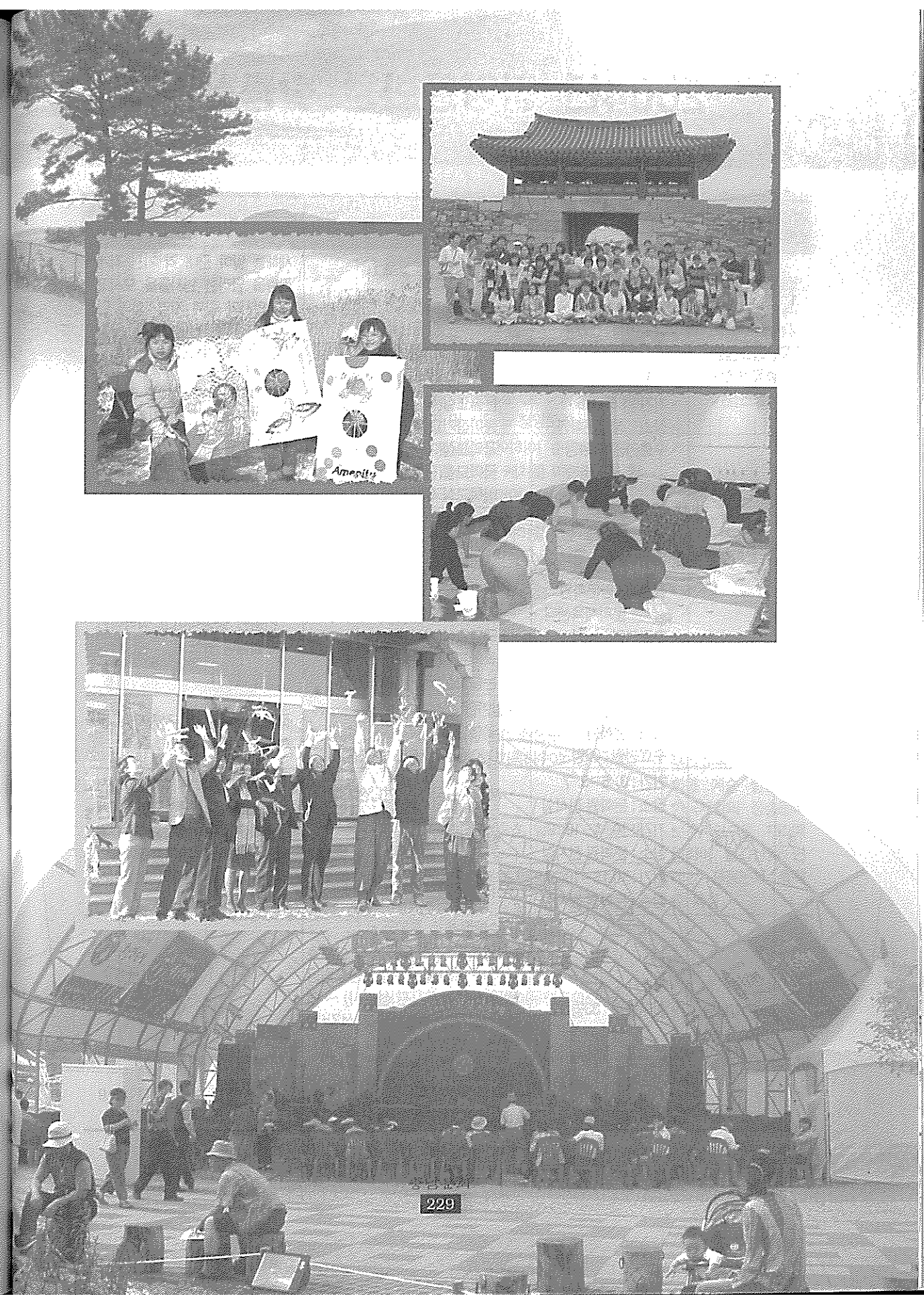


▼ 제2회 공남지역연꽃축제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천불천담의신화 유적지답사	- 일시: 2004.1.11(일) - 장소: 전남 화순 운주사,쌍봉사 - 참석인원: 45 명	운주사, 고인돌군, 쌍봉사등을 답사하며 옛 선인들의 삶과 애환등을 돌아보고자 함.	
2	친일파 작품전시	- 일시: 2004.1.13~17(5일간) - 장소: 서천군민회관전시실, 서천군청민원실 - 참석인원: 500여명	일제시대의 반인륜적 동조에 참가한 화가와 문인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 그들의 실태를 알리려 함.	
3	제6회 기벌포대보름제	- 일시: 2004.2.05 15:00~ - 장소: 신성리길대밭(한산) - 참석인원: 3,000여명	전통연날리기대회 작품및기술대회, 윷놀이, 굴렁쇠굴리기, 제기차기등을 펼쳐졌고 체험의 장으로는 투호 및 인절미 떡치기 등이 있었음.	
4	문화학교운영	- 일시: 2004.1월~6월 - 장소: 서천문화원 다목적실 - 참석인원: 70여명	생활영어, 일어회화, 꽃꽂이, 생활도에, 생활요가, 수채화교실(6과목)각각 10~20여명으로 문화학교를 운영함.	
5	청소년 문화유적 답사	- 일시: 2004.5.26 - 장소: 서산일대, 고건축건물등 - 참석인원: 70명	- 서천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학생문화유적답사를 시행함. - 해미읍성, 남은들상여, 마애삼존불상,보원사지, 남연군묘, 고건축박물관 등 일정으로 답사자료집에 의거 시행함.	
6	제2회 문화가족 유적답사	- 일시: 2004.6.24~25(1박2일) - 장소: 강원도 강릉일대 - 참석인원: 45명	강원도 강릉국제관광민속제 관람-전야제,개막식, 폐막식등 공연행사, 체험행사, 전시행사, 오죽헌, 시립박물관 관람, 해운정등의 일정으로 민속공연 및 유적지 답사를 실시함.	
7	찾아가는 미술관 및 이용철 개인전	- 일시: 2004.10.29~11.5(8일간) - 장소: 서천문화원 1층 - 참석인원: 1,000여명	김진설, 송화현, 문영, 조순희, 이정아, 신금상등 6분의 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예지도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8	사랑의 봉사단 인형극 공연	• 일시: 2004.10.29 오후1시 • 장소: 서천문화원 2층 강당 • 참석인원: 500여명	찾아가는 미술관과 함께 부대행사로 사랑의 문화봉사단에서 '삼년고개, 호랑이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을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9	먹물 퍼포먼스	• 일시: 2004.10.29. 오후3시 • 장소: 서천문화원 광장(진디밭) • 참석인원: 100여명	가원문화연구회 회장 김대현씨를 초청하여 먹물퍼포먼스로 찾아가는 미술관 및 이용철개인전 축하 부대행사로 이어져 또다른 즐거움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성과를 이룸.	
10	또랑강대 공연	• 일시: 2004.11. 05.오후2시~4시 • 장소: 서천군장항역 광장 • 참석인원: 300여명	장항은 현재 경제적 쇠락도 문제지만 그와 함께 찾아온 주민의 패배의식과 좌절감이 더욱 큰 문제이다. 장항에 문화적 활기를 불어넣음으로 주민들의 좌절감을 소리판이 지닌 신명으로 조금이나마 삭혀주고자 함.	
11	제4회 학생문화 유적지답사	• 일시: 2004.11.07.(일) • 장소: 문헌서원, 전북고창일대 • 참석인원: 40 명	서천군내 문헌서원을 비롯해 전북 고창의 고창읍성, 고창고인돌, 선운사등의 문화유산인 역사유적지 답사를 통하여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이해하고 미술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마음을 일깨워 줌	
12	제31회 청소년 문예백일장대회	• 일시: 2004.11월 말경 • 장소: 서천문화원 • 참석인원: 360여명	서천군내 초,중,고 학생들의 글짓기종목을 통하여 자기소질개발과 능력발휘를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열어 등급별로 심사하여 상장과 상품을 수여함.	
13	제4회 기벌포예술제	• 일시: 2004.11.20~23(4일간) • 장소: 서천군민회관 1층 • 참석인원: 3,000여명	서천문화예술단체들의 공모를 받아 서천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전시행사, 공연행사, 발표회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예술제를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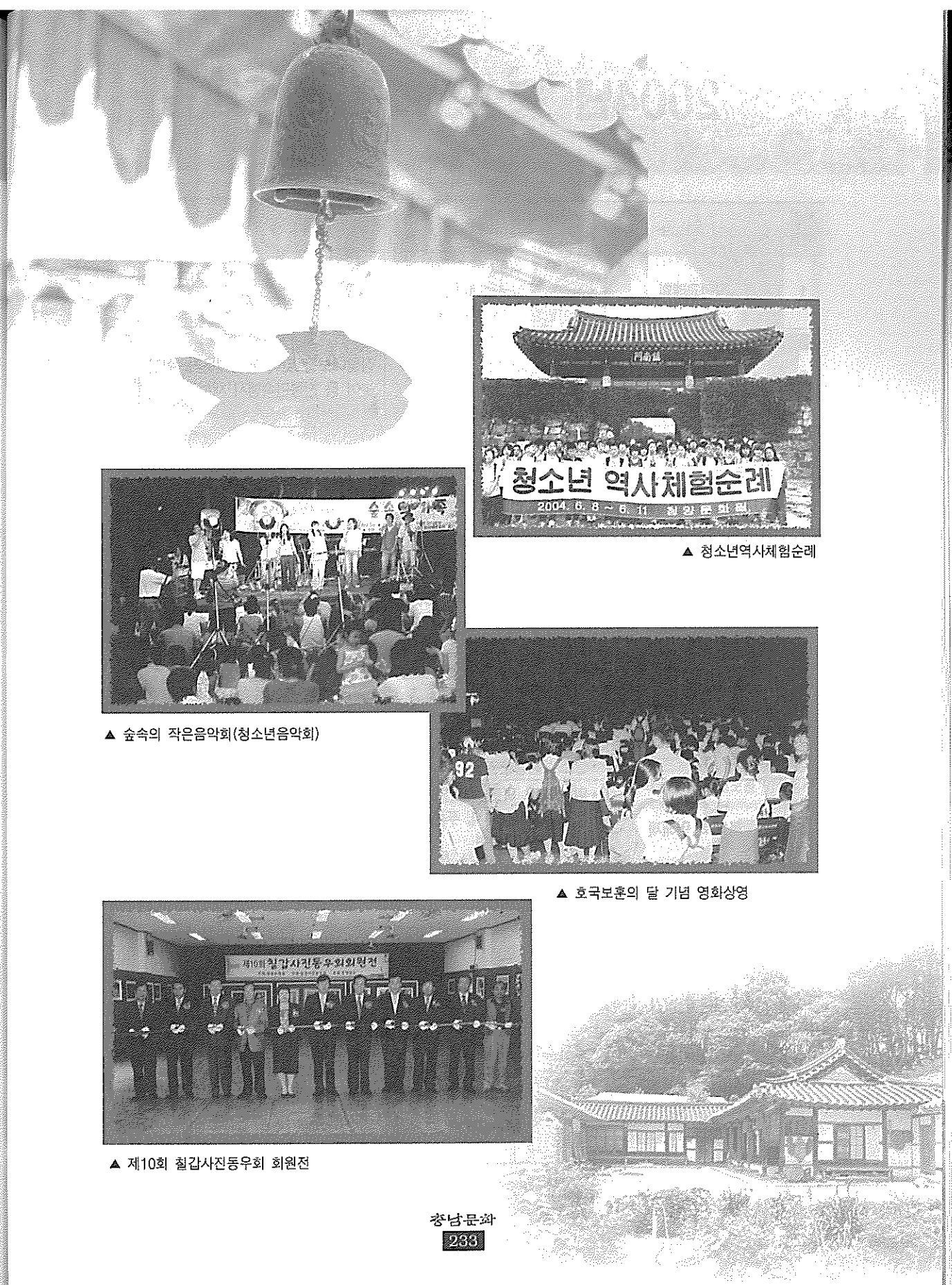


2004년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2004 신년 교례회	• 일시: 1.2. 오후2시 • 장소: 청양군 문화체육센터 • 참석인원: 250명	• 신년사 • 축하 • 상호교례 • 풍물패공연 • 다과	새해를 맞아 군내 각 기관 각계 각층을 망라한 인사들을 모시고 새해인사와 함께 지역사회의 단 결을 다짐하는 신년하례식
2	문화학교	• 기간: 1.5~2.6 • 장소: 청양문화원 • 수료인원: 154명	• 동계청소년문화학교 - 사랑의수화교실(초급·중급) - 논술교실(독서) - 종이접기교실 - 국악교실(가야금) - 국악교실(단소) - 바둑교실 (계6강좌)	• 문화적 기반시설이 미약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 학기간중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함으로 청소년들이 건전 하고 유익한 방학을 보낼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문화체 험의 장 마련
		• 기간: 7. 19~8. 16 • 장소: 청양문화원 문화체육센터 • 수료인원: 98명	• 하계청소년문화학교 - 영어동화교실(초급·중급) - 사랑의수화교실(초급·중급) - 보호흡제교실(초급·중급) - 종이접기교실 - 국악교실(가야금) - 국악교실(단소) - 논술교실(독서) (계7강좌)	• 수료식때 강좌별 발표회 시 간을 가져 문화학교 수업기 간동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업참여 유도
		• 기간: 연중 • 장소: 문화원 • 수료인원: 30명	• 일반인 문화학교 - 국악교실 (가야금,장구,민요,시조창)	국악교실 수강생 각종지역 문 화축제에 참여
3	전시회	• 기간: 3. 6~3. 7 • 장소: 문화원 전시실	• 제1회 한국출판 연합전시회	지역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 을 도모함은 물론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 지역출신예술인 의 애향심 및 창작의식 고취시 키고자함
		• 기간: 10. 1~10. 2 • 장소: 문화원 전시실	• 향토작가 서화전	
		• 기간: 10.18~10.20 • 장소: 문화원 전시실	• 사진전시회	
4	문화회원 유적지 순례	제1차 • 기간: 4. 1 • 참여인원: 33명	• 순례장소 청양출발 → 고창읍성 → 신재호 생가 → 고인돌군 → 선운산도립공 원(향토유물전시관.선운사) → 인 촌선생(김성수)생가 → 채석강(부 안군) → 청양도착	
		제2차 • 기간: 10. 20 • 참여인원: 28명	• 순례장소 담양소재 문화유적지 (가시문학관,송강정,죽녹원,금성산성등)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5	청 소 년 역사체험 순례	• 1차: 6. 8 (75명) • 2차: 6.11 (115명)	• 충남권 문화유적지 및 현충(충의)시설 순 례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민족정기선양과 호국 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 순례장소 청양출발 → 홍주의사충 → 충의사 → 해미읍 성 → 김좌진장군생가 및 기념관 → 한용운 선생 생가 및 사당 → 청양도착	• 1차: 목면초등학교 정산초등학교 • 2차: 운곡초등학교 광암초등학교 수정초등학교 가남초등학교
6	애향운동 영화상영	• 일시: 6. 25 • 장소: 문화체육센터 • 참석인원: 1400여명	• 호국보훈의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 및 호 국영령을 추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7	청소년 음악회	• 일시: 7. 31 • 장소: 칠갑산 자연휴양림 • 참석인원: 200여명	청소년들의 건전한 취미활동인 음악을 통 해 바른 심성을 배양하고 정서를 함양시키 고자 함.	
8	칠갑산 장승문화 축제	• 일시: 9.5 10:30~16:30 • 장소: 칠갑산 장승공원일원 • 참석인원: 5000여명	• 개막식 • 칠갑산장승대제 • 장승깎기시연 및 솟대제작 • 창작장승전시 • 장승제시연 • 장승명문식 • 가족장승깎기 • 장승퍼포먼스(장승도, 장승무) • 학생그리기대회 및 가족하수이비창작공모전 • 짚공예체험 • 돌탑쌓기체험 • 전통민속놀이체험(투호, 널뛰기, 그네뛰기) • 소원성취 기원문 달기 • 국악공연(청무풍물패, 농악대) • 미당극공연(박수) • 공예품 전시.판매 • 먹거리장터(무료시식코너) • 청양의 맛 먹거리 체험 • 청양구기자주 제조체험(무형문화재) • 춘포짜기체험(무형문화재) • 추억 사진찍기	우리 고유의 전통문 화를 계승 발전시켜 한국제일의 장승문화 보존지역으로 자리매 김하여 칠갑산을 연 계한 관광문화 축제 로 육성
9	문화가족 작 품 발 표 회	• 일시: 11.18~11.19 • 장소: 문화원 전시실	문화학교 수강생(민요,가야금,종이접기등)작품 전시 및 발표회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0	문화가족 씨클운영	제1차 •기간: 7.13 •참여인원: 16명	•조사활동 장소 청양출발 → 공주연극박물관 → 교육박물관 → 국립박물관 → 성곡사 → 청양도착	향토사연구위원 조사활동
		제2차 •기간: 10.21 •참여인원: 15명	•조사활동 장소 청양출발 → 금산칠백의총 → 대산철강 → 보석사 → 영규대사기념비 → 아은길재선 생유적지 → 쌍계사 → 가야곡(성삼문선 생묘) → 부여박물관 → 청양도착	향토사연구위원 조사활동
11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일시: 11.~ (총4회) •참여인원: 160명	선운사, 고창읍성, 인촌선생생가, 금성산성, 가시문학관 등 유적지를 관람하며 문화적 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문화체험의 계기를 마련.	
12	해외문화 탐방	•기간: 11.7~11.12	해외문화탐방을 통해 새로운 문화의식 을 제고하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이루고자 도내문화원장 중국방문 연수교육	
13	문화의밤	•일시: 11.17	시낭송, 음악등을 통해 지역민에게 문화 체험의 계기마련	
14	고유민속 예술발굴 전송	•일시: 11.21	•제2회 청양군 바둑대회 우리고유의 민속놀이를 재현하여, 동호 인들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계기마련	
15	내 고 장 문화역사 인물발굴 홍보사업	•일시: 11.	우리고장의 문화역사인물을 발굴, 홍보하 여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	
16	발간사업	•발행부수: 각1,000부 •발행일: 11,12월	•내고장문화유산 교육자료발간 •향토민속발굴 •칠갑문화 14호	•금기어 모음집 •청양의 민요
17	문화코너 운영	•기간: 연중	•자료열람실 (전국향토사료집 및 일반도서)운영 •영화감상교실 운영	영화 및 음악감상을 통한 청소년들의 취 미생활과 정서교육 에 기여
18	사이버 문화원 운영	•일시: 연중 •홈페이지 주소: cheongyang.cult21.or.kr	•각종 지역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지역문화 및 지역 정보센터로 운영함.	



▲ 청소년역사체험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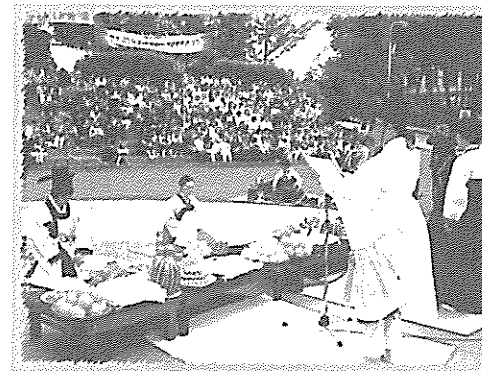
▲ 숲속의 작은음악회(청소년음악회)

▲ 호국보훈의 달 기념 영화상영

▲ 제10회 칠갑사진동우회 회원전

2004년 흥성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신년교례회	• 일시 : 1. 3(토) • 장소 : 흥성군청대강당 • 참석인원 : 200여명	신년을 맞아 군내 각급 기관·단체장들간의 상호인사	
2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 일시 : 2. 4(수) • 장소 : 흥성군청, 흥주의사총 옆 논 • 참석인원 : 800여명	정월대보름 맞이 달집태우기, 쥐불 놀이 등 전통민속행사 재현	
3	주민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문화원	• 일시 : 1월~12월 • 장소 : 흥성군일원 • 참석인원 : 108명	각 마을, 학교, 기관단체를 찾아가 주민을 대상으로 흥성의 문화유적 지 등을 설명	
4	전통관례 및 계례 재현	• 일시 : 5. 17(월) • 장소 : 해전대학 노천극장 • 참석인원 : 700여명	성년자를 대상으로 전통관례 및 계례 재현	
5	가족과 함께 하는 거리영화제	• 일시 : 6. 5(토) • 장소 : 푸른심터 • 참석인원 : 3,500여명	아원에서 대형스크린을 설치하여 영화감상 및 토론	
6	평생교육 내고장역사교실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흥성군일원 • 참석인원 : 95명	군민들에게 흥성의 유적지 탐방	
7	문화체험 프로그램	• 일시 : 9월~12월 • 장소 : 흥성군일원	흥성군 거주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체험프로그램 제공	
8	제10회 만해제	• 일시 : 10. 9(토)~10(일) • 장소 : 만해생가지, 푸른심터, 흥성군일원 • 참석인원 : 4,000여명	만해한용운선사의 추모 및 행사와 각종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이 자유 롭게 참여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마당' 잔치	
9	제4회 지역문화축제 '한우리'	• 일시 : 10. 10(일) • 장소 : 푸른심터 • 참석인원 : 700여명	만해한용운선사의 추모 및 행사와 각종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이 자유 롭게 참여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마당' 잔치	
10	흥성문화 발간	• 일시 : 년 중	흥성의 문화소식 및 주민의 삶을 전하는 책자 발간	
11	신록속의 흥성	• 일시 : 1월 ~ 12월	신록속의 흥성을 찾아 자료 발간	
12	대흥산 주변의 민속	• 일시 : 1월 ~ 12월	대흥산주변 민속 조사	
13	흥주향토문화 발간	• 일시 : 1월 ~ 12월	흥성의 향토문화에 관련된 내용을 책자로 발간	



▲ 전통관례 및 계례 재현



▲ 제10회 만해제



▲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 제4회 지역문화축제 '한우리'



▲ 가족과 함께 하는 거리영화제



▲ 주민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문화원

2004년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갑신년 신년교례회	• 일시 : 1월 3일 11시 • 장소 : 예산군청회의실 • 참석인원 : 150여명	예산군내 기관단체장 및 임직원과 지역인사 신년 인사회	
2	조곡리 산신제	• 일시 : 1월 28일 18시 • 장소 : 예산군 신암면 • 참석인원 : 80여명	민속행사로서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에서 민행사로 시행	
3	문화학교 개강	• 일시 : 2월 2일 10시 • 장소 : 예산문화원 2, 3층 • 참석인원 : 120명	한국화, 한학, 서예(2개반), 문인화 문화학교 연중 강좌시행	
4	대보름 민속놀이	• 일시 : 2월 5일 10시 • 장소 : 3층 다목적실 • 참석인원 : 100여명	민속오락인 윷놀이 대회를 문화원 각 단체대항으로 경연함	
5	은혜의 집을 위한 자선음악회	• 일시 : 4월 29일 10시 • 장소 : 3층 다목적실 • 참석인원 : 150명	기독교 가족 「은혜의 집」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함	
6	전국시조경창대회	• 일시 : 6월 1일 10시 • 장소 : 소강당 • 참석인원 : 120명	예산문화원 문화단체인 예산내포제 시우회 주관으로 「전국시조경창대회」를 시행함	
7	민족가족 유적지순례	• 일시 : 6월 5일 11시 • 장소 : 공주박물관 일원 • 참석인원 : 60명	문화원 회원 역사탐방으로 시행함	
8	의좋은 형제 학생연극경연	• 일시 : 6월 26일 17시 • 장소 : 소강당 • 참석인원 : 180여명	예산군내 각 중·고등학교 연극반 대항으로 연극을 강연함	
9	예산문화 제37집 간행	• 일시 : 6월 30일 • 장소 : 사무국 • 참석인원 : 15명	예산문화원 기관지로서 향토문화 보존자료를 수집 간행함	
10	대흥효녀원홍장전 간행	• 일시 : 6월 30일 • 장소 : 사무국 • 참석인원 : 20명	예산이 낳은 효녀 원홍장을 효녀 심청의 원형으로 고찰하여 책지를 간행함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1	문화가족 명절축제	• 일시 : 9월 30일 10시 • 장소 : 3층 다목적실 • 참석인원 : 80명	팔월 한가위 명절 축제로서 시행함	
12	제8회 학생풍물거루기	• 일시 : 10월 9일 • 장소 : 예산중앙초등학교 • 참석인원 : 150명	조선중기 이후 거행된 전통혼례로 민속행사로서 실행함	
13	전통혼례재연	• 일시 : 10월 9일 10시 • 장소 : 야외공연장 • 참석인원 : 150명	조선중기 이후 거행된 전통혼례를 민속행사로서 실행함	
14	읍면대항노래자랑	• 일시 : 10월 9일 18시 • 장소 : 예산문화원광장 • 참석인원 : 800명	제8회 추시문화제의 일환으로 경연함	
15	예산열린분우회 분재전시회	• 일시 : 10월 10일 11시 • 장소 : 추사고택 • 참석인원 : 300명	예산문화원 단체회원의 분재를 일괄 전시함	
16	제5회 학생서예대회	• 일시 : 10월 10일 11시 • 장소 : 추사선생 유적지 • 참석인원 : 120명	예산군내 초·중·고등학생의 서예대회를 예산이 낳은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행사로 시행함	
17	제5회 학생글짓기대회	• 일시 : 10월 10일 10시 • 장소 : 화순옹주 유적지 • 참석인원 : 150명	충·호·예의 정신을 함양하는 예산군 초·중·고등학생 대회로 시행함	
18	전통공예전시회	• 일시 : 10월 10일 11시 • 장소 : 추사선생 유적지 • 참석인원 : 300여명	예산문화원 전통공예회의 공예품을 전시함	
19	제15회 추사선생 추모 전국서예백일장	• 일시 : 10월 10일 11시 • 장소 : 추사고택 앞 • 참석인원 : 180명	전국 서예인의 휘호대회를 유서 깊은 추사고택의 특설무대에서 시행함	
20	제13대 원장 취임	• 일시 : 11월 5일 11시 • 장소 : 소강당 • 참석인원 : 420명	예산문화원 제13대 이진자 원장의 취임식을 거행함	

제13대 이진자 원장 취임식

2004년 11월 5일

예산문화원



이진자 원장 경력 및 경력

- 1958년 예산출생
- 1977년 예산고등학교 졸업
- 1981년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 2000년 홍익대학교 대학원(미술교육)졸업
- 1981~91년까지 대흥중·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91년 아트진미술학원 설립
- 1999년~2001년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장
- 2001년~2004년 예산문화원 부원장
- 2001년~충청남도예산교육청 행정지원위원
- 2001년~2002년 국제로터리 3620지구
능금로터리클럽 회장
- 1999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2002년~예산군 정책자문위원
- 2004년 에당호조각공원 추진위원
추시기념관 건립 추진위원
한국미술협회 기획정책위원
한국조각가협회, 한국구상조각회 회원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출강

주요수상 경력

- 1991년 국민교육 유공 교원표창(교육부장관)
- 1999년 충남미술대전 조각 부문 대상 수상(도지사)
- 2001년 평생교육 유공 표창-충청남도 교육감
- 2001년 충남문화예술상 수상-도지사

작품활동 경력

- 1982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구상조각회전
(서울미술회관)
- 1991년 벽제문화 야외 조각공원 초대전(경기도 고양시)
- 1991년 모인갤러리 개관 기념 초대전(서울)
- 1992년 제주 조각공원 신천지 미술관 초대전(제주도)
- 2000년 윤봉길의사 어록탑 제작(충의사)
- 2002년 이태규박사 흉상 제작(예산초등학교)
- 2002년 문화가족상 제작(예산문화원)
- 2002년 월드컵 특별기획전(예술의 전당)
- 2002년 인시아트폴라자 갤러리 초대전(서울 인사동)
- 2003년 한국전쟁 참전 용사비 제작
(미국 텍사스주 킬린시)
- 2004년 4H 상징 기념탑 제작(농업 테크노파크)
- 2004년 에당호 조각공원 「화합으로」 제작
- 2004년 「정보문화의 동산」 의상 제작(천안학생회관)
- 2004년 향토작가회의 민남전 (예산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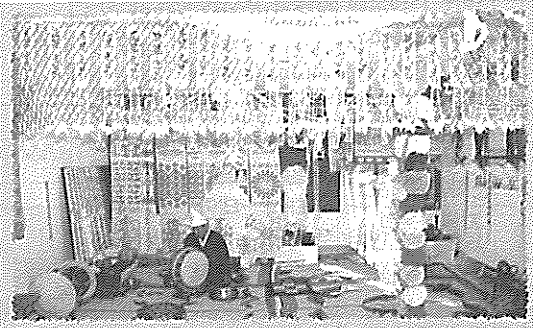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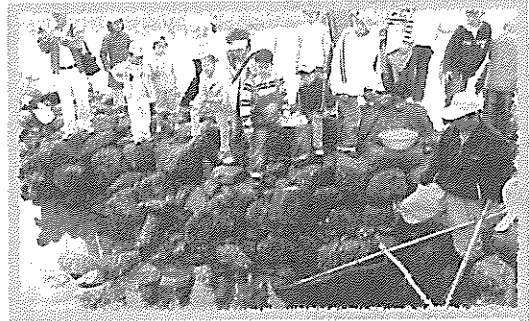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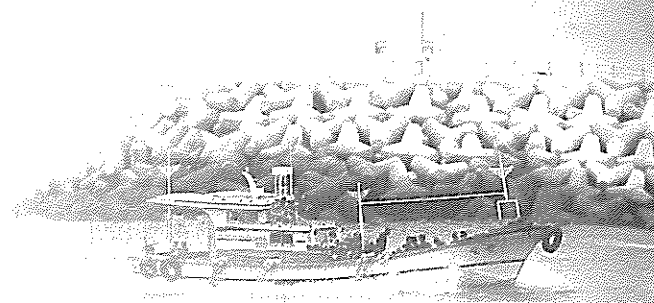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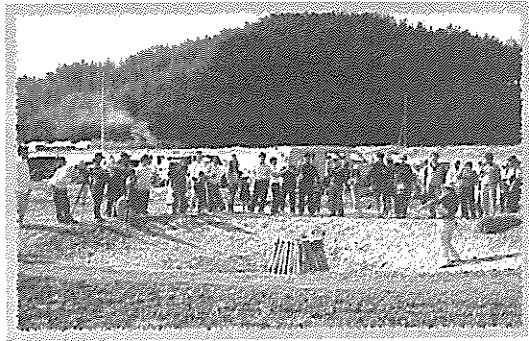
2004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중앙대제	· 일시 : 2.4.(음1.14) 19:00 · 장소 : 경이정 · 참석인원 : 각급기관단체장, 주민100여명	태안의 전통문화로 태안군 각급 기관장 및 지역주민들이 모여 국태민안 시화연중 등을 지원하는 대제	
2	이원면 벗가릿대놀이	· 일시 : 2.20.(음 2. 1) · 장소 : 이원면 관리마을회관 · 참석인원 : 인근 기관단체장 마을주민 100여명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의 하나로 정월 보름 전날에 긴 장대를 마당 한복판에 세 우고 새끼줄을 꼬아 세갈래로 지지해서 세워두었다가 머슴의날인 음 2월 1일에 벗가릿대를 뉘인다. 이때 장대끝에 매달 아 두었던 곡식을 가지고 한해의 풍·흉 을 점치는 의식으로 한해의 풍년을 기원 하는 민속행사	
3	문화유적답사	· 일시 : 6.22~26(5일) · 장소 : 중국 · 참여대상 : 임원, 문화가족 자·고문위원	향토문화 유적답사를 통해 지역에 따른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넓은 견문으로 지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함	
4	문화가족체협단	· 일시 : 7. 30(독살) 9. 5(야생화탐사) 10. 3(독살)	독살체험, 야생화탐사 독살등의 프로그램 을 통하여 문화체험을 통해 가족간의 협 동과 사랑을 확인할수 있도록함	
5	향토민속 도서관 운영	· 일시 : 연중 · 장소 : 문화원 · 참석인원 : 10명	수집된 도서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서관 을 조성하여 향토유물전시관과 함께 전국 의 지역문화자료를 언제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문화관련 전문도서관을 운영하 며 지역의 각종문헌을 수집하여 제본으로 보관한다.	
6	태안문화원 초대전	· 일시 : 11.20 ~ 11. 26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전시장 · 전시작품수 : 50점	샘골스케치회, 예술태안회, 이목회, 태안사 진동우회,태안중등미술교육연구회,태안초등 미술교과교육연구회,연목회등 태안관내 예 술단체참여, 지역문화예술인들의 교류 및 유대강화	
7	당제및민속행사지원	· 일시 : 11월 ~12월 · 대상 : 남면 당암리, 원청리, 소원면 파도리, 고남면 누동 리, 근흥면 신진도리	지역에서 전래되어 오던 당제를 전승할수 있도록 지원함. 태안지역의 현재까지 명맥 을 이어오고 있는 지역의 당제행사를 계승 지원하여 그 맥을 이어 갈수 있도록 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8	청소년문화 체험캠프	• 일시 : 8.13 ~ 8.15 • 장소 : 태안중학교 • 대상 : 태안지역청소년 200명	연극반, 문예창작, 종합공연, 판토마임공 연등 다양한 청소년 교육문화활동 등과 같이 다양한 청소년 교육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한다.	
9	주말영화교실	• 일시 : 5. 8~9. 26 (매주토요일) 오후3시 • 장소 : 문화원 • 대상 : 태안군민, 학생	다양한 문화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 여 문화원 강당을 이용하여 매주 토요일 마다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에 대한 이해 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매주 자료를 발행하고 영화에 대한 토론을 할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조성함	
10	제13회 소성백일장	• 대상 : 초·중·고학생 • 참가인원 : 299명중 218명입상 20개학교	태안문화원 계속 사업으로 태안군의 학생 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생활문화를 주제로 지역문화와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자연과 생활문화를 주제로 시와 산문을 학교별로 접수하여 심사함	
11	초·중·고 미술실기대회	• 일시 : 10.19(화) 14:00 • 장소 : 여고교정 • 참석인원 : 270명	학생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풍경, 경험화등 사상대회를실 시함	
12	고남면 조개부르기제	• 일시 : 11. 9 • 장소 : 고남면 누동리 바닷가 • 참석인원 : 마을 주민 100명	누동리 1구 대동회를 중심으로 마을의 안 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민속행사로 제단을 리기, 축문읽기, 조개부르기 한마당의 순 으로 진행된다.	
13	면지발간(남면)	• 일시 : 연중 • 참석인원 : 50명 • 발간부수 : 1,000부 • 대 상 : 남면,	태안지역의 소단위 지역문화를 활성화하 기 위하여 군내 8개 법정읍·면중 기초자 료 수집능력과 자체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면을 선정하여 면지를 발간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14	지역문화학교	• 일시 : 4. 3~11. 6/ 19:00 • 장소 : 문화원 • 참가인원 : 170명	• 프로그램 민요교실:4~10월 사물놀이:4~10월 사진교실:4~6월 수채화:4~6월 요 가:4~10월(오전반 아간 월·목요일) 전통무용:4~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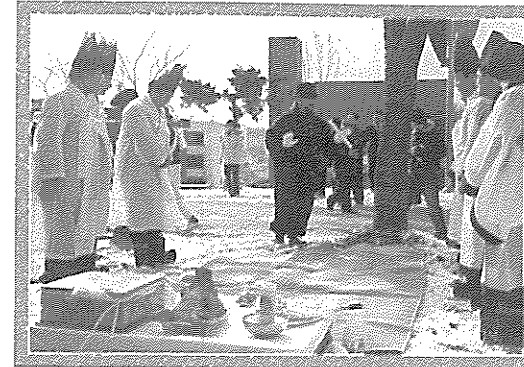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5	태안군 문화예술인워크샵	• 일시 : 11월 20일 • 장소 : 문예수화관 소강당	지역문화예술인 현황과 활동시례발표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관람, 지역문화예술발전 을 위한 토론, 지역문화예술정책과 방향에 대한 강연, 친교의 시간등을 실시	
16	사이버문화원	• 일시 : 1월 ~12월 • 장소 : 문화원 홈페이지관리	향토민속문화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다양 한 지역문화정보를 사이버상에서 신속하게 제공하여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함	
17	문화예술홍보 지원단운영	• 일시 : 1월 ~ 12월 • 대상 : 태안군 8개읍면 상가 및 기관단체	문화행사를 우편으로 홍보하고 지역문화행 사와 각종 문화예술 정보를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8개읍·면에 문화예술 홍 보지원단을 운영하며 문화예술 단체의 홍 보부담을 덜어줌	
18	소성의향기 10집	• 일시 : 12.31 • 발간부수 : 1,000부 • 배부처 : 문화가족, 전국문화원, 군내 각기관 및 단체	문예작품, 향토문화, 특별기고, 각종 문화 예술계소식, 문학작품, 우리고장 문화소식 등을 수록한 책자발간	
19	움직이는 문화공연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태안군일원(5회실시) • 대상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회관등	비교적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지 역의 복지원, 경로당,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문화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최 대한 활용하여 순회공연을 실시함.	
20	설위설경영상제작	• 일시 : 2월~12월 • 내용 : 영상자료 500매	지역의무형문화재인 설위설경을 영상화하 여 기록자료로 보존하고 영상물을 널리보 급하여 지역의 민속문화교육자료로 활용하 기 위함.	
21	지염축제	• 일시 : 지염축제/ 10월 10일 • 장소 : 근흥면(남금마을) • 참석인원 : 1,000명	소금과 관련된 전시장, 체험학습장, 소금축 제, 종합갯벌 체험마을을 조성함	
22	시목리 고인돌 복원	• 일시 : 12월중 • 장소 : 시목리-문화원 • 참석인원 : 50여명	현재 발견된 시목리 고인돌이 농로의 다리 로 이용되고 있어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고인돌을 이전하여 복원시킴	

2004년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대보름 맞이 민속행사	• 일시 : 2004. 2. 5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 300명	줄다리기 · 투호 · 널뛰기등의 민속놀이를 재현하여 주민의 화합의 장 마련	
2	기지사줄다리기 심포지움	• 일시 : 2004. 4. 3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 120명	기지사줄다리기의 학술적 체계를 세울 수 있는 세미나 개최와 더불어 일본의 가리야노 줄다리기와 교류를 통한 한·일 문화교류의 계기 마련	
3	KBS교향악단 초청 공연	• 일시 : 2004. 5. 19 • 장소 : 신성대학교 • 참여인원 : 2,000명	지역민들에게 우수한 연주문화를 관람함으로써 문화인들의 화합을 유도함.	
4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울공주평강이야기	• 일시 : 2004. 7. 21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 200명	어떠한 기계음이나 전자음이 아닌 순수한 사람의 목소리와 움직임으로 만든 언플러그드 뮤지컬 공연	
5	남이흥장군문화제 학생백일장	• 일시 : 2004. 9.10 • 장소 : 충장사 • 참여인원 : 1,000명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남이흥장군의 살신위국정신과 희생정신을 본받고자 백일장 실시	
6	향토문화유적답사	• 일시 : 4, 6, 10, 11월 • 장소 : 평창, 단양, 청원 • 참여인원 : 각40명	연 4회에 걸쳐 타 지역의 문화유적을 답사하여 지역문화의 발전 방향을 모색 함	
7	복권기금 1차 문화체험 프로그램	• 일시 : 2004.10.19 • 대상 : 저소득층 주민 • 참여인원 : 160명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유적과 자연환경을 답사함	
8	복권기금 2차 문화체험 프로그램	• 일시 : 11월중 • 장소 : 저소득층 학생 • 참여인원 : 120명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당진관내 문화유적을 답사하고 각종 체험학습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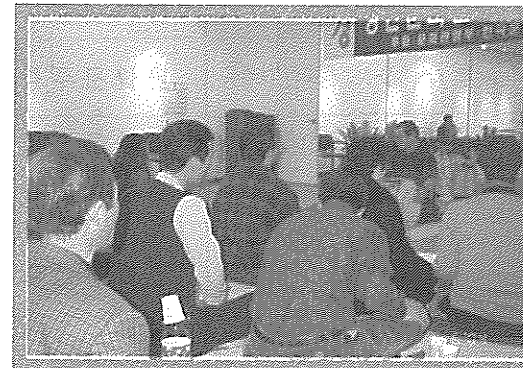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9	찾아가는 문화활동 음악소풍 공연	• 일시 : 2004. 10. 27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 200명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음악소풍이라는 주제로 감동적인 클래식 선율을 선사하였음	
10	찾아가는 문화활동 패즈와 국악 공연	• 일시 : 2004. 11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 200명	드럼, 기타, 베이스, 건반으로 구성된 일렉트릭과 가야금, 해금, 장고로 구성된 전통국악기의 절묘한 조화의 실험적인 음악을 선보임	
11	당진의 옛 지도 발간	• 일시 : 11월중 • 발행부수 : 500부	당진군 정군 100주년을 기념하여 발행하였던 당진의 옛지도를 재 발행하였음	
12	당진인 시집 발간	• 기간 : 12월중 • 발행부수 : 1,500부	당진에서 활동하였던 시인들의 작품과 현재 활동중인 시인의 작품을 수록한 시 모음집 발간	
13	당진문화 22호 발간	• 기간 : 12월중 • 발행부수 : 1,500부	당진의 문화소식 및 활동소식을 수록하여 발간	
14	문화학교	• 기간 : 연중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 약1200명	가요교실, 민요반, 스포츠댄스, 쿼트, 종이접기, 일본어, 다도교실, 미술반, 노인건강교실 등을 운영	
15	사이버문화원	• 기간 : 연중 • 주소 : djcc.or.kr	사이버 상에서 다양한 지역문화정보를 제공 함	



▲ 장승제



▲ 한·일 민속줄다리기 심포지움



▲ 문화학교 민요반



▲ KBS 교향악단 초청공연



▲ 문화유적 답사



편집위원

- 천안문화원장 (민병달)
- 아우내문화원장 (조성민)
- 성환문화원장 (송용삼)
- 공주문화원장 (정재욱)
- 대천문화원장 (윤병배)
- 온양문화원장 (박노을)
- 서산문화원장 (신상찬)
- 논산문화원장 (박응진)
- 금산문화원장 (신정교)
- 조치원문화원장 (장영)
- 부여문화원장 (장영석)
- 서천문화원장 (양수철)
- 청양문화원장 (정재권)
- 홍성문화원장 (이하영)
- 예산문화원장 (이진자)
- 태안문화원장 (정우영)
- 당진문화원장 (정정희)

• 편집 장정 / 이정우

교정 / 이명렬

디자인 / 임미영 · 손정숙

충남도내 문화원 현황

(2004. 12월 현재)

문화원명	소재지	설립일	원사 면적 (평)	문화가족			전화번호
				원장	사무국장	직원	
전국문연회 충남도지회	천안문화원 내			회장 민병달	사무국장 이정우	간사 이은미	576-3004
천안문화원	천안시 성정동 694-9	54. 7. 10	800	민병달	이정우	이은미 정종현 최강덕 양혜정 민근홍	575-3004
아우내문화원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172	58. 4. 20	161	조성민	조동준	정종희	564-1022
성환문화원	성환읍 성환리 449-66	68. 1. 25	84	송용삼	신광식	김정선	581-2101
공주문화원	공주시 반죽동 184-2	54. 12. 16	653	정재욱	현대수	류재열 최선미	852-9005
대천문화원	보령시 동대동 983-16	62. 2. 4	309	윤병배	오종화	임정희	934-3061
온양문화원	아산시 온천동 206-24	64. 11. 24	285	박노을	장기승	조병준	545-2222
서산문화원	서산시 읍내동 516	57. 6. 15	570	신상찬	한기홍	김영철 김기영 안지현	669-5050
논산문화원	논산시 내동 279-4	57. 11. 14	105	박응진	류제협	이준창 전현희	732-2395
금산문화원	금성면 양전리 68 금산다락원	68. 3. 5	138	신정교	안용산	석현숙	754-2724
조치원문화원	조치원읍 교리 21-1	64. 10. 14	90	장영	이원재	길말숙 이진세 김혜자	865-2411
부여문화원	부여읍 동남리 722	54. 4. 1	145	장영석	김인권	이미영	835-3318
서천문화원	서천읍 군사리 176-2	65. 1. 26	301	양수철	이경진	최신희	953-0123
청양문화원	청양읍 읍내리 202-5	65. 2. 11	286	정재권	임두순	복은주 차승원	943-4774
홍성문화원	홍성읍 오관리 412-13	54. 1. 26	150	이하영	김경식	한경원 서정일	632-3613
예산문화원	예산읍 대화리 247-11	55. 10. 15	340	이진자	김문희	김찬민 이향옥	335-2441
태안문화원	태안읍 남문리 53-11	90. 9. 15	250	정우영	정지수	이연숙	674-2192
당진문화원	당진읍 읍내리 529-9	58. 3. 5	380	정정희	이문호	김현정	354-2367

함께 누리는 문화세상!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세상엔 제 색깔을 스스로 내지도 못한채
문화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원래의 색을 내고 그 색깔에
빛을 더하는 문화세상,
모든 이가 함께 누리는 문화이기에
생각만으로도 힘이 되는 가족처럼
따뜻한 문화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참다운 문화세상!
충남의 문화원들이 펼쳐 가겠습니다.

전국문화원연합회충청남도지회는 이런일을 합니다.

· 충남 지역내의 지방문화원 간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 문화원 회원의 교육 및 친목도모사업 · 충남지역문화발전을 위한 필요한 부대사업 · 도내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 협력 및 정보교류 · 도민문화향수권 시장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